책을 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력사적인물들에 대하여 다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애국주의가 생기고 민족적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세계에는 자기 민족고유의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크고작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조선민족처럼 인류의 발생기부터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자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그런 민족은 드물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였으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였다. 그리고 례절이 밝고 겸손한 품성을 지니고 백두대산줄기로 잇닿은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왔다.

조선인민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침략자들과도 용감히 맞서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명예를 견결히 고수하였으며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찾기 위한 반동적통치배들과의 대중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이와 함께 일찌기 인류문명의 려명기부터 자기의 근면한 창조적로동과 지혜로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 자랑찬 전통을 이룩함으로써 인류의 과학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민족자존의 정신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구한 민족사와 더불어 배출된 력대의 명장들과 명인들에 대하여서도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잘 알려줄데 대하여 여러차례의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선력사인물》의 제2권에서는 제1권에 이어 리조의 건립으로부터 임진조국전쟁을 전후한 시기까지의 명장들과 그밖의 명인

들을 주었다.

특히 리순신, 곽재우, 김응서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대의 력사흐름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부 부정적 인물들도 취급하였다.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김일성**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나갈 결심을 새롭게 가다듬기 바란다.

편 집 부

차　　례

고려왕권을 탈취한 리성계

리성계는 오늘 기어이 호랑이를 잡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살고있는 이웃마을에 밤마다 호랑이가 나와서 아이들을 물어가고 가축들을 잡아가며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 아우성인것이다.

이통에 호랑이를 잡아 솜씨를 보이고싶었다.

소년 리성계는 아침일찍 산으로 올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놈을 잡아야지.》

온종일 산속을 누비였지만 호랑이는 어디에 갔는지 나타나지 않았다. 아침을 몇술 뜨지 않았더니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연방 나는데 호랑이를 못잡았으니 그냥 내려가기도 멋한 노릇이다.

그런데 갑자기 등뒤에서 무서운 짐승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돌아서니 보기에도 무서운 호랑이가 앞발을 버티고있는것이였다.

리성계는 날래게 활을 뽑아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당장 땅을 차며 달려들려던 호랑이의 정수리에 박혔다.

《으흐흥!-》

호랑이는 앞발을 들고 몸을 비틀며 무서운 기상으로 뢰성을 지르더니 땅에 털썩 쓰러졌다.

리성계의 몸은 온통 땀에 젖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점차 이상야릇한 엷은 미소가 피여올랐다.

그리고 어깨까지 으쓱해졌다.

이렇게 리성계는 호랑이를 잡은 소년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다.

리성계는 화령(금야)에서 원나라의 쌍성총관부 천호로 있던 리자춘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원본은 전라도 전주이다. 그의 고조할아버지 리안사는 전주에서 관리로 있다가 일처리를 잘못하여 봉건국가로부터 벌을 받게 되였다. 그러던중 원나라가 함경도지방으로 쳐들어오자 리안사는 투항하여 그곳 지방관리로 있

게 되였다.

그후 아들 리행리, 손자 리춘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원나라의 벼슬을 살았으며 리성계의 아버지인 리자춘도 역시 쌍성총관부 천호노릇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았다.

리성계는 바로 이렇게 원나라에 투항한자의 집안에서 태여났다.

그의 가문은 원나라가 망하게 되자 변화되는 추이에 발을 맞추어 다시 고려편으로 넘어왔다.

리자춘은 1356년 동북면 병마사 류인우의 지휘밑에 고려군이 동북방향으로 진격하자 성문을 열어 총관부를 함락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였는데 이 연줄을 따라 고려정계에까지 들어서게 되였다.

리성계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런 설이 있다.

어느날 리자춘이 낮잠을 자는데 머리에 높은 관을 쓰고 넓은 도포를 입은 로인이 나타나더니 자기는 신령인데 그대의 문중에 길운이 트이겠다고 한다.

《그대는 내 말을 명심하거라. 이제부터 산천기도를 정성껏 드리면 필경 귀동자를 보게 될것이니 이는 후에 크게 될 인물이니라.》

금시 놀라 일어나니 꿈이였다.

언제면 벼락출세를 하겠는가 하고 학수고대하던 리자춘은 그날부터 안해 최씨와 더불어 백일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어느날 밤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선관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리자춘을 향하여 황금으로 된 침척(바느질자)하나를 꺼내주는것이였다.

《이것은 옥황상제께서 그대의 집에 보내는것이니 잘 보관하였다가 장차 동북지방을 측량토록 하라.》

그리고 구름속으로 사라져버리였다.

그런데 그날부터 최씨는 태기가 있어 아들을 보았는데 그가 바로 리성계였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그 누가 꾸며낸 말일것이다.

그의 처음이름은 성계이고 후일에는 단이라 하였으며 자를 군진, 별호는 송헌이라 불렀다. 리성계는 골격이 크고 체구가 장대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칼쓰기, 활쏘기, 진치기 등 군사놀이를 즐겼다.

놀음을 하면 진을 치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나무로 만든 칼과 활을 차고 수수깡으로 기를 만들어 휘두르며 언제나 제가 대장으로 나섰다. 성질이 사납고 조폭한 그는 사람들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였다.

야심가인 리성계가 왕이 될 뜻을 품게 된데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날 리성계가 처가에 갔다. 오던중 날이 저물어 그전에 낮을 익히였던 설봉산의 절간에서 하루밤을 묵게 되였다. 그 절에는 무학이라는 중이 있었는데 리성계는 밤이 이슥토록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들었다. 그런데 그는 밤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였다.

그가 다 낡아빠진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밖에서는 대줄기같은 비가 내리붓고 번개가 번쩍인다. 집이 당장 넘어질것 같아 리성계는 나오려다가 서까래가 아까와 저도모르는 사이 그것을 석장이나 등에 지고 있는 힘을 다해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가 문턱을 넘어서자 낡은 집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땅에 풀썩 무너앉는다.

깜짝 놀라 깨여보니 꿈이였다. 온몸을 만져보니 다친데는 없었다.

그런데 이때 무학이 들어서는것이였다.

리성계는 그에게 꿈이야기를 자초지종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심중히 듣고있던 무학은 엄숙한 표정을 짓더니만 일어나 리성계에게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용서해주시오이다. 내 눈이 어두워 귀하신분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소이다.》

무학은 꿈을 풀이하면서 싱글벙글 웃음을 짓는다.

《장차 당신은 임금이 될분이옵니다. 낡은 집이란 바로 고려를 말하며 서까래란 그 집의 가장 중요한 재목이니 서까래 셋을 등에 졌다는것은 한자로 임금 왕자를 가리키고있소이다.》

리성계는 아무말없이 무학의 얼굴만 쳐다보고있었다.

《이곳에다 절을 짓고 라한(부처의 10가지 칭호중 하나) 500을 빚어놓고 백날기도를 드려야 하나이다. 그러면 아마 운이 트일것이옵니다.》

리성계의 가슴속에서는 그 무엇인가가 불쑥 솟아오르는것 같

았다. 손이 터지고 피가 나와도 그는 500의 라한을 빚어내고야 말았다. 그리고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였다.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빌고빌었다.

리성계의 출세는 병마사가 되여 산동성에 웅거한 홍두적을 쳐물리친 후 왕의 신임을 얻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원래 홍두적이란 류복통이라는자의 지휘밑에 원의 지배를 반대하여 일어난 농민폭동군이였는데 그 우두머리들의 변질로 하여 략탈자로 돼버렸다. 이들은 모두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쓰고있었으므로 이렇게 불렀다.

이 시기 홍두적은 4만의 군사로 침입하여 의주, 정주 등지를 빼앗았다. 고려정부에서는 급히 군사를 파하여 물리쳤다. 그런데 몇년후 다시 20만의 군사로 평안도일대를 점거했다.

이때 여러명의 장수들이 나가 접전했으나 모두 패하고말았다. 다만 리성계가 이끈 부대만이 그놈들을 격파해버렸다.

리성계는 활쏘기를 통하여 형제로 결합된 리지란을 선봉으로 친병 2 000을 거느리고 창성과 안주의 싸움에서 적장의 목을 베였고 무섭게 들이쳤다. 놈들은 리성계와 맞설수 없다고 단정하고 소로길로 빠져 텅 비여있는 개경으로 들이닥쳐서는 오만무례한짓을 다하였다.

국왕의 령으로 개경부대들이 급파되였지만 그들도 손을 쓰지 못하였다.

평안도에서 이 소식을 들은 리성계는 군사를 주야로 몰아 10여일만에 개경부근에 도착했다. 군사들은 모두 맥이 빠지고 기가 풀려있었다. 사방을 둘러본 리성계는 버럭 소리를 질러댔다.

《그렇게 두려울터이면 아예 올라오지 않으니만 못할것이다. 그러나 이미 올라왔으니 싸우지 않으면 어쩌자는것이냐. 지금 국왕께서 심란하고계신 이때 어찌하여 주저하고만 있는가. 무서워 싸우지 않음은 도적에게 약함을 보임이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느냐?》

리성계는 기를 올리고 북을 울리며 앞장에서 공격해들어갔다. 그가 이끈 기병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적의 종심을 무너뜨렸다. 적병은 삼대 쓰러지듯 하였고 적장과 부장들은 모두 리성계의 활

에 맞아죽었다. 그는 전장에 림하여 겁부터 먹는것은 용맹이 없음이고 임금의 명을 받고 몸을 아끼는것이 충성이겠는가고 큰소리를 치면서 기개를 떨치였다.

최영은 달려와 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수고하였다고 치하하였지만 그는 짐짓 겸손을 보이는것이였다.

이렇게 리성계의 이름은 점차 나라안에 퍼져나가게 되였다.

리성계는 쯔시마의 왜구가 기여올라 로략질을 할 때에도 왕명을 받고 삼남 각읍에 군졸과 병기들을 단속하고 밤을 리용하여 내려가서는 첫 접전에서부터 된매를 들이대였다.

리성계는 이 싸움에서도 이기여 이름을 날리였다.

그는 속에 커다란 칼을 품고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해나갔다.

리성계의 정권탈취의 야심은 1388년 료동원정시기에 와서 더욱 로골화되였다. 이 시기 그는 병권을 쥐고있었다.

문하시중이였던 최영은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하겠다는 강도적요구를 들고나오고있고 한편 료동의 명나라군사들이 대부분 북원과의 싸움에 나간것을 계기로 고구려의 옛땅을 도로 찾기 위한 료동원정을 결심했다. 최영은 리성계, 조민수를 불러들이였다.

《두분이 좀 수고를 해주어야겠소. 조장군은 좌군도통사, 리장군은 우군도통사를 맡아주고 나는 총책임을 맡겠소.》

그때 최영의 나이는 70을 넘은 고령이였다.

그러나 리성계의 대답은 시원치 않았다.

《지금 형편으로는 출전이 불가능하오이다. 첫째로 소국으로서 대국을 치는것이며 둘째는 여름철 한창 농번기에 발병하는것이 나쁘며 셋째는 왜구가 기회를 노리고있는데 출전하면 안된다는것이며 넷째는 장마철이므로 군사가 병에 걸리기 쉽소이다. 그러니 이것은 적당치 못하옵니다.》

그러나 최영의 립장은 단호하였다.

《내 나라 땅을 제 몸과 같이 귀히 여긴다면 어찌 그런 말이 나올수 있단 말이요. 차라리 싸움판에서 목숨을 버릴지언정 장군이 그런 말을 하다니. 조상대대의 이 땅을 한치라도 저놈들에게 줄

수 없소.》

늙은 최영의 눈섭이 푸들푸들 떨렸다.

리성계는 어쩔수 없음을 알아챘던지 다시 우왕을 찾아들어가 자기의 론리를 펴나갔다.

《전하, 다시 생각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왕도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먹을것은 그곳에서 구하면 되고 병이란건 사전에 잘 예방하면 되는것이지 그것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소.》

여기에 그의 다섯째아들 방원이 또 리성계를 꾀이였다.

《아버님, 이 일은 아마도 최영이 아버님을 꺼려 제거하려고 하는것 같소이다. 필연코 왕명을 거역한다는 죄목으로 우리를 일러넣을 념려가 보이나이다.》

리성계는 하는수없이 출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5월초 원정군은 압록강중류인 위화도에 도착하였고 선두부대를 파견하여 료동의 적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리성계는 진군속도를 높이라는 어명을 거역하고 장마를 구실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기회만을 노리였다.

리성계는 계속 회군을 주장하면서 자기 주위에 반란군을 모았다.

그리고 방원을 불러서는 왕권을 탈취할 부자간의 모의를 하였다.

《아버님께서 몸소 시석(화살과 팔매돌)을 무릅쓰고 십여차례나 출전하시여 대공을 세우셨으므로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보존되였사옵니다. 아버님의 공적이 이와 같으신데도 불구하고 최영은 은근히 시기하여 모함코자 하오니 마땅히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도리여 이 편이 제거를 당하게 될터인즉 시급히 장졸을 이끌고 서울로 향하시와 먼저 최영을 잡아죽인 뒤에 어리석은 임금을 폐하시고 다른 새 인군을 세우시면 아버님의 공덕은 더욱 륭성할것이니 즉시 행동하십시오. 대사는 신속한것이 상책이옵나이다.》

방원은 더욱 부추겨대는것이다.

왕권탈취를 결심한 리성계일파는 6월초 반란군을 몰아대여 개경에 이르렀다.

위화도까지 갔다가 회군하여온것이다.

이것이 바로 력사에 천추의 죄악을 남긴 리성계의 《위화도회군》이다.

리성계일파는 수만대군을 두 편으로 나누어 성문을 포위하고 공격해들어갔다.

그는 먼저 최영을 찾기에 혈안이 되였다.

《대감,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소이다. 대감께서는 편히 쉬시는게 어떻겠는지요?》

리성계는 씨벌이면서 최영을 끌어내였다.

《내 이제 나이 70이 넘었으니 이 목숨이 아까운것이 아니요. 료동정벌은 력사가 증명해줄것이요. 》

리성계는 최영을 귀양보냈다가 개경에서 악착하게 참형을 하였으며 우왕을 끌어내리고 9살밖에 안되는 창왕을 명목상 왕좌에 앉히였다. 그리고는 반대파세력들을 하나씩 정계에서 몰아내고 매장해버렸으며 나중에는 후날 복수가 두려워 우왕과 창왕마저 내쫓고 제 본성그대로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그리고 1392년 4월에는 왕위탈취를 끝까지 반대해나섰던 수문하시중인 정몽주를 개경의 선죽교에서 없애버리였다.

또한 고려의 마지막왕이였던 공양왕마저 귀양을 보내였다.

그리하여 34대의 왕에 걸쳐 475년의 오랜 기간 세계에 이름을 떨친 고려왕실은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리조가 시작되였다.

궁궐에서 쫓겨난 공양왕은 원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간성으로, 또다시 삼척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자리를 잡았는데 1394년 리성계는 이들마저 무참히 살해하였다.

《덕으로 그대들을 살려두려 했지만 신하들의 등쌀에 견딜수 없어 그리하니 그대들은 그리 알라. 》

먼저 포교들의 올가미가 왕의 목에 얽어졌을 때 나어린 두 왕자는 흐느껴울었으며 얼마 안있어 그들도 죽음을 당하였다.

리성계는 형조판서 윤나경과 대장군 오을몽을 강화도에 보내고 형조첨지 손흥종과 첨절제사 심효생을 거제도에 보내여 그 두

곳에 귀양가있는 수천명의 왕가성을 가진 사람들을 산채로 바다에 던져 수장하였다.

아첨군들인 정도전일파는 이왕 죽일바에는 왕족만이 아니라 왕씨들은 모조리 없애야 한다면서 온 나라 왕가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강화도에 모이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기일을 정한 후 그 기간에 오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것이라고 포고했다.

그리하여 나라안의 모든 왕가들이 벌이 두려워 강화도대안에 모여들었다.

리성계일파들은 수십척의 배를 대기시켜놓고 기다리다가 그들이 도착하자 배를 몰아가는척 하면서 배밑창의 널판을 뜯어 물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바다에 수장해버리였다.

이 모습을 해안에서 바라보던 어느 한 중은 너무도 기가 막혀 손을 흔들면서 시 한수를 읊었다.

노젓는 한소리 창파밖에
들려오니
산승이 있다한들 그도 또한
어이하리

전해진 말에 의하면 그날밤 리성계의 꿈에 왕건이 칠장의 곤룡포를 입고 익선관도 선명하게 차리고 나타나서 《네가 내 후손들을 모조리 없애려 하니 내 반드시 보복하리라.》하고는 사라졌다 한다.

왕가의 씨를 말린 리성계는 지은 죄가 있는지라 항시 이 보복을 두려워하였다고 한다.

그후 산속에 숨어살던 왕가의 일부는 다른 성들로 바꾸어 목숨을 부지했다.

리성계가 얼마나 모질게 왕가들을 멸족시켰는가 하는것은 장수산의 슬픈 인연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리성계가 왕좌에 앉자 왕가들과 정몽주파들은 모두 풍전등화

와 같은 목숨을 안고 자기의 목이 붙어있는가를 매만지고있었다. 이런 살벌한 속에서 밀직부사로 있던 왕강은 자기의 고운 딸 보아와 그의 약혼자인 김정을 앞에 불렀다.

《얘들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이곳을 떠나 자리를 잡아라.》

그는 약간 남았던 패물을 그들 손에 쥐여주었다.

두사람은 송도를 용히 빠져나와 조선서해를 향해 발길을 떼였다.

산속을 떠다니던 그들은 추석을 앞둔 어느날 초막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순결한 사랑을 간직한채 자고일어나 아침을 짓기 위해 서둘렀다. 보아는 밥을 하고 김정은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찍었다.

그런데 어찌 알아냈는지 리성계일파인 리중업이 너털웃음을 치면서 불시에 나타났다. 리중업은 보아에게 반하여 두번이나 청혼한바 있는 놈이였다. 그러니 김정을 그저 둘리 없었다. 그는 김정을 끝내 죽이고 보아에게로 내려왔다.

《보아아가씨, 여기 김정의 목이 있소이다. 김정의 목과 랑자의 생명을 바꾸어 한평생 랑자를 모시고싶은 저올시다.》

리중업이 지껄였다.

한순간에 모든것을 알아차린 보아는 눈앞이 아뜩하였다.

《할수 없지요. 몸매나 고치고 나오겠소이다.》

보아는 초막에 들어가 날카로운 비수를 품속에 넣었다. 앞서 걸으라는 리중업의 말에 보아는 같이 걷자면서 그옆에 바싹 붙어서더니 순간에 번개같이 비수를 들어 그놈의 왼편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그리고 되잡아 비틀어버리였다.

《이년, … 어이쿠.》

신음소리와 함께 그가 꺼꾸러지자 보아는 다시금 칼을 뽑아 제목에 또다시 깊숙이 꼽았다.

장수산의 가을락엽들이 망국의 한을 품은 남녀의 시체우를 무심히 스치며 지나갔다. …

고려사람들은 리성계의 정권탈취행위를 반대하여 오랜 기간 싸웠다. 고려왕실에 충실한 신하들이였던 관료 72명은 관복을 찢

어버리고 두문동이라는 골짜기에 들어가 은퇴하였으며 백성들은 리성계가 들어있는 궁전에 돌을 던져 그것이 추녀를 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문을 열수가 없었다는것이다.

고려사람들에게 더는 견딜수 없었던 리성계는 급히 수도를 한양(서울)으로 정하고 1394년 10월 궁궐이 채 되기도 전에 옮겨앉는 소동을 피웠다.

그때 한양을 서울로 하게 된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원래 서울은 한양이라는 자그마한 고을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이한것은 사방 오얏나무가 무성한것이였다. 그때는 공민왕시기였는데 어떤 사람이 오얏(추리)나무가 무성한 자리에 리씨왕조가 설 징조라고 예언했다 한다.

기분이 나빠진 공민왕은 한양으로 많은 벌목군을 보내여 오얏나무를 모조리 베여버리게 하였으나 자꾸만 무성하게 자라오르는데는 어쩌는수가 없었다.

리성계가 정권을 쥔 후 공주 계룡산을 택하여 궁궐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리성계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서 계룡산은 그가 도읍할 자리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중을 불러 자리를 보게 하였고 한양에 도성을 쌓았다.

이 공사는 5년간에 걸쳐 벌리였는데 여기에 징발된 각도 장정의 총수는 19만 7 000여명에 달하였다.

북은 백악, 동은 락타산, 서는 인왕산, 남은 남산을 경계로 하였고 험한 곳들에는 돌로 축성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는 흙으로 쌓았다. 그 전체 길이는 5만 9 500척(17㎞)에 달하였다.

문은 모두 여덟인데 북은 숙정문(북문), 동은 흥인문(동대문), 남은 숭례문(남대문), 서는 돈의문(서대문)이라고 하였고 동북은 홍화문, 동남은 광희문, 서남은 소덕문, 서북은 창의문이라고 이름지었다.

리성계는 그후 방원의 압력으로 둘째인 리방과(정종)에게 왕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이 되였고 1400년에는 방원이 옥좌에 앉자 태상왕이 되였다.

리성계의 다섯 아들의 왕위쟁탈전은 말로 할수 없는 골육상쟁이였다. 방원은 자기가 아버지의 정권쟁탈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또 인격상으로도 형들보다 낫다고 하면서 세자의 자리는 자기에게 떼놓은 당상이라는것이다.

그런데 리성계는 두번째 처인 강씨를 사랑하던 나머지 그의 소생인 방석에게 왕위를 물리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위를 가로채기 위한 참극이 벌어졌다.

방원은 간신인 하륜의 계획대로 밤을 리용하여 정도전, 남은, 류만수들을 살해하고 죄를 세자인 방석에게 넘겨씌웠다. 그리고 방석을 귀양보내는척 하고는 중도에서 없애버렸고 그의 형도 같은 방법으로 교묘하게 죽여버렸다.

강씨의 소생형제를 모두 잃게 되자 리성계의 분노는 자못 컸다.

《그래 너는 임금자리만 알고 천리도 인륜도 모른단 말이냐?》

리성계의 웨치는 소리가 궁궐을 울리였다.

《네 아무리 임금노릇을 하고싶어도 내 이자리를 내주지 않겠다.》

리성계는 정권을 잡은지 9년만에 서울을 떠나 함흥으로 내려갔다.

리성계는 정권야욕으로부터 형과 동생들을 살해하고 기어이 왕이 된 방원에 대한 분풀이를 할길 없어 그가 보낸 사신들을 두말없이 모조리 죽여버리였다.

그리하여 세상에 유명한 《함흥차사》의 일화가 생겨났다.

방원은 자기가 보낸 사신들을 리성계가 모두 죽이여 돌려보내지 않으니 이번에는 아버지의 옛 친구들의 자손들을 보내였다.

그들도 함흥에만 가면 죽겠기에 모두 가려 하지 않았지만 왕명이라 어기는수 없었다.

그러나 한사람도 살아돌아오지는 못하였다.

방원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정승이였던 성여완의 아들인 성석린도 보내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죽이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무학대사를 보내면서 꼭 아버님을 모셔올것을 당부하였다.

《과실은 많으나 그래도 사랑하는 아드님이 아니시나이까?》
무학대사의 말에 리성계도 별궁을 떠나 여러해만에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는 아들 방원을 대하자 삽시에 피가 끓어올라 활을 당겨 쏘았다.
그런데 화살은 기둥에 가서 맞고 방원은 용히 살아났다.
방원은 애비에게 자기가 술을 부으면 또 기분을 거슬리게 할것 같아 따르기는 제가 하였지만 잔은 사관을 시켜 올리게 하였다.
리성계는 긴 한숨끝에 옥새를 꺼내여 훌쩍 던져버리였다.
이 모든것은 그 애비에 그 아들들의 피비린내나는 정권쟁탈전의 축소판에 지나지 않는다. 그후 항간에서는 이런 노래가 불리워졌다.

저 남산에 가서 돌을 캐니
정 남은 이 없네

이 참요는 부역때문에 고통받는 인민들의 불만을 표현하는 한편 왕자의 란(1398년)을 풍자조소하고있는 노래로서 《정》과 《남》은 리왕조의 이른바 《개국공신》들이였던 정도전과 남은을 의미하고 《없네》는 《개국공신》이라고 하는 그들마저도 결국 리방원의 손에 죽고만 지배계급내부의 알륵과 추악한 싸움을 의미한다.
리성계는 국가정사를 철저히 명나라에 기울인 사대주의자였고 더우기는 료동을 되찾기 위한 력사적인 원정을 통채로 망쳐놓은 죄악의 장본인이다. 또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 무엇도 가림이 없이 고려의 수많은 귀족들과 왕씨가문을 멸족시킨 최대의 폭군이였다.
리성계는 료동원정을 파탄시키고 또 살륙전을 벌려 왕권을 탈취하였기에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끝없는 저주를 받고있는것이다. 개성사람들은 그를 증오하여 변소를 《서각》(리성계가 자리잡고있던 수창궁 서쪽방)이라고 하고 음식을 만들 때 흰쌀떡가락을 일부러 나무칼로 푹 잘라 ∞형으로 만들어 《리성계의 목을 자르는것》이라 하였다.
리성계는 1408년 73살로 서울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주자법을 발명한 리천

우리의 선조들은 세계에서 처음(11세기말～12세기초)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인쇄기술발전에서 전환의 길을 열어놓았다. 더우기 리천이 활동하던 15세기는 우리 나라에서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던 시기였다.

《혼천의》와 《간의》를 비롯한 10여가지의 정교한 천문관측기구들이 창안제작되여 천문학의 발전을 추동하였고 여러개의 사원들과 정교한 탑들이 련이어 건축되였으며 농학, 지리학, 음악 등 분야에서 일대 개화기가 펼쳐졌다.

특히 인쇄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이루어졌는데 동활자, 연활자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현대적인 조판법의 시초가 열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주자소에서는 대대손손 국보로 물려줄 수많은 서적들이 인쇄출판되였다.

이 시기 출판분야에서의 성과에 대하여 당시사람들도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당당히 말하였다.

《백년이래 신기로운 지혜가 발휘되여 구리로 된 글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온 누리에 길이 전할 업적을 남기고있는데 이것은 오직 우리 나라의 공로에 속한다.》

당시 주자법을 발명한 과학자는 리천이였다.

리천은 1376년 경상도 례안에서 군부판서로 있던 리속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호를 불곡이라고 하였다.

본시 군인의 가정에서 태여났고 성미가 굳센 리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관이 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393년 별장에 보직되였으며 1402년 26살 되던 해에는 무과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1410년에는 무과중시에 통과되여 무관이 되였다.

당당한 무관의 자리를 차지한 리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충청

도 병마절도사가 되였으며 1420년에는 공조참판에까지 올랐다.
이때 리천은 세종왕으로부터 개량활자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받게 되였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고 그것으로 도서 《고금상정례》를 출판하여 자랑을 떨치였었다. 1234년부터 이 책이 인쇄되였는데 유럽과 대비하여보면 200년이상 앞선것으로 된다. 유럽에서는 1450년에야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를 시작하였던것이다.

이 시기 정부는 1403년부터 주자소라는 전문 활자제작 및 인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여러가지 활자들을 만들어내였다. 이때 리조정부가 여기에 얼마나 큰 힘을 넣었는가는 활자제작에 요구되는 금속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궁전과 관리들이 가지고있는 금속들까지 의무적으로 량을 제정하여 바치도록 한것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이와 같이 출판인쇄사업은 이 시기에 와서 매우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있었다.

리천은 왕명을 받자 우선 종래의 활자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주조의 기본결함은 주형에다 동을 녹여부어 활자를 얻어내는 방법이므로 주형에 용해물이 들어갈 때 외부공기와 접촉하면서 자주 기포가 생기고 또 랭각되는 과정에 수축되므로 글자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것이였다. 그리고 주형이 개바닥흙으로 되였기때문에 파괴되는 현상이 드문하였고 한개의 활자로 다량인쇄를 보장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낮에 밤을 이어 활자를 들여다보고 주형을 주물러보면서 이런 결함을 세세히 연구한 리천은 새로운 주조법연구에 달라붙었다.

주자소에 자리를 잡은 후 자신이 직접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애썼지만 역시 그렇게 쉽사리 해결되는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리천의 비상한 과학적탐구와 노력에 의하여 1420년에 드디여 새로운 동활자가 발명되였는데 그해가 경자년이므로 그 이름

을 따서 《경자자》라고 명하였다. 리천은 경자자를 만드는데서도 종래의 낡은것을 극복하여 한가지 크기로만이 아니라 작은 활자와 큰 활자 두가지를 하여 필요에 따라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경자자의 특징은 매우 아담한것이였다.

리천은 연구를 거듭하여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새로운 조판법을 창안했다.

이전에는 동판우에 밀(황랍)을 녹여붓고 이것이 굳어지기 전에 재빨리 활자를 박은 다음 종이를 대고서 찍었는데 이런 방법은 얼마 못가서 밀이 터지므로 활자들의 움직임이 생기였다.

때문에 인쇄량을 늘일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있었다.

리천은 이것을 극복하여 이번에는 밀을 쓰지 않고 제창 동판에 활자를 세운 다음 그 사이에다 굳은 대나무쪼각이나 종이를 접어 끼워넣음으로써 활자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인쇄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렇게 하니 한번에 수백장도 잠간사이에 찍어낼수 있는 혁신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량인쇄를 위하여 인쇄소도 규모를 확대하였고 모든 작업을 전문화하도록 하였다. 주자소에는 우선 나무에 글을 새겨서 활자본을 만드는 각자장, 활자를 주조하는 주장, 인쇄를 맡은 인출장 등이 있었고 기타 고정장, 균자장, 제본장 등에서 기술자들이 각기 자기 일을 전문하고있었으며 여기에 또 원자재를 생산공급하는 여러개의 장이 있었다.

인쇄소의 규모를 놓고 유럽과 대비해보면 거기서는 18세기경까지만 하여도 인쇄공장의 종업원수가 40명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15세기에 벌써 우리의 인쇄기술은 전문화단계에 들어섰으며 인쇄소에서는 약 150명의 인원들이 일을 하고있었다.

리천이 활자창안에서 얻은 성과는 세종왕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왕은 기술자인 리천의 공로를 찬양하였고 그와 주자소일군들에게 상도 내리고 물질적인 방조도 주었다.

1434년 리천은 또다시 고심어린 연구와 노력끝에 《갑인자》라는 활자를 새롭게 주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기술이였다. 그리하여 이해 두달어간에만 도 20여만개의 활자를 부어냈다.

그 이후시기인 1455년에 만든 동활자(을해자)의 금속성분을 따져보면 동이 79.45%, 주석이 13.2%, 아연이 2.3%이고 여기에 철이 1.88%, 연이 1.66%, 망간이 0.48% 함유되여있었다. 이런 성분은 글자를 뚜렷하게 하면서도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 체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였다.

그 활자(갑인자)를 가지고 리천은 나라의 귀중한 서적들을 수많이 인쇄하였다.

리천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1436년에는 세계인쇄기술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연활자를 창안제작해내는 성과를 올리였다. 이것은 당시 인쇄기술발전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하여 15세기 우리 나라의 인쇄기술은 단연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런 기술로 하여 부피가 방대한 《자치통감》(150권)과 《대장경》들이 인쇄되여 국보로 간직되게 되였다.

리천은 그후에도 계속 인쇄기술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리천의 과학연구사업은 천문관측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당시 경상도 동래현의 관청노비출신인 장영실이라는 이름있는 기술자와 손을 맞잡고 각종 천문관측기구들을 창안제작하였다. 대표적인것으로서는 천체의 위치 특히 적도자리표를 재는 각도측정기구인 《혼천의》를 들수 있다.

《혼천의》는 여러개의 복잡한 눈금원판들로 결합된 기구인데 세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였다. 이것은 규형을 북남으로 돌리면서 관측하려는 천체에 묘준하고 좌표를 결정하는 매우 정밀한 기구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려면 먼저 서울의 위도부터 결정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의 기술로써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하지만 기구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

리천은 목재시제품을 먼저 만들고 그것으로 천체를 관측하면

서 이 연구사업에 모든것을 다 쏟아부었다. 기술자 장영실도 이에 합심했다. 리천은 목제품으로써 천체를 계속 관측하였고 그 과정에 수정하고 또 수정완성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443년 목재《혼천의》에 토대하여 동으로 금속《혼천의》를 제작완성하는데 성공하게 되였다.

이에 앞서 리천은 1432년 7월부터 1438년 봄까지의 6년기간에 혼천의(목재), 간의, 양부일구를 비롯한 15가지의 천문관측기구들을 창안제작하는 사업을 장영실 등과 함께 주관하여 줄기차게 내밀었으며 그것들을 중앙의 천문관측대인 《간의대》와 지방의 중요지점들에 설치할수 있게 하였다.

이때 세종도 이들이 만들어낸 《혼천의》를 비롯한 기구들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면서 매일밤 천문관측현장에까지 나와 리천을 비롯한 학자들의 관측사업을 고무하였고 천문학에 관한 토론에도 참가하여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리천을 비롯한 당시 학자들이 이룩한 성과는 세계천문기상학과 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리천의 공로는 그에만 그치지 않았다. 리천은 이름있는 과학자일뿐아니라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공을 세운 무관이기도 하였다.

그는 본업이 군사였으므로 여기에서도 애국적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1409년 녀진부족집단이 자주 우리의 북방지역에 기여들었다. 특히 그 시기 우리 나라와 이웃한 북쪽일대에 거주하던 오도리, 오랑캐, 우디거 등의 녀진족들이 자주 침습하여 백성들의 생명재산을 야만적으로 략탈파괴하려들었다.

그런데 이 북방지역은 그곳을 관할하는 군, 현소재지들과 멀리 떨어져있었으므로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방비대책이 세워져있지 않았다. 때문에 여기에 시급히 군과 진들을 설치하여 행정적인 통제와 함께 방비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이것을 예리하게 포착한 리천은 평안도 도절제사로 있었지만 여기에 4군을 설치할데 대한 문제를 왕에게 건의하였다.

그의 구체적인 건의안에 동감한 왕은 려연, 자성, 무창, 우예 등 압록강중류지대에 4군을 설치할것을 승인하였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다.

녀진족들이 1410년대에 이르러 려연, 강계지방에 자주 기여들었으므로 려연부관하의 자작리에 새로 자성군을 설치했고 그후에는 갑산방면으로 통하는 상무로보에 무창현(오늘의 후창군)을 내왔으며 려연과 자성의 중간지대의 방비를 위해 1443년에 우예군(오늘의 중강군)을 만들어놓았다.

리천은 이 시기 7 700여명의 원정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건주(위)녀진족들의 소굴인 오미부, 올라산성 등을 들이쳐 이를 완전히 소탕하는 전과도 올리였다. 리천은 이 싸움에서 자신이 발명한 반동력을 리용한 화약무기인 화포를 사용하였는데 그 위력이 대단하여 적들을 벌벌 떨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싸움에 크게 기여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15세기 이름을 떨친 학자이며 무관이였던 리천은 자기의 전생애를 나라와 인민을 위한 의로운 일에 바치였으며 75살의 고령에 이른 생애의 마지막까지도 연구사업에 헌신하였다고 한다.

중세의 음악가 박연

나지막한 언덕 풀밭에 한 소년이 앉아 저대를 불고있었다. 향교에서 글을 읽다가 돌아오면서 한곡조 넘기는것이다. 손가락을 날래게 옮겨가며 흥겨웁게 발장단을 맞추어 가락을 넘기는 소년의 마음은 오직 저대에만 쏠려있었다.

은은한 저대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마을로 내려간다. 부르면 부를수록 저대의 음향은 그의 심신을 사로잡았다.

《아, 노래가락이란 이렇게도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가. …》

그는 일어서면서 엉뎅이에 묻은 풀잎을 가벼이 털어버리더니 마을길로 접어든다. 이웃에 저대를 잘 부는 사람이 살고있기에 그는 틈나는대로 그에게서 배웠다. 오늘도 거기에 들려 한곡조 배울판이다.

《아니, 벌써 글을 다 읽었느냐?》

《네, 한곡조 또 배워주소이다.》

둘은 저대를 들고 마주앉았다. 소년이 불어넘기면 어른은 손가락을 바로 놓아주기도 하고 자세도 고쳐주면서 이것저것 틀린 점을 일깨워준다.

영등포의 외진 마을이라 이 어른이 저대에서는 그래도 선생이다. 하기에 날마다 소년은 그에게 가서 저대를 한곡조 부는것을 빠뜨릴수 없는 일과로 하였다.

이 소년이 바로 중세음악의 대가로 알려졌던 박연이다.

박연은 세종시기 우리 음악의 기초률관인 황종률관을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12률관을 제작하였으며 많은 악기들을 개량하였을뿐만아니라 대관현악단을 무어서 지휘한 음악가이다.

박연은 1378년 충청북도 영등에서 출생하여 청년시기를 고향에서 보냈다.

어린시절부터 음악에 남달리 취미가 있었던 그는 저대불기를 즐기였다. 불행하게도 10살에 어머니를 여읜것으로 하여 마음이 쓸쓸했던 그는 저대가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마을의 저대명수로 되였다.

박연은 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올라가 시험을 치르면서도 장악원(궁중음악을 맡아보는 기관)의 한 악공을 찾아들어가 자기가 먼저 저대를 불고는 틀린것을 고쳐달라고 하였다. 저대소리를 듣고있던 악공이 그만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청이 거칠고 속되며 가락도 맞지 않고 범벅이요. 벌써 버릇이 굳어져서 고치기 힘들겠소.》

악공은 안되겠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박연은 조금도 탓하지 않고 그래도 미흡한 점을 가르쳐달라고 날마다 그 악공을 찾아다녔다.

며칠후 박연은 다시금 악공을 앉혀놓고 저대를 불었다.

그 소리를 유심히 듣고있던 악공은 속으로 흠칠 놀라는것이였다.

《가르칠수 있는분이요.》

힘을 얻은 그는 악공이 지적한 부족점을 고치기 위해 정력을 쏟아부었다. 저대에 정신이 팔려 때식을 잊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며칠이 지난 후 박연은 또다시 악공을 찾아가 저대를 가락좋게 넘기였다.

그러자 악공은 크게 감동되였다. 숱한 사람들에게 저대를 가르쳤지만 이렇게 쉬이 깨닫는이가 없었다.

《벌써 테두리가 잡히였소. 크게 될 가망이 있소.》

이번에는 악공이 직접 저대를 불어가면서 일깨워나갔다.

얼마후 다시금 그는 악공을 찾아갔다. 악공은 그만 무릎을 꿇더니 말하는것이였다.

《실로 귀신도 탄복할만 하오이다. 나로서는 당할수 없소이다.》

이렇게 되여 박연은 음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과거에 오른 그는 세종왕의 특별한 신임을 얻어 관습도감제주에 임명되였고 그후로는 음악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이때로 말하면 우리 나라 문화사에 크게 공적을 남긴 세종왕이 집권하던 시기이므로 음악에서도 전진이 이룩되고있었다. 여기에 박연의 공이 또한 큰것이였다.

박연은 구수한 흙냄새를 맡으며 자라난 음악가로서 그의 노래는 서정이 짙고 부드러우며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것이였다.

그는 일생을 음악일에 바쳤으며 탐구하고 노력한 사람이였다.

박연이 음악일을 맡아보면서 처음 시작한것은 음악을 정리하는것이였다.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음악은 고려말기에 들어서면서 외적의 침입과 국내질서의 혼란으로 많이 문란해졌고 악기들은 대부분이 마사져있었다. 또한 악단과 연주가들도 살길을 찾아 곳곳으로 흩어져버렸다.

하지만 음악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한 측면이였다.

이런 형편에서 박연은 악기들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세종왕에게 청하여 악기도감을 설치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난점이 생겼다. 그것은 악기도감에서 새로운 악기들을 만들어내여도 음률들간의 차이가 생겨 합주를 할수 없는것이였다. 이를 해결하자면 표준음을 정해야 하였다.

박연은 이를 위해 우선 그 기초음인 황종의 높이를 규정하며 이와 함께 표준음으로서 12률관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에 달라붙었다.

(률관—악률을 재기 위한 원통형의 관)

12률관이란 12개의 고정된 음들의 높이를 말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되여있어야 표준에 기초하여 악기들의 조률도 할수 있다. 이것 없이는 악기제작도 음악창작도 음의 기록도 불가능하였다. 그중에서도 그 출발음인 황종음을 규정하는것이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였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황종음을 한자길이의 대나무관에서 나오는 음으로 규정했으며 그 기초는 해주에서 거둔 검은색 기장알을 리용하여 그 한알의 길이를 한푼으로, 그 열알의 길이를 한촌으로, 구십알의 길이를 한자로 하였다.

박연은 해주 검은기장을 가지고 자신이 여러차례 실험을 거듭했지만 실패했다. 다음해에는 직접 그 기장을 자기가 여러곳에 심고 가꾸어서 얻어낸 다음 다시 실험을 하였으나 매한가지였다.

아직은 과학이 낮은 수준에 있었으니 이렇게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박연은 락심하지 않았다. 그는 실험을 거듭한 결과 거기에서 중요한것을 발견해냈다.

그것은 땅이 좋고 나쁜데 따라 기장의 치수가 같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으로 기준을 할수 없고 또 음의 높낮이는 옛날과 지금 즉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나며 민족들간에도 서로 다르다는것이였다. 때문에 기장알이 아니라 표준음이 될수 있는 하나의 관을 정하고 그에 따라 11개의 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연은 다른 나라들의것과 지금까지의 우리의 표준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종래의 황종음을 만들던 낡은 기준을 대담하게 버리고 표준으로 삼을수 있는 악기의 기음(바탕소리)에 의거하여 표준황종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의 반음률관은 《삼분손익법》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규정하였다.

《삼분손익법》이란 관의 길이를 3등분한 한부분의 길이를 그 본관의 길이에서 덜거나 더하는 계산방법인데 그것은 완전5도음들이 산출되는 방법이였다.

이때 일부 남의 나라를 넘겨보는 대신들은 우리만 이렇게 해서 되겠냐느니, 큰 나라에서 쓰는 음정을 제껴놓아서는 안된다느니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지만 박연은 이들의 얼토당토한 견해에 절대로 숙어들지 않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박연은 이때부터 12률관에 맞추어 련습용악기들과 연주용악기들을 만들었다. 이 음률에 의해 민족악기들의 률이 규정되고 고착되였으며 악보기록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창작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박연에 의해 이 시기 독특한 음악표기방법인 정간보도 발명되였다.

정간식악보는 음악표기에서 가장 힘든 문제였던 박자관계를 표기하지 못한 종래의 라렬식문자악보라든가 여러 종류의 악기들

의 통일적합주를 표식할수 없었던 구음육보의 본질적결함을 극복한 새로운 악보였다.

정간식표기법이란 우물 정자(#)로 된 줄간에 음의 높이를 표시하는 12률명문자를 기록하는 음악기보법을 말하는데 이 줄간이 우물 정자와 갈다고 하여 《정간보》라고 하였다.

15세기에 벌써 이처럼 정확하고 론리적이며 편리하고 알기 쉬운 과학적인 기보법을 쓴것은 우리 나라 음악력사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

박연의 지도하에 기존의 악기들이 새로운 음률에 의해 개량되였고 란리통에 없어져버렸던 악기들도 찾아내고 새로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연이 음에 얼마나 밝았는가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가 한창 악기제작으로 열이 올라있는데 세종왕이 편경을 만들고 그를 불러들여서 음을 고정하도록 하였다.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세종왕으로서는 비교적 잘된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박연에게 보이였다.

그런데 박연은 악기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이마살을 찌프린다.

《대왕님, 황송하오나 이것은 한푼이 높고 또 이것은 한푼이 낮소이다.》

《어찌된 일인고? 여봐라, 이것을 뜯어보아라.》

한푼이 높다는것을 헤쳐보니 과연 돌이 아직 덜 다듬어져있었다.

《과시 인재로다.》

세종왕은 한푼 높다는것은 다시 다듬어서 낮추도록 하고 한푼 낮다는것은 돌가루를 올리게 하였다.

박연은 다시 석경을 두드려보는것이였다.

《이제는 높낮이가 정확하옵니다.》

그의 대답은 확신에 넘쳐있었다.

박연은 다음단계로 연주가들의 기량을 올리기 위한 일을 벌려나갔다.

당시는 악공들의 근속년한에 의해 등용문제를 보고있었다.
그는 이를 대담하게 고쳐 기능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개편했다.
이 조치는 고루한 틀에 얽매여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혁신적인것이였다.
그 시기 악공들은 기능에는 관계없이 년한에 따라 모든것을 보았기에 음률이 맞지 않는 악기를 타도 전혀 량심상가책이 없었고 또 퇴치하려 하지 않았다.
심한 경우 악공은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드려대는 형편이였다.
때문에 박연은 연주에서 악사들이 자기의것은 철저히 자신이 책임진다는 제도를 내였으며 음악적조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박연은 수백명이나 되는 직업악단을 꾸리고 악사들도 수많이 키워내는 성과를 올리게 되였다.
박연은 또한 음악창작사업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정대업》, 《보태평》, 《여민락》,《발상》, 《취풍형》, 《치화평》을 들수 있다.
이러한 곡들은 대체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민족적선률에 기초한것으로서 정서가 깊고 향취가 흐르는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대악단이 움직이는것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로 하여 악보기록에 의한 창작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발전되였다.
박연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였는데 그의 공적의 하나가 다름아닌 악보기록에 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그는 자기의 예술을 음악에만 국한시킨것이 아니라 무용을 결합한 예술로 만들었다.
그는 무용이 주가 되고 음악이 반주로 되는 형식과 또는 노래가 주가 되고 거기에 무용이 배합되는 가무적양상을 가지는 악곡들을 창작하여 성공적으로 공연하였다. 그 대표작으로는 《정대업무》를 들수 있다. 이 작품은 71명의 무용수들이 모두 홍, 청, 백, 흑, 황 등 오색비단으로 화려하게 지은 갑옷과 투구로 단장하였으며 그중 35명은 오색찬란한 기발과 소도구들을 들게 하고 36명은 칼, 창,

활을 각각 쥐게 하여 원쑤치는 장쾌한 모습을 형상한 군무였는데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장면은 정말로 볼만 하였다고 한다.

하기에 이것을 보고 세종왕도 잘한다고 하였고 《어디 다시한번 해보아라.》라고 청했다 한다.

이처럼 박연은 한평생을 바쳐 우리 음악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데 공적을 세운 중세의 음악가였다.

하지만 역시 그의 창작은 궁중음악이였다. 물론 음악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초기의 흙냄새 풍기던 저대의 향기는 점차 멀어져갔다.

박연은 생애의 말년이 기구하였다. 그는 아들이 어떤 사건에 련루된것으로 하여 벼슬에서 떨어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수많은 제자들과 친구들이 한강기슭에까지 따라나와 바래였지만 그의 행장은 좋지 못한 말 한필에 옛날과 다름없이 허리에 저대가 있을뿐이였다.

리별의 배에 오른 박연은 저대를 꺼내여 구성지게 두어곡 넘기였다.

박연에 대한 자료는 《세종실록》 악지에 기록되여있으며 15세기에 편찬된 《악학궤범》에 체계적으로 수록되여있다. 이처럼 박연은 일생을 음악과 함께 살아온 노력가였다.

력사에 이름을 남긴 세종왕

리조 4대왕인 세종대왕은 력사에 그 이름이 남아있다.

세종왕은 리씨왕권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일을 왕실의 중요한 사명으로 내세웠으며 우리 민족문화발전에도 큰 공을 남긴 왕들중의 하나이다.

세종은 태종왕의 셋째왕자였는데 어려서부터 성품이 너그러웠으며 학문을 좋아하여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특히 그는 과학과 예술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고 여러 방면에 걸쳐 박식하였다.

그는 정사를 보는 속에서도 독서와 사색을 많이 하였으며 연구를 거듭하였다.

세종은 사생활에서도 효도와 우애가 지극하여 부왕과 왕모를 극진히 돌보았고 형들도 청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

그는 신하들을 례절있게 대하였고 백성들도 사랑하였으며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려 하였다.

그는 또한 의지가 굳은 인물이여서 한번 마음먹은것은 반드시 실행해내고야마는 성품을 지니고있었다.

그리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원래 왕이란 맏아들이 계승하는것이 상례로 되여있었기에 셋째인 그는 왕좌에 앉을수 없었다.

그러나 똑똑하고 공부에 열중하여 부모들의 잔소리를 전혀 듣지 않게 되자 태종은 은근히 속으로 세자를 맏자식이 아니라 세종으로 점찍어두게 되였다. 하지만 세자로는 맏이인 양녕이 책봉되였다.

어느날 세자로 된지 얼마 안된 양녕이 부왕의 침전에 문안차

로 들어갔는데 안에서 태종과 민씨가 소근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였다.

《참 아쉬운 일이요. 충녕과 양녕이 바뀌여 태여났더라면 장차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걸…》

부왕 태종은 긴 한숨까지 섞어가면서 탄식하는것이였다.

《글쎄말이와요. 충녕이 맏이였어야 할걸 그랬구려. 양녕은 암만 뜯어봐야 충녕보다 못한것 같으니…》

어머니 민씨도 옳다고, 충녕이 맏이여야 할것이였다고 거듭 되뇌이는것이였다.

순간 양녕의 머리에 어두운 생각이 지나갔다.

그것은 지난날 아버지인 태종과 삼촌들인 방석, 방번, 방간 등의 자리다툼으로 골육상쟁의 참극이 벌어졌던 일들이 일시에 떠올랐기때문이다.

그는 왕자리를 아우인 충녕에게 내주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미친 사람》이 되여 념불을 외우면서 술과 계집으로 눈도 바로 뜨지 못한채 헤매였다. 양녕은 글은 고사하고 궁중뜨락에 새덫을 놓고는 새를 잡았고 간혹 조정의 하례에 참가할 일이 생겨도 매번 구실을 대면서 피해 달아났다. 그는 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를 뵈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나타나지조차 않았으며 나중에는 개짖는 소리까지 내여 미친것으로 알게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충녕이 형님에게로 달려갔다.

《전하, 이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나는 인품이 모자라거니 너야말로 성군감이 아니냐? 네가 내대신 큰일을 맡아라. 그리고 나라를 위해, 부모를 위해 네가 배운 학문과 너의 도량을 베풀어라.》

《형님, 이러시면 아니됩니다. 형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가거라. 내 말은 끝이 났으니 그리 알어라.》

양녕은 사냥을 하여 잔뜩 고기들을 구워놓고는 절간에 간 둘째동생을 청하여 왕이니, 왕세자니 다 괴로운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니 얼마나 좋은가고 호탕하게 웃어댔다.

그리하여 얼마후 양녕대신에 세종이 다시 세자로 책봉되였고 후날 왕이 되였던것이다.

세종은 지금에 와서 완전히 주색에 파묻혀 헤여나지 못하는 형이지만 형제의 우애를 버리지 않고 친절히 대하였다 한다.

세종왕은 먼저 나라방비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였다.

14세기 80년대부터 더욱 심해진 일본해적들의 대규모적략탈행위는 15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악랄해졌다. 특히 1419년 5월 왜구들은 50여척의 함선으로 명나라를 침략하러 가던중 충청도 비인현 도두음곶과 황해도 해주의 연평곶에 침입하여 강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세종은 이를 계기로 쯔시마원정을 준비했다. 5월 14일 리조정부는 원정함대를 편성하고 리종무를 삼군도체찰사로 임명하였으며 경상, 전라, 충청도의 싸움배 200척을 6월 8일까지 견내량에 집결시켰다.

또한 군사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상 중요지점들에서 일본인들의 출입을 심히 단속하였으며 해안경비를 강화하였고 장정들을 동원하여 연안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준비밑에 6월 17일 드디여 227척의 싸움배와 1만 7 285명으로 편성된 원정군은 리종무의 지휘밑에 쯔시마를 향하여 거제도를 떠났다.

바람이 사나와 일단 돌아왔다가 19일에 다시 떠나 20일에 쯔시마에 도착하여 첫 기습작전에 성공한 원정군은 귀순한 일본인들을 도주에게 보내여 투항할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자 우리 군사들은 포구를 샅샅이 수색하여 적선 120여척과 놈들이 도사리고있던 1 930여채의 집을 불살라버렸으며 34척은 로획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살상포로하는 전과를 올리였다.

원정대의 계속되는 습격으로 혹심한 피해를 당한데다가 식량부족으로 궁지에 빠진 놈들은 손을 들지 않을수 없었다.

항복을 받고 승리의 개가를 올린 원정군은 7월 3일 만세의 함성드높이 거제도로 돌아왔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기해동정》이

라고 부른다.

쯔시마원정은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민족의 원쑤를 징벌하기 위한 정의의 원정으로서 해적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었다. 그후 왜구들은 근 한세기동안이나 감히 기여들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세종왕은 집권후 첫 원정에 성공하자 련이어 북쪽 국경수비에 낯을 돌리였다.

이 시기 압록강과 두만강일대에서 수십개의 부족으로 살고있던 녀진족들은 자주 국경을 넘어와 갖은 못된짓을 다하였다.

봉건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경고도 하였고 길주 도찰리사 조견에게 1 150명의 원정군을 주어 오늘의 도문지역에까지 진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녀진족들의 침입은 나날이 더욱 심해만 갔다.

이런 형편에서 북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 이 지대의 방비를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섰다.

세종왕은 1410년대 중엽에 함경도 갑산부의 소훈두 서쪽지역을 분리하여 려연군을 설치하고 평안도에 소속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녀진족들은 다시 쳐들어와 무고한 백성들을 노예로 끌어갔고 집가산들을 털어내였다.

세종왕은 이에 대처하여 1433년 4월 1만 5 000명의 원정군을 편성하여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의 지휘밑에 압록강을 건너가 커다란 타격을 주도록 하였고 새로 자성군을 설치하였다.

그후 녀진족들은 다른 방면으로 쳐들어왔다.

세종왕은 다시 원정군을 편성하여 오미부의 파저강녀진을 징벌하였으며 려연군의 동남부에 무창현(후창군)을 설치하고 군으로 승격시켰다.

1443년에는 려연과 자성의 중간지대 방비를 위해 우예구자를 우예군(중강군)으로 승격시켰다.

이리하여 압록강중류지대에 려연, 자성, 무창, 우예 등 4군이 설치되였다. 4군의 설치는 단순한 행정적조치만이 아니라 기본은 군사적조치였다.

세종왕은 이와 함께 두만강류역의 국경연선이 명백치 않은 틈을 타서 침입을 노리는 적을 막기 위하여 6개의 군사행정단위로서 6진을 설치했다. 먼저 경원부, 회령부, 종성군, 경흥군의 4진을 설치한데 뒤이어 1440년 11월에는 종성군을 수주로 옮기고 그 북쪽에 온성군을 설치했으며 이후 부령도호부를 주어 6진을 개척하였다.

세종왕의 4군6진의 설치는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으며 북쪽의 국경방비를 강화하고 생산을 늘이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이렇게 세종왕은 나라지경을 명백히 하여 적의 침입을 막을수 있게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세종왕은 또한 과학연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여기에서 선차적인 주목을 돌린것이 인재육성이였다.

세종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자면 임금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혼자의 힘으로는 될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면서 이와 함께 숨은 인재를 찾아내여 슬기와 덕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보았다.

세종왕은 집현전을 확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집현전이란 《지혜의 집》이라는 뜻이다. 세종은 궁중에 집현전을 두고 젊고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들을 전임학사로 뽑았다.

집현전에는 영전사, 대제학, 제학, 부제학, 직제학, 직전, 응교, 교리, 수찬, 박사, 저작, 정차 등 여러 벼슬을 두고 학문연구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집현전학자들의 연구에 세심한 관심을 돌리였고 자신이 의장격으로 앉아서 학문토론회를 자주 열었다. 따라서 과학적발명이나 기술의 창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세종이 발안자(생각을 처음으로 해낸 사람)였다.

세종은 학자들이 사무직책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공부만을 하도록 하였고 또한 학자들에게 긴 휴가를 주어 조용한 절에 가서 학문연구에 몰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438년에는 전국에 교지를 내려 숨은 인재를 뽑도록 하

였다.

교지에는 세상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숨은 인재들이 많을것이니 각 지방 관찰사들은 학식이 있고 지혜가 뛰여나며 덕행이 두터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속히 찾아서 알리도록 되여있었다.

이처럼 세종왕은 집현전에서 인재를 키우고 과거제도로써 인재를 뽑고 도천법으로써 숨은 인재까지 찾아내는데 힘썼다. 이러한 인재들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도모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세종왕의 과학연구사업에서 특별히 지적해야 할것은 《훈민정음》창제이다. 유구한 력사를 거쳐 발전하여온 우리 말은 15세기 중엽인 1444년 1월(양력)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됨으로써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 시기 인민들이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쉬운 민족글자를 만드는것은 봉건통치배들에게도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해마다 수많은 관리문서를 다루어야 하는 판에 리두나 한문으로는 제대로 할수 없었을뿐더러 유교도덕과 문화도 쉽게 보급하기가 곤난했다.

새 글자를 만드는 일에서 인민들의 지향과 통치배들의 심리가 같지는 않았으나 다같이 민족글자를 바라고 요구하였다.

어느날 세종왕은 집현전에 나가서 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과인이 오래전부터 궁리해온 일이 있소. 우리 나라 말의 음은 닿소리와 홀소리가 합하여 비로소 한소리가 나는것이요. 과인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우리 글자를 만들어낼가 하오.》

정린지, 성삼문, 신숙주 등 학자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서로 마주 쳐다보기만 할뿐이였다.

세종왕은 계속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우리도 이젠 우리 글이 있어야 하겠소. 집에 있는 아낙네들까지도 아무런 불편없이 리용할수 있는 글말이요. 한문은 외국글이지 우리 글이 아니란 말이요. 그리고 글자가 너무 많아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니요.》

물론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세종왕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리고 집현전의 학자들에게 과제를 주고 자기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세종왕은 명나라의 여러 학자들이 지은 음운에 관한 책도 깊이 연구했다.

그는 자료를 학자들에게 제공해주었고 그들이 연구를 잘하도록 힘도 주었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여나서는자들을 역적으로 취급하겠다는것을 선포했다.

세종왕은 이 문제를 중요한 국가적사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는 성삼문, 박팽년, 정린지 등 재능있는 학자들을 이에 인입시키였으며 외국의 글자들에 대해서도 심오히 분석하였다.

세종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여 끝내 새 글자를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그런데 본래 몸이 약하였던 세종왕은 글자연구에 너무 고심하던 중 눈병이 나고말았다. 그리하여 청주약수터로 료양을 가게 되였다. 그러나 세종왕은 료양을 떠나면서도 훈민정음연구에 대한 자료만은 그곳까지 가지고가서 연구를 계속하였던것이다.

처음 만든 우리 글자는 모두 28자였다. 여기서 《훈민》은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뜻이며 《정음》은 우리 말의 《바른 소리를 적는 글자》라는 뜻으로서 새 글자의 특성을 나타내고있다.

《훈민정음》창제에 참가하였던 정린지, 신숙주, 성삼문, 최항, 박팽년, 강희안, 리개, 리선로 등은 2년후인 1446년 우리 글자에 대한 과학리론적해설서로서 《훈민정음》(해례)의 편찬을 끝내고 그것을 출판하였다.

훈민정음은 매우 독특한 글자로서 어느 나라 말이든지 다 표현할수 있는 발전된 문자이다.

또한 훈민정음은 다른 나라의것을 본따거나 거기에서 기원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체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진 고유한 민족글자이다.

이것은 지난날 한자와 리두, 향찰, 구결 등을 써오면서 오랜 서사생활을 통하여 쌓은 교훈과 경험에 기초하여 얻어낸 귀중한 열

매이며 다른 나라 글자의 우월성과 결함을 따져보고 대담하게 새로 창조해낸 탐구의 결실이였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이고 장기적인 개량발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하고 높은 과학리론에 기초하여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다는데 그 특징의 하나가 있다.

훈민정음은 말소리가 이루어지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기초글자를 만들고 여기에 획을 더하거나 또는 기초글자들을 서로 어울리워 파생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때문에 다른 나라 글자들과는 전혀 구별되는 독특성과 과학성을 가진 글자로 될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말 말소리의 체계를 정확하고도 전면적으로 반영한 하나의 완성된 체모를 갖출수 있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세종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어음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못하는 까닭에 백성들이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그 심중을 표현치 못하는 일이 많기때문에 내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정음 28자를 만드노라.》

훈민정음이 창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민족자존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새로운 글말에 의해 우리 말은 더욱 폭이 넓어지고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게 되였으며 민족고유의 국문문학을 가질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훈민정음창제는 실로 세종왕의 공로중에서도 가장 큰 공로에 속한다.

세종왕은 출판인쇄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창안발명들을 하도록 과제를 주고 지도하였다.

주목할만한 성과로서 1436년 연활자를 새롭게 창안해냈는데 이것은 세계인쇄기술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과학적발명으로서 획기적인 발전이였다. 과학자 리천은 왕명으로 이것을 받고 연구를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용도가 큰 새로운 활자의 창안제작과 함께 조판공정도 훨씬 개선되게 되였는바 이것은 현대조판법의 시초라고 할수 있다.

세종왕은 주자소의 규모를 늘이고 새로운 연활자를 만든데 기초

하여 닥나무로 만든 종이만이 아니라 대나무잎, 솔잎, 벼짚 등을 섞어서 인쇄용지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자치통감》(150권)과 같은 부피가 대단히 큰 책을 600부나 인쇄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세종왕은 기상학과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세종왕은 학자들에게 대나무끝에 기발을 달아 풍기대라는것을 만들어놓고 기발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바람방향과 속도를 잼으로써 바람세기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 문종에게도 과학연구과제를 주어 성공하도록 지도하였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428년 3월부터는 기상관측자료들을 매일 기록하였다가 1년분을 모아 하나의 책(기상관측년보)으로 편찬하는것을 제도화하였으며 해양기상일지도 따로 작성하도록 체계가 세워져있었다 한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상하귀천을 가리지 않는 세종은 신하들이 천거하는 그 어떤 학자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느날 학자 리천이 세종왕앞에 나타나 아뢰이는것이였다.

《상감마마, 경상도 동래현에 기계다루는데 뛰여난 재주를 가진 장영실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다 하옵니다.》

《음, 그래. 그 청년의 벼슬은 무엇인고?》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관청노비라 하옵나이다.》

《무엇이라고?! 관청노비?》

세종왕은 즉시 장영실을 불러올려 그의 기계다루는 솜씨를 직접 시험했다.

과연 장영실은 듣던바 그대로였다. 세종왕은 장영실에게 그자리에서 상의원 별좌라는 벼슬을 주었다.

《동래현감은 눈뜬장님이오그려. 그토록 재주있는 사람을 묵여두어 썩이다니.》

하루아침에 관청노비에서 벗어나 벼슬까지 받게 된 장영실은 자기의 모든것을 과학사업에 바쳤다. 그리하여 《간의》와 《혼천의》 등 천문관측기구들을 만들어냈다.

1434년에 완공된 《간의대》는 높이가 31자(약 6.2m)이고 길이가 47자(약 9.4m), 너비가 32자나 되는 큰 규모의 독특한 기상대였다. 또한 소간의라는것이 있었는데 그 높이는 3.46m, 길이가 2.4m, 너비는 2.5m로서 화강석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진것이였다.

《세종실록》에는 매일밤 이 《간의대》에 5명이 당번제로 나와서 별들을 관측하였다고 씌여져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천문관측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달성되였고 과학적기초를 마련할수 있었다.

세종왕도 때로 이 《간의대》에 나와서 관측자료들을 보아주고 장영실과 과학적문제들을 의논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장영실은 1434년 6월에 자동물시계인 자격루를 만들었고 10월에는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제작하는 성과를 올리였다. 그때마다 세종왕은 그를 크게 치하하고 표창하였으며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하여 그 성과를 학자들앞에 내세웠다. 세종왕은 그가 만든 해시계들을 혜정교와 종묘앞에 두고 백성들이 고루 시간을 보도록 하라고 분부하였다.

세종왕은 장영실에게 강우량을 측정할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직접 연구과제를 주었다.

그리하여 장영실은 1441년 고심어린 연구를 하여 측우기를 만들어냈다. 세종왕은 이를 관상감에 비치하도록 하고 자를 가지고 강우량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꼭같은것을 여러개 만들어 각 도, 읍에 배포하여 국내각지에서 동시에 강우량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측우기는 높이 2자(약 40㎝), 직경 8치(약 16㎝)의 쇠로 만든 둥근통모양이였다.

세종왕은 지방에서는 사기 또는 질그릇 같은것으로 측우기를 만들어 관청마당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비가 왔을 때는 그 시간과 량을 재여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중앙에 보고하는 체계를 세워놓았다.

이 측우기의 발명은 서유럽보다 근 200년이나 앞선 세계최초의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다.

특히 그 측정방법까지도 자체의 연구성과에 의해 나온것으로서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것으로 보고있다. 이 측우기는 현재의것에 대비하여도 큰 손색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세종왕은 그가 관청노비이건 무엇이건 관계없이 과학사업에만 헌신한다면 벼슬을 주고 연구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장영실은 그후 상호군의 벼슬로 승진되였다.

세종왕은 력서도 새롭게 하도록 하였고 지도작성도 하게 가르쳤다.

그는 학자들과 지도작성기술자들이 현지에 나가 답사측정사업을 자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1436년부터는 이것을 완전히 체계화해놓았다.

1434년에 시작하여 여러해에 걸치는 측정을 한 후 《조선팔도도》를 제작완성하였으며 기타 지리학에서도 여러가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또한 기리고차(자동거리측정기)와 규형, 인지의라는 측량기구들이 창안제작되여 이것들로써 거리와 방향, 높이 등을 측정하여 도로에는 리수를 밝힌 리정표를 다시 세웠으며 각종 지형들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한데 기초하여 새로운 지도를 그려냈다.

세종왕은 력사편찬에서도 편년체로 되여있는 《고려사》를 기전체의 《고려사》로 바꾸는 사업에 관심을 돌리여 완성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민심에도 주의를 돌려 백성들이 농사일에 전념하도록 힘썼으며 밑에서 제기되는 의견은 정사에 참고로 하였다 한다.

세종왕시기 학자들에 의하여 농사기술을 종합한 《농사직설》과 고려의학백과전서인 《의방류취》와 《향약집성방》, 지리책인 《8도지리지》 등 자연과학도서들과 조선전쟁사인 《동국병감》을 비롯한 여러가지 책들이 편찬출판되였다.

이밖에도 세종왕은 우리 나라 민족음악과 문학을 정리하도록 하여 후세에 물려주었다.

뿐만아니라 세종왕은 백성들의 생활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세종왕은 집현전학자들과 대신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였고 해마다 춘궁기에는 량식이 떨어져 궁하게

지내는 빈민들에게 나라에서 농량을 빌려주고 추수가 끝난 뒤에 받아들이는 환곡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조세법도 새로 정하였다.

먼저 기후와 토질에 따라 온 나라 땅을 3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조세의 량을 달리하였다. 땅이 가장 좋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지방은 상등지로 놓고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는 중등지로 하였으며 평안도, 함경도지방은 하등지로 정했다. 그리고 몇해후에는 나라땅을 다시 6등지로 나누고 조세의 차이를 두어 살아가는데서 의견이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1423년에는 《조선통보》라는 엽전을 만들어 백성들이 쓰도록 하였다.

세종은 청옥법(나라에서 죄인을 조사하여 벌을 주는 법)도 개정하여 죄를 공정하게 다스리였다.

이 시기 세종은 죄인을 다스리는데서 《삼복법》(한가지 사건을 3번씩 조사처리하는 법)을 쓰도록 하였고 당시까지 주인이 노비를 죽여도 문제로 되지 않던 나쁜 풍습을 금지시키고 이것도 모두 살인범으로 처벌하는 새로운 제도를 세웠다.

세종은 이렇게 엄한 령을 내렸다.

《노비가 비천하다 해도 그들도 역시 하늘이 낸 사람이며 나라 백성이다. 그러하니 누구든지 함부로 죽일수 없다. 만일 노비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것도 관청에서 문제시하여 국법에 따라 다스릴것이지 제 집 노비라 하여 제 마음대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함부로 죽인자는 국법에 따라 살인자로 다스려 처형할것이다.》

이때로부터 주인이 자기 집 노비를 제멋대로 죽이지 못하게 되였다.

세종은 또한 1426년 나라안에 《금화도감》(소방서)를 설치하여 방화에 대한 사무를 보게 하였다.

물론 세종왕이 이렇게 정사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그도 봉건군주로서 자신의 계급적처지에서 벗어날수는 없었다. 그도 역시 봉건왕조의 한 인물로서 통치자였고 그의 모든 사업은 봉건국가 그자체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것이였다.

하지만 력대 봉건군주들과 대비해놓고 볼 때 세종왕은 정책에서 큰 나라를 떠받드는것을 경계하였고 국방을 강화하고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 업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는 여러 면에서 일정하게 긍정적조치를 취하였고 일련의 성과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때문에 리조의 력대 왕들을 들 때 세종왕을 첫자리에 놓으며 력사와 더불어 공정하게 평가하는것이다.

세종왕은 아들 18형제, 딸 4자매를 두었는데 맏아들 향을 왕세자로 하였다.

세종왕은 국교인 유교교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미에서 왕세자 향을 성균관에 입학시켰다. 그리고 그밑의 동생들인 수양대군, 안평대군, 림영대군도 함께 성균관에서 학문을 넓혀가도록 조처하였다.

세종왕은 왕자들이 과학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맡아보도록 하였으며 농사기술, 화포제조법, 측량문제 등을 습득케 하였다.

또한 두만강연안에도 왕자들을 파하여 국방을 맡아보게 하였다.

하지만 세종왕은 집권한지 31년이 되는 1449년부터 건강이 급작스레 나빠졌다.

온 나라의 용하다는 의원은 모조리 불러들이고 좋다는 약은 빼놓지 않고 써보았지만 효력이 없었다.

세종왕은 그래도 병이 좀 나으면 정사를 보았다. 그리하여 왕자들과 대신들은 그를 조용한 곳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대궐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정사에 비치게 되여 치료에 전심할수 없다는 것이였다.

그러다 세종왕은 53살을 일기로 동별궁에서 눈을 감았다.

세종왕의 유해는 경기도 광주의 대모산에 안치되였다. 릉의 이름은 영릉이라고 붙이였다.

훈민정음창제에 기여한 정린지

벌과 나비들이 사방에서 춤추고 가지각색 꽃들이 망울을 터친 어느 봄날 세종왕은 집현전의 학자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소견을 터놓았다.

《과인은 오래전부터 우리 글을 만들고자 생각해왔소. 지금 우리가 쓰는 한문은 읽기와 쓰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요. 그래서 과인은 부엌에서 일하는 아낙네들까지 모두가 쓰고 읽을수 있는 우리 글을 만들고싶소. 모두들 어떻소? 생각들을 말해보오.》

그러자 학자들은 모두가 옳다고 머리를 숙이였다.

이것은 천만번 옳은 일이였다. 그때까지 우리 조선글이 없다보니 중국글인 한자를 가져다 쓰고있었다. 그러니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세나라시기부터 한자를 리용하여 우리 말을 적어오던 독특한 표기방식인 리두식서사체계는 원래 우리 말에 맞지 않고 글자자체가 어려우므로 우리 말을 쉽게 적을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 말을 잘 나타내고 우리 인민모두가 쉽게 체득할수 있는 글자를 만드는것은 오랜 서사생활과정에서 절실히 제기되여온 문제의 중점이였다.

뿐만아니라 당시 봉건통치배들을 놓고보아도 어려운 한문이나 리두로써는 국가관리문서를 정연하게 할수 없었다. 따라서 이것은 인민들과 지배계급모두가 요구하는 문제로 나섰다.

그리하여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새 글자를 만드는 일을 중요한 국가적사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자신이 솔선 밀고나갔다.

집현전의 학자들은 세종이 제기한 우리 글을 만드는 일이 모두가 옳다고 하였으며 하나와 같이 그 연구에 달라붙었다.

여기에는 정린지, 신숙주, 성삼문, 최항, 박팽년, 강희안, 리개,

리선로 등의 학자들이 참가하였는데 기본주인물이 정린지였다.

정린지는 세종의 특별한 신임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재주는 없으나 성의껏 우리 글자를 만들어보리다.》

이날부터 정린지는 훈민정음창제에 온갖 지성을 다했으며 집현전에서 살다싶이하였다.

정린지는 1396년 경상도 하동에서 석성현감을 지내던 정흥인의 맏아들로 태여났다.

1414년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례빈시주부, 사헌부감찰을 지내였던 그는 1418년에는 병조좌랑에까지 이르렀다. 그후 여러 벼슬을 거쳐 세종왕의 총애를 받아 집현전의 학사로 등용되였다.

집현전의 학사들은 우리 글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린지는 글의 형태로부터 시작하여 말소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여 어언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다. 봄이면 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피타는 연구를 하였다. 더우기 정린지의 생각은 이왕 만들바치고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글을 만들어내놓고싶었다.

그리하여 1444년 1월(양력) 드디여 글자가 완성되였다. 이 새 글자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이 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쓰고있는 우월한 조선글자이다.

정린지와 학자들이 이 글을 세상에 발표할 당시에는 모두 28자였는데 그 모양과 차례는 다음과 같았다.

ㄱ ㅋ ㅇ ㄷ ㅌ ㄴ ㅂ ㅍ ㅁ

ㅈ ㅊ ㅅ ㆆ ㅎ ㆁ ㄹ △

ㆍ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훈민정음을 줄여서 《정음》이라고도 하였다. 훈민정음의 《훈민》은 《백성을 가르친다》는 뜻이고 《정음》은 우리 말의 《바른소리를 적는 글자》라는 뜻으로서 새로 만든 글자의 특성을 표

현하고있다.

우리 글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발표된 후 여러가지 시험단계를 거친 어느날 세종은 정린지를 불렀다.

《훈민정음이 글구실을 옳게 할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아야겠다. 어디 력대 왕들에 관한 글을 지어보아라.》

그리하여 정린지는 권제, 안지 등과 함께 《룡비어천가》(125장)를 지었다.

이들이 지은 《룡비어천가》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찬양한 국문시가였다.

정린지는 이 글에서 기본앞장에는 우리 글로 짓고 뒤면에는 한문으로 번역하여놓았다.

이 글은 저자의 의도를 자유롭게 적은것으로 하여 대절찬을 받았다.

1446년 정린지는 여러 학자들과 함께 우리 글자에 대한 해설서로서 《훈민정음》(해례)을 내놓았다.

정린지를 비롯한 우리 학자들의 고심어린 연구에 의하여 창제된 《훈민정음》은 어느 다른 나라 글자를 받아들여 본을 따거나 또는 거기서 기원한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조선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만든 고유한 글자이다.

이것은 오래동안의 서사생활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살리고 또한 당시 여러 나라 글자들의 우결함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기초우에서 대담하게 착상하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얻어진 귀중한 창조물이다.

우리 글은 처음부터 과학리론적기초와 독특한 원리,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심오한 분석에 의하여 아주 짧은 기간에 창제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훈민정음은 그 말소리가 이루어지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기초글자를 만들고 거기에 획을 더하거나 기초글자를 일정하게 어울러서 파생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정린지를 비롯한 학자들이 만든 우리 글자는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자기의 글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서사생활에서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였다는것이다. 따라서 창조와 투쟁의 힘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간직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고유한 우리 말은 입말형태로만이 아니라 새로운 글말에 의하여 더욱 폭넓게 그리고 빨리 발전할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말과 글에 의한 국문문학이 형성되게 되였다.

훈민정음의 창제와 향가, 고려가요, 시조 등 국어시가의 전통은 국문시가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15세기 중엽이후 가사(조선중세문학에서의 시의 한 형식. 3, 4조 또는 4, 4조를 련의 구별이 없이 잇대여놓는다.)가 새로 발생한것도 우리 글자가 만들어진것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정극인(1401～1481)의 《상춘곡》은 이 시기 가사의 초기작품이며 대표작이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리 나라 력사전반에서 국문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

정린지는 훈민정음창제이후에도 과학사업과 연구에서 많은 업적들을 남기였다.

정린지는 1451년 김종서와 함께 편년체의 《고려사》를 기전체로 바꾸는 사업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고려시기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그후에도 정린지는 60살이 넘도록 천문, 력법, 아악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남기였다. 그러던중 1478년에 사망하였다.

후세사람들은 정린지를 우리 글 창제에 공이 큰 학자라고 이르고있다.

노비로부터 기술자가 된 장영실

세종왕으로부터 상의원 별좌(왕의 의복류들과 궁중의 일용품을 대주는 일을 맡아보는 관리)로 임명받고 대궐을 나선 장영실은 하늘땅이 한꺼번에 맞붙어 돌아가는듯 하였다.

《아,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 노비로부터 높은 벼슬에 오르다니. 꿈이냐 생시냐. 꿈이면 깨여나지 말아다오.》

관청노비의 신분으로 오직 천대속에 살아오던 그가 일약 종5품의 별좌벼슬에 오르게 되였으니 그로서도 꿈만같은 일이였다.

관가를 떠나 옆구리에 데룽데룽 짚신을 매달고 서울길에 오를 때는 상감이 어째서 부르는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졸지에 이런 희한한 일이 생길줄이야. 그는 자기의 심정을 무엇이라 말로 표현할길 없었다.

당시로 말하면 세종이 왕권을 쥔지 5년이 되여오는 1423년 10월이였는바 과학을 중시하던 그는 신분에 관계없이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벼슬을 주고 연구사업을 시키였다.

장영실의 손재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세종은 즉시 그를 불러올리였다. 그리하여 한낮 관청노비로 있던 장영실은 오늘 이렇게 왕의 어명으로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였던것이다.

사실 경상도 동래현의 한 관노비의 아들로 태여난 장영실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 어머니 역시 량반놈들의 술심부름을 하는 노비로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였다.

장영실은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다. 천한 신분인 그와는 마을아이들이 놀아주지 않기에 해종일 혼자서 개울에 나가 고기를 잡거나 물방아간을 맴돌면서 제손으로 여러가지 장난감을 만들어 개에게 메우기도 하며 하루를 보내였다.

그는 방아간에 들어가 쌀찧는것을 보면서도 저도모르는 호기심에 끌려 쌀이 어떻게 찧어지는가를 주의깊게 살폈으며 그 원리를 알아내려고 생각을 거듭하였다. 그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저 스치는 일이 없었으며 한번 손에 넣기만 하면 뜯어보고 리해가 되여야만 놓았다.

어머니가 늦도록 오지 않는 날이면 토방에 앉아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였다.

《어째서 밤에만 별이 반짝일가? 달은 또 어디로 흘러갈가?》

비가 내리는 날에는 비줄기를 바라보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비는 어떻게 되여 땅에 떨어질가? 과연 천지신명의 조화일가?》

눈여겨보면 의문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장영실이 10살이 되는 어느날 관가로부터 그를 관노로 바치라는 령이 떨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가슴은 천갈래만갈래로 찢어지는듯 하였지만 그렇다고 어디에 하소할데가 없었다. 그저 애매한 가슴만 터지게 두드릴뿐이였다.

어머니는 아들을 그러안고 이 슬픈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나 장영실은 태연히 대답하였다.

《어머니, 알고있어요. 제 걱정은 하지 말아요.》

이렇게 장영실은 뼈대도 굵기 전에 관가의 노비로 되였다. 하지만 그는 남다른 손재간으로 하여 관가에 들어서는 첫날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어느날에는 현감처가 시집올 때 가지고왔다는 못쓰게 된 장농을 순식간에 고쳐놓아 감탄을 자아냈고 또 어떤 날에는 페품이 다 된 농기구들을 예전보다 더 좋게 고쳐 만들어 사람들을 놀래웠다.

또 어느날에는 무기창고에 들어가 수북이 쌓여있는 무기들을 하나같이 고쳐내여 나라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활이나 칼, 창 같은것들은 물론 수레와 배를 뭇는 일에서까지 그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관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현감은 그를 불러 치하하면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장영실로서는 어머니의 얼굴이 제일 그리웠다. 그는 주저하던 끝에 소박한 소원을 아뢰였다.

《어머니를 한번 뵙고 오는것이 저의 소원이옵니다.》

그러자 현감도 웃음을 지으며 그의 효성을 치하하였다.

《재간만 있는것이 아니라 효성도 지극하구나. 어서 차비를 하고 갔다 오너라.》

이렇게 되여 관노는 죽을 때까지 가족을 만날수 없다는 법을 깨뜨리고 장영실은 오래간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였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희귀한 일이였다.

또 한번은 심한 가물로 논밭이 갈라터지는 일이 났을 때였다. 현감은 이 문제를 장영실과 의논하였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큰일이로구나.》

그러자 장영실은 주저없이 대답해나섰다.

《제게 한가지 생각이 있사온데.》

《어서 말해보아라. 어서.》

현감이 재촉해댔다.

장영실은 금정산골짜기의 물을 끌어다 고을의 논밭에 댈 자기의 안을 내놓았다.

《물이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마련이니 물길이 닿지 않는 곳은 나무로 홈통을 만들어놓으면 될것이고 다른 곳들은 물길을 파면 될것이 아니겠소이까?》

이 말에 즉시 고을들에서 목수를 동원하여 나무홈통을 만들게 하고 물길을 끌게 하였더니 현내 적지 않은 논밭에 물을 대게 됨으로써 가물로부터 피해를 면하게 되였다.

이 소문은 마을을 벗어나 사곳으로 펴져갔으며 마침내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였다.

세종왕은 관노비를 등용시키는데 대하여 여러 대신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종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장영실을 등용하였다.

장영실은 그후 자기의 직무에 성심성의 충실하였다. 그리하여 1432년에 와서는 행사직(정5품)으로 승진되였다.

장영실은 왕의 어명으로 여러 학자들과 함께 《간의대》(중앙의 천문관측대)를 설치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사실 당시 수준에서 《간의대》를 세운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리천과 함께 기계설계제작과 그 설치에 몰두하였으며 마침내 성과를 올리였다.

이어 장영실은 여러 학자들과 의논하여 《혼천의》(별의 위치 특히 적도자리표를 재는 각도측정기구)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노비출신으로서 배운것 없는 장영실이 사물의 리치에 맞는 이런 기구를 제작해내기까지에는 허다한 난관의 고비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것을 과학사업에 바쳐 성공의 출로를 한치한치 열어나갔다.

《동국여지승람》(권1 경도 궁궐)의 기록에 의하면 1432년 7월부터 1438년 봄까지 6년간에 걸쳐 혼천의와 간의를 비롯한 15가지의 천문관측기구들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의 중요지점들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장영실은 또한 세종왕으로부터 자동물시계를 만들데 대한 과제를 받았다.

왕자시절 책을 통하여 자동물시계에 대한것을 알게 된 세종은 여러차례 학자들에게 이를 만들데 대하여 과업을 주었으나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는 내가 마음속에 늘 생각해오던 소원이요. 이번에 그대가 이 일을 맡아 성취해주길 바라오.》

세종의 말은 간곡하였다.

《제 있는 힘껏 해보겠소이다.》

그후 장영실은 밤낮으로 연구에 달라붙었다.

먼저 원리를 따져가며 기초설계를 하고 모형을 만들어 여러차례 실험을 했으나 실패만 거듭할뿐이였다.

그러나 장영실은 결함이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뜯어서 고치고 모형을 새롭게 만들면서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하기를 열번, 스무번…

1434년 6월 드디여 장영실은 자격루라는 자동물시계를 만들어냈다.

보루각이라는 건물안에 설치된 이 자동물시계는 높은 곳에 물단지 4개를 놓고 그밑에 물받는 단지 2개를 놓았는데 이 단지에 고이는 물이 높아짐에 따라 우로 떠오르는 막대기가 쇠덩어리를 받쳐든 주걱을 떠밀어올리도록 되여있다. 이때에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쇠덩어리가 그밑에 있던 철판을 치면서 밑으로 누르면 철판의 다른 한쪽이 우로 들리면서 시간을 알리는 인형의 팔을 움직여 인형앞에 걸린 종을 두시간사이를 두고 하루에 12번 치도록 되여있었다.

이것은 쇠덩어리와 철판을 각각 37개씩 서로 다른 높이에 설치해놓고 물단지에 물이 높이 고이는데 따라 점점 높은 곳의 철판을 들어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밤에는 두시간간격만이 아니라 더욱 세분하여 인형이 북을 치고 북을 치는 시간들사이를 더 세분하여 징을 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물단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량을 시간적으로 고르롭게 하는 문제인데 이를 위하여 수학적계산을 세밀하게 하고 부속품가공을 정밀하게 하였다.

자격루가 첫 종을 울리던 날 세종은 장영실의 성과를 치하하여 큰 잔치를 베풀기까지 하였다.

《그대가 이룬 업적은 후세에 남을것이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힘쓰도록 하시오.》

《길이 명심하겠소이다.》

장영실은 세종이 내리는 큰 잔을 정히 받았다.

이렇게 자격루를 발명한 장영실은 연구사업을 계속하여 1438년 1월에는 또하나의 자동물시계인 옥루기륜을 제작하여 새로 건설한 흠경각에 설치하였다. 옥루기륜은 자격루보다 더 발전한 기구로서 물의 힘을 리용하여 종과 북 및 징을 치는 장치는 자격루와 마찬가지였으나 12개의 인형이 각각 자기가 맡은 시간동안 패쪽을 들고 서있다가 자기 시간이 지나면 여닫는 문을 열고 밑으로 내려가 숨어버리는 장치가 더 있었다.

특히 여기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총알만한 크기의 금덩어리가 실

제적인 태양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고 그 모든 장치들은 높이 7자(약 140㎝)나 되는 종이로 만든 《산》으로 덮게 되여있었다.

흠경각의 물시계는 계절에 따라 매일 달라지는 해돋이의 위치와 운동속도를 정확히 표시하고있었다는 의미에서 천문관측기구의 역할도 같이하였다.

또한 태양, 인형 및 그밖의 모든 가장물들이 하나의 수차(옥루기륜)의 운동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수많은 치차를 가지고있었다는 점에서는 오늘날 기계시계장치의 맹아였다고도 할수 있다.

특히 이목을 끄는것은 기계장치에 공급되는 물의 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물병을 든 인형이 물그릇의 북쪽에 서있다가 그릇에 물이 비면 자동적으로 물을 부어넣게 한것이다.

장영실의 과학적발명은 물론 시계류와 여러가지의 기계제작에도 있지만 가장 큰것은 그의 나이 50고개에 들어서면서 만들어낸 측우기이다. 측우기의 발명은 세계 기상학발전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성과이다.

비가 내린 량을 측정하는데서 당시까지는 땅속에 스며든 물깊이를 재는 방법을 썼다. 그러나 비물이 땅속에 스며드는 깊이는 토질에 따라 다르며 또 같은 토질이라 해도 마른 땅인가, 습지인가에 관계되기에 이것은 정확한것이 못되였다.

그리하여 세종은 이것 역시 장영실에게 맡기였다.

《근래에 날씨의 조화가 심하여 가물과 홍수가 자주 오니 여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소. 내 생각엔 먼저 내리는 비의 량을 재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대 생각은 어떠한지.》

세종이 심중한 어조로 계속 말하였다.

《그간 이 일을 여러 사람에게 맡겼으나 아직 설계조차 되여있지 못하니 어찌겠소. 이번에도 이 어려운 과제를 맡아주길 바라오.》

세종은 미더운 눈길로 장영실을 바라보았다. 장영실은 잘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며칠이 가도록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비량을 잴수 있는 기구창안에 몰두하고 있었으나 이렇다할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무거운 머리를 붙들고 토방에 나섰는데 마침 장마철이라 기와지붕을 타고 비물이 마당에 떨어지는가 하면 안해가 놓아둔 독안으로 차들고있었다. 얼마후 비물은 독을 넘어서 흘러났다.

순간 그의 머리속에 번쩍이는 그 무엇이 안겨왔다.

《옳다. 바로 저것이다. 내리는 비를 어떤 그릇에 허실없이 받아서 그 깊이를 재면 될것이 아닌가. 비가 내린 시간과 그 량을 잰다면 이로써 해결될것이다.》

장영실은 이 발견에 너무도 기뻐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안해에게로 달려갔다.

그후 장영실은 연구를 거듭하여 매우 실용적인 강우량측정기구인 측우기를 발명제작하였다. 때는 1441년 8월 18일이였다.

이날 서운관에는 높이 2자(약 40㎝), 직경 8치(16㎝)의 쇠로 만든 둥근통모양의 측우기가 설치되였다.

장영실의 연구성과에 세종왕은 너무 기뻐 그의 손을 쥐고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훌륭하오. 그대가 발명한 우량계와 량수표를 측우기 및 수표로 이름짓고 후세에 넘기도록 하겠소.》

세종왕은 장영실이 만든 측우기를 전국의 각 고을에 설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나서 어느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비가 얼마나 내렸는가를 매번 어김없이 측정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체계를 세우도록 하였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428년 3월부터는 기상관측자료들을 매일 기록하였다가 1년분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편찬하는 년보체계를 제도화하였다고 한다.

측우기도 완성되고 이러저러한 기술적문제들이 련속 해결을 보게 되자 장영실은 세종의 더욱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였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대해서는 기록된것이 없다.

비천한 노비로부터 관록있는 기술자가 되여 나라의 기술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장영실은 측우기와 함께 그 이름이 남아있다.

지리지를 편찬한 학자 량성지

량성지는 15세기 가장 과학성있고 실용적이였던 지리지 《동국여지승람》(50권)의 주요편찬자이며 여러 부문에 걸쳐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은 이름난 학자였다.

량성지는 1415년 전라북도 남원에서 량구주의 셋째아들로 태여났다.

량성지는 6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시를 잘 짓고 총명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일찌기 9살에 한문문장을 잘 써서 선생을 놀라게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한다.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자주 들이대여 선생이 땀을 흘리게 하였다는것이다.

량성지는 특히 지리에 밝았고 그에 대한 책을 많이 탐독하였다. 그는 제가 나서자라는 고장과 나라지경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라나면서 량성지는 통치배들이 유교교리에 빠져 그 테두리안에서 맴돌며 더우기는 제 나라의 좋은것을 보려 하지 않고 임금마저도 중국의 전설적인물들인 요임금, 순임금을 리상적인 군주로 내세우면서 떠들어대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조선사람이라면 력사를 배워도 남의 나라것이 아니라 제 나라근본의 고대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지리도 역시 제것부터 연구파악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연구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그것은 반드시 제 나라의 부강발전과 함께 중요하게는 백성들을 잘살게 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는 우리의것을 파고들어 하나라도 내세우리라!》

커가면서 이 생각은 더욱더 굳어졌다.

량성지는 26살이 되던 해 진사시험에 합격하였고 그 이후로는 집현전 학사, 리조판서, 홍문관(왕의 자문기관)대제학 등 높은 급의 벼슬을 지내였다. 그의 벼슬길은 비교적 순조로왔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벼슬보다도 학문연구에 더 큰 마음을 기울였다. 더우기 나라에 정확한 지도와 지도책을 내놓고싶었다.

그는 날마다 선행시기 이미 만들어놓은 지도와 지리지들을 연구하였고 그 부족점들을 파악하였다.

《아니야, 이건 틀렸어.》

그리고는 또다시 표시해놓군 하였다. 그는 애국의 감정을 안고 나라의 산천경개, 교통운수, 성곽, 물산들을 하나하나 주목해나갔고 지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량성지는 먼저 정척, 강희안 등과 협력하여 1454년 처음으로 《경성지도》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어 현지답사의 길에 올랐다. 앉아서는 불가능한 일이였기에 직접 자신이 이끌어 재여보고 확증하면서 그 자료와 수치에 기초하여 1463년에는 《동국지도》를 만들었다. 이것은 그때까지 나온 지도들중에서 가장 정확한 실측지도였다.

그는 지도에서 산과 강, 도읍, 성곽들을 독특한 기호로써 선명하게 표시하였다. 지도를 펼쳐들기만 하면 우리의 지리가 일목료연하게 한눈에 안겨들었다.

그는 지도제작과정에 이에 필요한 측량기구들도 창안도입하였다. 지도의 정확성을 위해 《기리고차》라는 자동거리측정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1리를 갈 때마다 수레의 바퀴와 련결된 나무인형이 저절로 《둥당, 둥당》하면서 북을 치게 장치가 되여있었다. 그때로 볼 때 이것은 신비스러운것이였다.

량성지는 정척과 함께 또다시 《동국지도》의 부족점들을 수정보충하여 이번에는 《동국여도》를 작성하여 내놓았다. 물론 이것은 오늘의 발전된 과학에 기초한 지도처럼 되여있지 못하였지만 소박하면서도 비교적 정확했고 또한 기호표식이 선명한것으로 하여 당시 세계적으로 놓고보아도 가장 앞선 지도라고 볼수 있었다.

더우기 그는 나라 지키는 싸움에 효과적으로 쓰일 군사작전용지도를 만들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싸움을 하자면 지리에 밝아야 하며 그 지형지물을 리용하는것이 중요하기에 언제나 생각하고 있던 문제였다.

량성지는 온갖 심혈을 기울여 《연변방술도》라는 지도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국방력강화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그의 지도제작기술은 당시로 놓고볼 때 가장 앞선것이였다. 그 시기 그는 서운관 판사로 있으면서 나라의 지도제작, 지리지편찬사업을 지도하였고 후대교육에도 많은 힘을 들이였다.

량성지는 자신이 주동이 되여 자연지리, 경제지리, 력사지리, 군사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때까지 연구분석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지리지를 편찬하는 사업을 밀고나갔다.

《세종실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 의의가 큰 지리책들을 편찬하는데서 량성지는 자기의 박식한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1451년에 편찬된 《고려사》지리지는 고려시기의 연혁, 행정지리를 위주로 하면서 그에 따라 실지 있었던 력사적사실들과 함께 설화, 전설들까지 주었다. 사실 이와 같은 지리지를 편찬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하지만 량성지는 모든 애로와 곤난을 이겨내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끝내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그는 지리지를 편찬한 후 많은 학자들의 의견도 허심하게 들었다.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량성지의 공로를 평하였다.

《밤낮으로 고심하신 성과이오이다.》

《우리의 후대들이 좋아할것이옵니다. 이것만 펼쳐들면 고려시기가 한눈에 들어오는것이지요.》

량성지는 이들의 말에 머리만을 끄덕일뿐 생각은 더 깊이 하고있었다. 량성지는 뒤이어 1454년에 완성편찬된 《세종실록》(163권)의 지리지편찬사업에서도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8권으로 된 종합적인 성격의 조선지리책인 《세종실록》지리지는 그 내용이 풍부하고 비교적 정확한것으로 하여 현재에 와서도 성과작

으로 보고있다.

이 지리지는 《세종실록》의 한부분으로 되고있는데 해당 시기에 이룩된 지리학적성과들을 길이 전하기 위해 편찬된것이였다고 한다. 이것은 편찬체계에서도 과학성이 높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내용이 특이한것으로 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우리 나라 각 부문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 개괄하였을뿐아니라 그와 함께 도별, 고을별로 구체적내용을 담고있다. 례를 들어서 논밭을 놓고 볼 때도 기름진 땅과 중간정도의 땅, 메마른 땅을 군별로 갈라 그 통계자료를 주었다. 수공업품도 종류와 생산지를 밝혀주었고 해안연선의 물고기잡이구역도 각 수역에 해당한 이름난 고기에 대한 자료를 함께 서술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도자기생산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집중되여있고 어장으로는 황해도, 충청도가 가장 왕성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지방에 따라 특징적인 식물, 동물, 광물의 분포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여 그 부문 학자들의 연구에 귀중한 참고로 되게 하였다.

량성지는 또한 이름난 학자들이였던 로사신, 강희맹, 서거정, 성임 등 23명의 인물들과 함께 《팔도지리지》(1432년),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모든 성과들을 보충수정한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50권으로 되여있는 《동국여지승람》은 1478년에 시작하여 1481년 4월에 완성한 우리 나라 지리학의 백과전서이다.

여기에는 그때까지 편찬작성된 여러 지리지들의 성과들이 일목료연하게 반영되였고 학자들자신이 실지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장악하고 측정확인한 연구자료들이 도별, 군별, 고을별로 상세히 수록되여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경도, 한성부, 개성부, 각 도와 고을별 고장이름이 력사적으로 변해온 정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지리적특성, 명승, 산천, 토산물, 성곽들의 크기, 군사시설, 온천, 목장,

기상기후조건, 교통, 논밭의 비옥도, 주민구성과 함께 그 지방에서 태여난 명인들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주었다. 따라서 이 책은 나라의 국보로,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량성지는 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동국여지승람》을 수정보충해나갔다. 오늘에까지 전해지는것은 이 지리지의 증보판인데 1530년에 그 내용을 더욱 풍부화하여 전55권으로 완성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그는 나이가 많아졌다고 연구사업을 그만둔것이 아니라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여러권의 저서들에서 지리학의 과학적체계를 밝혀내였고 그 내용을 풍부화함으로써 커다란 업적을 남기였다.

량성지는 지리학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과학분야들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개선방향과 방도들을 내놓았다.

그는 조선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나라의 유구한 력사를 깊이 연구하여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미풍량속을 론증해나섰고 그것을 후대에 물려주어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아울러 량성지가 주목을 돌린 부문은 군사령역이였다. 나라를 지키는것은 그 나라 백성된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한 량성지는 자기의 저서 《비변십책》에서 군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서술하였다. 여기에는 병사선발, 군관제발, 군량저축, 병쟁기준비, 성곽축성, 서울에 성을 쌓을데 대한 문제, 관방(일을 보거나 숙직하는 방)을 정하는 문제 등 군사에 대한 문제들이 체계있게 정리되여있다.

이것은 당시 문관이였던 량성지로 볼 때 커다란 힘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무관이라 할지라도 흔히 이만한 지식을 갖추기는 어려운 형편에서 문관인 그가 군사문제에 대하여 이만한 저서를 남겼다는것은 더 말할것없이 량성지의 애국지심이 낳은 산물로 보아야 할것이다.

그 시기는 유교가 지배적이였으므로 문관의 비는 세우면서도 무관의 비는 생각지 않는 때였다. 그는 애국적인 장군들의 모범으로 우리의 군사들을 교양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고구려에서처럼 해마다 봄과 가을에 교외에

서 사냥경기를 하여 군사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자극으로 되게 하며 전장에서 목숨바친 군사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은전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생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것을 제기하였다.

량성지는 또한 《군정십책》을 내놓음으로써 군사규정과 규범을 엄격히 하고 군사복무자의 가족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군사들은 군문을 갖추고 무기를 정비보강하며 온 나라 백성들이 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여기에서도 그는 군대의 질적강화를 위해서는 그 선발에서부터 소질과 재능에 따라 병종을 정해야 한다는 좋은 의견을 내놓아 군사들의 존경을 받았다.

량성지는 농업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간석지나 강하천하구에 방조제를 쌓고 논개간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모아서 농사를 짓도록 통제해야 한다는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당시 농업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던 소를 허가없이 망탕 잡아먹지 못하도록 할데 대해서도 첨부하였다. 그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권농사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량성지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도, 군, 현에 의료기관을 설치할데 대한 문제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서울에서 의사들을 키워 지방에 배치하며 도의 감사들에게 령을 내려 의사들이 이룩한 성과를 나라에 종합하여 일반화할데 대하여 의견을 내놓으면서 좋은 연구성과들을 표창함으로써 궁벽한 산촌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량성지는 나라의 귀중한 책들을 많이 출판하여 대대손손 잘 보관관리할데 대해서도 자기의 견해를 내세웠다. 그는 이에 대하여 중국의 책은 조선에 없으면 중국에 가서라도 구할수 있지만은 우리 나라의 책은 소각 또는 류실되면 다시 얻기가 곤난하므로 가치있는 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사, 인쇄 또는 구입하여 10부씩 국가서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하였다.

량성지는 리조판서를 지내면서 과거제도에 대해서도 시험과목을

현실조건에 유리하게 능동적으로 변경시키며 인재들을 골라낼데 대한 문제, 음악부문에서 남의 나라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 인민의 감정에 꼭 들어맞는것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제 등 수많은 건의안들을 냈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량성지의 이러한 실사구시적인 탐구는 아직 미숙한것이기는 했지만 우리 나라 실학발생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량성지는 역시 량반이라는 자기 계급의 제한성과 시대적인 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제도 그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였고 《좋은 정치, 어진 정치》의 실현만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의 진보적인 건의서들은 당시 《태평성세》만을 떠들어대던 봉건통치배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으로 되였다.

량성지는 1482년 67살을 일기로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저작으로는 우에서 언급된 여러 저서들과 함께 《눌재집》이 남아있다.

사륙신과 생륙신

리성계로부터 시작된 리왕조는 그 5대에 이르러 세종왕이 죽고 그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문종은 몸이 약했으므로 왕위를 물려받은지 2년이 못되여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12살밖에 안되는 단종이 왕권을 쥐게 되였다.

철부지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였으니 이것도 답답한 일이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의 숱한 삼촌들이 조카의 왕자리를 노리고있는것이였다. 때문에 문종도 생존시에 아들의 앞날을 두고 근심하며 늘 마음을 놓지 못하였었다. 그래서 집현전의 학사들이였던 성삼문을 비롯한 근신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나 죽은 후에도 우리 애들을 잘 받들고 도와주오.》

여러 대신들과 집현전의 학사들은 문종이 죽은 후 자기들의 신의를 지켜 어린 단종왕을 성심성의로 받들었다.

하지만 세종왕의 둘째아들이며 단종의 맏삼촌이였던 수양대군은 조카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였다. 그는 앞날의 거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인물은 가차없이 죽였으며 친동생인 안평대군마저 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귀양을 보냈다가 없애버렸다.

수양대군은 당시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유능한 관료였던 김종서마저 참혹하게 학살하였고 자신은 왕족으로서는 될수조차 없는 령의정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내외병마도통사의 관직까지 겸임하여 모든 실권을 틀어쥐였다.

이와 함께 단종에게 왕자리를 자기에게 물려줄것을 강요하였다. 수양대군은 오직 권력을 탈취하려는 하나의 야심밑에 어린 단종을 못살게 굴었으며 제 마음내키는대로 그가 14살되는 해에 16살에 난

녀자를 선택하여 성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수양대군의 위엄과 권세는 나날이 더하여 그의 의도를 따라나서는 사람은 살수 있었지만 비위를 거슬리는자는 응당 죽어야만 했다. 때문에 단종은 항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심정이였다.

그럭저럭 단종은 3년이라는 기간 왕위를 보존하였다.

수양대군은 좌의정이였던 정린지를 불러 단종이 자기에게 왕위를 넘기게끔 하도록 사촉하였다.

《상감마마, 황송하오나 하늘과 땅과 사람의 마음이 한가지로 돌아가는 곳이 있사와 인력으로는 막을 길이 없사오니 통촉하옵시어 이제 하늘의 큰뜻에 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좇으시와 수양대군에게 선위하시기 바랍나이다.》

정린지는 어전에 들어가 단종에게 이 말을 하고 또 하였다.

귀찮고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던 단종은 끝내 비장한 결심밑에 한숨을 쉬면서 왕자리를 내놓고말았다.

수양대군은 체면을 차리며 사양하는척 하다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왕좌를 타고앉았다.

대궐에서는 단종의 어머니와 부인의 통곡소리가 터져나오고 그의 측근자들이 비분강개하여나서니 이들은 수양대군이 보낸 자객들의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1455년 수양대군은 이렇게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냈다. 그가 바로 력사에 폭군으로 이름을 남긴 리왕조의 7대왕 세조였다.

세종시기부터 충직한 신하들이였던 문관귀족들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결사적으로 반대해나섰다. 그들은 유교도덕에 따르는 《대의명분》(마땅히 지켜야 할 큰 의리와 직분)의 관념에서 단종의 왕위를 복귀할것을 기도했다.

그리하여 세상에 이름난 덕행으로 되는 사륙신과 생륙신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였다.

세조가 왕자리에 올라앉던 날 사륙신의 중요인물인 성삼문은 마침 궁중의 당직으로 있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였다. 짐작을 못한것은 아니였지만 이렇게 빨리, 가혹하게 닥칠줄은 미처 몰랐다. 례방승지의 벼슬에 있던 성삼문은 직책상 국새를 새 임금에게 올

리게 되여있으나 그는 너무도 억이 막혀 그것을 움켜쥔채 통곡하다가 세조가 나꿔채는통에 그만 빼앗기고말았던것이다.

사륙신의 다음인물인 박팽년이 이 광경을 보고 분함을 못이겨서 즉시 경회루앞 련못가에 달려나가 빠져죽으려 하였다. 이때 성삼문이 겨우 만류하며 아직은 목숨을 보존하고있다가 틈을 보아 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사륙신중의 한사람인 유응부는 역시 무관이므로 일을 지체하면 위험하니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덤비였다.

하위지, 류성원, 리개도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이들 사륙신들은 어느날 한자리에 모여앉아 단종을 다시 왕자리에 앉히기 위한 비밀모의를 가지였다.

《우리가 지금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안될것이니 각각 벼슬을 내놓지 말고 가까이 돌면서 기회를 엿보아 거사하기로 합시다.》

그들은 굳게 손을 잡았다.

그후 얼마 못가서 그들에게는 친구 한명이 생기였다. 김질이라는 인물이였다.

그는 성삼문의 집무실로 찾아들어서더니 권세에 아부하고 리익을 탐내여 선왕의 대은후덕을 저버릴수 없다면서 구차히 사는 까닭은 후일을 도모하려 함이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생각하다가 성삼문을 찾아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하였다.

《아무쪼록 힘써 대사를 이루는것이 신하된 도리가 아니겠소이까?》

그리하여 성삼문은 그를 믿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털어놓으면서 힘을 합치자고 하였다.

어느날 기회는 도래하였다. 1456년 명나라에서 왔던 사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는데 수양대군은 그를 전송하기 위한 의식에 나오도록 되여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다시없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성삼문의 부친인 성승과 총관인 유응부에게 별운검(운검을 차고 왕의 행차를 따르는 벼슬)을 서도록 하고 틈을 타서 세조를 베버린 후 그 추종자들까지 해치우고 단종을 복귀시키기로

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슨 기미라도 채였는지 수양대군은 오늘 의식에 별운검을 들이지 말라는 분부이다. 그리하여 부득이 이미 작정한바를 뒤로 미루게 되였다.

그러나 그들의 차후거사는 눈물을 흘리던 김질의 변절로 사전에 드러났다.

수양대군은 김질의 실토를 듣고 크게 노하였다.

《무엇이라구, 나를 어찌겠다구?! 고얀 놈들, 어디 보자. …》

수양대군은 룡상에 엉치도 붙이지 못하고 푸들푸들 떨었다.

다음날 수양대군은 사륙신들을 모두 잡아들이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문초를 시작하였다.

수양대군은 먼저 성삼문을 불러들이였다.

《네가 너희 도당 여섯사람과 공모하여 어제 나를 죽이려 했다는데 사실이냐?》

순간 모든것을 간파한 성삼문은 태연히 대답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

《네가 나의 록을 먹으면서 어째 나를 배반하고 역적모의를 했느냐?》

그러자 성삼문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명백히 대답하였다.

《나는 상왕(단종)의 신하로서 상왕을 복위시키고자 했던것이오. 내가 나으리의 신하가 아닌바에야 어찌 배반이니 역적이니 한단 말이오. 내 상왕을 멀리 떠나서는 일을 도모할수 없겠기에 벼슬을 붙들고있었거니와 그러나 나으리가 준 록은 한톨도 먹지 않았으니 내 집을 수색해보면 알것이요. 그리고 평일에 나으리는 옛적 주공이 되겠노라고 하였고 또 책문까지 짓게 하였거늘 그래 어떤 주공이 나으리같은 행위를 했단 말이오. 나는 상왕을 위해 죽을뿐이니 어서 죽여주오. 》

사실 사륙신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수양대군의 록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각오밑에 그에게서 받은 쌀은 한톨도 먹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었었다. 성삼문은 아무리 해도 굴복할 자기가 아니라고 소리치면서 빨리 죽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옆에 붙어앉아있

는 신숙주를 엄하게 꾸짖었다.

《너는 세종왕의 옛 당부와 문종의 고명을 잊었느냐. 네 장차 죽어서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선왕들을 대하겠느냐. 더럽다.》

성삼문은 침을 뱉았다.

문종왕의 생존시 신숙주 역시 그의 애절한 부탁을 여러번 들었고 머리를 조아린 인물이였다.

하기에 성삼문의 질책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이때의 일을 두고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날 신숙주가 집에 들어서니 부인 윤씨는 몹시 의아해하는것이였다. 소문에 성승지, 유대감 등 집현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왕앞에서 문초를 당하고있다니 남편도 역시 이들속에 끼여 목숨을 잃었을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천연스레 들어서니 자신은 남편을 따라 죽으려고까지 생각한 참이였는데 하늘같던 기대와 의기가 졸지에 무너졌다.

신숙주는 아이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어깨가 처져 말하는것이다.

《저것들때문에… 결심을…》

《그 명망이 가석하외다. 더럽소.》

윤씨는 어이없어 쓴웃음을 짓더니 침을 뱉고 내실로 사라졌다. 조금 있다 신숙주가 뒤따라 들어가니 이미 부인은 들보에 목을 맨채 싸늘한 시체가 되여있었다.

성삼문은 살가죽이 한군데도 성한 곳이 없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여 형장으로 나가면서 옆에 선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새 임금을 도와 천하를 태평하게 하시오. 나는 옛 임금을 뵈오려 지하로 가는구려. 하하하…》

그리고 그는 시 한수를 읊었다.

북소리 목숨 앗길 재촉하는데
머리 돌려 바라보니 해도 저무네
황천엔 객집 하나 없다 하거니
오늘밤 뉘 집에 가 잠을 자리오

이것이 바로 성삼문의 절명시이다.

집현전의 학사로서 《훈민정음》창제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 성삼문은 명실공히 당대 문장에서 당할자가 없는 명문가였다.

그는 죽음에 앞서 지조를 굽히지 않으리라는 뜻의 다음과 같은 시조를 남기였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락락장송 되였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것은 그의 굳세고 결백한 지조를 담은 뜻깊은 시조이다.

그의 시재능과 관련하여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한번은 그가 중국의 명나라시기 사신일행으로 연경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 그곳 선비들이 성삼문의 글재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 해오라기를 그린 명화를 하나 얻었는데 거기에 넣을 시 한수를 써달라고 조르는것이였다.

그는 먼저 그림을 보자 했지만 그들은 그림은 지금 가지고오는중이라면서 먼저 시부터 지어달라고 하였다. 그들의 속심을 넘겨다본 성삼문은 순식간에 이런 글을 휘갈겼다.

눈같은 옷
구슬같은 발
고기 노려 갈대숲에
그 얼마나 서있었나

시를 들여다본 명나라사람들은 탄복하면서도 서로서로 마주보며 얼굴에 웃음을 띠는것이였다.

잠시후 그림을 가져오니 그것은 수묵화였다.

그러니 해오라기는 흰것이 아니라 검은것이였다. 그런데 흰것으로 그려놓았으니 딱한 일이였다.

하지만 성삼문은 껄껄 웃더니 다시 붓을 휘둘러 시의 마무리를 하였다.

네 모습 검은것은
산음현을 날아 지나다
왕희지의 벼루씻은
못속에 빠졌음이냐

왕희지는 중국의 옛 서예가인데 그가 얼마나 직심스럽게 글씨련습을 하였던지 먹을 갈 때 벼루씻은 못의 물이 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성삼문은 이렇게 순간 왕희지를 생각해냈고 자기의 시에 옮겨놓은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 구절의 어긋난 점을 바로잡고 글의 약점도 보충해주게 되였다. 그러자 그림의 주인과 그의 친구들은 성삼문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면서 길이길이 가보로 간수하겠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성삼문이 형장의 이슬이 된 뒤 그의 부친과 다섯이나 되는 동생, 사촌들까지 그 련루자로 목숨을 잃었으며 부인은 관비로 되였다. 그가 죽은 뒤 집을 찾아보니 쌀 한톨 없고 방은 오래전부터 불기운이 없었던 모양으로 랭랭하였으나 고간에는 수양대군에게서 받은 록미가 그대로 고스란히 쌓여있었다.

다음날은 박팽년이 심문대에 올랐다. 박팽년으로 말하면 문장과 덕을 겸비한 명사로서 당시 형조참판의 벼슬에 있었다.

《네가 나의 록을 먹었고 또 나에게 신이라 일컬었으니 너는 나의 신하인데 어찌하여 새로이 배반하려 했느냐?》

수양대군이 묻자 그는 목소리를 높여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나는 상왕의 신하일뿐 나으리의 신하가 아니거늘 어찌 나으리에게 신이라 일컬었으리오.》

《네가 마음을 돌려 나를 좇는다면 부귀영화를 길이 누릴것이로다.》

수양대군은 그의 뛰여난 재주가 아까왔다. 옆에 붙어선 아첨

군들도 눈짓을 해가면서 타일렀다.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이다. 그것을 잠간 거두면 온 집안이 모두 살게 되고 부귀를 누릴수 있는데 무슨 고집을 그렇게, 쯔쯔…》
하건만 박팽년은 분연히 대답하는것이였다.
《더럽게 사느니보다 깨끗이 죽는것이 나으리라. 어서 죽여라!》
그는 기꺼이 형을 받았고 그의 집안 역시 패가멸족하였다.
다만 둘째아들 순의 부인이 임신중이였는데 종의 도움으로 겨우 혈통이나 부지할수 있었다. 그후 그 아들이 커서 제사를 지낼 때면 아버지만이 아니라 사륙신모두에게 술을 정히 붓고 명복을 빌었다 한다.
수양대군은 조금도 굴함이 없는 박팽년의 모습에 길게 탄식하며 중얼거렸다.
《지금엔 란신이래도 후세에는 충신의 이름을 들으리라…》
그다음은 하위지였다. 그는 원래 말이 없고 정직하고 오직 법대로만 하는 인간이여서 그 누가 흠잡을데 없는 위인이였다. 그러나 한번 먹은 마음만은 절대로 굽히지 않는 인물이였다.
그때 하위지는 례조참판에 있었는데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준 록미는 한알도 먹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쌓아두었다.
그는 수양대군의 악착한 고문에 조금도 괴로와하는 빛이 없이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나으리는 무슨 의리를 지켰다고 날더러 역적이라 하시오. 역적이면 죽일뿐이어늘 이런 악형으로 더 물을것이 무엇이오.》
그는 천성그대로 입을 꾹 다물고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의 두 아들도 마지막으로 어머니앞에 엎드려 절하며 부디 슬픔을 억제하시고 누이와 함께 관비가 될것이지만 부도를 지켜 의롭게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조용히 형틀에 올랐다.
류성원 역시 당시의 이름난 문장가였는데 세조의 강박으로 그를 찬양하는 글 한수를 지어주고 그 의분을 참지 못해 하늘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을 한 사람이다.
류성원은 자기들의 비밀모의가 탄로된 사실을 성균관에서 듣

고는 그길로 집으로 내려왔다.
천년을 같이 살고싶은 부인이였다.
하건만 그는 관복을 정히 입고 속에는 비수를 넣었다. 그리고 사당에 들어가 제손으로 목을 찔러 죽고말았다.
그는 평소에는 학식이 높고 례의가 각별하여 사람들의 높은 존경을 받고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것을 간파하자 그는 더러운 놈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깨끗한 자결로 목숨을 끊는 길을 주저없이 택했던것이다.
악착한 수양대군은 그의 시체를 가져다놓고 형을 집행하였다. 그러니 두벌죽음을 당한셈이다.
그도 또한 방안에 록미를 받아놓은채로 손도 대지 않고있었다.
또 그다음 사륙신의 한 인물인 리개는 그 집안이 대대로 이름난 유학자였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나서 두달만에 글을 읽었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신동이라고 불렀다 한다. 그는 벌써 소년시절에 나라의 당당한 문재로 지목되여 집현전의 학사로 뽑혀왔다. 그런데 그는 몸이 너무 약하여 어떤 옷이든지 좀처럼 맞지 않았으며 또 옷을 이기지 못하여 끌고다닌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달대로 단 부저가락이 살을 질질 태우고 기름이 뚝뚝 떨어져도 안색 한번 변함이 없이 조용히 왕을 꾸짖었다.
《나으리, 이게 무슨 형벌이오이까? 어진 사람은 이런 형벌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그도 형장의 이슬이 되였다. 그도 역시 록미는 한알도 다치지 않은채로 안방에 쌓아두었었다.
마지막인물은 유응부였다. 그는 무관이고 장수이므로 성격이 용맹하며 활쏘기와 칼쓰기에 매우 능란하였다. 그는 신의가 매우 두터운 사람으로서 한번 다진 맹세는 어긴적이 없는 인간이였다.
수양대군이 독이 올라 무엇때문에 역적모의에 가담했는가고 따지였다.
《너는 벼슬이 이품이어늘 무엇이 부족하여 역적모의를 했느냐?》

그러자 유응부는 벌떡 일어나 칼로 베듯 대답하였다.

《내 인군을 위하는것이 역적이라면 인군을 저버리는게 충신이란 말인가? 나는 내 인군을 위하여 간신을 없애려다가 간사한 놈의 밀고로 이 지경이 되였으니 빨리 날 죽일뿐이지 묻긴 무얼 묻는가?》

《무엇이라구, 이놈이 하늘 높은줄 모르는 놈이구나. 여봐라, 저놈의 살가죽을 모조리 벗기여라.》

수양대군은 칼로 그의 살가죽을 벗기게 하고서도 분을 삭이지 못해 부쇠로 그의 배와 불두덩을 지지게 하였다.

그러나 유응부는 코웃음을 쳤다.

《야, 이놈들아. 쇠가 식었는데 다시 달구어오너라!》

유응부는 호통을 쳐대며 악형을 받다가 그자리에서 숨이 졌다.

그는 무관의 기질이였지만 효성이 지극하여 자기는 죽을 먹으면서도 어머님의 밥상에는 색다른 반찬을 떨구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사륙신들은 온몸이 찢기여 형장을 피로 물들였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목숨바쳐 지켜낸 신의는 종당에 봉건충군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루어진것이다.

그러나 신하로서의 의리를 지켜 자기들의 선왕을 위하여 귀중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은 여기에 그들의 돋보이는 참모습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수양대군은 사륙신들을 처형한 후 그와 련루된 70여명의 량반관료들을 잔악하게 사형하였다.

한편 수양대군의 포악무도한 행위에 극도로 분개한 일부 량반관료들은 그밑에서는 관리생활을 할수 없다고 단언하고 반항의 표시로서 벼슬을 내놓고 방랑하거나 시골에서 은둔생활로 일생을 마치였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사륙신과 함께 생륙신이 나타나게 되였다.

생륙신은 김시습, 남효온, 원호, 리맹전(권절), 성담수, 조려 등이다.

단종을 위하여 사륙신들처럼 칼아래에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일평생 오직 절개를 지켜 살다가 죽은것으로 하여 그들의 이름도 력

사에 남아있다.
대표적인물인 김시습(매월당)은 이 시기 유명한 시인이였다. 그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매우 령리하였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동이라 불리웠다고 한다.
5살에 당시 왕이였던 세종대왕을 같이한 자리에서 《삼각산》이란 글을 지었는데 모두가 절찬이였다.

삼각산 높은 봉이 하늘을 뚫었고야
올라가 북두성을 따보리라
뫼부리에 일어 남이 구름과 안개뿐이랴
능히 왕도를 만세토록 편안케 하리

세종대왕은 어린 그의 글이 너무도 기특하여 비단 50필을 상으로 주면서 네가 능히 가져갈수 있는가고 물었다. 그는 조금도 주저없이 비단을 풀어 끝과 끝을 매여 50필을 한끝에 이어가지고 끌고가더라는것이다.
김시습은 20살때 삼각산절간에 들어가 학문을 익히던중 단종의 퇴위소식을 들었다.
《아, 이 무슨 변고인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분노한 그는 읽던 책들을 모두 그자리에서 불사르고 사흘을 그대로 앉아 통곡하다가 벼슬길을 버리고 중이 되였다.
김시습은 사륙신들이 형장에서 참혹하게 형을 받았을 때에도 누구 하나 목숨이 아까와 서뿔리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고있었지만 한밤중 여러명의 중들을 이끌고와서 한점한점 떨어져나간 시체를 주어모아 강건너 언덕에 묻었다.
이렇게 되여 사륙신들이 흙속에 들어가게 되였다고 한다.
김시습은 수양대군의 행위에 비분을 금치 못하면서 홍산 무량사에서 파란많은 일생을 마쳤다.
그는 문장과 서예에서뿐아니라 천문, 지리, 의학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박식하였고 학구심이 높았다.
그는 오직 신하로서 자기들의 선왕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가진 인간이였다.
다음 인물은 남효온인데 호는 추강이라고 하였다.
그는 김종직의 문하에 있던 사람으로서 당시 명사들이였던 김굉필, 김시습 등과 교제하였다.
그는 열여덟에 이 일을 당하자 거듭 상소문을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남효온은 벼슬을 버리고 산림속에 묻혀 혼자 보내다가 숨을 거두었다.
그는 김종직이 사랑하는 제자였으므로 《무오사화》때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다시 찢기우는 두벌죽음을 당하였다.
조려 역시 단종이 궁궐을 나서던 날 명륜당에서 유생들과 통곡으로 작별한 후 락동강기슭에 숨어살면서 일생을 마친 지사였다.
리맹전은 산형곡촌사람으로서 단종이 퇴위하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자신이 스스로 귀먹은체, 청맹과니인체 하면서 죽는 날까지 일체 사람을 대상하지 않고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성담수는 교서로 있다가 이 소식을 듣자 그자리에서 더럽다고 하면서 시골 어두운 골짜기에 내려가 숨어버렸다.
원호 역시 벼슬이 적지 않게 직제학에 이르렀지만 사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으며 단종이 죽자 조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절대로 펴지 않은채 거적에서 지내였고 3년을 상복으로 넘기였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일 동쪽을 향해 앉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생륙신들도 생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오직 한 임금을 위해 깊은 의리를 지키였다.
수양대군의 왕권찬탈은 백성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봉건통치배들속에서 나타난 내부모순의 산물이였다. 그리고 사륙신, 생륙신은 그 희생물인것이다.
때문에 후날 민간에서는 이것을 비유하여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은행나무 다시 살아
순흥고을 살아나고

순흥이 산 다음에
로산이 복위했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런 일화가 남아있다. 경상도 순흥부에 수백년 묵은 잘 생긴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1453년 단종이 왕위에 올라앉자 저절로 말라죽어버렸다는것이다.

그후 1455년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

이때 세종대왕의 여섯째아들이였던 금성대군이 선비들과 함께 단종을 다시 올려앉히기 위한 모의를 하다가 발각되여 모두 잡혀죽고 행정구역으로 순흥부는 폐쇄되였다.

그때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순흥부의 죽었던 그 은행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무성하게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였다는것이다.

이 이야기는 물론 그 누가 꾸며낸것이겠지만 여기에는 봉건왕족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였다는데 그 참뜻이 있다고 본다.

수양대군은 사륙신의 옥사가 끝나자 끝내 금부도사 왕방연에게 약사발을 주어 녕월부에 있는 단종에게로 내려보내였다.

마지막 단종은 이렇게 한탄하였다.

《모두가 하늘에 달렸으니 할수 없는 노릇이지! 임금의 집에 태여난게 불행이구나!》

이렇게 수양대군은 권력을 쥐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것이다.

력사는 신하된 도리를 지켜 깨끗한 넋을 바친 사륙신, 생륙신들을 기억하고있다.

명의 로중례

15세기 의학과학자로 이름있는 명의 로중례는 세나라시기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의학을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의학과학체계를 세우고 귀중한 의학서적들을 집필해낸 학자이다.

15세기의 의학은 우리 나라 의학사에서 특수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향약(우리 나라에서 나는 약재)에 기초한 고려의학의 성과들이 집대성되고 부문별의학과학이 발전하였으며 의학교육체계도 새롭게 정비되였다. 여기서 로중례의 업적은 거대한것이였다.

로중례는 평민출신이였기에 출생한 주위환경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다. 다만 15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인물이므로 대체로 고려 말엽에 태여난것으로 추측하게 된다.

15세기는 우리 나라의 과학, 문학, 예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봉건문화가 발전한 시기이다. 이와 함께 의학과학도 자기의 궤도에 들어서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 실례로 위생학분야에서 성과가 컸는데 《리조실록》의 자료에 의하면 1412년 서울 하수공사가 진행되고 수구문으로부터 로원역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 소나무심기를 비롯한 식수 및 록화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그리고 전염병환자들에 대한 위생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격리시키는 조치도 취해졌다.

또한 많은 의사들을 양성하여 자기들의 고향으로 보내였고 특히는 녀의사들도 키워냈다.

이러한 시기 의학과학탐구에 달라붙은 로중례는 먼저 약재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하였다.

당시 고루한 봉건통치배들은 우리의 의학은 천시하고 중국의 의술만을 높이 숭상하면서 꼭같은 약이라도 중국산이면 더 좋은것으

로 받아들였고 우리것이라면 돌아서군 하였다.

그들은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비싼 값을 주고 중국에서 약들을 수입해다가 썼으며 우리 학자들이 내놓은 의학과학은 믿으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나라 어디에나 있는 약재들도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으며 백성들은 병이 나도 약 한첩 써보지 못한채 맥없이 죽어갔다.

로중례는 이런것들을 보면서 우리 나라에 흔히 있고 또 조선사람들의 몸에 알맞는 우리의 약재로써 능히 병을 고칠수 있으며 또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는 뜻이 통하는 의학자인 박윤덕과 함께 1423년 62종의 우리 나라의 향약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중국의 약재들과 하나하나 대비하면서 검증하는 일부터 진행해나갔다. 여기서 로중례는 약재의 이름은 꼭같으나 그 지명에 따라 실물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1427년 전국적으로 수백종에 달하는 약초들을 수집하여다가 상세하게 감정하고 분류함으로써 같은 약재에 대해서도 지방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는것과 같은 페단을 없애고 향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하였다.

로중례는 이와 함께 12세기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나라의 의학서적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중국의것들도 탐독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향약과 중국의 약효능을 대비연구했고 경험있는 학자들과 스스럽없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것은 국가적인 방조나 그 누구의 뒤받침이 있은것도 아니였다. 오직 의학과학을 연구하여 환자들을 자기 힘으로 고쳐내려는 뜻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이런 연구에 기초하여 로중례는 1428년 박윤덕과 함께 《향약채취월령》이라는 의학책을 저술하여 내놓았다.

여기에서 그는 향약의 이름, 채취법, 말리는 법, 보관법 등에 대하여 의사가 아닌 일반사람들까지도 알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봉건정부에 제기하여 《종약색》이라는 약초재배기지를 꾸리고 여기서 필요한 약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도록 하였다.

특히 그는 우리 나라에 없는 약초는 이웃나라들에서 종자를 구해다가 심게 하였다.

감초만 보더라도 그때까지는 중국에서 사다쓰는 약재였으나 로중례를 비롯한 의학자들은 그 씨를 구해다 개성에서 시험적으로 재배해보았으며 그후부터는 우리 나라 여러 지방에서 대량생산하도록 하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모든 실험을 해보았고 약초를 심어보았다. 그의 집주변은 약초들로 가득찼고 마당에는 특별히 관심에 두는 향약들이 싱싱한 잎을 펼치고있었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로중례는 1431년부터 박윤덕, 유효통 등과 함께 3년간에 걸쳐 당시까지 집필된 여러가지의 구급방 또는 경험방들보다 과학리론수준이 높은 고려의학전서인 《향약집성방》을 집필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1433년에 이것을 내놓았다.

전 85권으로 되여있는 《향약집성방》은 대중의학전서로서 여기에는 959종의 질병들에 대한 처방 1만 706가지와 침구법 1 479가지가 정연하게 기록되여있으며 다양한 향약재료를 포함하는 우리 나라 약재가 알기 쉽게 해설되여있다. 이 전서는 매개의 병에 따르는 개론과 원인론, 병리론, 증후론, 치료법, 침구법 등으로 체계정연하게 되여있다.

《향약집성방》은 음양오행설을 리론적기초로 삼은 제한성은 가지고있으나 림상치료경험과 그 해석 등에서 오늘까지도 의의가 큰 귀중한 내용들을 담고있다.

그 실례로 책에는 로채병(결핵성질병)에 대한 증상이 자세히 분석되여있는데 이 병은 벌레에 의해 전염되여 온 가족이 망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당시 전염인자를 모름으로 하여 미신적으로 보는 항간의 견해를 깨뜨리는데서 커다란 실천적의의를 가지였다.

또한 이 병에는 영양가가 높고 치료효과가 있는 뱀장어와 식물성살초제인 고삼 등을 써야 한다고 쓴것은 타당성이 있는것이다.

그리고 《향약집성방》에는 《노육》(눈에 살이 살아나오는 병)의 치료법에서 현대적인 수술조작과 거의 같은 치료방식이 밝혀져있다. 뿐만아니라 그때까지 구별이 명백치 않던 천연두와 홍역에 대해서도 병명을 명백히 갈라주고 증상에 대해서까지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특히 이 책에는 돌, 나무, 풀 등 694종의 우리 나라 약재가 분석적으로 씌여있고 특산품에 대해서는 생산지까지 밝혀주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200여종에 대해서는 가공법을 함께 안내하였다. 저서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모든 처방들이 하나와 같이 우리 나라의 풍부한 향약으로 되여있는것이다.

하나의 약초를 위해 산과 들을 뒤져야 하고 한가지 처방을 위해 수십번의 실험을 거쳐야 하는 이 일은 결코 욕망에 의해서 성사되는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로중례는 이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마침내 완성해내고야말았다.

그는 이 저서를 집필하면서 《제중립효방》, 《어의촬요방》 등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의서들과 중국의 이름있는 의전들을 무려 270여종이나 참고로 하였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여기에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나라의 산과 바다에는 보물들과 초목약재들이 풍부하여 인민들의 생활과 질병치료에 긴급한것 치고 그 어느 하나도 없는것이 없으며 옛날부터 인민들은 능히 한가지 약초로써 한가지 병을 고쳐왔는데 그 효력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인민들이 축적한 이런 경험과 의서들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기록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것이다.》

로중례는 의사로 일하면서 하나의 신조를 지니고있었는데 그것은 의원이란 지식과 함께 고결한 정신과 높은 도덕적책임감, 다시말해서 인간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있어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는 자기의 저서 《향약집성방》의 약처방법에 대한 해설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먼저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 늘어나고 줄어드는것을 살피여 보와 사를 조절하여야 하며 환경과 기온을 분간하고 남녀의 성장기, 쇠퇴기를 살피며 약재의 쓰고 단것을 깊이 리해하고 주제와 보좌제, 랭과 열을 상세히 분간하며 그것이 생리적기능의 자연발생적장애인가, 외적인 병인의 침습인가 혹은 음에 있는가, 양에 있는가 또는 표에 있는가, 저에 있는가 등 그 병형과 병후가 각기 다르고 허하고 실한것이 같지 않음을 마땅히 살피여 병의 침습과 생리장애의 동기를 찾아내야 한다.》

그는 만일 억측에 의해서 제멋대로 치료하면 안된다는데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억측에 의해서 치료하면 병이 낫지 않을뿐아니라 도리여 환자에게 타격을 주게 되니 깊이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원은 반드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력을 다하여 희미한것을 추구하고 깊이 파고들어가서 병증상의 얕고 깊음을 살피며 약성질의 긴장성, 완만성을 연구하여 처방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병과 서로 맞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병치료에서 과학성과 책임성을 함께 요구하였다.

로중례는 이어 1434년에는 산과전문의 의서인 《태산요록》을 써냈다.

이 책은 상권에 산과질병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하권에서 소아과질병들을 위주로 하였다. 이것은 당시 녀의사들을 위한 교재로 리용되였다.

그 시기 녀성들은 남자의원들에게 병보이기를 매우 꺼려하였다.

이런 관계로 하여 산과를 전문하는 녀의사들이 양성되게 되였는데 로중례의 이 저서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였다.

이런 저서들을 낸것으로 로중례의 공로는 나라에서 크게 인정되였으나 그는 조금도 쉬지 않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일하였다.

뒤이어 우리 나라 여러 지방에 있는 온천을 리용하여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벌렸다.

그는 자신이 온천에 나가 수십차례에 걸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이 과정에 그 효능과 약성을 검증하였고 온천마다에 따르는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이것을 옳게 리용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었다.

로중례는 치료사업에서도 열성이였다. 때문에 그는 명의로서 전국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당시 왕을 비롯한 고관대작들은 병이 나면 의례히 로중례를 불러들이였다.

《문종실록》에 의하면 그는 한번도 환자들을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얼굴을 붉힌 일이 없었다고 한다. 돈이 없고 비천한 사람이 왕진을 청해도 거절을 몰랐고 친절하게 대하고 성의껏 보아주었으며 처방을 내주었다.

평민출신의 보통의사인 로중례에 대하여 실록에까지 이렇게 자세히 밝혀놓았다는 사실은 그가 당시에 의학분야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으며 치료사업에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리씨라는 선비가 병이 들어 열이 오르고 머리가 터질듯이 아파났다. 그를 진찰한 여러 의원들은 하나같이 상한증(열, 습 등으로 인해서 오는 잡병으로 감기 또는 몸살과 같은 병)이라고 진단했다.

리씨는 의사들이 좋다는 삼소음이란 약을 썼고 또 사방에서 효과있다는 약은 모조리 써보았으나 효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로중례에게 왕진을 청하게까지 되였다.

로중례는 침착하게 환자의 맥을 짚어보고는 단 한마디로 《이 병은 락상(떨어져 다친것)한탓이요.》라고 진단했다.

《근래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리씨는 머리를 흔들며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시오. 틀림이 없습니다.》

로중례는 명백히 잘라 말하는것이였다.

리씨는 다시금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러자 불시에 지난해의 일이 떠올랐다.

《지난해에 발을 헛디디여 섬돌에서 떨어진 일이 있긴 한데 그때는 별로 아픈줄을 몰랐고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로중례는 아무말없이 《상원활혈음》이란 약을 처방했다.
리씨는 그의 말대로 두어첩을 썼더니 아닐세라 시꺼먼 피를 두어되나 쏟고나서 씻은듯이 나았다.
이처럼 로중례는 명의였다.
당시 국왕이였던 세종의 아들과 왕후가 천연두에 걸리여 사경에 처하게 되였을 때에도 로중례는 우리 나라의 약재로써 어렵지 않게 그들을 치료하여 구원했다.
이에 세종왕은 너무도 감동되여 이런 령을 내리게 되였다.
《의술은 인명을 치료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은 적다. 로중례에게는 그 의술을 넘겨받을 사람이 없으니 총명한 소년을 뽑아서 그에게서 의술을 배워 그의 뒤를 잇게 하라.》
세종왕은 1445년 로중례에게 동지중추원사라는 높은 벼슬까지 주었다.
이것은 당시 의원으로서는 최대의 평가였다.
이에 시샘이 난 아첨군들이 그를 헐뜯어내리였는데 1446년 왕비가 급병으로 사망하자 그들은 그 책임을 로중례에게 들씌웠다.
이를 계기로 그는 여러차례 관직에서 오르내리였으나 고려의학을 발전시켜나가려는 로중례의 탐구력은 누구도 막을수 없었다.
1442년 로중례의 총지휘하에 《의방류취》편찬사업이 시작되였다. 여기에는 한다하는 의학자들이 모두 참가하였고 지어 왕의 셋째아들까지도 참례하게 되였다.
《의방류취》편찬사업은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그 시기 동방나라들이 거둔 의학의 성과들을 모두 수집정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하나의 의학대백과전서를 만드는 방대한 일이였다.
총 365권의 《의방류취》는 당시 150여종의 국내외의학서적을 참작하고 95개의 병문에 걸쳐 정연하게 종합체계화하였다.
《의방류취》는 총론에서 의사의 도덕과 질병의 치료원칙, 인체생리를 주었고 발병원인, 그 증후들을 주었다.
치료법에서는 약물료법, 침구법, 식사료법, 섭생법 등을 제시하

고 치료기간에 금해야 할 일과 음식물들을 밝혔다. 또한 예방법과 민간료법, 단방문(매우 효력이 좋은 약)도 소개하였다.

《의방류취》는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의 의학책이였다.

실례로 여기서는 콩팥이 약할 때 눈에 검은 꽃무늬가 보이는 사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부종이 오고 두눈을 못보게 되는 현상들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단백성망막염과 당뇨성망막염을 발생병리학적견지에서 갈라놓은것이다. 특히 당뇨병과 관련하여서는 《항상 쉬임없이 물을 마시며 오줌은 밤낮 흐르고 꿀과 같이 달고 기름같이 미끄럽다.》고 지적하고 《입안은 쓰고 혀는 피와 같이 붉다.》고 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현대의학이 지적하고있는 3대증상이 모두 들어있다.

또한 《부인문》에서만 볼 때도 5 400여종의 처방이 제시되였다.

이처럼 《의방류취》는 고려의학전반에 걸쳐 과학리론수준이 높고 치료경험이 풍부한 의학대백과전서이다.

《의방류취》는 오늘날 동방의학의 3대백과사전가운데서도 첫번째로 꼽히고있으며 유럽에서 최초의 의학백과전서로 되고있는 에스빠냐의 《의학 및 외과학사전》(7권—마드리드에서 1807년에 출판)보다 비할바없이 방대할뿐만아니라 근 4세기나 앞섰다.

실로 《의방류취》는 중세기의학발전력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저서로 되고있다.

《의방류취》에는 로중례의 고귀한 땀이 스며있다. 그는 이 사업을 총지휘하여 1445년에 훌륭히 완성하였다. 1442년부터 1445년에 걸쳐 편찬된 후 이 저서는 33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걸쳐 엄밀한 교정을 하였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에 한 글자, 한 획에 이르기까지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로중례의 립장이며 요구였다.

로중례는 일생을 우리 나라의 고려의학발전에 바쳤으며 한평생 의학서적을 집필하고 치료사업에 전념한 학자였다.

로중례는 1452년 3월 《의방류취》편찬발행사업을 완성한 후 자기의 생애를 마치였다.

북방수비를 강화한 김종서

《호랑이어른이 도관찰사로 오신다, 길을 내여라!》

앞장에서 군졸이 먼저 소리를 지르고 뒤를 이어 몸집이 그리 크지 않은 대감이 힘차게 말을 달려오고있다.

아이어른 할것없이 길을 덮고나섰는데 말에서 훌쩍 뛰여내린 대감은 사방을 주의깊게 보더니만 자기의 숙소로 들어가는것이다.

《호랑이라고 하더니만 무섭게 생기진 않았구려.》

《그래두 성만 나면 하늘이 날아난대요.》

《그러게 호랑이라 하겠지. 그저야 그렇게 부르겠소.》

사람들은 부임지에 도착한 김종서를 보고 삼삼오오 수군덕거린다.

당시 북쪽으로 끊임없이 침입하여 백성들의 생명, 재산을 마구 략탈파괴하는 외적을 막기 위한 사업은 리조봉건정부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때문에 책임적인 사람을 보내여 하루빨리 북방을 개척하여야만 하였다.

세종왕은 이 문제를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김종서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김종서는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되여 찬바람 휘몰아치는 북방으로 말을 달리였던것이다.

김종서는 1390년 전라도 순천에서 도총제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무술에 능하였고 문장에도 매우 밝아 주변사람들을 감탄시킨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특히 굳세고 용맹하여 호랑이로 소문난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기질을 가지고있었다.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누구도 선뜻 반대해나서지 못하였다.

김종서는 15살이 되던 1405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1419년에는 사간원 우정언이 되고 우부대언을 거쳐 1433년에는 함길도(함경남북도와 량강도)관찰사가 되였다. 그리고 1435년에

는 함길도 병마도절제사를 겸직하였다.

그가 도관찰사로 임명되여 부임지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상복을 입었다. 세종왕은 역말을 보내여 김종서를 위로하고 장례를 치르게 해주었다.

그러나 100날이 지나자 세종은 김종서를 재촉하였다.

《그대가 지닌 임무는 북방개척에 있는것이요. 어서 임지로 떠나는게 좋겠소.》

사실 김종서는 상복을 입고 한 2년간 더 있을 생각이였지만 왕의 령이 그러하니 더 다른 군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임지로 돌아와 군사들을 정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하였다.

김종서는 군사들을 훈련시킬 때는 무섭게 내밀고 또 이것이 끝나면 그들을 푸짐히 먹이여 힘을 저축하도록 하였다.

김종서가 도절제사로 있던 때 바로 녀진의 한 부족인 혐진우디거가 녕고탑지방에서 우리의 국경쪽으로 나오면서 그들에게 밀려난 여러 부족들이 자주 기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압록강중류지대와 두만강중류지대에 대한 방비시설들이 매우 빈약하였다.

때문에 북방의 국경을 새롭게 정하고 이 방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김종서는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 침입해온 적들을 물리치는 한편 려연, 자성, 무창, 우예 등 4군이 설치되는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자신이 직접 두만강류역일대에 6진을 새로이 개척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김종서는 녀진족을 막기 위해 변방으로 나가면서 이런 시를 남기였다.

삭풍은 나무끝에 불고
명월은 눈속에 찬데
만리변역에 일장검 짚고서서
긴 바람 큰 한소리에 거칠것이 없어라

시에는 만리변역에 큰 칼을 짚고서서 침략자들을 단 한놈도 남김이 없이 단숨에 베버리고 조상대대의 자랑이 넘치는 내 나라를 굳건히 지켜가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져있다.

두만강이남의 모든 지역은 리조정부에 속한 땅이였지만 이 시기 행정군사조직이 째이지 못하였기때문에 녀진족은 이 틈을 리용하려고 꾀하였다. 하여 김종서는 적들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 필요한 곳들에는 성을 쌓고 또 모두 6개의 군사행정단위를 내여 6진을 설치하기로 했던것이다.

《나라가 나에게 맡긴 과제는 북방을 완정하는것이다. 이것을 못하고서야 내 무슨 체면으로 상감을 대한단 말인가.》

김종서는 차례차례로 6진을 개척해나갔다. 1434년경에 경원부를 확정하고 회령을 도호부로 승격시킨데 뒤이어 종성군과 경흥군을 설치하였으며 1440년 다시 종성군을 수주(오늘의 종성)로 옮기고 그 북쪽에 온성군을 내왔다. 그후 1449년에는 부령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두만강변에 있는 훈융으로부터 회령서쪽까지는 길게 성을 쌓아 방비선의 체모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6~7년뒤에는 부령, 종성, 경원, 경흥, 온성, 회령 등 완전한 6진이 개척되였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조치만이 아니라 중요하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적조치로 실현되였다.

김종서는 6진을 설치함과 동시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던 이곳에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진행한 이주사업은 압록강, 두만강이남의 국토를 완정하고 자기들의 안정된 생활을 꾸리려는 백성들의 념원에도 맞는것이므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새로 개척된 6진을 비롯한 함경도지방에는 4차례에 걸쳐 근 6 000세대에 달하는 백성들이 이주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종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다.

《한명의 아전에게도 채찍질을 하지 않았으며 한명의 백성에게도 형벌을 준 일이 없으나 수만명이 불과 몇달사이에 새땅으로 모여왔다.》

김종서에 의해 진행된 6진의 개척은 생산의 장성과 함께 당시 절

실한 문제로 제기되던 국방력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천연의 요새를 리용하여 국경선을 확정하였으며 국토를 완정하였던것이다. 여기에서 김종서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큰 공을 세웠다.

이 시기 김종서는 북방의 국경수비를 강화하고 녀진족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많은 시가들을 남기였다. 특히 《장백산에 기를 꽂고》, 《장검을 빼여들고》의 시조에서는 원쑤들을 기어이 물리치고 나라를 철벽으로 지켜내려는 기개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장백산에 기를 꽂고》에서 그는 이렇게 읊었다.

장백산에 기를 꽂고 두만강에 말 씻기니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냐
어떻다 룡연각우에 뉘 얼굴을 그릴고

시에서는 말공부만 일삼으면서 허송세월하는 썩어빠진 량반통치배들을 규탄하고 나라 지키는 국토방비에서 무훈을 떨친 무인들의 업적을 찬양하였다.

김종서의 지휘하에 수많은 구간들에 성들이 그쯘하게 쌓아지고 방비시설들이 튼튼히 구축됨으로써 적들은 감히 기여들념을 못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세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있다.

《한해에도 두세차례나 녀진부족들의 침입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한번도 쳐오지 않았다. 이것은 성을 쌓은것이 잘되였다는 명확한 증거로 된다.》

김종서는 6진을 개척하는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녀진족들의 정세를 탐지하여 정부에 보고하였으며 그것을 철저히 막아내고 국토를 지켜내기 위한 대책안들을 만들어 건의서를 제기하였다.

북방의 정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인민들의 생활도 안착되게 되였을 때 정부에서는 김종서를 형조판서, 례조판서로 행정적지위를 올리였다. 그리고 60대에는 우의정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그 시기 《고려사》가 공정하게 편찬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왕명으로 재편찬하게 되였는데 그는 여기에서도 총책임의 중임을 맡게 되였다. 그는 력사적공정성의 원칙을 살려 자료들을 고증확정하고

빠진것은 보충하도록 하였으며 잘못된것은 수정을 가하여 1451년에 훌륭히 완성케 하였다.

그리고 1452년에는 《세종실록》의 편찬을 맡아 책임적으로 진척시켰으며 또한 《고려사절요》의 편찬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문장에 밝은 그의 재주가 남김없이 발휘되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절찬을 받게 되였다.

이처럼 나라에 큰 공을 세웠지만 그의 말년은 의외로 비참하였다. 세종왕을 뒤이어 문종이 왕자리에 앉았으나 그는 3년도 못되여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 대를 이어 12살밖에 안되는 단종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였다. 그러나 그 왕자리는 안전한것이 못되였다. 세종왕의 범같이 드센 아들들이 조카의 왕좌를 넘겨다보고있는것이였다.

문종왕도 생존시에 자기의 앞일을 내다보면서 이것을 제일 근심하였다. 때문에 나라의 원로급에 속하는 대신들인 령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김종서 등을 불러 이제 자기가 없더라도 어린 임금을 잘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집현전의 이름있는 학자들인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신숙주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지막말을 남기였다. 그런데 세종의 둘째아들인 수양대군은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자기가 가로타고앉을 갖은 흉심을 다 돋구던중 먼저 단종의 측근자들과 그 세력들을 쓸어버릴것을 결심하였다. 그 첫 대상이 바로 김종서였다.

김종서로 말하면 북방의 적을 진압하고 4군 6진을 개척하는데서 명성을 떨친 대신이였으므로 그의 인격은 천근같은 무게가 있었고 누구도 서뿔리 접어들지 못했다.

몸은 비록 늙었지만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말하면 아직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기에 그와는 맞서서 흥정하기보다 꺼꾸러뜨리는 편이 나을것이라고 단정하였다.

대가 있고 지조가 굳어 자기의 신념을 좀처럼 굽히지 않는 김종서와 같은 인물을 조정에 그냥 앉혀두고서는 제 마음대로 왕의 자리를 탈취할수 없다는것은 횡포한 수양대군이 보기에도 불보듯 뻔한 일이였던것이다.

1453년 10월 13일 수양대군은 수하족속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내놓았다.

《우리들의 거사에 가장 큰 방해로 되는자는 김종서요. 그자만 처리해버리면 순풍에 돛을 단듯 일은 쉬울것이요.》

그리하여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홍윤성 등 힘깨나 쓰는 장사 수십을 거느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들어갔다. 집을 완전히 포위한 이들은 먼저 김종서를 밖으로 불러내였다. 아무런 생각없이 손님들이 찾아왔기에 문밖으로 나서던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수하졸개인 홍윤성이 급작스레 내려치는 철퇴에 맞아 흰수염을 붉은피로 적시며 넓은 마당가에 쓰러졌다.

이자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후환을 우려하여 그의 두 아들까지 그자리에서 격살시켰다. 복수가 두려웠던것이다.

《저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처리하여라.》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에 있던 신사면, 윤광은까지도 모두 해치웠다. 이렇게 되여 우리 나라의 국토를 완정하고 4군 6진을 개척하여 국경수비에서 큰 공을 세운 김종서는 탐욕스러운 봉건왕족들과 관료배들의 자리싸움의 희생물이 되고말았다.

수양대군은 그길로 대궐에 들어가 어린 단종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입궐하는 대신들을 차례로 처리해버리였다.

그는 동생인 안평대군까지도 김종서와 역적모의를 하였다는 죄를 만들어 강화도로 귀양보냈다가 죽여버리였다.

김종서는 이날 철퇴에 맞았지만 요행 살아났다.

그는 단종이 걱정되여 그 몸으로 궁중에 나갈 차비를 하였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수양대군이 가만있을리 없었다. 그는 다시 자객을 보내여 끝내 그를 죽이였다.

《어린 임금을 보살피지 못하고 가다니, 그 죄 죽어도 씻을길이 없구나. 장차 이 나라는 어찌 될것이냐. …》

김종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다가 영영 쓰러지고말았다.

김종서의 저서로서는 북부국경방비경험에 대하여서와 봉건군대의 편성 및 훈련에 대하여 쓴 병서 《제승방략》(2권 1책)이 있으며 문집으로서는 《절재집》이 전하여지고있다.

《금오신화》와 김시습

김시습은 15세기 후반기 우리 나라 문학사를 장식한 소설가이며 이름난 시인이였다.

김시습은 1435년 서울의 빈한한 선비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자를 열경이라 불렀으며 호는 매월당이라고 하였다.

어릴 때부터 그는 재주가 너무도 놀라와 이웃에 사는 어떤 사람이 《배우면 곧 익혀서 안다.》는 뜻에서 이름을 시습이라 지었다는것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3살적에 한시도 곧잘 지었다 한다.

어느날 저물어가는 봄날에 대하여 김시습은 이런 시를 지었다.

복숭아꽃 울긋불긋 푸르러
춘삼월 호시절이 저물어만 가누나

또한 솔잎에 맺힌 이슬을 보고서는 이렇게 읊었다.

솔잎에 맺힌 이슬은
푸른 바늘에 구슬을 꿴듯 하네

3살짜리의 시라니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하였다.

5살에 학문이 높은 선생의 글을 배우기 시작하니 그의 이름은 서울장안이 좁다하게 퍼지였고 날마다 그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찾았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1440년 어느 봄날, 서울 성균관의 이름있는 재상인 허주라는 늙은이가 김시습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도 신기하여 제 눈으로 한번

보고싶어 그의 집으로 찾아들었다.
가난한 선비의 집에 이런 귀한 손님이 오니 아버지는 너무도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어떻게 이런 루추한 곳까지 오셨소이까?》
주인이 조심스럽게 묻자 허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문을 들으니 댁의 자제가 신동이라고 하기에 한번 보려고 왔소이다.》
주인은 그 말에 5살밖에 안되는 김시습을 불러왔다.
방안에 들어선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무릎을 꿇고 재상인 허주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는 공손히 물러나 아버지쪽으로 돌아앉아 불렀는가고 아뢰이는것이다.
허주는 너무도 기특하고 듣던바와 다를바없어 먼저 이름이 무엇인가부터 물었다.
《김시습이라고 하나이다.》
《시를 아는고?》
《겨우 문자나 가리옵니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 늙은 나를 두고 시 한수를 읊어보아라.》
김시습은 허주를 조심스럽게 찬찬히 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늙으신분을 두고 글귀를 짓는다는것이 무엄한짓인줄로 아옵니다.》
《그러게 내가 허락을 한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조용히 지어보이라 하니 김시습은 구석에서 벼루가 있는 상을 가져다놓고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가는것이였다.

늙은 나무에 꽃이 피니
마음만은 아직 젊은 까닭이지요

허주는 깜짝 놀랐다. 신통히도 제 마음과 같았던것이다.
허주는 크게 감탄하여 이 사실을 당시 왕이였던 세종에게 아뢰였다.

이렇게 김시습은 《5세문장》으로 왕궁에까지 이름이 나게 되였고 승정원에 불리워가 시를 짓게 되였다.

그런데 그 글귀가 너무도 신통하고 기특하여 세종왕은 비단 50여필을 내렸다는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부를 주었다.

《이 비단을 모두 저 혼자 가져가도록 해보아라.》

사람들은 그가 이 비단을 어떻게 가지고 갈것인가를 눈을 모아 바라보며 의심도 하고 기대도 가지였다.

김시습은 잠시 눈을 깜박이더니 비단필을 풀어 그끝을 서로 맺아 끌고서 왕궁을 나가는것이였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가 앞으로 큰 인재가 되리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김시습의 남다른 기질을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였다. 김시습은 산소곁에 초막을 짓고 3년을 꼬박 어머니곁에서 보내였다.

이후 그는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났으나 할머니마저도 얼마 안되여 세상을 떠난 후로는 병석에 있는 아버지를 거두며 불우한 시절을 보내게 되였다.

김시습은 15살되는 해에 삼각산에 들어가 장차 나라 위한 큰 일을 할 뜻을 품고 학문연구에 전심하였다.

당시 세종왕은 집현전 학자들을 위하여 삼각산 진관사에 독서당을 설치하고 《훈민정음》창제에 헌신하였던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등 학자들이 연구사업을 할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주었다.

김시습도 여기에 들어가 이름난 학자들의 지도를 받게 되였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1450년 세종왕이 사망하고 문종이 다시 세상을 뜨니 나어린 단종이 왕위를 잇게 되였는데 삼촌인 수양대군이 얼마 안가서 어린 왕을 쫓아내고 왕자리를 빼앗는 추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였다. 이에 격분한 집현전 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충신들이 세조를 받들수 없다고 관직을 버리거나 항거해나섰다. 그리하여 세상에 사룩신, 생륙신이라고 부르는 충신들의 별호가 생겨나게 되였다.

김시습은 생륙신중의 한사람이다.

이 불의의 사변에 의분을 삭일길 없었던 그는 책을 불사르고 선비의 의관을 찢어버린 후 그 항거의 표시로 중이 되고말았다.

김시습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단죄하였다.

《임금은 죽일수도 있다. 모든 백성들의 원쑤로 규정될 때 죽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기 개인의 정권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협박과 공갈로써 왕권을 탈취하거나 또는 폭력으로써 무고한 인민을 억압해서는 안된다.》

그는 자신이 중이 된데 대하여 《남아가 세상에 나서 자기 포부를 펴지 못할바에는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서 산사람노릇이나 할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시에 이렇게 썼다.

머리를 깎음은 세상을 도피함이요
수염을 남김은 대장부의 표적이라

김시습은 승려의 행색으로 울분을 안고 기약없는 나그네의 길을 떠났다.

그는 시통 하나를 등에 걸머지고 손에는 나무지팽이를 짚고 바람과 비를 꾸짖는 방랑생활을 시작하였던것이다.

비록 행색은 중이 되였으나 그는 결코 그 생활에 공감해서가 아니였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론어나 맹자도 역시 옛사람들이 남긴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는 오직 자기 생활에서 실천을 통하여 찾아야 하며 창조되여야 한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였다.

그는 세조가 죽고 그 아들 예종에 이어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옛친구들이 벼슬길에 나설것을 여러번 권하였지만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조집권당시인 1464년 3월 왕은 원각사 락성잔치에 김시습을 청하였다. 망설이던 그는 그리운 수도와 친구들도 볼

겸 서울로 올라왔지만 보이는것은 모두가 비위에 거슬리는것뿐이였다.

원각사 하나만 보더라도 백성들의 피땀으로 일떠선것이니 그의 마음을 돌려세울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김시습은 산천경개 우거지고 맑은 물 흐르는 금오산으로 들어가 창작으로 생을 마치게 되였다.

그는 26살때에 관동지방을 방랑하면서 많은 시들을 썼으며 29살경에는 호남일대를 돌아보면서 글들을 남기였다.

그는 고달픈 방랑생활속에서 직접 현실을 목격하였고 그 과정에 세조와 그 턱밑에 붙어사는 놈들을 끝없는 증오로 단죄하였으며 또한 가난한 백성들을 동정하기도 하였다.

그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지였는데 자연계는 모두 물질적인 기로 이루어지고 끝없이 운동변화한다는 유물론적인것을 주장해나섰다. 그는 종교를 믿지 않았으며 천당과 지옥을 부인하였다.

김시습은 당시 봉건통치배들의 악정에 대하여 일정하게 비판하였으며 나라창고에 쌓인 재물과 량반들이 쓰는 물건이란 백성들의 땀으로 이루어진것이라고 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심심한 동정을 보내였다.

그러나 역시 당대의 모순과 관료배들의 죄악에 대하여 비판폭로하는데 그쳤지 그 사회자체를 반대해나서지는 못하였으며 그 출로를 《어진 임금》의 《선정》에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그는 일생에 많은 작품들을 남기였다.

그의 시작품들은 《탕유관서록》, 《탕유관동록》, 《탕유호남록》, 《탕유금오록》 등에 묶어졌다.

그의 글에서 중요한 주제의 하나는 농민문제이다. 그는 자기의 시들에서 가난한 농민들의 처지를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을 억압략탈하는 봉건통치배들의 죄악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시 《산골농민의 고생》에서는 사정없이 세금을 빼앗아가는 통치배들을 규탄하고있다.

매 밭에 새싹 나면 사슴이 뜯어먹고
낟알을 베여두면 새와 쥐가 까먹네
관세조세 주고나면 남은것이 아예 없네
쪼들리던 사채에 농우마저 빼앗겼네

농사짓는 사나이는 일년 한해 땀흘리고
누에치는 아낙네는 봄철 한철 수고하련만
보아라 놀고먹는 건달들만이
잘 먹고 잘 입으며 거리에서 뽐내누나

시 《어허 애달파》에서는 옛날 중국의 진시황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이렇게 쓰고있는것이다.

지난날의 쓰라린 경험을 력사는 말하거늘
어이하여 무지한 임금이여 깨달을줄을 모르는가
너 어찌 보지도 못하느냐

대궐 한채 짓고나면 백성들은 열세간이 거덜난다
이고지고 아우성치며 울부짖는 저 모양을
너 어찌 보지도 못하느냐

또한 시 《사변》에서는 1489년 농민들의 폭동에 대하여 암시하기도 하였다.

폭동이 산골을 진동한다
천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늘의 탓이랴 말하지 말라
인민들인들 어찌 혀가 없을소냐
비록 참아서 뒤엎지는 않을망정
말못할 이 사정을 누구에게 하소하노

뿐만아니라 시 《딱따구리》에서는 이 세상에 좀벌레인 간악한자들을 없애버릴 그런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기도 하였다.

딱따글 딱따글 딱따구리야
…
가지우의 뭇벌레가 그 얼마나 놀랐느냐
좀도 많고 벌레도 많아 너의 배를 채우니
좀벌레 없애치울 너의 공로 장하다
이 세상의 좀벌레 인민을 해치는자

그 수는 천백을 넘건마는 쫓는 사람 전혀 없네
네 날카로운 주둥이로 나무좀을 없앨망정
인간의 좀벌레 누가 능히 없애려나

실로 김시습은 수많은 시작품들에서 자기 불만, 울분의 감정을 거침없이 토로하였다.

그러나 김시습의 문학사적공로와 지위는 시에 있는것이 아니라 소설에 있다. 그는 소설문학에 대한 선진적인 견해를 가지고 중세소설의 시초를 열어놓았던것이다.

당시 고루한 량반문인들은 소설문학에 대하여 《잡되다.》고 하면서 오직 자기나름의 시에만 정열을 쏟아부었고 또 인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김시습은 그에 대하여 《잡된들 어떠랴, 교훈의 값이 있고 뜬소리도 재미있어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하면서 소설창작에 정력을 아끼지 않았던것이다.

그의 소설집인 《금오신화》에는 《리생의 사랑》, 《꿈에 본 남염부주》, 《만복사의 윷놀이》, 《부벽정의 달맞이》, 《룡궁의 상량잔치》 등 단편소설들이 들어있다.

단편소설 《리생의 사랑》은 남녀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저애하는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사상적지향을 보여준 작품이다.

간단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송도에 리생이라는 총각과 최랑이라는 처녀가 살고있었는데 리생은 최랑네 담장밑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처녀인 최랑이 수를 놓으며 조용히 시를 읊는 모습에 반하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시 한수를 써서 담장안에 넣는다.

이렇게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였지만 리생의 아버지는 아들의 행실을 알아채고 그를 먼곳인 울산에 보낸다.

알리지조차 못하고 떠난 리생을 그리던 최랑은 후에야 시녀를 통해 소식을 듣고 자리에 누워 앓기 시작한다.

최랑이 앓는 진속을 알게 된 그의 부모들은 중매쟁이를 리생의 집에 보내여 결혼을 제기하나 리생의 편에서는 너무도 부자인 최랑의 집과 혼사맺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최랑의 부모들의 강력한 요구로 결혼은 승인되고 마침내 이들은 부부가 되여 행복하게 살게 된다. 리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까지 오른다.

이때 홍두군의 침입으로 피난길에 오른 최랑은 적에게 잡히지만 끝까지 절개를 지켜 그만 죽게 된다.

싸움이 끝난 후 최랑은 다시 살아나 그렇게도 그리던 리생과 복되게 살다가 10년후에 죽는다.

그후 리생은 최랑의 무덤을 성의껏 만들어주고 자기도 두달후에 최랑을 따라 저승으로 가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소설은 남녀간의 사랑을 억제하는 봉건적도덕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봉건적가족제도에 항거해나서는 인물들로 형상하고있다.

최랑의 개방적인 성격은 글공부를 다니는 리생에게 먼저 애정을 실토하는 시를 지어 그가 자기 집 담장을 넘어올수 있도록 하며 리생이 둘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두려워할 때 그런 걱정은 말라고, 그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나서는데서 표현되는것이다.

또한 최랑은 홍두군에게 잡혔을 때에도 자기의 지조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소리를 치면서 항거해나선다.

《범 같은 마귀들아, 내 차라리 이리, 승냥이의 배속에 원한의 넋으로 될지언정 개, 돼지만도 못한 너희놈들의 짝이 될줄 아

느냐.》

이렇게 그는 리생에 대한 자기의 순결을 지켜가는것이다.

또한 리생 역시 부모의 허락없이 최랑의 시에 화답하며 담장을 넘어 최랑과 애정관계를 맺는 형상은 중세기적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의 표시로 된다.

그러나 그의 형상에는 봉건유생으로서의 비굴성이 드러나는데 최랑을 사랑하는 자기의 의지를 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따르며 홍두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부모처자까지 모두 내버리고 제 목숨이 귀하다고 도망치고만다.

소설은 단지 이들사이의 단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그쳤지 보다 본질적인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있다.

이런 제한성이 있으나 소설은 중세소설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인물들의 성격을 개성화하였으며 묘사에서도 초상묘사, 환경묘사 등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단편소설 《꿈에 본 남염부주》는 꿈이라는 형식을 빌어 왕인 세조를 비난한 정론적성격의 작품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주인공 박생이 꿈에 남염부주라는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것으로 되였다.

박생은 경주의 선비로서 유학에 뜻을 두고 공부는 많이 하였지만 아직 과거에 들지 못했으므로 불만이 큰 호방한 성격의 인물이다.

그는 어느날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남염부주에 가서 문지기의 안내로 염라대왕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된다.

박생은 악독한 신하들이 판을 치고 이에 따라 란리가 그칠새없는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오늘 인간세상에는 간악한 신하들이 개떼처럼 날뛰며 큰 란리가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웃자리에 앉은자들은 협박과 공갈로써 제딴에는 착한 일을 하는듯이 가장하며 부질없는 명예만 탐내고있소이다. 허나 그들이 어찌 그대로 견디여낼수 있사오리까? 세상은 반드시 뒤엎어지고말줄로…》안다고 한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이에 다음과 같이 공감한다.

《나라를 다스리는자는 폭력으로써 백성을 억눌러서는 안된다.

백성들이 비록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따르는것 같으나 그들은 마음속으로 반항심을 품고있나니 이것이 날로 쌓이고 달로 쌓이면 필경에는 터질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왕권이란 한갖 봄바람에 얼음처럼 녹아버리고말것이다.》

염라대왕은 박생이 만백성을 인도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넘겨줄것을 제기하고 조서를 꾸민다. 염라대왕은 박생을 수레에 태워 궁궐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만 수레바퀴가 엎어지는 바람에 그도 꿈에서 깨여난다.

그후 몇달이 지나 박생은 병으로 죽는데 그날저녁 신이 이웃사람의 꿈에 나타나 박생이 이제 염라대왕이 될것이라는것을 알린다.

이야기는 대체로 이렇게 되여있다.

소설은 먼저 당대 현실을 주저없이 비판하면서 《어진 임금》의 선정에 대하여 바라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염라대왕이 박생과의 이야기에서 《은나라》, 《순나라》임금의 덕치를 따르라고 한데서도 보여준다. 또한 소설은 봉건적유교사상에 기초하여 불교와 무당, 귀신 등 종교의 허위성과 해독성을 일정하게 비판하였다.

이것은 박생이 저승에 가서 잘되라고 제사를 지내는것들에 대하여 사람이 죽는다는것은 정기가 헤쳐져서 근본으로 돌아가버리는것인데 어떻게 저승에 가서 다시 살수 있겠는가고 하는데서 잘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급적처지와 사상의 불철저성으로 하여 역시 봉건유교적인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봉건사회 그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세조정치에 대한 비난과 《어진 임금》에 대한 리상으로 그쳤을뿐이다.

앞에서 례든 두편의 소설을 보고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금오신화》는 우리 나라 중세문학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단편소설집으로서 그 문학사적의의는 자못 큰것이다.

김시습은 1493년 3월 충청도 홍산의 무량사라는 자그마한 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매월당 김시습은 중세소설문학의 개척자로 인정되고있다.

간신에 의하여 목숨을 잃은 남이

여러명의 소년들이 무술훈련을 끝내고 마을길로 들어서고있었다. 그들은 한 소년을 에워싸고 부러운 눈매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야, 넌 어쩌면 그렇게도 딱딱 들어맞힐수 있니? 더우기 오늘처럼 바람이 센데도 말이야.》

《그 묘리를 좀 대주려무나.》

그것도그럴것이 오늘 훈련에서 자기들은 잘 맞혔대야 과녁의 옆구리에나 닿았지만 그 소년만은 단 한번 실수하고는 틀림이 없었던것이다. 그 실수래야 첫번에 날린 화살로써 그날 바람방향과 세기를 가늠한 때문이였다.

아이들의 물음에 그 소년은 히쭉 웃더니 별걸 다 묻는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아니, 너희들은 연날리기를 날마다 하면서도 바람세기와 연줄이 잡아당기는 힘을 가늠해보지 못했단 말이냐? 화살이란 바람세기와 방향을 옳게 판단해야 맞힐수 있는거란다.》

아이들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연놀이를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는것을 스스로 깨닫고 옳게 써먹는 그 소년이 한없이 돋보이였다.

그리하여 소년들의 군사놀이에서는 언제나 그애가 대장이 되였고 또 그가 대장이 된 편은 영낙없이 이기군 했다.

이애가 바로 남이라는 소년이였다.

남이는 1441년 태종의 사위인 의산위 남휘의 아들로 태여났다. 남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공부에 뛰여났으며 나이에 비해 퍼그나 웅심깊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어릴 때부터 용감하고 대담하였던 남이는 아첨을 특히 미워했으

며 부정과의 타협을 몰랐고 의협심이 강하여 언제나 대바르게 행동하였다.

남이는 특히 무술에 뛰여났는데 여기에는 그의 큰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한다.

그는 무술련마에 남다른 정력을 바치였다.

그리하여 남이의 검술은 참으로 놀랄만한 지경에 이르게 되였다는것이다.

전하는데 의하면 소나기가 내릴 때에 그가 칼춤을 추면 비 한방울 맞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검술이 하도 뛰여났기에 큰 은행나무의 잎을 칼로 번개같이 내리치는데 매 잎에 어김없이 두금씩 칼자리가 났다는것이다.

이것은 그의 칼쓰기가 얼마나 능란하고 판단이 빠르며 정확했는가를 말해주는 증거로 된다.

남이의 총명과 관련하여서는 좌의정 권람의 사위로 된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연띄우기를 하던 남이는 바람이 잦아들자 그만두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가 광천교로 불리우는 다리를 지나려는데 어느 한 대가집 하녀인듯한 소녀가 먹음직스러워보이는 감을 한광주리 이고 가는것이였다.

평시에도 남이는 감을 좋아했기에 저도모르게 그 광주리에 눈길이 쏠렸다.

그러나 다음순간 남이의 입에서는 《아니?!…》 하는 놀라움의 소리가 새여나왔다.

보기에는 좋은듯 했지만 그 감은 이미 변한것이여서 먹으면 탈이 날것이 불을 보듯 뻔했던것이다.

어쩐지 남이는 그것이 남의 일 같지 않아 감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알려주기 위해 그 소녀의 뒤를 서둘러 따라섰다.

그런데 소녀는 어쩔새도 없이 높은 집 대문으로 쑥 들어가버리는것이였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 감을 먹으면 필경…》

남이는 종시 그 집앞을 뜨지 못하고 서성거리고있었다. 아니나다를가 잠시후 그 집에서 곡성이 터지며 야단이더니 감을 이고 들어갔던 소녀가 허둥지둥 대문으로 뛰쳐나오는것이다.

《얘야, 이 댁에서 갑자기 웬 곡성이냐?》

《이 댁 아씨가 감을 급히 잡수시더니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님이 제 정신이 아닌걸요. 아마 감에 마귀할미가 붙은것 같사와요.》

《음, 그렇단 말이지. …》

남이는 금시 짐작이 갔다. 상한 감에 질식된것이 틀림없었다.

《얘야, 내게 그 마귀를 쫓는 재간이 있으니 밖에 그런 사람이 왔다는것을 마님께 여쭈어라.》

마귀를 쫓는다는 바람에 소녀는 나는듯 뛰여들어가 마님께 아뢰고 남이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남이가 아씨를 살펴보니 자기가 예견했던 그대로였다. 남이는 집식구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머니에서 가지고다니던 침을 꺼내여 놓아주었다.

이윽고 처녀는 큰 숨을 몰아쉬면서 잠에서 깨여난듯 의식을 차리는것이였다.

이렇게 아씨는 남이의 손에 의하여 살아나게 되였다.

집안에서는 큰 경사가 난것처럼 떠들썩했다.

부인은 저녁에 주인이 들어서자 바람으로 낮에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쏟아놓았다. 좌의정 권람이도 남이의 이야기에 바싹 귀맛이 동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마침 딸의 서방감을 두루 살피던중이라 사례겸 아예 그 총각에게 딸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리하여 권람은 정식 청혼을 하였고 남이의 아버지도 아들의 의향을 물어본 후 이를 수락하였다. 남이는 이렇게 《마귀를 쫓아》주고 부인을 맞았던것이다.

남이는 17살이 되던 해에 무과에 장원급제하였는데 그는 당시 왕이였던 세조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

특히 이 시기는 북방에 녀진족들의 침범이 빈번하여 백성들이 고

통을 당하고있던 때였다.

청년장수 남이는 1467년 우대장의 중책을 지니고 건주위녀진 침략자들을 징벌하는 원정군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는 강순과 함께 만포진을 시찰하면서 적추장 리만주의 군대와 마주쳤다.

이들을 완전히 쓸어눕힐 각오를 가진 남이는 싸움마다에서 앞장섰으며 군사들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군사들, 저 짐승같은 오랑캐들을 모조리 베이라.》

남이의 호령은 산천을 찌렁찌렁 울리였고 그의 칼이 한번 번쩍일 때마다 원쑤들의 목이 몇개씩 그자리에서 달아났다.

싸움에서 통쾌하게 이기고 산기슭에 진을 친 남이는 달밝은 저녁 종이와 붓을 꺼내여 시 한수를 지었다.

백두산석 마도진　(백두산의 돌은 칼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수 음마무　두만강의 물은 말 먹여 다 말리리
남아이십 미평국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 평정못하면
후세수칭 대장부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

진정 남아다운 웅지가 비낀 이 시는 군사들의 마음을 대번에 그러잡았다.

《우리 대장은 과연 뜻이 높고 무술에서도 견줄 사람이 없어!》

《옳거니, 과시 뛰여난 장수라니!》

군사들은 저저마다 한마디씩 진정의 칭찬을 하였다.

그리하여 남이는 스물여섯이라는 새파란 나이에 병조판서라는 어마어마한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였다.

병조판서라면 한 나라의 병권을 쥐고있는 큰 인물로서 다른 사람들은 이 나이에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는 군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해나갔고 맡겨지는 일 또한 막힘없이 해내군 하였다.

때문에 세조도 남이의 벼슬을 시기하여나서는 간신들을 가차없이 눌러버렸다.

백성들은 남이를 존경하였고 자기들의 안속까지 털어 그와 의논해나섰다. 하지만 이를 시기하는자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자기들은 어쩌지 못하면서도 남이의 바른 처사를 거만한것으로만 보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깎아내리기에 애를 썼다.

그러나 손탁이 드센 세조가 있기에 어쩌지는 못하였다.

1468년 9월 세조가 죽고 그의 아들 예종이 임금으로 되는 변화가 일어나자 간신들은 때를 만난듯이 칼을 물고 덤비기 시작했다.

어쩐지 이전부터 예종과 남이사이는 그리 좋은 편이 못되였다.

교활한것들이 이것을 삵의 웃음을 짓고 여겨본것이였다.

그러던 그해 가을 별들이 총총한 어느날 밤이였다.

대궐에서 수직을 보던 남이는 고요한 대기를 깨뜨리며 귀맛 좋게 들려오는 귀뚜라미의 정겨운 소리에 끌려 밖으로 나가 란간에 기대여섰다.

《오늘밤은 별들이 류다르게 총총하구나. …》

남이는 감상에 젖은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신선한 대기를 가슴깊이 들이마시였다.

그때 동료 두사람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남이는 그들과 더불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그 하늘을 그러안으려는듯 두팔을 펼치였다.

《아,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내 나라, 내 강토!…》

그의 입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시구절이 자연히 흘러나왔다. 그런데 그때 서쪽하늘가에 유난히도 휘황한 혜성이 꼬리를 길게 뻗치며 나타나는것이다.

《필시 저 혜성은 상서롭지 못한 징조인데…》

그의 동료들은 좋지 못하다고 하며 한숨을 지었다.

그러나 남이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혜성이 나타난 날자를 꼭꼭 적어내려오는게 관례이지만 그러나 혜성이 보였다고 하여 반드시 무슨 화변이 일어났던것만은 아니였소. 도리여 옛것이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는 상서로운 징조를 예고해준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소. 구태여 불길한 징조라고만 볼게 무엇이겠소. 상서로운

징조를 암시해주는것일지도 모르는것을…》
그때 세사람의 등뒤에 금시 류자광이가 다가왔다. 류자광으로 말하면 지금의 자리도 남이의 뒤받침에 의하여 차지한것이였다.
그는 저로서는 똑똑하다고 자처했지만 서자출신이기에 순조롭게 등용이 되지 않았다.
남이는 이즈음 언제나 자기뒤를 살금살금 따르는것 같은 이 간사한자가 자주 눈에 걸렸다.
아닌게아니라 류자광은 병조판서라는 남이의 어마어마한 벼슬에 비해 자기는 별군이라는 하찮은 자리에 있으니 어느때건 분풀이를 할 앙심을 품고 그의 뒤를 캐고있는 놈이였다.
마침 류자광은 세조가 죽고 어린 예종왕이 정권을 쥐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자기의 목적을 이룩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있는중이였다.
(뭐, 꼬리별이 어떻다구?… 이젠 됐다!)
속으로 쾌재를 올린 류자광은 어린 예종왕을 꼬드겨 남이를 제거함으로써 출세의 길에 오르리라 마음다지며 그자리를 슬며시 피했다. 그리고는 왕에게 상소문을 꾸며서 올렸다.
《뭐라구, 그놈이 역적모의를 한단 말이냐?!》
다음날 아침 남이는 영문도 모르고 온몸을 굵다란 바줄에 결박당한채 왕앞에 끌려나갔다.
령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비롯하여 문무백관들이 주런이 늘어섰는데 노발대발한 예종왕이 당상에 올라앉았다.
남이가 왕앞에 꿇어앉자 금부당상이 추상같은 호령을 내렸다.
《남이, 사실을 바른대로 아뢰라!》
남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대답할수가 없었다.
《썩 아뢰지 못할가!》
《무엇을 아뢰라는것인지 소인은 알길이 없소이다.》
이때 류자광이 룡상뒤 가까운 곳에서 어물거렸다. 남이는 그놈을 보는 순간 모든것을 짐작하였다.
금부당상이 다시금 소리를 질러댄다.
《발칙한 소리 거두고 바른대로 말하라! 네 신하된 몸으로서 성

은을 저버리고 감히 불측한 뜻을 지니고있었음은 이미 성상께서도 밝혀 아시는 일, 기이지 말고 죄행을 낱낱이 아뢰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남이는 가슴이 아프다못해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이자리에 령의정, 문무백관들이 있으면서 저런 놈의 간특한 모함도 가려듣지 않고 왕앞에서 그저 굽신거리기만 하다니. 장차 이 나라는 어찌 되고 백성들은 누굴 믿고 살아간단 말인가?!)

이렇게 남이는 죄아닌 《큰 죄》를 지고 동틀에 묶이여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였다.

금부당상의 불호령이 계속되였다.

《혜성이 나타남에 새로운 판국이 벌어진다는것은 무슨 음흉한 배포를 말함이냐? 네 일찌기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 평정못하면 하는 글귀를 지어 즐겨부른다 함은 이 역시 세상을 홀리는 불손한 언사일시 분명하거니와 이제 또 내 강토니, 혜성이니 어찌 이런 무엄한 언사를 함부로 내뱉는단 말이냐. 그래 이 나라가 남이의것이란 말이냐?》

남이는 억이 막혀 큰 웃음을 터뜨렸다.

이윽하여 된매를 치라는 왕의 어명이 내려졌다.

박달나무방망이가 사정없이 남이의 잔등에 떨어졌다. 등가죽이 터지고 피가 흘러 형틀을 적시였다.

그랬으나 남이는 지그시 입술을 깨문채 신음소리 한마디 없었다.

박달나무매질은 계속되였다.

피에 절은 옷은 갈가리 찢기고 짓이겨진 살점이 방망이에 묻어올랐다. 그래도 남이는 끄떡이 없었다.

장부로 태여나서 빌붙음으로 구차스럽게 목숨을 건질 생각은 없었던것이다.

남이의 눈길은 조으는듯 지그시 눈을 내리감고있는 령의정 강순의 얼굴에 박혔다.

왕앞에서 크고작은 모든 일의 옳고그름을 가려내야 할 책임을 맡은 령의정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라의 중임을 맡고있는 병조판서의 막다른 운명을 두고 저리도 무심히 아무 말도 없으니 정녕 그

가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여기에 모인 대신들처럼 제 한목숨을 위하여 바른 말 한마디 못한다면 나라의 정사는 장차 어떻게 될것인가? 기가 막힌 일이구나!)
남이는 호탕하게 웃고나서 자기의 죄과를 말하겠노라고 하였다.
《소신 남이가 분에 넘치는 성은을 저버리고 엉뚱한 뜻을 머금게 되였음은 오로지 전상에 태연히 앉아있는 저 령의정대감의 부추김이 적지 않았음을 아뢰는바입니다.》
좌중은 아연하여 강순을 쳐다보았다.
왕 예종은 갈피를 잡지 못하여 틀림이 없는가를 따져물으며 노하여 펄펄 뛰였다.
남이는 태연히 머리를 끄덕여 수긍했다.
예종왕은 강순을 쳐서 실토를 받으라고 야단이다.
늙은 강순은 박달나무방망이 몇대에 벌써 실신하고말았다.
얼마후 굵은 바줄에 결박지어진 남이와 령의정 강순은 삐걱거리는 헌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끌려나가게 되였다.
드디여 정신을 차린 강순은 남이를 넋나간듯 바라보면서 중얼중얼 외웠다.
《병조판서 남이, 언제나 나라운명을 떠메고나갈 청년장군이라고 생각한 나인데 무슨 일로 나를 이다지도 모해한단 말인가?…》
강순은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남이는 대감이 죽기가 두려운 모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다.
《무고한 루명으로 원통한 죽음을 당하기로 말하면 령의정이 나보다 더 억울한데가 또 어디 있겠소. 언제든 나라를 위해 떳떳이 한목숨을 바치리라 했던것이 그만 좀도적의 간사한 고자질로 부질없는 개죽음을 당하는 마당에서 당신은 일국의 령상의 몸으로 이 남이가 무고함을 번연히 알고있으면서도 어린 임금앞에 이렇다 한마디 변명할념도 않았으니 이는 나라에 대한 불의요, 임금에 대한 불충이니 어찌 죽어 마땅치 않으리오.
이렇게 무고한 불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한마디 말이 없는 령의정이 그대로 도사리고앉아서야 어찌 백성들이 한시나마 마

음을 놓을수가 있겠소. 만번 죽어 마땅하도다!

늙어빠진 대감의 하찮은 목숨이나 좀도적의 혀바닥으로 하여 속절없이 쓰러지는 내 목숨 새삼스러이 아까울것이 없으나 이 나라의 앞길이 가슴에 걸려 눈을 제대로 못감을뿐이요.》

령의정 강순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남이의 사리깊은 말은 진실이였고 사실이였기때문이다.

이렇게 무술에 능통하고 용맹한 청년장군이였던 남이는 나라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더 높은 벼슬자리와 재물을 위하여 악독한짓을 일삼는 간신들의 모해로 하여 1468년 10월 27살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남이는 병서에 능하였으며 나라위한 싸움에서 언제나 용맹을 떨치였다.

하기에 그의 생애는 비록 길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 후손들의 가슴을 울려주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이름난 명장들을 들 때 빼여놓지 않고 그를 부르는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량반출신이고 또한 봉건관료였기에 봉건국가에 충실히 복무하는것으로써 자기의 충직성을 나타내려 한것만은 사실이다.

이후 류자광은 남이를 죽인 《공》으로 무령군이라는 높은 칭호까지 받게 되였다.

남이가 세상을 떠난지 350년이 지난 후인 1818년 순조왕은 그에게 관직을 다시 주고 충무라는 시호까지 주었으며 사당을 짓고 그를 제사하였다고 한다.

중세기 유물론적철학자 서경덕

공부를 마치자 글방선생이 경덕을 불렀다.

《저 선반 높은데 있는 책을 좀 내려다다고.》

《알겠나이다.》

경덕은 선반아래에 가서 책을 내리려 했으나 키가 모자랐다. 기껏 발돋움을 하여도 책이 쥐여지지 않는다. 경덕은 밖으로 씽하니 나가더니 가느다란 회초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회초리로 책을 내리나?…》

옆의 아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경덕을 바라본다.

경덕은 주위에는 눈을 팔지 않고 들고온 회초리로 선반우를 한번 쭉 훑었다. 그러자 책우에서 무엇인가 《달그렁》하고 소리를 내는것이 아닌가.

경덕은 다시 나가 발판을 하나 얻어다놓고 그우에 닝큼 올라서더니 책이 아니라 물그릇을 내리는것이였다. 그리고 다시 책을 내리여서는 선생께 드리였다.

이것을 주의깊게 살피던 선생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경덕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준다.

《얘들아, 이자 다들 보았느냐. 학문을 닦아 성공하자면 경덕이처럼 성품이 침착해야 하는 법이다. 경덕은 아무 일이나 시켜도 실수가 없지만 오늘은 내가 특별히 시험하기 위해 시킨것이다.

책우에 물그릇이 있을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하건만 경덕은 제꺽 알아맞히고 침착하게 행동한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모두 이렇게 일처리들을 하여야 하느니라.》

아이들은 모두 새로운 눈으로 경덕을 다시 보는것이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신통하다고 말하였다.

서경덕은 1489년 3월 개성의 선비 서호빈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 매우 총명했으나 살림이 너무 구차하다보니 제때에 공부를 하지 못하다가 13살이 되여서야 글읽기를 시작하였다.

그는 자를 가구, 호를 화담, 복재라 하였으며 시호는 문강이라고 불렀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탐구심이 강하였던 그는 무엇이든지 모를것이 생기면 의문이 풀릴 때까지 기어이 문제의 본질을 알아내고야마는 성격을 가지고있었다.

그와 관련하여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서경덕을 가르치는 선생이 《상서》(책이름)를 배워주면서 《기삼백》장에 이르러서는 읽는것만 가르치고 그 뜻을 알려주지 않은채 다음장으로 넘어가는것이였다.

의아해난 서경덕은 선생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 장은 왜 뜻을 풀지 않고 넘기나이까?》

스승자체가 그 뜻을 몰랐기에 대여줄수 없었으니 그렇다고 할수도 없고 하여 선생은 그저 이 장의 뜻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따지고들었다.

《무엇때문에 알 필요가 없나이까?》

《이 장의 글뜻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 읽지 않는것이 좋느니라.》

대답이 궁해진 선생이 어물쩍 넘기려들었으나 서경덕의 의문은 더욱 커만 갔다.

서경덕은 선생의 태도가 리해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알 사람이 없는 글이 어떻게 책에 올랐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는 《기삼백》을 그대로 덮어두지 않았다. 어린 서경덕은 자기가 알고있는 한자의 뜻을 가지고 계속 읽고 또 읽었으며 따지고 또 따지였다. 그리하여 결국 15일만에 그 뜻을 알아내고야말았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선생에게로 찾아가 자신이 해석한것을 풀이하였다.

선생은 어린 그의 탐구심에 놀랐고 또 너무도 기특하여 자기가 알지 못한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잊고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학문의 높은 경지에 오르도록 더 배우지 못한것을 탄식했더니만 결코 더 배울수 없었던것이 아니다. 너처럼 탐구할줄 몰랐던탓이였구나.》

서경덕은 이처럼 그 어떤 자그마한 문제도 스치지 않았으며 끝장을 볼 때까지 파고드는 기질을 가지고있었다.

서경덕이 활동하던 16세기는 철학이 일정한 수준에 이른 때였다. 이 시기 철학에서는 《리》와 《기》의 호상관계문제를 가지고 《기일원론》과 《리일원론》, 《리기이원론》사이에 치렬한 론쟁이 벌어지고있었다.

당시 반동적지배층의 편에 서있던 유생들은 세계의 중심에 그 어떤 초자연적인 인간을 내세우면서 저들의 반동적인 통치와 질서를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통치배들의 악정과 죄행에 불만을 가지고있던 진보적학자들은 주위세계의 본질을 《기일원론》의 견지에서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였다.

서경덕은 이런 진보적철학의 대표자로 나섰다.

서경덕은 일찍부터 봉건지배층의 전횡과 압박에 불만을 품었으며 그로 하여 벼슬살이를 단념하고 일생을 화담에서 은둔생활을 하였다. 때문에 그를 화담선생이라고 부른것이다.

서경덕은 24살에 이르러 자기자신의 연구로써 진리를 탐구해냈으며 이에 기초하여 제나름의 유물론적우주관을 정립해나갈수 있었다.

그는 33살에 금강산, 속리산, 지리산 등 우리 나라 명승고적들을 돌아보면서 조국의 산천경개를 노래하는 많은 시들을 지었으며 착취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달픈 생활을 동정하기도 하였다.

그는 고향에 돌아오자 화담의 언덕우에 소박한 서재를 하나 짓고 년년이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면서 후대교육과 학문연구에 힘썼다.

집안살림이 하도 가난하여 밥을 짓지 못하는 날이 빈번했으나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지 못하는 날은 없었다.

때문에 화담 서경덕은 백성들의 뜨거운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것

이다.

서경덕은 42살에 어머니의 권유로 사마시에 합격하였지만 벼슬을 거절했으며 55살때에는 김안국과 성균관유생들의 일치한 추천으로 후릉참봉에 임명되였으나 병을 구실로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철학저술로서 《원리기》, 《리기설》, 《태허설》, 《귀신사생론》 등을 비롯하여 많은 글을 남기였다.

서경덕은 자기의 저서들에서 기일원론철학을 전개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그는 세계의 기초로서 물질적인 《기》를 내세웠다. 즉 우주공간에는 기가 가득차서 그것이 크게 모인것은 하늘과 땅이 되고 작게 모인것은 여러가지 물체로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허공의 해와 달, 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물현상은 다 기로 되였으며 기를 떠난 자연이나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서경덕은 《기》를 먼지와 같은 미세한 립자로 보면서 세계도처에서 운동하고있을뿐아니라 시초와 종말도 없는 하나의 물질적실체로 리해하였다.

《기는 시초도 없으며 발생하는것도 없다. 시초가 없으니 어찌 종말이 있으며 발생하는것이 없으니 어찌 소멸이 있겠는가.》, 《비록 한쪼각의 초라도 그것이 보기에는 다 타서 없어지는것 같지만 그 기만은 영원히 남아있는것이니 어찌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겠는가.》

이와 같이 서경덕은 물질적실체인 기는 시초와 발생도 없고 종말도 소멸도 없는 영원한 존재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바로 물질은 불멸하다는 견해가 담겨져있는것이다.

따라서 그의 철학이란 세계의 시원을 미세한 물질적실체인 기로 인정하는 기일원론 즉 유물론적세계관이며 세계는 영원히 운동변화발전한다는 변증법적사상이다. 그는 세계의 시원을 정신적인 심으로 주장하는 관념론을 철저히 배격하였다.

그는 자기의 저서 《원리기》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태허는 맑고 형태가 없으며 그 크기와 한계가 없고 그 유래를 규명할수 없다. 맑고 고요하며 기의 근원으로 되는것이며 무한한 공간에 가득히 펴져있다. 꽉 차서 빈틈이 없으므로 털끝 하나도 사이에 용납할수 없다. 그러나 꺼내려고 하면 빈것 같고 잡으려고 하면 없는것 같으나 도리여 실재하는것이니 아주 없다고 말할수는 없다. 이 지경에 이르면 들을 소리도 없고 맡을 냄새도 없다.》

또한 서경덕은 세계사물현상들의 발생발전에 대해서도 그것은 물질적기의 작용에서 오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의 기라면 거기에는 둘이 포함되며 태일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곧 둘이 들어있는 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는 둘을 생하지 않을수 없는바 둘이면 스스로 능히 생하고 극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기가 작은 운동으로부터 큰 운동에 이르는것은 모두 생극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고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하나의 기가 나누어져 음과 양으로 되는데 양이 가장 큰것이 하늘이고 음이 가장 크게 모인것이 땅으로 되였다. 양이 맺혀서 가장 정한것은 해가 되고 음이 맺혀서 가장 정한것은 달이 되였다. 나머지 기들은 흩어져서 하나의 별로 되고 땅의 물과 불로 되였다. 이것을 말하여 우주라고 한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세계의 물질적기초이며 그 본질로 되여있는 기는 본래 그자체내에 서로 다른 성질의 다른 두 요소인 음과 양을 가지고있어서 그들사이의 모순과 투쟁에 의해 모든 사물현상들이 생겨나고 우주자연도 형성된것이라고 하였다.

서경덕은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자기의 철학적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원래 당시 부패한 현정부에 불만을 품고있었으므로 통치배들에 대한 증오와 함께 백성들에게 뜨거운 동정을 품고있었다.

서경덕은 자기의 시《시내물소리》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바위틈으로 콸콸 흐르는 시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부짖으니

슬퍼하듯 원망하는듯
또 누구와 다투는듯 하여라

이 세상에 쌓인
이러저러하게 억울한 일들을
하늘에 하소연하여도
분통이 가라앉지 않는구나!

그는 봉건사회에서 빚어지는 비참한 현실태는 량반관료배들과 지주들이 자기의 권세를 리용하여 농민들의 토지를 략탈하고 그들에게 부역을 들씌우고 가혹하게 착취하는데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당시 묘자리를 잡는 문제에 대하여 실례를 들었다.

백성들의 토지를 다 황페화시키면서 넓으나넓은 땅에 왕의 무덤 한자리를 쓰면 그 지역을 넓게 차지하여 꼴 한단 벨 곳조차 없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나라의 력사가 천년을 내려가면 서울 백리밖까지 모두 왕의 무덤으로 덮이게 될것이며 토지는 다 못쓰게 되여 남는 땅이란 하나도 없게 될것이라고 통탄하였다.

그리고 릉묘에 세울 돌을 다듬는 공사는 그 고역이 심하여 백성들을 쓰러지게 하며 그 독촉에 베잠뱅이로 추운 겨울날 눈길을 차고다니다가 살결이 얼어터져 들판에서 얼어죽는 백성들의 그 수는 알지 못할 지경이라고 한탄하였다.

특히 봉건사회의 빈부귀천에 대하여 자기의 시에서 이렇게 읊조리였다.

산림에 숨어사는 한 선비
고상한 뜻 아는 사람 없건만
진리의 깊은 맛을 알기때문에
언제나 배고픈줄 모른다네

마음은 비단결같이 아름다와도
몸에는 성한 옷 한벌도 없구나

굶주림과 헐벗음은 세상에 짝이 없어도
오히려 잘사는자 부럽지 않다네

서경덕은 정사는 깨끗해야 하며 형벌은 간소하여야 하고 관리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복무할것을 주장하였다.

서경덕은 이처럼 중세철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유물론적견해를 내놓음으로써 당시 철학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서경덕도 역시 시대의 제한성에서 탈피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대하여 그 어떤 이름있는 《어진 왕》이나 《영웅》들의 출현에 의해 결정된다고 그릇되게 생각함으로써 그 발전을 추동하는것이 인민대중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성인군자》가 실시하는 《어진 정치》에 있다고 그릇되게 보았던것이다. 이것은 사회력사에 대한 그릇된 견해이다.

그러나 서경덕의 우주자연에 대한 원리적인 탐구는 진보적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리조봉건사회에서 기일원론적인 유물론적 철학사조를 이루었다.

그는 일생 오직 고결하게 주색에 빠짐이 없이 학문연구에만 전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하나의 일화가 전해졌다.

어느날 리조때 명기로 이름났던 황진이가 량반들과 술판을 차리고 한담을 벌렸다. 량반들은 황진이앞에서 저마다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들만이 도덕이 있고 례절이 있는듯이 떠벌여댔다.

입이 쓰거워난 황진이는 그것을 부정해나섰다.

《아직까지 저는 주색에 빠지지 않은 량반은 단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량반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라는것이다.

《모르는 소리, 은거생활을 하는 화담 서경덕이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 어디 만나보지.》

황진이는 자기의 산 체험을 통하여 량반들의 말을 원래 진실로 듣지 않는지라 자기앞에서는 누구든 그 본심을 드러내리라고 생각하였다.

황진이는 글공부를 하러 왔다는 명색으로 서경덕을 찾아갔다. 물론 기생의 신분으로 가면 받아주지 않고 배척할것 같아 서생차림으로 나섰다.

《선생님께 글을 배우러 왔소이다.》

서경덕은 글을 배우겠다는 그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밤낮없이 글공부만 시키였다. 며칠이 지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황진이는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을 시험하기 위하여 글공부를 하다가 밤이 깊어지면 일부러 선생의 곁에 잠자리를 펴고 그의 마음을 떠보기 시작했다. 다리도 올려놓아보고 팔도 그의 몸에 기대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경덕은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글공부에 몹시 피곤한 모양이라고 하면서 바로 눕혀주군 하는것이였다. 그는 녀자의 몸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오직 선생으로서 글을 가르치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황진이는 끝내 실망하고말았다.

황진이는 자기와 내기를 걸었던 량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분은 량반이여서라기보다 누구도 따를수 없는 학자이기에 그렇게 고결하신줄로 아옵니다.》

서경덕은 1546년 57살을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시각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였다.

《배워서 의심이 없는데 이르니 참으로 쾌활함을 느꼈고 일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니 마음이 만족하구나.》

그는 제자들에게 많이 배울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고 눈을 감았다.

그후 철학자 서경덕의 리론은 실학자들과 선진적인 학자들에 의하여 더욱 풍부화되였다.

력대의 폭군이였던 연산군

연산군은 성종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리왕조 10대왕인데 력대의 폭군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성종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성질이 포악하여 왕비자리에서 쫓겨난 페비로서 사약을 받고 죽은 윤씨였다.

정의감이 강하였던 성종왕은 윤씨를 버릴 때 에미를 닮아 어렸을 때부터 포악한 연산군까지 없애려다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하는것이 가슴에 걸리여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연산군은 어렸을 때는 똑똑한것 같이 보였으나 차츰 커가면서 그 본성이 드러났다.

성종왕은 연산군이 어머니없이 후어머니손에서 자라는것이 못내 가엾어 항상 주의를 돌리였으며 틈나는대로 앞에 불러 례의도덕과 선의에 대하여 가르치였다.

어느날 연산군이 부왕곁에서 또다시 주의를 받고있는데 갑자기 귀여운 사슴 한마리가 뛰여와 그에게 다가들어 옷과 손등을 핥으며 애무하는것이였다.

이 사슴은 대궐에서 성종왕이 정성을 다해 기르는 짐승이므로 누구에게나 마구 매달리고 반갑게 굴었다.

그런데 연산군은 자기에게 달라붙는 사슴을 보며 오만상을 찌프리더니 순간 발길로 배를 사정없이 걷어차는것이였다.

사슴은 애처롭게 비명을 지르며 저 멀리 나가 떨어지더니 간신히 일어서서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달아났다.

이 잔인성을 눈앞에서 노려보던 성종왕은 기가 막혔다.

《이녀석아, 그게 무슨짓이냐. 좋다고 매달리는데 곱지도 않느냐. … 허 참.》

성종왕은 아들을 가까이 세워놓고 그래서는 안된다는데 대하

여 말해주고 또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 버릇이 없어질리 만무하였다. 어찌보면 날을 따라 더 해가는것만 같았다.

성종왕은 연산군을 바르게 키울 녀인을 고르고고르다가 리조판서 강희명의 부인인 안씨가 부덕이 높고 례의범절이 흠할데 없다는것을 알고 그에게 맡기였다.

《어찌겠소. 에미없는 이것을 좀 맡아주오.》

《제 있는 힘껏 해보겠소이다.》

하지만 안씨부인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허사였다.

연산군이 4～5살이 되여서부터는 땅에 기여다니는 뭇벌레란것은 모조리 밟아죽이거나 짓이겨죽였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고 웃어대는것이다.

그가 5살이 되던 해 봄 뜰에서 놀던 연산군이 좋아서 캐득캐득 웃기에 안씨부인이 무슨 영문인가 하여 다가갔다.

그런데 연산군은 개구리 한마리를 회초리로 힘껏 때려갈기면서 그처럼 좋아했다.

《네놈이 살겠다구, 안된다 안돼.》

회초리에 개구리는 파들파들 떨면서 몸부림치는데 그는 안씨부인의 애절한 사정에도 관계없이 더욱 세차게 쳐갈긴다.

《아니야, 내가 요놈을 때려죽이고야말테야!

요렇게 때려갈기면 바둥바둥 몸을 떠는게 재미가 있거든.》

그 잔인성에 안씨는 말문이 막혔다.

(아, 이분이 장차 상감이 되시면 세상이 어찌 될것인가!)

안씨부인이 해종일 알뜰살뜰 돌보고 그릇됨을 깨우쳐도 그는 오직 막무가내였다.

고약한 버릇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는 무엇이든 보기만 하면 가림이 없이 입에 주어넣는다.

한번은 실꾸리까지 입에 넣어 온 집안이 떠나갈듯 하였다.

안씨와 종들이 달려들어 아래우로 입을 벌린 후 겨우 끄집어내니 즉시 또 깔깔대는것이다.

연산군은 어릴 때부터 못된짓이란 짓은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우선 공부를 게을리하였다.
그는 당시 학문과 명망이 높았던 허침과 조자서에게서 배웠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말은 듣지 않고 괴이한 장난질만 일삼았다.
《그렇게 글읽기를 싫어하면 대왕님께 고해바치겠으니 알아두어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자 조자서는 큰소리를 쳤다.
허침은 언제나 너그러운 말로 좋게 타이르지만 조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후 연산군은 벽에다 이렇게 락서를 해댔다.
《조자서는 대소인이요, 허침은 대성인이다.》
이로써 조자서는 왕위에 오른 연산군의 피바람을 맞은 첫 인물로 되였다.
이렇게 포악한 연산군이 성종왕을 이어 왕자리에 앉자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신하들은 모두 그의 손에 죽거나 화를 당하여 몸을 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연산군은 왕이라는 권력을 써서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였다.
연산군이 제일 좋아한것은 술과 계집이였다.
그는 먼저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백성들을 농번기에 끌어내였으며 얼굴이 약간 곱다는 녀자들은 거의 모두 거두어들이였다.
연산군은 대궐안에 《연방원》, 《함방원》이라는 방을 꾸려놓고 녀자들을 불러들이였으며 이 방, 저 방을 헤매였다.
그는 전국에 령을 내려 고을마다 《채홍사》, 《채청사》라는것을 만들고 미녀들을 모집하는 관원을 두었다.
처녀이건 유부녀이건 여기에 걸려들기만 하면 그만이다.
연산군은 이 처녀, 저 녀자를 쓸어만지면서 술과 잔치, 음탕한 놀이로 하루해를 넘기였다.
그러니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공사가 계속되고 사냥놀이가 그칠날이 없었다.

그리하여 거기에 든 비용으로 국고는 탕진되여 텅 비다싶이 되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항목에도 없는것을 만들어 백성들의 등껍질을 두벌세벌 벗겨댔다.
연산군은 제 마음에 드는 곳이면 그곳이 집이든, 관청이든 가리지 않았다.
그는 지어 공자의 위패를 이름도 없는 깊은 골짜기로 옮기게 하였고 성균관을 놀이터로 만들어 공부에 열중하던 유학도들을 모두 쫓아버렸다.
《공부는 무슨 공부, 책에서 미인이 나온대?》
그는 코웃음을 쳐댔다.
연산군은 자기의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위하여 1504년 6월에만도 베 2만 9 000필을 썼고 9월에는 금과 진주를 사들인 값이 베 17만 7 114필에 이르렀다.
이를 메우기 위해 연산군은 노비들이 1인당 무명 1필씩 더 바치게 하는 가혹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또한 부화방탕한 유흥을 위하여 장악원의 기녀수를 그전의 2배인 300명으로 늘이였다.(장악원—음악일을 맡아보는 중앙관청)
그리고 사냥터를 꾸리기 위해 서울주변 넓은 지역의 살림집을 강제로 헐어버리였다.
그리하여 2만 550여명의 백성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쫓겨났으며 무려 5 700여결에 달하는 땅에 봄이 와도 씨를 뿌리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백성들에 대한 그의 학정과 폭행은 나날이 늘어나 노비들마저 살곳을 찾아 도망쳤다.
그러자 연산군은 이것을 막기 위하여 도망친 노비들을 붙잡아서 뺨에 남자노비는 《도노》, 녀자노비는 《도비》라고 먹물로 살속까지 들이파서 새겨넣었다.
나루터에는 비싼 세금을 부과시켜 길손들의 인적마저 드물게 만들었다.
마을마다 연산군에 대한 원한과 저주가 차고넘쳤고 이름모를 가

지각색 동원과 세금에 쓰러져 죽는자가 갈수록 늘어났다.
이뿐이 아니였다.
그는 이래도 사람을 죽이고 저래도 죽이였다.
신하들속에서 더는 참을길 없어 의분을 쏟거나 충간을 올리면 그자리에서 즉각 처형하였다.
그는 조정백관들에게 《입은 재앙을 초래하는 문이요, 혀는 몸을 죽이는 도끼이다.》라는 패를 만들어 차고다니게 함으로써 충간이란 말조차 없애버렸다.
그때 김치선이란 내관이 있었는데 참고참던중 왕의 포악함을 말하였다가 그자리에서 쏘는 연산군의 화살에 맞아 푹 꼬꾸라지고말았다.
이렇게 모든것을 한손에 거머쥐고는 각지에서 뽑혀온 미인들을 데리고 온갖 추악한짓을 다하였다.
그러다가도 처녀가 제풀에 약간 웃으면 어느 놈과 비밀리에 정을 나눈것을 돌이켜보고 즐거워서 웃는다고 때려죽였고 유부녀들중에 두고온 집과 아이들이 생각나서 수심을 띠고있으면 필시 본남편을 그리워하는짓이라면서 남편의 목을 잘라다 그 녀인의 턱밑에 내대였다.
그때 연산군의 왕비는 포악한짓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행하는 그에 대하여 울며불며 사정을 붙이였다.
《상감마마, 이러시면 어찌하나이까? 다른 사람들도 좀 보아주셔야지 않소이까?》
《이년이?… 시기하면 너도 죽이겠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욱박지르기가 일쑤였다.
연산군이 얼마나 계집에 환장하고 색에 빠졌던지 말 기르는데 가서 보고는 저녁에 녀인들을 벗겨놓고 말의 그 흉내를 냈다는것이다.
그뿐이 아니였다.
대관댁부인들이 혹시 대궐에 들어왔다가 연산군의 눈에 드는 날이면 영낙없이 정조를 유린당하였다.
만일 부인이 거절하면 남편까지 잡아다놓고 목을 베고 또 그

길로 돌아앉아 온갖 해괴한짓을 다하였다.

반대로 말을 잘 들으면 남편의 벼슬을 올리였다.

하기에 고관으로 있던 윤순의 녀편네는 우정 연산군을 꾀여내여 몸을 바치고 남편을 판서로 내세웠다.

한마디로 연산군통치시기에는 아무런 법도도 없었다.

그가 결심하고 다가들기만 하면 거침없이 희비극이 벌어지군 하였다.

그가 집권하면서 이 나라 땅에서는 어느날에 무슨 변이 일어날지 기약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살벌한 공기가 온 나라 땅에 차고넘치였다.

충신들은 조정에서 두말없이 쫓겨나고 간악한 무리들이 득세하였으며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였다.

력사에 비극으로 전해진 《무오사화》(1498년)는 그 페단을 말해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당시 조정에는 훈구파들로서 리극돈, 류자광 등 선비들을 미워하고 꺼리는 인물들이 대체로 높은 관직에 앉아 정권을 쥐고 있었다.

이와 대립하여 젊고 혁신적인 파로서 사남파가 있었는데 이들사이에는 은근히 반목과 알륵이 조성되여있었다.

훈구파무리들은 무식하고 색에 빠진 연산군이 글 읽는 선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것을 리용하여 그의 마음을 부추겨 사남파의 젊은 신진세력을 때려잡으려고 획책하였다.

그런데 그때 마침 좋은 계기가 마련되였다.

그것은 당시 《성종실록》을 편찬하는데 관여했던 리극돈이 실록초고에서 사남파의 이전 중요인물이였던 김종직이 쓴 글을 발견한것이였다.

그것은 김종직의 제자이며 실록편찬의 수사관인 김일손이 삽입한것으로서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그를 죽인 사실을 중국의 항우와 의제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어 비유조로 비판한 글이였다.

이것을 읽어내려가던 리극돈은 이미 앞에서 자기를 욕하는 대목

도 보았던지라 본래의 앙심이 더욱 살아나 곧 류자광을 찾아갔다.
류자광 역시 훈구파의 중요인물이였던만큼 김종직과 그의 제자 김일손을 언제나 곱게 보지 않던차였다.
《이번통에 그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세.》
그들은 한순간에 마음이 일치했다.
극악무도한 간신들인 리극돈과 류자광은 김일손이 사초(실록편찬초고)에 삽입한 김종직의 《의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은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자리를 빼앗은것을 비유한것이라고 모함하여 연산군에게 고해바쳤다.
세상만사 눈에 보이는것은 술과 계집뿐이며 책 한권 바로 읽지 않아 세상리치조차 알지 못하는 연산군은 말썽 많은 선비들이라고 밉게 보았던지라 크게 기뻐하며 김종직과 김일손이하 이름있는 명사 근 30명을 한코에 걸어 야수적으로 죽이였다.
이때 이미 김종직은 세상을 떠난 후였으므로 악독한 연산군은 그의 무덤까지 파헤치고 송장의 목을 치게 하였으며 나머지 살아있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릉지처참하거나 목을 베고 곤장을 안기여 귀양을 보냈다.
…
《무오사화》가 있은 뒤 길가에는 선비차림의 행인을 찾아볼수 없고 고을마다 쟁쟁히 울려퍼지던 글소리가 일시에 뚝 끊어졌다고 전해진다.
연산군의 폭정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에 뒤이어 《갑자사화》(1504년)라는 무리죽음을 또다시 연출하였다.
연산군의 생모였던 윤씨는 사약을 받고 친정에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원삼자락을 찢어 입에서 나온 피덩이를 받아 어머니 신씨에게 주면서 이런 부탁을 남기였다.
《내 아들이 이다음에 왕위에 오르거든 이것을 전하고 꼭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더라고 전해주시오.》
연산군은 생모가 죽을 때 어렸으므로 자기를 현재 길러주는 중종의 생모인 자순대비를 친어머니인줄로만 알고있었다.

그런데 피덩이를 받아두었던 외할머니 신씨의 간책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였다.

이것을 전달받은 연산군은 그 폭군의 잔인성이 일시에 발작하였다.

그는 즉시 그때의 사기책을 급히 가져오게 하고는 어머니를 죽이는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참가하였던 조신들은 두말할것 없고 《무오사화》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선비들까지 가차없이 협조자로 몰아 수많은 생명을 없애버렸다.

이때 처남이였던 신수영이란자는 연산군 못지 않은 악한이였는데 때를 만난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마구 물어넣었으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성종왕의 후부인들인 엄씨, 정씨, 그들의 소생이였던 두 왕자까지 모두 죽이는 살륙전을 펼쳐놓았다.

그리고 이미 죽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한명회, 정창손들은 무덤을 파헤치고 다시 목을 베였고 잔존하고있던 사남파의 마지막세력들은 모두 극형에 처하였다.

연산군은 윤씨의 명예를 회복시켜 정현왕후로 부르게 하였으며 성종묘에 같이 묻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권달수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건의서를 내자 무지한 연산군은 그들도 목을 베고 가족들은 귀양을 보내였다.

《갑자사화》의 직접적인 동기는 궁중내부의 알륵으로부터 출발하였지만 근본원인은 연산군의 심히 방종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나라재정이 극도로 줄어든데 있었다.

이때문에 연산군은 마지막에 공신들의 재산까지 몰수하려 꾀하였던것이다.

이것을 반대하는 봉건량반들이 궁중의 용돈을 절약하며 어느 정도 제한하려 하자 이러한 추이를 리용하여 구세력과 사남파의 잔존세력을 일소하고 정권을 쥐려는 일파가 나타났다.

이 도당은 폐비의 사건을 밀고하여 사화를 일으키게 한 장본인들인 임사홍의 간사한 무리들이였다.

그리하여 《갑자사화》는 무수한 죽음을 가져왔고 궁중중심의 세

력과 구세력일파와의 충돌로 후일 당쟁이 싹트기 시작했던것이다.

연산군의 폭정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여기에 한 량반이 고리백정의 사위가 된 일화도 있다.

연산군의 폭정이 나날이 더해가던 여름 어느날, 함경도 벽촌 산골길로 어떤 젊은이가 맥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있었다.

그는 심한 갈증을 참다가 사방을 둘러보니 멀지 않은 곳에 어떤 처녀가 우물의 물을 동이에 담고있었다. 젊은이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물 한모금 좀 먹을수 없을가요?》

처녀는 물을 한바가지 찰찰 넘게 떠주었다.

젊은이의 눈앞에는 순간 그처럼 아름답고 귀엽던 안해의 얼굴이 떠오르고 거기에 처녀의 자태가 겹쳐들었다.

그는 용기를 내여 처녀에게 자기는 떠돌아다니는 몸이니 아무 일이나 시켜달라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젊은이는 처녀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게 되였다.

이 젊은이는 연산군의 왕정에서 교리벼슬을 지내던 리장곤이였다.

그에게는 아릿다운 부인이 있었는데 그만 이것이 화근이 되여버렸다.

녀성이란 녀성은 다 제것으로 만들고싶어하는 연산군이 리장곤의 안해가 미인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얻어들었는지 즉시 대궐로 불러올려 한순간에 강제로 그의 정조를 짓밟아버리였다.

안해가 대성통곡하며 집으로 돌아오자 리장곤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그는 불시에 은장도를 꺼내들었다.

《이 더러운 계집아, 앙탈을 하다가 죽질 못하고 살아서 돌아와.》하고는 옆구리를 내찔렀다.

이 사실이 연산군의 귀에 들어가자 리장곤이 편할리 없었다.

《리장곤을 당장 귀양보내고 중도에서 없애버려라.》

연산군의 고함소리는 대궐을 울리였다.

이리하여 리장곤은 몸을 피하게 되였고 쫓기는 신세가 되였다.
뒤를 이어 8도에는 리장곤을 잡는자에게 후한 상을 주고 그를 숨겨주는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령이 내리였다.
이렇게 되여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던중 깊은 산중에서 이 처녀를 만났던것이다.
처녀는 양수척이라는 고리백정(고리 겯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의 외딸이였으나 리장곤으로서는 신분을 따질 형편이 못되였다. 이들 두 젊은이는 그후 결혼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처음 장인은 서울사람인, 그것도 량반을 사위로 맞은데 대해 매우 만족해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그것은 환멸로 변하였다.
원래 량반이라 일할줄도, 일할 생각도 없이 놀고만 먹으려드는것이다.
어느날 잔뜩 미워났던 사위가 장인이 원에게 공물로 키를 바치려 나서자 앞을 막아서며 기어이 자기가 가겠다고 한다. 그동안 서울소식도 궁금했기에 일부러 일을 맡아나선것이였다.
그런데 고을관청에 이르니 원이라는자는 자기의 옛친구였는데 그사이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몰려나고 새 임금이 왕좌에 앉아 애매한 죄를 쓴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후 리장곤은 부인을 가마에 태워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으며 뒤에 좌찬성의 벼슬에까지 올랐고 부인 양씨는 일품 정경부인의 칭호까지 받게 되였다.
연산군의 폭군행위는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냈다.
어느날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온 내시 한사람이 돼지대가리를 연산군에게 바쳤다.
이것을 본 옆의 기생은 제멋에 겨워 깔깔 웃어댔다. 연산군은 기생을 꾸짖었다.
《웃기는 무엇때문에 웃는거냐?》
《성주문관 장순손이란 사람의 얼굴이 꼭 돼지같아 장저두라고 하나이다. 어쩐지 그 생각이 나서. 호호호.》
기생의 대답에 연산군은 금시 성이 올랐다.
《음, 네년이 장순손을 생각한다는것은 필연코 그놈과 배가 맞

아서 정을 잊지 못하는것이로다. 임금이 곁에 두고 가까이하는 녀자와 무엄하게 노는 놈은 용서할수 없어.》

연산군은 당장 그를 잡아올리게 하고는 중도에서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먼저 장순손을 잡으려 금부도사가 내려가고 도중에서 처치하기 위해 선전관이 칼을 들고 뒤따랐는데 처음 떠난 일행이 지름길을 택하였으므로 그만 길이 어긋났다.

얼마후 그들 일행이 수원부에 도착하니 그밤에 반정(중종반정)이 일어나 그는 금시 무죄로 되였다.

장순손은 너무 기뻐 어느 집 마당으로 들어가 덩실덩실 춤까지 추어댔다.

그후 그는 다시 벼슬길에 나섰으며 후일에는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한다.

연산군의 이런 이야기들은 끝이 없다. 때문에 연산군의 폭정에 대하여 백성들은 더 말할것 없고 일부 량반들과 관리들, 유생들과 승려들까지도 반대해나섰다.

1506년 1월에는 서울 종로기둥에 왕을 처단하는 싸움에 일어설것을 호소하는 글이 나붙었고 투서가 계속 들어왔다.

연산군은 이에 대하여 서울시내에서 언문을 아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에게 알리며 이 글을 배우지도, 쓰지도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러나 연산군을 제거하려는 기운은 날을 따라 더해만 갔다.

연산군을 배척하여나선 리조판서 성희안, 례조판서 류순정, 중추부지사 박원종을 위시로 한 관리들은 1506년 9월 무장정변을 일으켜 그를 쫓아내고 성종의 둘째아들인 진성대군(중종)을 올려앉혔다.

이 사건을 바로 력사에서는 《중종반정》이라고 한다.

정변이 성사되자 폭군 연산군은 작은 섬인 교동도로 쫓겨가 가시울타리속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지내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후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충성이란 다름아닌 거짓음모

사모도 거동이란 다름아닌 교동이라네
일만흥청 어디에 두었나
하늘끝에 해는 졌으나 뉘를 따라 갈가
아, 여기도 가시내의 집이거든
새벽토록 즐긴들 거칠것이 없으리

이 노래는 온갖 쾌락을 다 누리다가 교동도에 갇힌 몸이 된 연산군의 몰골을 풍자한것으로서 력대의 가장 잔인한 폭군이였던 그에 대한 백성들의 저주의 반영이다.

또한 《로고》라는 가요도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여있다.

웃어울로고	(우스운 일이로고
궂을로고	더러운 일이로고
패할로고	망할것이로고)

가요에서는 연산군이 학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우리 글자사용을 금지시키고 성균관을 술놀이터로 만들었으니 그 하는짓을 《우스운 일이로고》, 《더러운 일이로고》라고 개탄한 다음 《망할것이로고》로 그가 반드시 망할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연산군은 백성들의 원한의 대상이였다.

이런 연산군이 꺼꾸러지고 《중종반정》으로 정권이 교체되기는 하였지만 크게 달라진것이란 없었다. 역시 봉건통치배들의 백성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정도의 차이일뿐 본질은 하나이기때문이였다.

중세녀류화가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16세기 이름있는 녀류화가이며 리률곡을 비롯한 네 아들을 나라의 인재로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였다.

신사임당은 풍부한 재능과 섬세하고도 강의한 성품을 간직한 녀성이였다.

앞에는 동해의 푸른 물이 철썩이고 뒤에는 대관령이 병풍처럼 솟아있어 관동8경의 하나로 이름하는 강릉의 경포대가 자리잡고있는 곳에 신명화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그는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 이를 도와나섰다가 생명을 바친 신숭겸의 후손이다. 강릉의 바위처럼 성격이 강직하고 청렴결백한 신명화는 41살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길에는 뜻이 없어 나서지 않고 일생 진사로 있으면서 오직 자녀교육에만 힘썼다.

그때는 사람 잘 죽이기로 이름이 났던 연산군이 집권한 시기였으므로 신명화는 벼슬길에 나서고싶지 않았다. 그의 안해 리씨도 량반가문의 딸이였으나 남편의 뜻을 따라 시골에서 다섯딸을 훌륭히 키워나갔다.

신사임당은 1504년 강릉의 북평촌에서 이런 부모들의 둘째딸로 태여났는데 벌써 어릴 때부터 그 재주가 뛰여났었다.

신사임당의 어릴적이름은 인선이였다. 그는 애어린 시절부터 글씨도 남다르게 잘 썼고 바느질, 수놓이를 비롯하여 녀성으로서 막히는데가 없었다.

특히 그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재간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림 그리는 이를 《환쟁이》라고 하면서 천시하던 때이므로 량반집소녀가 그림공부를 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그래도 신사임당은 고향의 수려한 산천을 그림에 담고만싶었다. 그는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짬나는대로 붓

을 들어 자기의 생각을 찍어갔고 한번 안되면 백번이라도 마음에 들 때까지 그리군 하였다. 그리하여 처녀시절에 벌써 15세기 세종때 첫손가락에 꼽히던 화가 안견의 산수풍경화의 필법을 완전히 터득하였다.

신사임당은 그림뿐아니라 글씨에서도 남달랐고 수놓이나 바느질에서도 그를 따를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는 여러 색갈로 물들인 골무함에 고운 수를 놓아 모아두군 하였는데 어머니는 집에 놀러오는 사람들에게 딸이 만든 이것을 나누어주면서 기특한 솜씨를 내보이였다.

그리고 동생들에게는 누비버선에 수를 놓아주군 하였다. 이 수가 얼마나 고왔던지 동리에 나가면 수많은 녀인들이 너무도 매만져서 시끄러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는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집안에서도 부모들의 정을 끌었다.

앓는 어머니를 위해 이른새벽 머나먼 길을 걸어 약수를 떠와 마시게 하였다는 이야기는 그가 7살때 있은 일이였다. 뿐만아니라 감을 몹시 좋아하는 외할머니를 위해서 자기에게 차례진것을 서늘한 곳에 정성껏 보관하거나 따로 마련해두었다가 대접했다는 이야기는 9살때의 일이다.

신사임당은 화첩, 족자, 병풍 등에 수백개의 그림을 그리였다. 특히 풍경화 《포도도》에서는 그를 따를 화공이 없었다고 한다.

그의 그림솜씨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들이 전해온다.

어느해 가을 먼 일가벌되는 집에서 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전갈받은 신사임당은 나들이를 가게 되였다.

잔치집은 손님들도 많았고 새색시를 맞을 준비로 분주하였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30대의 한 젊은 녀인만은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근심스럽게 바닥만 내려다보면서 입고있는 치마를 자꾸만 매만지고있는것이였다.

신사임당은 그에게로 시선이 갔다. 꼭 무슨 곡절이 있는것 같았다. 언제나 인정이 깊고 사람들의 아픈 사정을 제일처럼 여기는 신사임당은 녀인에게로 다가앉았다.

《아니 무슨 시름이라도 있는게 아니신가요?》

은근한 동정이 비낀 물음에 녀인은 쑥스러워 별것이 아니라 하면서도 여전히 얼굴빛은 밝지 못하였다.

《무엇인지 어서 말을 해봐요.》

간곡한 당부에 녀인은 자기의 안타까움을 털어놓게 되였다.

《이 치마가 글쎄 불찌에 튀여서…》

녀인의 집은 동대문밖이였다. 없는 살림이라 그는 사돈집잔치에 오느라고 이웃에서 붉은 비단치마를 빌려입고 왔는데 뒤마당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전을 지지는 일을 거들다가 그만 아쉽게도 불찌가 튀여 치마에 구멍이 났다는것이다. 그러니 남의 치마인데다 새로 사줄 형편도 못되는 세간살이라 근심만 가득 실렸던것이다.

(어찌하면 도와줄수 있을가?)

잠시후 신사임당은 녀인의 손을 잡아이끌고 뒤집으로 찾아들어갔다.

그는 잔치집에서 벼루를 얻어 먹을 갈게 하고는 녀인의 치마를 벗기여 준비를 갖추어 펼쳐놓은 후 그우에 붓을 놀리기 시작했다.

얼마 안있어 비단우에는 포도넝쿨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잎사귀들이 싱싱하게 살아나더니 이번에는 보기에도 탐스러운 포도가 송이송이 주렁주렁 달리였다.

그야말로 먹음직스러웠다.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이였다.

이것을 지켜서서 바라보는 녀인도 그만 환성을 올렸다.

《아이참, 저 포도송이 먹음직해라!》

《어서 그림전에 나가보세요.》

신사임당은 그림을 녀인에게 주어 나가 팔게 하였다.

그림전에서는 싱싱한 포도에 그만 모두들 입을 딱 벌리였다.

장사속에 밝기로 소문난 가게상도 자못 구미가 동했다.

그림을 이쪽저쪽 둘러보던 장사군은 눈을 스르르 감았다.

《아…쉰냥이면 될즉한데.》

《아니, 그림을 잘못 보았소. 쉰냥이라니?》

옆에 서서 구경하던 한 선비가 대뜸 반대해나섰다.

주인은 자기의 린색한 장사속이 드러나게 되자 다시금 불렀다.

《아니, 그림의 래력을 알수 없어 그랬으니 백냥이면 어떻겠소?》

그리하여 녀인은 뜻밖에 돈 백냥을 받아가지고 그길로 비단전에 가서 붉은 치마 한감을 끊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였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았으면 좋겠는지…》

녀인은 신사임당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진심으로 절하였다.

신사임당은 나머지돈을 녀인의 손에 쥐여주었다.

마음이 기뻐진 녀인은 거듭 인사를 하는것이다.

《저는 그림이란 잘사는 부자집에서나 쓰이는줄 알았지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좋은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후 녀인은 신사임당에게서 열심히 그림을 배웠다고 한다.

이것은 신사임당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인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동정하고 도와준 그의 인정미의 일단이기도 하다.

신사임당은 그 시기 잘사는 량반들이 흔히 그리던 심산유곡의 신선이 구부러진 지팽이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모습과 같은 이상야릇한 그림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산수도를 비롯하여 생활가까이에 있는것을 골라쥐고 녀인다운 섬세성과 침착성을 가지고 획 하나, 점 하나에 이르기까지 단정하게 그렸다.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해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신사임당은 동리녀인의 간청에 못이겨 풀밭에서 날아다니는 나비와 뭇벌레들을 그려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 그 녀인이 그림을 가지고 울상이 되여 찾아왔다.

《웬일인가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신사임당이 물으니 녀인은 울먹이며 그림을 내려놓는다.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지…》

신사임당이 영문을 몰라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이 그려준

것이 분명한데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찢겨져있지 않는가.

《아니 그림을 어디에 두었기에 이렇게 험상하게 되였어요?》

그는 좀 좋지 않은 기색으로 녀인을 나무람하였다.

《이 귀한 그림을 내가 왜 잘 거두지 않았겠어요. 이번 장마에 누기가 잦을것 같아 오늘 아침 해볕에 쪼이자구 마루우에 내다놓고 잠시 우물에 나가 물 한동이를 이고 들어오니 그 못된 비둘기와 닭들이 글쎄 제정신없이 쪼아대질 않겠어요. 그놈들이 그림에 있는 나비와 풀벌레들을 진짜로 본것이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녀인은 신통히도 나비와 벌레를 그려놓았던 자리에만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찢기였다고 하소연하였다.

신사임당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들여다보니 그림에 그려졌던 나비와 벌레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이없어 한바탕 크게 소리내여 웃었다.

《안됐지만 이번에 다시 한폭 그려준다면 절대로 비둘기나 닭들이 보는데 내놓지 않겠어요.》

녀인은 계속 간청했다. 그후 녀인은 신사임당에게서 다시 그려간 그림을 절대로 비둘기나 닭들이 보는데 내다놓지 않았고 정히 보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그의 그림이 실물에 가깝고 얼마나 사실성이 풍부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신사임당은 누구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현실에 들어가 깊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직접 자신이 체험하여 완전히 자기것이 되여서야 그림에 담았다.

그의 그림들은 다감한 녀성적인 부드러움으로 넘치고있으며 그 표현에서 대상에 대한 관찰이 매우 정확하고 필치가 정교하고 색조화가 선명한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성공작인 명화 《가지》에서 그의 화풍이 더 잘 드러나보인다.

신사임당은 아들들에게 과제를 주고 글공부를 지도한 후에는 바깥 남새밭으로 나가서 포도넝쿨이랑 남새포기랑 손질했다.

어느날 아들애가 일손에 여념이 없는 어머니옆에 조용히 다가들어 물었다.

《엄마는 그림그릴라면 이렇게 일해야 되나요?》

《응, 그렇다. 이렇게 포도넝쿨이랑, 풀잎새랑 만져봐야 포도잎새가 어떻게 생기고 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진속을 알아서 그대로 그릴게 아니냐?》

이것은 《가지》에 훌륭히 구현되였다. 그는 여기에서 가지의 외형만을 그저 곱게 그린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활속에 더욱 끌어당기였다.

그림은 한여름 뙤약볕아래서 무럭무럭 커가는 가지의 푸르싱싱한 잎사귀, 해를 따라 거침없이 뻗어오르는 줄기와 무겁게 드리운 탐스런 열매를 생동하게 형상해냈다.

뿐만아니라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감탄속에 전해오는 명화들인 《잉어》, 《물오리》, 《쏘가리》, 《기러기》, 《련못의 해오라기》, 《포도》들에는 사물에 대한 그의 치밀한 관찰력과 풍부한 표현력이 잘 드러나있다.

그중에서도 《잉어》는 고기비늘의 한쪼각에 이르기까지 생동하게 묘사되여 금방 살아움직이는 고기를 보는것만 같다.

《기러기》에서는 바람에 설레이는 갈밭으로 기러기떼가 날으며 처량하게 우짖을 때 갈대숲도 이에 화답하듯 세차게 흔들리는 산천의 가을정서를 짙게 형상하였다.

가을풀밭에 뭇나비떼들이 날아드는 《추초군첩도》에서는 나비의 입, 수염, 발에 이르기까지 놓침이 없이 세밀하게 그려내였다.

이런 성과로 하여 그 시기 신사임당을 따를만한 화가는 없었다.

그를 신사임당이라고 부르게 된것도 그림을 그리고 그밑에 《신사임당》이라 쓰기 시작한데서부터 온것이라 한다.

당시의 학자였던 어숙권은 《패관잡기》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는데 포도나 산수의 그림은 특히 뛰여나서 비평하는 사람들의 말이 세종때의 화가 안견 다음은 갈만 하다고 한다.

그 어찌 부인네의 붓이라고 하여 업신여길것이며 또 어찌 그림 그리는 일이 녀자에게는 당치 않은 일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또한 《동계집》에서는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있다.

《솜씨가 그윽하고 고우면서도 고상하니 이것은 그린 사람이 녀성인 까닭이고 채색은 말과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니 그의 천재성과 높은 향기를 크게 찬양하지 않는이가 없다.》

뿐만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가 그린 그림은 벌레, 나비, 꽃, 오이 등 실물과 꼭같으며 맑은 기운이 산뜻하여 마치 살아움직이는것 같아 세상의 저속한 화가따위는 감히 따르지 못하리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하였다 한다.

그러나 신사임당의 이름은 그의 그림에만 있지 않다.

신사임당이라고 할 때 보다 중요한것은 현숙한 부인으로서 자식들을 훌륭히 키운 어머니의 구감으로 빛나고있다.

신사임당은 19살때 서울에 사는 감찰이라는 높지 않은 벼슬의 리원수에게 시집을 갔다.

결혼후 그는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강릉땅에 있으면서 친부모를 모시였다.

그의 아버지는 다섯딸중에서 아들처럼 믿고살던 그를 선뜻 내놓고싶지 않아 사위와 의논했다.

그래서 한동안 리원수는 강릉처가에 내려가 지내기도 하고 서울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신사임당은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경포대기슭도 거닐고 그림을 그리여 기쁘게도 하였다.

그러나 어쩐지 남편을 보면 어느 한구석인가 허전해오는감이 들었다.

신사임당은 생각을 거듭한 후 마침내 남편에게 자기 마음을 터놓았다.

《꼭 들어주셔야 해요.》

그는 거듭거듭 다짐을 받고서야 말을 떼였다.

《우리 서로 언약하고 몇년간 부지런히 학문을 닦아 성공한 후

에 만나면 어떻겠어요. 날마다 풍월이나 읊는다면 뒤날 자손들이 허송세월한 우리를 두고 원망할거예요.》

《아니, 그 무슨 말이요?…》

리원수는 깜짝 놀랐다.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기뻐하던터였다.

《이 일은 어려웁지만 이제 생겨날 우리의 자식들을 옳게 키우려 해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아지나이다.》

그는 마지막말끝에 힘을 주었다.

그리하여 신사임당은 다년간 리원수와 헤여져있게 되였다.

리원수는 안해의 높은 뜻에 동감하여 부지런히 학문을 닦았으며 몇년후 다시 살림을 차리였다.

그동안 리원수는 어느 하루도 신사임당을 잊은적이 없었다.

신사임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얼마후 그들에게는 네 아들이 생겨났다. 그중 셋째아들인 률곡은 형제들가운데서 가장 총명하였다.

신사임당은 뜨거운 열정으로 자녀교육에 힘을 다했다. 그는 날마다 자식들에게 공부할 분량을 정해주고 엄격히 요구하였다.

신사임당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도 향토애로 가르쳤고 그 어떤것이든 말로만이 아니라 실지 자신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였다.

신사임당은 률곡을 나라의 인재로 키우기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였다.

그는 률곡이 3살때 말과 글을 함께 가르쳤고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도 고향과 현실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리치며 고상한 예술의 진미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심어주었다.

하여 리률곡은 8살때 훌륭한 한시를 써서 당시의 학자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9살때 《여러 형제가 한집에 동거한다》라는 그림을 그려 《신동》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리률곡은 13살에 진사초시에 합격했고 그후 30년동안 여러 관직을 살면서 《10만양병설》을 비롯한 수다한 개혁안들을 내놓았으며 대학자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였다.

이것은 모두 어머니의 끝없는 지성과 교육에 의한것이였다.
신사임당은 여러 부문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
그러나 그는 학문을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한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머니로서 아들들을 나라의 기둥으로 키우는 밑천으로만 삼았다.
리률곡의 일 하나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리률곡의 본명은 현룡이였다. 어느날 신사임당은 떠나온 고향을 그리는 한시 한수를 아들에게 설명해주면서 그의 리해를 깊이 해주었다.

천리의 집과 산에 만첩의 봉우리
돌아갈 마음만 길게 꿈속에 있다
한송정 밭두둑엔 외로운 달바퀴
경포대앞 바람도 서늘할게고
모래강변 백로는 오락가락
물결우에 고기배도 서에서 동으로
언제나 또 한번 임령(강릉)길에 가서
고까옷 입고 부모님앞에 바느질 해보리

이것은 신사임당이 손수 지은 시였다. 아들은 고향을 그리는 어머님의 마음을 알고 꼭 그러안았다.
신사임당은 출가후 현룡이가 6살 먹은 해에 서울로 올라와 살림을 폈는데 이때 서울로 오면서 가마안에 앉아 유명한 시 《대관령을 넘으며》를 남기였다.

머리 흰 어머니
강릉에 외로이 계시는데
이 몸 서울 향하여
홀로 가는 마음이여!

다시한번 머리 돌려

옛 살던 마을 바라보니
흰 구름 갈앉은 곳에
저문산만 푸르구나

자기를 낳아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뜨거운 정을 못잊어 시로 읊어나간것이다.

서울에서 지내던 어느날 금강산에 있다는 어떤 중이 현룡이의 관상을 익혀보더니 하는 말이였다.

《어, 이 애기가 장차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산림기상을 타고났구만. 그런데 혹시라도 범을 조심해야겠는걸.》

신사임당은 웃었으나 역시 어머니로서 스칠 말이 아니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혹시 무슨 방술이라도 없는지요?》

중은 잠시 머뭇거리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애의 산림기상을 보태주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시골에다가 밤나무 천그루를 심어 그 그늘에서 키우되 십년동안 그 밤나무를 한그루라도 죽여서는 안되겠소.》

중은 다시 오금을 박는것이였다.

《어디 량주분의 지성을 보기로 합시다.》

중은 물러갔으나 신사임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무렇기로니 밤나무 천그루가 범에게 물려갈 팔자를 면하게 해준다는것은 허황한 소리지. 그러나 그만큼 밤나무를 공들여 가꿀만한 지성을 가진 부모래야만 장차 크게 될 귀한 아들을 지낼수 있다는 뜻이라면…

우선 우리 부부가 그만한 일을 할수 있는 정력이 없다면 그러한 부모에게서 나온 자식이 무슨 큰 사람이 될것인가.)

마침내 신사임당은 남편과 의논한 후 현룡이를 데리고 다시 시골집에 내려가기로 하였다.

신사임당은 부모의 고향인 파주 률곡동에다가 집과 밤나무 심을 밭을 마련하고 나무모를 길렀다.

그들은 집근처에 구뎅이를 파고 있는 정성을 다해 천그루의 나

무를 줄지어 세웠으며 한그루라도 죽는 일이 없도록 손수 가꾸면서 땀과 공을 들이였다.

후날 《률곡선생》이 될 소년 현룡이와 그의 형제들은 이런 농촌에서 구수한 흙냄새를 맡으며 부모의 근로정신과 온갖 지성속에서 자라났다.

신사임당부부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는 뒤날 호랑이가 현룡이를 잡으려고 들어왔으나 이 밤나무들이 막아서있으므로 이에 결려 더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잘 보여준다.

세월이 흐른 뒤 또다시 옛날 그 중이 찾아와서 신사임당부부의 지성을 시험하기 위해 밤나무를 세여보게 되였는데 아무리 다시 또 다시 세여보아도 어쩐 일인지 구백아흔아홉그루밖에 없었다. 이때 그옆에 서있던 굴참나무가 《나도 밤나무다.》하고 한걸음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다.

신사임당은 바로 현룡이를 비롯한 자식들의 마음의 기둥이였고 유일한 스승이였다.

그들형제는 모든것을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신사임당은 자제들의 교육에 전심하다가 서울 삼천동에서 47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훌륭한 어머니의 교육과 교양을 받은 네 아들은 모두 자라서 당대의 유명한 인물들로 되였다.

종살이군시인 어무적

어무적은 16세기 폭군이였던 연산군이 집권하고있을 당시에 활동한 시인이다.

어무적은 봉건사회에서 가장 천한 신분에 속하였던 노비출신으로서 경상도 김해에서 량반집종살이를 하였다.

그는 뛰여난 재능을 가진 시인으로서 한생에 적지 않은 좋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으리라 짐작되나 관료배들의 천대와 멸시속에 종살이를 하는 노비였던탓으로 그의 문집은 물론 생활자료조차 변변히 전해지는것이 없다.

그가 남긴 두편의 작품들인 시 《매화부》와 《류랑하는 백성들》이 16세기 어숙권의 패설집인 《패관잡기》와 그밖의 일부 문집들에 기록되여 지금까지 이르고있을뿐이다.

어무적은 자기의 시에서 봉건통치배들의 악랄한 죄행을 백성들의 비참한 처지와 밀접히 련관시켜 신랄하게 폭로하였다.

자신이 노비라는 처지로부터 그는 자기의 작품에서 다른 시인들보다 썩어빠진 당대의 현실을 날카롭게 보았으며 억압당하는 인민들의 기막힌 처지를 눈물로 호소하였다.

시 《류랑하는 백성들》에서 어무적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백성들 살기 어려워라
백성들 살기 어려워라
해마다 흉년들어 먹을것 없으니
너를 건져줄 내 마음 간절컨만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백성들 살기 괴로와라

백성들 살기 괴로와라
날이 추워도 입을것 없으니
저놈들은 너를 건져줄 힘이 있으련만
너를 건져줄 마음이 없단다

《대동시선》 2권에 수록된 시이다.

시에서는 백성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처지와 함께 통치배들의 반인민적행위를 보여주면서 서울관리, 지방관리들모두가 한배속이라고 규탄하였다.

작품에서는 보는바와 같이 《살기 어려워라》를 첫 시구부터 력점을 찍어 반복강조하면서 자기의 생활체험을 그 주제로 반영하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그는 착취자들의 진면모를 알수 없기에 《어진 임금》의 《어진 정치》면 모든것이 다 해결될것으로 믿었으며 마치도 관료배들이 《마음을 쓰게》되면 자기들의 고통이 해결되고 또한 백성들이 구제될수 있는것으로 그릇되게 생각하였다.

때문에 그는 《군자의 마음》, 《군자의 귀》 등의 표현으로써 고관대작들의 생각이 잘못된듯이 썼다.

또한 다른 시 《매화부》는 지방관청에서 농민들이 집뜨락에 심어놓은 몇그루 안되는 과일나무까지 조사하여 등록해놓고는 가을에 가서 명단을 들고다니며 무조건 수확물을 바치라고 볶아대기때문에 그 성화에 못이겨 아까운 나무들을 베여버리는것을 소재로 하였다.

어무적이 관청에서 종살이를 할 때 어떤 집에서는 관료배들이 그 열매를 몽땅 걷어가는데 분격하여 온 집안이 품을 들여 정성 다해 가꾸어오던 매화나무를 사정없이 찍어버렸다.

이것을 직접 목격한 그는 통치배들의 파렴치성과 포악성을 폭로하는것과 함께 백성들의 원성을 담아 《매화부》를 썼던것이다.

어무적은 머리글에서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였다.

《호랑이나 승냥이 같은 포악한 법만이 횡행할뿐… 백성이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으면 관리는 침을 흘리면서 공연히 화를 내고 또 백성이 옷 한벌을 따뜻이 입으면 아전이 팔을 휘두르며 살점을 뜯으려 덤비는구나.》

어무적의 조소는 이렇듯 신랄하였다.

그리고 《또한 가을이 되면 나무에서 실지로 열린 몇곱의 열매를 바치라고 하니 오히려 잡목만 못하거든. 내 어찌 너 베기 사양하랴.》라고 기막힌 울분의 감정을 대변하였다.

마을사람들속에서 불리우는 이 노래를 어무적이 지었다는것을 알게 된 김해 고을원은 대노하여 그를 옥에 잡아가두고 처형하려고 하였다.

어무적은 이때 마을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관청을 빠져나와 도망을 치긴 했으나 돈 한잎 없는 가난한 노비의 신세라 류랑의 길을 헤매다가 병이 들어 아까운 한생을 마치게 되였다고 전해진다.

고을원이라는 놈이 그의 시를 보고 대노하여 형벌을 내리였다는 그 사실자체가 어무적의 관료배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첨예성을 알수 있게 하는것이다.

그는 비록 노비라는 신분적구속과 제한된 조건으로 하여 두편의 시밖에 남기지 못했지만 이를 통하여 당시 진보적시가문학을 돋구어주는데 긍정적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오늘도 그의 이름은 우리 나라 문학사에 확연히 남아있는것이다.

승의병대장 서산대사

서산대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임진조국전쟁때 중들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원하는 싸움의 길에 나섰던 의병대장을 생각한다.

우리 인민은 외적들이 우리 나라를 먹겠다고 달려들 때마다 하나와 같이 일떠서서 단매에 요정내군 하였다. 더우기 산중에서 념불을 외우던 중들까지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떨쳐나섰다.

서산대사는 바로 이런 중들의 의병장이였다.

서산대사의 본명은 최운학(성장한 후에는 최여신)인데 그는 불교의 승려였으므로 불교상의 이름으로 휴정이라고 하였다.

그가 서산대사로 불리우게 된것은 묘향산 즉 서산에서 오래동안 지냈기때문이다. 그는 벌써 이른 나이에 덕망이 높은 《고승》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중으로 되였다.

불교에서는 이름난 승려를 《명승》이라고 하였고 덕망이 높은 승려를 《고승》이라고 하였으며 학식이 높은 승려를 《학승》이라고 하였다.

서산대사는 리조봉건통치가 부패해지고 인민들이 도탄에 빠져 헤매이던 시기인 1520년 3월 안주고을의 빈한한 량반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9살때 량부모를 다 잃고 의지가지할데 없는 고아가 되고말았다. 그리하여 어린 대사는 오늘은 이 마을, 래일은 저 거리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였다. 그러던중 어린 대사의 재능에 감탄한 안주고을의 한 량반이 그를 동정하여 서울에 가서 공부할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서당에서 글을 배우면서 무예도 부지런히 익혔다. 몇년이 지나 대사는 과거시험에 참가해보았으나 자기 처지로서는 벼슬길이 어렵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대사의 가슴은 당대 사회에 대한 울분으로 끓어올랐다. 그는 단호히 벼슬길을 단념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18살에 중이 되였다.

이때부터 서산대사는 우리 나라의 명승지들을 편답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고 여기저기의 큰 절을 찾아다니며 불교의 교리도 착실히 습득하였다. 그리하여 벌써 30대에는 《고승》의 지위까지 차지했고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많은 제자들까지 가지게 되였다.

서산대사는 불교교리에 정통한 명망높은 중일뿐아니라 당대의 이름난 시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자기의 시《묘향산 향로봉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만국의 도성은 개미뚝 같고
천가의 호걸은 초벌레와 다름이 없거늘
창밖의 명월은 베개머리를 비추어주고
끝없이 불어오는 송풍은 아름다운 음악이더라

서산대사는 시에서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사랑의 정을 노래하였을뿐아니라 백성들의 등뼈를 우려내는 량반놈들을 은근히 비판하였다.

이 시로 하여 대사는 반역의 루명을 쓰고 구금되여 관리들에게 끌려다니며 문초를 당했고 나중에는 왕에게까지 불리워가 반역을 꾀하는 의도에 대하여 말하라는 호령까지 받게 되였다.

그러나 강직한 성미인 서산대사는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의젓하게 처신하였다. 마침내 왕도 어쩌지 못하고 옥에서 내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로부터 서산대사의 이름은 더욱 유명해졌다.

이 시기 봉건통치배들의 부패무능으로 나라의 방비가 약해진 틈을 타서 1592년 왜적들이 불시에 달려들자 왕을 비롯한 관료들은 고향땅과 백성은 어떻게 되든 제 하나의 목숨이 아까와 처자일속을 데리고 도망치기에 제정신이 아니였다.

하지만 애국의 피가 끓는 군민들은 나라지키는 싸움에 용약 떨쳐나섰으며 잠시 길을 빌려달라는 교활한 왜적들의 요구를 물리치

고 용감히 맞받아나갔다.
도처에서 의병부대들이 조직되여 원쑤놈들에게 된매를 안기였다.
서산대사는 드디여 산을 내렸다.
《사랑하는 이 나라 땅이 왜적에게 짓밟히는것을 어찌 보고만 있으랴! 더군다나 온 나라, 온 강산이 멸적의 기세로 일떠섰는데 〈속세〉를 떠난 중이라고 하여 어찌 닥쳐온 이 재난을 보고만 있겠는가!》
서산대사는 정부로부터 전국 8도에 있는 중들을 총지휘할 총사령격인 《8도선교16종도총섭》으로 임명되였다.
이때 서산대사의 나이는 72살의 고령이였다.
하건만 대사는 온 나라 중들에게 소리높이 호소하였다.
《늙고 병들어 싸울수 없는자는 모두 거처하는 절간에 남아서 조국수호와 왜적격멸을 위하여 정성껏 불공을 올리며 싸울수 있는 장정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무장을 들고 의병에 궐기하라!》
그러면서 대사는 원래 중이란 인간을 죽이는 일을 아니해온 사람이지만 왜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귀들이므로 악귀들을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고 격조높이 웨치면서 용기를 내여 싸움에 나설것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대사의 호소는 중들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날마다 전국의 절간들에서 중들이 창과 칼, 활을 어깨에 메고 대사를 찾아왔다.
《소승 대사께 문안드리오이다. 나라의 형세가 이렇게 어려워졌거늘 지난날 검술과 활쏘기를 배운 저희들이 산에 그대로 있을수 없어 스님을 찾아왔소이다.》
서산대사는 그들을 두손잡아 반갑게 맞아들이였다.
한편 대사의 격문을 받은 전국의 제자들과 승려들이 일시에 호응하여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 수는 수만에 달했다.
금강산에 있던 서산대사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사명당(송운대사)은 즉시 관동지방에서 700여명의 중으로 의병을 일으키고 서산대사에게로 달려왔다.
《아! 고령의 스승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거니 이 몸이 어찌 그대로 있을수 있으리오!》

사명당의 본명은 임응규인데 밀양에서 태여나 그 역시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13살에 중이 되였으며 서산대사의 충실한 제자로 되였다.

말에서 내려 땀도 들일새없이 숨가삐 스님의 령대로 의병을 일으키고 찾아와 문안드린다는 사명당의 인사에 서산대사는 기뻐 어쩔줄을 몰랐다.

《장하이! 과시 장하이!》

대사는 사명당의 손을 놓지 못하였다.

또한 호남에서는 제자중인 처영이 1 000여명의 의병을 일으켰고 공주에서는 중 령규가, 진주에서는 중 해안이, 또 의암, 법흥 등이 각기 승병을 일으켜 큰 력량으로 확대되여나가고있었다.

각지에서 일어난 승의병부대들이 대사에게로 달려왔고 혹은 그의 명에 따라 그곳의 적을 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서산대사의 휘하에는 처음 순안 법흥사에서 1 500여명의 승병들이 기병하였으나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 각지에서 모여든 중들의 대오로 하여 그 수는 5 000을 넘게 되였다.

대사에게는 이런 일화도 있다.

제자들이 승병을 무어가지고 자기를 찾아오고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은 대사는 이들을 앉아서 맞이할수 없어 행장을 꾸려가지고 맞받아 마중을 나갔다.

대웅전 앞마당 8각13층석탑에서 풍경들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범종(절간의 종)이 오늘은 원쑤를 격멸하기 위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경종이 되였다고 생각하면서 서산대사는 륙환장(중의 지팽이)을 힘있게 넘겨짚었다.

대사가 수원들과 온종일 걷다가 하루밤 묵어갈 거처를 살피는데 어느 집에서인지 녀인의 곡소리가 울려나오더니 문이 열리며 젊은 녀인이 흰 댕기를 드리우고 쓰러질듯 나서면서 초가기둥을 부여잡은채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다. 그런데 녀인은 만삭의 무거운 몸이여서 그 정상이 더욱 동정이 갔다.

방안에서 시어머니의 타이르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어서 그쳐라. 울면 원쑤놈들밖에 좋아할것들이 없느니라.

마음을 얼음쪽같이 랭담하게 먹어야 하느니라.》
대사는 그냥 지나칠수 없었다. 원쑤의 발굽에 온 나라가 밟히우고 온 인민이 슬픔을 당하고있는것이다.
서산대사는 녀인에게 다가가 사연을 물었다. 녀인은 싸움터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다는 부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였다. 서산대사는 녀인을 위로하고는 쉬려던 생각마저 잊은채 또다시 밤길에 들어섰다.
이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상하게도 하늘의 별이 그들이 지나온 그 마을에 꼬리를 끄으는것이다.
대사는 급히 오던 길을 돌아섰다.
그때 중으로 변복한 왜적들은 유일하게 불이 켜져있는 이 초상집에 기여들어 음식을 처먹고는 마을형편과 지형에 대해 물었다. 주인들이 수상한 이들의 행동을 동네에 알리려고 하자 놈들은 저들의 본색을 드러니며 칼을 뽑아들고 위협해나섰다.
서산대사는 이 순간 집에 다달았다. 대사는 금시 격분을 금치 못하여 불호령을 내리며 문을 열어제꼈다.
《이놈들아, 무엇이라구. 짐승만도 못한 놈들같으니…》
대사가 성이 올라 짚고있던 륙환장으로 내리치자 놈들은 순간에 모두 병신짝들이 되였다. 중으로 가장한 그놈들의 고깔을 벗기자 왜놈들의 정체는 드러났다. 대사는 원쑤를 이 집 주인들의 손으로 갚도록 령하였다.
분노한 녀인이 부엌에 내려가 물동이를 들어내다가 물을 퍼부으니 그 물은 삽시에 폭우가 되여 놈들의 머리우에 쏟아지고 원쑤들은 버둥거리는데 주인로인은 쇠스랑으로 힘껏 내리쳤다.
서산대사는 한놈도 남김없이 왜놈들을 처형하고 방안에 들어가 손수 향불을 피워 전사한 아들의 령혼을 빌었다. 그리고 대사는 비장한 결심을 다진채 또다시 길을 떠났다고 한다.
의병들을 맞이한 대사는 수천의 장검으로 숲을 이루고선 승려들앞에서 그들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원쑤격멸에로 호소하였다.

《승병들, 의로운 백성이 있고는 나라가 망하는 법이 없고 용감한 사람들앞에는 굴하지 않는 적이 없는것이요!…》

고령의 서산대사는 자기 휘하에 사명당, 처영 등 젊고 름름한 의병장들을 친솔했다.

마침내 력량을 수습한 우리 원군이 평양성탈환전투를 개시하자 서산대사의 의병들은 가장 힘든 선봉대의 역할을 맡았다. 대사는 승의병들을 거느리고 모란봉일각에 올라 적진을 갈라버림으로써 우리 군대의 진격로를 개척하였으며 평양성싸움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

처영이 거느리는 부대는 서북면을 방어하는 행주산성싸움에 투입되여 승리를 안아왔고 사명당이 이끈 부대는 경상도 각지에로 진격하면서 적들에게 된타격을 주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다.

평양성탈환을 위해 련합군이 형성되였는데 서산대사는 명군 총대장인 제독 리여송을 만나게 되였다. 제독은 원쑤격멸에 심신을 다 바쳐가는 대사를 보자 이렇게 물었다.

《내 한가지 모를것이 있는데 스님들이 무기를 들고 살생을 해도 괜찮을가요?》

이에 대사는 조금도 주저없이 대답하는것이였다.

《가령 창은 애써 사람을 해치자는 무기이고 방패는 애써 사람을 구하자는 무기가 아니겠소. 중들이 드는 무기는 방패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살생이야 살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대사는 거침없이 대답해나갔다.

《산돼지가 사람을 물었다고 합시다. 이 짐승을 찌르고 사람을 살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생이 두려워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가또 기요마사의 몸에서는 사람의 혼이 나가고 짐승의 혼이 들어앉아있지요. 그 무리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사람을 물고 찢고 돌아가는데 중이라고 하여 목탁이나 두드리고 앉아서야 쓰겠습니까.》

대사의 대답은 너무도 당당하고 의젓하였다. 그러자 제독은 더

할 말이 없게 되였다.

서산대사는 중이라도 제 나라, 제땅은 지켜야 한다는 각오밑에 육체의 불편도 돌보지 않았다.

평양성탈환전투를 앞두고 사명당의 지휘하에 왜군들과 승군들의 백병전이 벌어졌던 때였다. 고령의 대사는 외딴집에서 부상병들을 처치해주고 침도 놓고 약도 먹이고 주무르기도 하면서 한순간도 쉬임이 없었다.

그리고 마당가에는 우등불을 대낮같이 밝혀놓아 싸움에서 길을 잃은 승병들이 찾아오도록 하였다. 승병들은 이 불빛이 왜적들의 목표가 된다고 하며 끄려 했어도 대사는 듣지 않았다.

《나는 이젠 늙었어. 위험이니 안전이니 하는걸 생각할 때는 지났지. 누구든 다치거든 이 불을 보고 나를 찾아오시오.》

부상병들과 수원들은 머리를 숙였다.

평양성을 탈환한 후 대사는 날랜 용사 100명을 뽑아 거느리고 서울로 향하였다. 충천하는 의병대오속에서 서산대사의 붉은 가사는 유별나게 두드러졌다.

《을지문덕장군이시여! 막리지 연개소문장군이시여! 지금 여기서 피흘리는 자기의 후손들을 굽어보시라! 적앞에 굴한적이 없는 선조들의 피와 용맹을 이은 이 의로운 당신들의 후손들을 찬양하시라!》

서산대사는 조상전래의 장군들을 부르며 대오의 선두에서 말을 타고 내달렸다.… 적들은 남해안 멀리 쫓겨가지 않을수 없었다.

실로 나라를 위해 창검을 들고 싸움판에 나선 대사의 의거는 만사람을 결전에로 불러일으켰고 임진조국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름다운 이 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자랑할줄 알았던 서산대사야말로 나라의 위급함을 보고 그 수호에 한몸바친 애국자였다.

대사에게는 충실하고도 유능한 제자들이 많았다.

특히 사명당은 뛰여난 군사전략가였다.

적장 가또 기요마사가 담판에서 귀국에 어떤 보물이 있는가고 물어보자 《조선은 오직 그대의 머리를 보물로 인정할따름이다.》라

고 서슴없이 대답한 그의 대담한 기질이야말로 고상한 우국정신의 표현이라고 말할수 있다.

서산대사와 사명당사이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기골이 장대한 금강산의 중인 사명당은 일찌기 묘향산의 서산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와 한번 겨루어볼것을 속다짐하였다. 그리하여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찾아 길을 떠났다. 세상형편도 한번 돌아볼겸 서산대사도 만나고싶어서였다.

원래부터 서산대사 못지 않게 《학승》으로 이름이 났던 사명당은 소문을 내지 않고 대사앞에 불쑥 나타나 겨루어보리라 생각하면서 황해도와 평안도일대를 돌아보고 묘향산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린 중이 나타나더니 깍듯이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의아해난 사명당은 어린 중에게 물었다.

《네가 누구인데 나에게 인사를 하느냐?》

《저의 스님이 대사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마중을 나왔소이다.》

어린 중의 대답이다.

사명당은 다시 그 중에게 물었다.

《너의 스님이 도대체 누구인데 나한테 보낸단 말이냐?》

《저의 스님은 서산대사님인데 오늘 금강산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저더러 어서 가서 모셔오라고 내보내셨소이다.》

과시 명성그대로라고 생각한 사명당은 머리를 끄덕이며 잡도리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린 중을 따라 서산대사가 거처하는 금강굴로 들어갔다.

서산대사는 사명당을 반겨하면서 맞아들이는것이였다.

《먼길에 로고가 많겠소이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소이다.》

인사를 하면서도 사명당은 소문을 더듬으며 대사의 모습을 눈여겨살폈다.

몸집은 자그마한데 눈에 광채가 도는것이 역시 호락호락해보이지 않았다.

사명당은 첫 상면에 떠보자고 이렇게 말을 걸었다.

《대사님, 여기로 오다가 고운 새 한마리를 잡았는데 이걸 대사님께 드려야 좋을지 놔줘야 좋을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소

이다.》

사명당은 미리 준비했던 새 한마리를 장삼소매에서 꺼내놓았다.

하자 사명당에게 서산대사는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대사께서 소승을 찾아오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밖으로 나가 마중해야 좋을지 아니면 안에서 모셔들여야 좋을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망설이고있었소이다.》

사명당은 이로써 벌써 두번째로 무안을 당한셈이 되였다.

때는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몇해전이라 사명당은 서산대사에게 오늘 나라에 뒤숭숭한 소문이 돌기에 한번 만나뵙고 의논하자 했다고 하면서 슬며시 말을 돌려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문으로나 예언으로나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당해낼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기로 작정하였다.

《대사님, 세월이 뒤숭숭해서 뜻을 같이할 사람을 찾아 예까지 왔는데 오늘 대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보니 대사님은 저의 스승이옵니다. 이 미흡한 소승에게 많이 배워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사명당은 체구가 장대하고 제노라 자부하던 자기가 이렇게 체소한 서산대사에게 머리를 숙이며 모시겠다는 말까지 하게 되는것이 어딘가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나 서산대사는 벌써 사명당의 이런 속마음을 얼른 넘겨짚는것이였다.

《조그마하고 초췌한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것이 부끄러우면 기골이 장대한 대사님이 제 스승이 되시구려.》

사명당은 금시 얼굴이 벌개졌다. 사명당은 대사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대사님, 황송하옵니다. 소승은 진정으로 대사님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이때부터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되였으며 전쟁이 터지자 서산대사를 의병장으로 하고 자신은 그의 휘하가 되여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 나섰던것이다.

국내깊이 쳐들어왔던 적들은 쫓기워 경상도일각에 머물러서 다시금 진격의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그러나 대사는 말을 달려 더 싸우기가 어려웠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것이다.

서산대사는 적들이 남해안으로 밀려나고 나라가 위급한 고비를 일단 넘기게 되자 승의병의 통수권을 사명당과 처영에게 넘기였고 《8도선교16종도총섭》의 도장을 국왕에게 반환하였다.

그에 앞서 대사는 사명당과 처영에게 칼을 꺼내여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들을 나처럼 믿을뿐이네.》

서산대사는 묘향산의 옛 거처로 돌아왔다. 그러나 대사는 늙은 자기를 대신하여 싸우는 사명당과 처영을 비롯한 승의병들을 고무격려하는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애국적인 중이였던 서산대사는 임진조국전쟁시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승리를 이룩하는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

서산대사는 1604년 1월 묘향산 원적암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명당과 처영에게 각각 유서를 남긴 후 8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후 우리 인민들은 서산대사의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묘향산 보현사와 금강산 유점사에 부도(이름있는 중들의 유골을 넣어두고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건축물)를 세우고 또한 금강산과 해남의 두륜산에 그를 추모하는 비를 세웠다.

언어학자 권문해

우리 나라 리조 중엽에 조선말고전한자어 종합사전인 《대동운부군옥》을 집필편찬한 권문해는 16세기에 활동한 언어학자이다.

권문해는 1534년 7월 경상도 례천군의 선비의 집안에서 권지의 맏아들로 태여났다.

어린시절 그는 그 시기 박식하기로 이름났던 부친한테서 교육을 받았다.

26살에 과거에 급제한 후 중앙과 지방의 여러 벼슬살이를 하였다.

생활에서 정직하며 옳은것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주저하지 않는 곧은 성미였던 그는 당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여 때로는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도 제 할 소리는 기어이 하고야말았다.

어느해 그는 왕앞에서 하는 강의에서 세면이 바다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남방수군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만호, 첨사들이 군사들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제 배를 불리는 현상을 철저히 근절해야 할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하였다.

관료배들은 그의 신랄한 말에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런 배심을 가진 그였기에 함경도에 녀진족들이 계속 쳐들어오자 6진으로 출전하는 총사관을 찾아가 변방수비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내였고 군량미수송을 자진하여 맡아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싸움에서 우리 군사가 이기는데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

권문해는 한때 당파싸움으로 대구부사로 7년간 지방에 내려갔다가 승정원 좌부승지라는 높은 관직에 등용되였으나 날마다 더해만 가는 당파싸움에 환멸을 느끼였다.

《벼슬이 과연 무엇이기에 저렇게들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가? 과연 벼슬을 해야만 되는가?!》

그의 생각은 복잡했다. 그 꼴들을 앉아서보기가 역겨워났다.

권문해는 단호히 벼슬을 내놓고 학문연구와 후대들의 교육에 일생을 바치기로 마음다진 후 이 일에 전심하였다.

그러나 학자들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권문해는 이 시기 우리 학자들의 학문연구에서의 그릇된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하였다.

《선비란자들이 중국의 일이라면 력대의 치란흥망의 력사를 어제일같이 잘 지껄이나 조선의 일이라면 상하 수천년의 력사를 문자사용이전의 일처럼 캄캄하게 모르고있다. 이것은 마치 눈앞에 있는 물건을 보려하지 않고 천리밖에 있는 물건에 주목하려는것과 꼭 같은것이다.》

그러면서 권문해는 자기의 뜻을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의 여러 력사문헌과 다른 문헌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적들을 널리 상고하여 일가의 견해로써 스스로 야사를 저술완성할 뜻을 가진다.》

16세기로 말하면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어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었으며 도서편찬사업에서도 발전이 이룩되였다.

때문에 옥편과 운서들이 훈민정음으로 서술되고 그 내용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따라서 중국의 운서나 옥편을 리용하던 불편이 점차 없어지고 교육에서도 실용성이 나타나고있었다.

그때까지는 사전으로서 《운부군옥》이 리용되였는데 그것은 역시 중국의것이므로 우리 학자들이 쓰기에는 많은 면에서 우리의것과 맞지 않는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것이 없으니 할수없이 그것을 보는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건으로 하여 사전은 더욱 절실히 필요되였다.

권문해는 이런 사정을 포착하고 30살이전부터 하나, 둘 수집하여온 자료들을 가지고 사전편찬사업에 들어섰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자료들과 함께 우리 나라 사실(력사에 있는 사실)에서 흩

어지고 없어진 부분까지 더 수집하고 보태여 1589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동운부군옥》이라는 한자어휘사전을 편찬해내였다.

그것은 총 20권 20책으로 된 방대한 량의것이였다.

《대동운부군옥》은 한문어휘일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만 쓰이는 고유한자들을 기본으로 하여 수록한 종합사전이다.

그는 이 책의 서술에 《삼국사기》를 비롯한 력사, 지리, 농업 등 각 분야의 우리 나라 책 174종에 수십종의 다른 나라 문헌들을 인입하였다.

그는 어휘를 배렬하는데서도 당시의 사전체에서는 가장 발전된 운자의 순서를 취하였으며 단어에 해석을 달고 여기에 글자의 뜻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사전과 옥편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해당 단자에 속하는 어휘를 글자수의 순서로 배렬하고 그 아래에 례문과 출처를 들어주었다. 이와 함께 자기의 의견을 따로 붙이였다.

례를 들면 1권에 있는 《상평성》의 《동운》에 첫자인 《동》자에 그 뜻을 해설하고 《움직이다, 동녘이다》라고 주었으며 여기에 속하는 어휘로서 2～3개의 단어를 넣었다.

그중 《대동》의 례문으로는 《고려국가의 운명이 쇠퇴하였을 때 리성계가 대동을 물려받게 되였다.》 (대동이란 동방의 큰 나라 조선을 말한다.)고 주었다. 그리고 그 출처를 《룡천가—룡비어천가》로 표시하였다.

《대동운부군옥》의 항목은 《음석, 성씨, 인명, 행적, 효자…》 등 30여개이상에 달한다.

또한 일반명사와 함께 고유명사에 대하여 정연한 해석을 달아주었는데 그 해석이 매우 명료하고 알기 쉽게 되여있으므로 이 사전의 정수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다.

《대동운부군옥》은 오늘의 현대적인 사전체계에 매우 가까운 구성을 이루고있으므로 그 시기로서는 가장 발전된 사전이였다.

이 사전이 세상에 나오자 학자들은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책의 편찬규모에 대하여 18세기 학자였던 김응조는 《조선이 존재한이래 이러한 론술이 없었고 또한 이러한 서적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홍여하(19세기 리조학자)는 이런 찬사를 보내였다.

《나는 일찌기 조선에서의 출판물로는 초간의 이 책으로서 첫째를 삼는다.》

그 리용가치에 대하여 정범조는 당시 중국사전인 《운부군옥》과 나란히 고전적저작으로 될것이라고 칭송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동운부군옥〉은 지리서적이며 력사서적이며 인물전기이며 도서해제로서 그 혜택은 후대들에게만 있을것이 아니다.》

또한 이미 1894년에 프랑스에서 출판된 《조선서지》에서도 조선에 관한 모든것을 운의 순서에 따라 배렬한 백과사전이며 지리, 력사, 문학, 과학에 관하여 매우 흥미있는 지식을 알려주고있는 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책은 조선어학계에서 최초의 사전일뿐아니라 세계사전력사를 돌이켜보더라도 가장 앞선 사전중의 하나였다.

발전되였다고 자랑하는 유럽나라들에서 그래도 사전의 체모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편찬되였다는것이 17세기 말기이다.

가장 발전되였다는 영국만 보더라도 최초의 영어사전인 에드와드 필립스의 《영문 새 세계》는 《대동운부군옥》보다 70년이 지난 후인 1658년에 세상에 나왔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것과는 대비할바가 못되였다.

그것은 체계가 간소하고 어휘수도 얼마되지 않는것이였다.

영국에서는 1755년에야 비로소 그래도 사전이라고 이름을 붙일수 있는것이 사무엘 죤슨에 의하여 편찬되였다.

그러나 권문해가 내놓은 《대동운부군옥》은 1589년에 벌써 정연한 체계를 갖춘 사전으로 출판되였던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책의 편찬이 아니라 권문해의 피갈이 진한 땀과 노력의 열매였다.

그는 벼슬이 오르내리는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이나 주저가 없이 연구사업을 해나갔으며 학자다운 탐구심과 인내성을 가지고 노력해왔기에 이런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된것이다.

사전에 인용한 도서들을 보더라도 당시 조선문헌의 거의 전부를 망라하고있었으며 이미 없어진 고려이전의 문헌 20여부, 리조시기의 문헌자료 40～50여부까지 삽입되여있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서의 방대성에 대하여 짐작하게 된다.

그후 권문해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권별은 《대동운부군옥》에서 인물관계부분만을 따로 뽑아 전기형태인 《해동잡록》으로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후일 인명사전으로 되였다.

《대동운부군옥》은 조선의 력사, 문화, 인명, 지명, 언어, 예술, 박물, 민속 등 각 분야를 포괄하는 귀중한 사전유산이다.

물론 권문해가 편찬한 《대동운부군옥》은 저자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유교사상을 내포하고있는 본질적인 결함은 가지고있다.

하지만 당시의 사전으로서는 의의가 있는것이였다.

그밖에 그의 문집으로 《초간집》(3책)이 전한다.

권문해는 학자로서 자기의 저술과 장서들을 잘 보관하여달라는 유언을 남긴 후 57살을 일기로 서울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까지 학자로서 집필편찬사업을 쉬임없이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의 어학사, 문학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였다.

《10만양병설》을 주장한 학자 리이

한 할머니가 어린애의 손목을 잡고 길을 가다가 주렁주렁 달린 석류를 가지에서 따주면서 이렇게 물었다.

《현룡아,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할머닌 그것도 모르나요?》

《암, 난 아직 모르고있구나.》

소년은 즉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다.

《석류피리 쇄홍주.》

할머니는 대답이 너무도 신통하여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말뜻이냐.》

《석류껍질속에 붉은 구슬이 한가득 부서져있고나 하는 뜻이예요.》

할머니는 손자가 너무도 대견하여 꼭 그러안았다.

《너는 과연 내 손자가 틀림없다. 현룡아.》

이것이 바로 리이가 3살때 있은 일이다. 3살에 벌써 이렇게 한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것이다.

리이는 1536년 2월 강원도 강릉땅에서 태여났다. 아버지 리원수는 찰방이라는 낮은 벼슬을 지낸 량반이였고 어머니는 그림과 글씨로 이름난 신사임당이다.

리이의 호는 률곡이였고 어렸을 때는 꿈에 검은 룡이 방안으로 들어오는것을 보고 낳았다고 하여 현룡이라고 불렀다.

리이는 어린시절에 령리한것으로 하여 많은 일화를 남기였다.

4살때 글을 배우다가 선생이 그만 구두(구절)를 틀리게 가르친것을 그자리에서 일어나 시정시켜 아연실색케 하였다고 한다.

또한 7살에는 이웃에 사는 진복창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옳지 못한것을 비웃어 이렇게 평하였다.

《복창이라는 사람은 속은 옹졸한데 겉으로는 너그러운체 하고있다. 이런 사람이 벼슬에 오르면 그 욕심이 한이 없을것이다.》

후날 이것은 틀림없이 들어맞아 어른들까지도 혀를 찼던것이다.

8살에는 화석정에 올라 한시를 지었는데 당대 이름있는 시인들까지도 놀라게 하였다.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늦으니
글읽는 사람의 마음 다할길 바이 없도다
먼 물빛은 하늘에 닿아 푸르건만
서리맞은 단풍은 해빛에 붉게 타노라

산에서는 외로운 달이 둥글게 솟았는데
강은 끝없는 바람속에 흐르네
아, 어디로 가는 기러기인가
처량한 그 울음소리 구름속으로 속절없이 사라지네

뿐만아니라 리이가 10살에 지었다는 《경포대부》는 후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로 되였다.

이처럼 그는 어린시절 신동으로 불리웠다.

리이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또한 비할바없이 높았다.

하루는 어머니 신사임당이 병으로 눕게 되였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아 온 집안이 걱정하고있었다. 그런데 7살에 난 현룡이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를 비롯하여 온 식구가 허둥지둥 찾아보니 조상들의 제를 지내는 뒤뜰 사당앞에 한시간이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고있는것이였다.

또 그가 11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급하게 앓게 되였는데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지만 효력이 없었다. 어린 리이는 자기의 팔을 칼끝으로 서슴없이 찔러 흘러내리는 피를 아버지의 입에 넣

어 삼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당에 들어가서 아버지대신 자기가 앓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어린 아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얼마후 아버지의 병은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리이는 13살에 진사초시에 합격했고 14~15살에는 벌써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교육이 컸다고들 한다.

그가 1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나고 그 후로 아버지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며 계모는 고약하게 굴었다. 그리하여 가정에 대한 애착을 잃게 된 리이는 어머니의 3년제사를 지낸 다음 집을 떠나 금강산으로 들어가 1년간 불교를 연구하였다.

리이는 22살에 결혼하고 태안군 도산에 가있으면서 당시 유명한 학자였던 리황과 사제관계를 맺고 서로 배우면서 우정을 두터이 하였다.

리이는 30년간 유학을 연구하면서 학문과 후대교육을 잊지 않았다.

26살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3년간의 상기를 끝마치고는 29살에 과거를 보아 생원지사로 되였다. 그는 호조좌랑을 거쳐 사간원 정언이 되였다.

당시 봉건관료배들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여 파벌싸움으로 세월을 보내였다.

리이는 정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금께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건의서를 써올리였다.

첫째, 참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치의 근본을 세울것.

둘째, 현명한 인물을 등용선발해서 조정부터 바로할것.

셋째, 백성을 편안히 돌보고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할것.

하건만 뒤틀려진 정사가 일조일석에 바로잡히기는 어려웠다. 리이는 여기에 주의를 돌리였지만 그의 자그마한 힘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이 시기 리이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여러번 다녀오면서 접반사로서 외교사업에도 많이 관여하였다.

어느해 명나라의 황홍헌과 왕경민이 우리 나라에 사신으로 오게 되였는데 국왕은 그들이 명나라에서 이름있는 학자들이라는것을 알고 영접관을 고르던중 리이를 내보내였다.

명나라사신들은 리이의 의젓한 자세와 고상한 례의, 물음에 대한 막힘없는 대답에 감탄한 나머지 통역관에게 조선의 접반사가 천지운기를 통달한 군사전략가가 아닌가고 물어왔다. 통역관이 웃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자 명나라사신들은 얼굴까지 붉히는것이였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누가 속을줄 아시우.》

이런 일은 한두번이 아니였다.

리이는 언제나 나라의 앞날을 근심하였다. 봉건적착취의 강화로 말미암아 당시 사회적모순이 격화되였으므로 이를 수습하지 않고서는 봉건국가자체를 유지해나가기도 힘든 형편이였다.

리이는 당시의 사회형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형편대로만 간다면 불과 수년안에 백성들이 반드시 폭동을 일으켜 나라는 흙담벽처럼 무너지고말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다. 지금 형편으로는 백성들이 거의다 죽어가는 사람과 같이 허덕이고있으니 그냥 살아나가기도 어려운데 만일 남북방으로부터 외적이 침입한다면 마치 질풍이 락엽을 휩쓰는것과 같이 될것이다.》

당시 나라의 질서가 문란해져 지어 병역을 대신 서주는 대립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안의 부자들은 자기 집 종들을 시켜 지방에서 올라와 번을 서게 되여있는 군인대신으로 번을 서게 하고는 해당한 값을 받아내였다. 때문에 번을 들게 된 군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역을 지게 하고 그 값으로 무명 10～20필씩 물었다. 그런데 그 값은 점차 올라가 1533년경에는 두달동안의 번가가 면포 80～90필로까지 뛰여올랐다.

당시 기록에는 이 혼란된 질서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있다.

《일단 긴급한 일이 생기면 원근이 모두 함께 움직이며 장수 없는 군대를 들판가운데 모아놓고 천리밖에서 오는 장수를 기다리게

하니 장수는 때에 맞추어 오지 않고 원쑤의 칼끝은 이미 림박하여 군사의 마음이 동요하니 패배하지 않을수 없는》 군사동원체제…

이처럼 군사제도가 문란해지고 군대도 얼마 되지 않는 형편에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백성들과 일부 량반, 학자들속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국방력에 힘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이러한 때인 1582년 9월 리이는 10만의 군대를 양성할데 대한 문제를 들고나섰다. 국방력강화에 대한 문제가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여 일부 조치들이 취해지긴 했지만 당시 정세로 보아 이것은 미약한것이였다.

리이는 어느날 국왕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명나라와 일본의 정책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였다.

《또 앞으로 수길(도요도미 히데요시)은 이 땅에 해적무리들을 들이밀것이오니 늦은감은 있사오나 빨리 군대를 갖추어야 할줄로 아옵니다.

제가 요즘 짜놓은 어리석은 궁냥으로는 개경에 무쇠병기창을 크게 꾸리며 병력으로는 서울에 2만을 두고 8도에 각기 1만씩을 두어 훈련시키면 온 강토에 10만이라 이것으로 일본군의 침략을 막으면 능히 화를 면할수 있으리라고 보옵니다. 군사를 키우되 당장은 터전부터 준비하면서 천민출신의 장수재목을 등용하여 쓰시옵소서. …

전쟁의 화가 이 강토에 미치여 왜놈들의 모진 칼날앞에 맨주먹 농사군들이 맞서는 일이 없게 하여주심을 재삼 여쭈옵니다.》
그러나 왕은 이에 대하여 코웃음으로 대하였다.

리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10만양병설》을 주장하였고 그 정당성을 해설하였다.

하지만 토지와 정권쟁탈에 눈이 어두운 통치배들은 들은체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좋은 세월에 뭘 부산스럽게 그러냐는것이다.

1582년 9월 어느날이였다. 당시 우찬성의 벼슬에 있던 리이는 대신들이 모이고 국왕까지 앉은 자리에서 또다시 《10만양병설》을 제의해나섰다.

《지금 북방의 정세는 물론 일본의 정세도 심상치 않을상싶으니 10년을 넘지 못하여 나라가 무너지는 화가 있을것 갈소이다. 바라건대 10만의 병력을 길러야 하리라 보옵나이다.》

리이는 계속하여 병정 10만을 뽑아 6개월씩 교대로 훈련을 주어 서울과 지방성을 지키게 하면 그 어떤 외적이 침노하여도 어렵지 않게 쳐부실것이라고 조리있게 설명하였다.

여러 대신들은 모두들 제 생각에 잠겨 묵묵히 있는데 류성룡이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찬성의 양병설은 옳은것이오나 일이 때가 있는 법이니 지금같이 태평한 세월에는 맞지 않는 주견이라 보나이다. 이런 때 만약 10만 군사를 키우는 일을 불시에 벌린다면 백성들을 들볶게 할뿐이니 도리여 화를 길러내는것이라고 보나이다.》

이 말에 리이는 매우 불쾌한 기분으로 대궐문을 나섰다. 그런데 류성룡이 따라와 리이와 나란히 걷는것이였다.

《옛글에 파묻혀있는 일반선비라면 오늘의 시국을 모른대도 탓할수 없지만 그대야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농사짓는 농부들도 일년은 내다보며 사는데 나라정사에 참여하는 그대가 10년앞도 내다보지 못하니 부끄럽지 않는가?》

리이의 이 말에 류성룡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얼굴을 붉히였다고 한다.

리이는 이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10만양병설》을 주장하고 제기하였지만 끝내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리이가 예견했던바대로 과연 그때로부터 10년이 된 1592년 일본침략자들이 대무력으로 우리를 먹으려 덤벼들었다.

그때에야 왕은 한숨을 쉬면서 후회를 하였다.

《아, 리률곡(리이)이야말로 오늘의 성인이였구나. 그때 그의 말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였던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것이였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은 침략자를 용서하지 않았으며 7년간에 걸치는 임진조국전쟁에서 놈들에게 된매를 안기고 삼천리강토를 지켜내였다.

리이는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황해도 벽성에 내려가 학문연구사업에만 힘썼다. 그는 철학, 교육, 사회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저서를 남기였다.

리조정부에서는 그의 재능을 믿고 여러번 벼슬에 나설것을 권고했지만 그는 병을 구실로 정계에 나서지 않았으며 오직 학문연구에만 힘썼던것이다. 그러다가 말년에 얼마간 리조판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리이는 당시 학자들의 학문연구에서의 결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대저 학자들의 병집은 그 리치를 탐구하지 않고 례법을 지키는데만 힘쓰는데 있다. 걷는것도 자로 재여서 걸으라고 하니 어찌 참된 리치의 근본을 볼수 있겠는가.》

리이의 철학사상을 보면 리기이원설이였으나 그중에는 유물론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여있으니 진보적인 견해라고 할수 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사유의 기관으로 인정하였고 감각기관과 함께 물질적육체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였다. 때문에 감각기관과 사유기관을 떠나서는 인식이 성립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귀가 있는 연후에 비로소 소리를 들을수 있으며 눈이 있는 연후에 비로소 볼수 있으며 심이 있는 연후에 비로소 사고할수 있다. … 어떤 사물을 귀없이 능히 들을수 있으며 눈없이 능히 볼수 있으며 심없이 능히 사고를 할수 있단 말인가!》

리이는 모든 인식은 감성적인식을 거치지 않을수 없으며 따라서 감성적인식은 진리를 반영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인식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인식의 감성적단계와 리성적단계, 실천적단계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리이는 소박하게나마 인식활동에서의 감성적, 리성적, 실천적행동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해명하여보려고 시도하였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것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급선무라고 하면서 생산을 풍족하게 하여 인민을 구제하는것은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임금과 백성과의 관계문제에서도 백성들은 먹는 문제가 제

일 중요하므로 임금된자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리이는 농민들의 령락한 생활은 봉건적착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봉건지배층의 기생충적인 생활을 규탄하였다.

그는 농민봉기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들의 천성이 그릇되여서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가혹한 착취와 압박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적미나 황건의 폭동이 어찌 그들의 천성이 반역을 좋아하는데서부터 일어났다고 볼수 있겠는가. 이는 모든 백성들이 참을수 없는 빈궁과 고통을 받기때문에 일어난것이며… 백성들이 고정된 직업이 없으면 그 본래 착한 마음도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기 어려우며 나중에는 렴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일어나게 되는것이니 그것이 어찌 백성들의 본심이겠는가.》

리이의 이 견해는 물론 량반관료라는 자체의 계급적제한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이기는 하지만 그때로서는 일정하게 타당성을 가지는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리이의 교육에 대한 견해는 중요하게 인간의 선천적소질을 절대화하는 낡은것을 반대하면서 모든 지식과 도덕은 교육과 교양에 의하여 능히 배양할수 있다고 보면서 또한 실생활과 유리된 교육을 반대하고 현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는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물론 인간의 선천적소질을 일정한 정도로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할수는 없으며 그 소질을 변경시킬수 있고 교육에 의하여 개조하지 못할 그런 소질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을 천성적으로 모든것에 정통한 사람으로 리해하는것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 모든 기술을 날 때부터 어떻게 알수가 있겠는가! 음악공부의 일례를 들어보자. 아이들이 처음으로 거문고를 다룰적에는 그 소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막고 듣기 싫을 정도로 서투른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련습을 거치면 마침내 그 소리가 맑고 아름

답고 형언할수없이 신묘하게 되는 법이다.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음악에 재질이 있어서 그랬던가! 다만 그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것이다.

모든 기예가 모두 이렇게 되지 않는것이 없다.》

교육과 관련한 리이의 저서로는 아동교양을 위한 《소학집주》, 일반학생교양을 위한 《격몽요결》, 《학교모범》, 대중교양을 위한 《향약해설》, 국왕교양을 위한 《성학집요》, 가정교양을 위한 《동거계례》, 학교준칙으로 《은병정사학규》 등이 있다.

리이의 교육사상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교육과 실생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는것이다. 그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학문이란 하루종일 앉아서 글만 읽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학문은 일상 사물의 리치를 도리에 맞게 하는것을 말할뿐이다.》

그는 교육에서는 그 원리를 먼저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리이는 진정한 학자가 되자면 정세에 밝아야 하며 좋은 정사를 펴기 위해서는 그릇된 정책과 그 제도를 안 기초우에서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것이다.

이와 같이 리이는 《10만양병설》을 내놓았으며 철학과 교육, 정사에서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그의 문집으로는 《률곡전서》(44권 38책)가 있다.

리이는 1584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국문시가발전에 기여한 정철

정철은 1536년 1월 서울에서 정유침의 막내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는 돈녕부 판관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내였고 맏누이는 왕비까지 되였으므로 정철은 어릴 때부터 왕궁에 드나들면서 왕의 사랑을 받았으며 다음대의 임금인 명종왕은 소꿉동무지간이였다.
좋은 옷에 화려한 궁전으로 제 마음대로 드나들며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지내는 정철이건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말았다.
을사사화라는 큰 변으로 정철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봉변을 당하였다.
정철이 9살이 되던 해인 1545년 을사사화로 정철의 매부인 계림군이 사형을 당하고 맏형은 모진 매에 류배지로 가던중 죽었으며 그는 아버지를 따라 귀양을 가게 되였다. 호강스럽던 그의 생활은 급작스럽게 달라졌다.
《철아, 좋은 선생을 만나 공부를 해야 할텐데.》
그속에서도 아버지는 날마다 정철의 글공부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
그럴 때면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아버지, 별걱정을 다하세요. 아무때든지 공부를 하게 되겠지요. … 그때는 다른 애들보다 몇배 노력을 하여 기어이 앞설테니 두고보세요.》
그의 대답에 아버지는 기뻐서 미소를 짓는것이다.
《우리 철이가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세워야 하느니라.》
《꼭 그러하겠으니 안심하세요.》그후 몇년이 지나 아버지가 류배지에서 풀려나 전라도 창평지방으로 가게 되였다. 여기서 정

철은 늦게야 공부를 시작하였다.

남달리 총명하였던 정철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남들이 쉬는 참에도 쉬지 않고 글을 읽고 또 읽어나갔다.

그는 당시 이름있던 학자들인 김린후, 기대승에게서 글을 익히였고 학자인 리률곡과도 친구지간이 되였다.

리률곡과 교제하는 과정에 정철은 그의 애국의 뜻에 공감하였다. 그런데 리률곡은 임금과 백성의 관계에 대하여 백성이 선차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은 백성을 위해 있고 또 백성을 잘살게 하는것이 임금이라고 하였지만 정철은 이와는 달랐다.

그는 신하와 백성들이 모든것을 다하여 임금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였다.

정철은 26살이 되는 해에 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리하여 진사과에 어렵지 않게 통과되였고 그 다음해에는 최고시험인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때로 말하면 30전에 문과에 통과되는것이 매우 어려운 일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늦게야 공부를 시작한 정철은 이렇게 27살에 통과되였으니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하였다.

임금인 명종도 장원으로 급제한 정철의 이름을 보자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번에 장원급제한 정철이 누구의 아들인가?》

《돈녕부 판관으로 있던 정유침의 아들이옵니다.》

임금은 자기의 소꿉친구인 정철을 알아보았다.

《어서 그를 불러들이여라.》

이리하여 정철은 임금과 술상을 마주하고앉아 그 옛날 이야기로 해저무는줄 몰랐다.

임금도 정철도 감회가 새로왔던것이다. 정철은 자기를 잊지 않고 이토록 불러준 그 임금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였다.

정철은 이때로부터 당쟁으로 하여 밀려나기 전까지 호당이란 벼슬도 지니고 암행어사로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성행하던 당파싸움에서 서인파의 중요인물이였던 정

철은 동인파의 배척을 받아 정계에서 밀려났다.

그러던중 45살이 되던 해에야 강원도관찰사로 다시 등용되였다. 이때 자기가 임명받은 강원도 임지로 내려가면서 지은것이 그의 대표작인 가사 《관동별곡》이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반대파의 배척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5년간을 아버지가 살던 창평에서 지내게 되였는데 이때에 《성산별곡》, 《사미인곡》과 그 속편인 《속사미인곡》 등 4편의 가사와 80여수의 시조를 창작하였다.

1589년경 정철은 다시 등용되여 좌의정에까지 오르며 서울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세번째로 그는 당파싸움에서 밀려나게 되였으며 1592년 임진조국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야 귀양지에서 겨우 풀려났다.

그는 이 시기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왔으며 호남, 호서의 체찰사로 임명되여 싸움에도 참가하다가 전쟁승리를 보지 못한채 1593년 57살을 일기로 강화도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때 《장진주사》를 창작하여 가사 5편이 남게 되였다.

이와 같이 그는 당파싸움에 말려들어 한생을 복잡하게 보내였다.

그가 자라난 환경과 정치생활로 하여 정철은 철저히 《충군》사상의 신봉자이며 그것은 그의 글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였다.

중요작품집으로는 시가집 《송강가사》와 《송강집》이 있다. (정철의 자는 계함, 호는 송강이다.)

《송강가사》는 우리 나라 최초의 개인국문시가작품집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15세기 훈민정음이 창제되였으나 옛날부터 한문을 공용서사어로 쓰면서 숭상하던 량반관료들은 우리 말과 글을 비속한것으로 천하게 여기면서 좀처럼 쓰려 하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이 자기의 저작들에서 국문을 썼다고 하여도 주로는 한문을 쓰고 거기에 토나 다는 정도였다.

국문을 쓰면 마치 낯이 깎이는것으로 여기거나 박식하지 못한것으로 치부하였던것이다. 때문에 누구나가 한문을 쓰려만 하였고 그

것으로 자기의 유식을 뽐내려 하였다.

그러나 정철은 이것을 대담하게 타파하고 우리의 국문으로써 가사문학을 창작하였다. 때문에 정철의 공로는 바로 종전의 우수한 시가전통을 이어받아 우리의 국문시가를 한계단 높은 경지에로 올려세움으로써 우리 나라 시가문학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데 있다.

정철은 많은 가사들을 썼지만 거의 대부분이 충군사상으로 일관되여있으므로 내용에서는 주목되는것이 크게 없다.

실례로 《성산별곡》에서는 당파싸움으로 하여 정계에서 밀려난 자신의 울적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물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개를 노래하기는 했지만 기본은 자신의 기분상태의 반영인것이다.

《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은 남편에게서 소박당한 녀인의 애절한 심정을 그리면서 왕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관동별곡》이다. 《관동별곡》은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여 내려가면서 말을 타고 동해안일대를 유람하며 아름다운 산수에 대하여 노래한것이다.

정철은 우리 글이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다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남들이 천시하는 우리 글을 가지고 훌륭한 가사를 주저없이 써냈던것이다.

정철은 작품의 첫째 부분에서 자기를 잊지 않고 강원도관찰사로까지 불러준 임금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시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있다.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관동 8백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지록 망극하다

시인은 농촌에 파묻혀있는 자기에게 이런 중한 벼슬을 맡기니 그 은혜는 끝이 없다고 노래하고있는것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자신이 금강산을 돌아보는 과정에 대하여 그리고있는데 여기서 조국산천의 아름다운 경치를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묘사하였다.

시인은 그 어디에도 비길데없는 명산의 절경을 금시 눈앞에 보이는듯 우리 글로 생동하게 그려나간것이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같은 무지개 옥같은 룡의 초리
섯돌며 뿜는 소리 십리에 잦았으니
들을제는 우뢰러니 보니난 눈이로다

정철은 금강산의 절경에 한껏 도취되여버리였다.

만폭동에 이어 련꽃을 묶어놓은것 같기도 하고 백옥을 묶어놓은것 같기도 한 1만2천봉에 매혹된 그는 자기의 높뛰는 가슴을 마음껏 터쳤다.

어화 조화옹이 헌사로 헌사할사
날거든 뛰지마나 섯거든 솟지마나
부용을 꽂았난듯 백옥을 묶었난듯
동명을 박차난듯 북극을 괴완난듯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
하늘에 추밀어 무삼 말씀 사로리라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줄을 모르난다
어와 너 여이고 너같은이 또 있단가
……
만이천봉을 력력히 헤여하니
봉마다 맺혀있고 긋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맑지마나
저 기운 흐터내여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없고 자세도 하도할사

천지 삼기실제 자연이 되였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사

정철은 중국의 려산이 제일이라고 리태백이 말하였지만 우리의 금강산보다 결코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기묘한 절경을 생동하게 그려내였다.

셋째 부분은 금강산탐승을 마치고 관동팔경을 유람하는 대목이다.

시인은 명사십리의 해당화, 의상대의 해돋이, 총석정의 기암괴석, 삼일포에 깃든 전설, 망양정의 달맞이 등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커다란 자랑을 가지고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약산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일어하니
상운이 집피는등 륙룡이 바퇴는등
바다에 떠날제는 만국이 얼위더니
천중에 첩뜨니 호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이 근처에 머물세라

이와 같이 《관동별곡》은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한 정철의 대표작으로 된다.

시에서 보여준것처럼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진실하고도 재치있는 묘사는 시인의 제 나라, 제땅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제땅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결코 이런 훌륭한 글이 나올수 없다.

시인은 려산보다 금강산을 올려세우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뜨거운 감정을 힘차게 토로하고있는것이다.

가사는 특히 무엇이든지 마음먹은대로 다 그릴수 있는 우리 글로써 조국의 자연을 훌륭하게 그려내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동별곡》은 시인의 계급적처지와 충군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자기를 도장관으로 불러준 왕에 대한 감사의 정을 노

래한 첫째 부분에서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유흥적기분에 들떠 자기에게 높은 벼슬을 준 왕의 선정에 어쩔바를 모르는것이다.

또한 봉건관료배들의 가혹한 착취로 백성들의 생활은 여지없이 령락되여있으나 세월을 태평성세로 미화하는 등 결함이 없지 않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시에서는 시인의 애국애민의 사상이 흐르고있으며 인도주의적감정이 어느 정도 표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또한 중요하게는 국문시가라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가사문학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정철은 가사뿐아니라 80여수에 달하는 시조들도 국문으로 창작하였다.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가
늙기도 설워라커든 짐을조차 지실가

이것은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덜어주고싶어하는 그의 감정을 표현한 시조이다.

이와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할고
이와 저 아자바 옷 없어 어찌할고
미흔 일 다 일러사라 돌보고저 하노라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의 표현이다.

그의 시조에서는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인 도덕과 관련한것들도 많다.

그중에는 부모들이 죽은 다음 우느라 하지 말고 살아서 잘 모시라는 교훈을 주는 시조도 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난 후면 애닯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정철은 일생에 술을 매우 좋아하였다. 기뻐도 술이요, 슬퍼도 술이였다.

그가 31살이 되던 해 함경도 어사로 내려가면서도 가는 곳마다 주막에 들려 술을 마시였다. 허줄한 의복차림이라 어사인줄을 모르는 술집녀인들은 그를 괄세하며 때로는 내몰기도 하고 술이 없다고 자르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정철은 시조 한가락을 읊으면서 제 혼자 흥에 겨워하였다. 이것을 보고 녀인들은 차림새를 봐선 꼭 거지같아보이건만 인품은 그렇지 않아 술상차리기에 바빴다고 한다.

한번은 그가 암행어사로 함경도를 두루 살피고 강원도를 거쳐서 돌아오다가 통천에 이르러 다시 주막집에 들렸다. 어사인줄을 가려보지 못한 주인은 정철을 푸대접하였다. 그러나 정철은 참고 술을 마신 뒤 떠나면서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10년후에 감사가 되여 다시 올것이다.》

그러자 주인은 어이없다는 식이다.

《감사는 못되더라도 찰방이라도 되시구려. 그것도 못되면 옷이라도 한벌 새것으로 지어입고 오시면 좋겠수다.》

그러자 정철은 제 옷을 둘러보며 껄껄 웃어대는것이다.

《내 반드시 10년후에 감사가 되여 오리다.》

그 10년이 지난 뒤 강원도관찰사로 지방을 순찰하던 정철이 이 주막에 다시 들려 살피니 옛날그대로였다.

정철은 심부름군에게 너희들이 10년전에 찰방이나 고작일것이라 하였지만 나는 그때 말대로 감사가 되였다는 시조 한수를 지어주었다.

주막집은 감사를 맞은것으로 하여 벌컥 뒤집히였다.

이 사실을 놓고도 정철의 평민적인 기질을 다시 알수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정철은 중세기문학사에서 국문시가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하여 후세에 남는 인물이다.

진주성싸움과 론개

임진조국전쟁이 터진지 1년이 지난 후 왜적들은 우리 의병대의 강력한 항전과 수군에 의한 보급로의 차단으로 경상도까지 쫓기여갔다.

그러나 간악한 왜적들은 거저 물러가려 하지 않았다. 궁지에 빠진 놈들이기에 지푸래기라도 쥐여보려는 심산이였다.

왜적들은 진주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진주는 호남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을 차지하면 거침없이 호남땅으로 올리밀수 있고 또 이를 놓치기만 하면 호남전체를 잃는것으로 되는 요충지였다.

뿐만아니라 적들로서는 저들이 북으로 쳐들어올 때 가장 된매를 맞은 곳이기에 원한이 사무친 고장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쫓기우는 적들은 그 화풀이로서 진주를 정하였던것이다.

당시 진주에는 3 000명의 군사와 부녀자들까지 합하여 6만을 넘지 못하는 인원이 있었다. 하지만 적은 12만이 훨씬 넘었다.

성밖 100리어방이 모두 왜적의 검은 기치창검으로 뒤덮였건만 진주성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군사들, 모두들 분발하여 이 땅에 침노한 왜적을 쳐없애자!》

당년 57살의 김천일의 피타는 웨침이였다.

김천일은 학문과 덕행에 있어서 뛰여난 선비였다. 그는 싸움이 일어나자 누구보다먼저 의병을 일으켰으며 남으로 적을 쫓아내려오던중 진주가 위험하다는 소식에 접하자 조정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독단으로 이 성을 지키려고 결심한 의병장이였다.

경상우병사 최경회도 이에 동감했다. 그는 병서에도 밝고 여러분야에 능란한 인물이였다.

진주성 첫번째 싸움때에도 곽재우와 협력하여 적의 배후를 들이친것으로 하여 공이 컸다.

황진도 이에 따라나섰다. 27살에 무과에 급제하여 두만강연안 경비근무를 수행한것으로 하여 경험이 많은 그는 병서에 무척 밝았다.

김해부사인 리종인도 진주로 들어왔다. 웅장한 체구에 힘이 장사인 그는 전쟁초기부터 이 일대에서 용맹을 떨친 싸움군이였다.

유명한 금산싸움에 생명을 바친 고경명의 아들인 고종후도 이 어려운 일에 나서기를 주저치 않았다.

수많은 장수들과 의병장들이 묵묵히 진주성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김천일과 최경회를 총사령관으로, 황진을 수성장(참모장)으로 하였다.

1593년 6월 22일 싸움은 시작되였다. 적은 동서 두 진영으로 나뉘여 진격해왔다.

진주성은 남쪽이 절벽이고 그아래로는 남강이 흐르고있었다.

이 절벽에 솟은것이 촉석루이다.

의병들은 촉석루에 본거지를 정하였다.

성은 둘레가 4천 3백여척, 높이가 15척으로서 돌로 축성된 웅장한것이였다.

문은 동, 서, 북에 있고 외곽에는 못을 파서 물을 채워두었다. 적이 들어붙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싸움은 처음부터 가렬처절했다. 하지만 성안의 군민은 그대로 한몸이 되여 적을 막아냈다. 선비도 상인도 백정도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싸움에 일떠섰다.

그가운데는 진주고을의 이름난 기생인 론개도 들어있었다. 얼굴못지 않게 마음씨가 고와 진주고을에서 손꼽히는 명기로 이름이 났던 론개는 며칠을 두고 황진의 곁에서 화살단을 섬겨주고 돌도 나르고 밥도 지었다.

성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모두가 더할나위없이 지쳤으나 누구 하나 주저앉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원쑤를 격멸할 일념으로 가슴을 끓이였다.

왜적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자 밤을 타서 성밖에 토성을 쌓

기 시작했다.
여기에 기여올라 조총으로 성안을 갈겨대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성안의 군민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리도 쌓자!》
군민들은 돌로 방벽을 더 높이 쌓아올렸다. 남녀로소 가림없이 돌을 지고 날랐다.
론개도 온밤 돌을 날랐다.
그때 일을 두고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둠속에서 뛰여나게 체구가 크고 힘이 장사인 한 청년이 온밤 쉬지 않고 사람들의 앞장에서 돌을 져나르는것이였다. 그의 말없는 행동은 뭇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때 방벽 쌓는 일을 지휘하던 사람이 그 청년의 행동이 너무도 기특하여 그에게 다가갔다.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청년은 대답이 없었다. 의아해난 그 사람은 손에 쥐고있던 나무몽둥이로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순간 청년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두주먹으로 훔치면서 머리를 쳐드는것이였다.
그런데 바로 자기들의 수성장인 황진이였다. 그는 너무도 당황하고 죄송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아니, 이 일을…》
《하하하, 괜찮아, 일없다니까.》
황진은 호방하게 웃어댔다. 그리고는 또다시 큰 돌짐을 번쩍 들어올리는것이였다. 이와 같이 그는 백성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평복을 입고 용약 돌을 져나르는 대렬에 들어섰던것이다.
26일 낮싸움에서는 자신이 직접 현자총통을 설치하고 적진영에 포알을 날리였다. 이 무기의 사정거리는 2 000보로서 적들이 뻐겨대는 조총하고는 대비가 되지 않았다.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을 쳤다.
론개도 이 처절한 싸움을 온몸으로 겪어나갔다.
시간이 갈수록 적은 더욱 도수를 올려 발악했다.

왜적들은 나무궤짝에 소가죽을 씌우고 그속에 숨어서 성벽으로 들어왔으며 동문밖에는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여올라 진주성사람들에게 웨쳐댔다.

《항복하면 살려준다. 항복하라!》

그러나 군민의 대답은 시종 한가지였다.

《우리는 오직 죽기로써 성을 지켜 싸울뿐이다!》

왜적들은 이번에는 성주변의 다섯 곳에 토산을 쌓아올리고 대나무로 덕대를 매서 그우에 올라 조총을 쏘아댔다.

이를 사려물고 원쑤를 노려보던 리종인로인은 더는 참지 못하여 장정들을 이끌고 허공에 몸을 날려 성벽아래로 뛰여내려서는 창과 칼을 사정없이 휘둘러댔다.

《이놈들아, 이 칼을 받아라!》

그는 단번에 다섯놈이나 쓰러뜨리고 거마리처럼 달라붙는 놈들을 창으로 짓뭉개고는 우에서 내려뜨린 바줄을 타고 날쌔게 성벽으로 기여올랐다. 하루에도 이러기를 몇차례…

이렇게 주야로 처절한 싸움의 날이 지나갔다.

진주성군민들은 6일간이나 목숨으로 성을 지켜냈다. 28일은 가장 격렬한 싸움의 날이였다. 불꽃이 튀는 격전의 한순간 어디에서 날아온 화살인지 앞장에서 싸움을 지휘하던 황진의 이마에 박혔다. 적의 주검속에 묻혀있던 원쑤놈이 쏜것이였다.

《황진대장의 원쑤를 갚으라!》

온 진주성이 통채로 떨쳐나 원쑤를 무자비하게 쳐부셔댔다.

하지만 이날 적은 기어이 북문을 타고넘고야말았다. 적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죽음의 길이 낫다고 인정한 방어자들은 자결의 길을 택하였다. 먼저 최경회대장이 두명의 적병을 팔에 끼고 남강의 거센 물에 몸을 날렸다. 뒤이어 촉석루에서 김천일의 부자와 고종후가 강물에 날아내렸다.

한쪽에서는 리종인로인이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적병들을 막아 번개같이 달리고 또 한편에서는 젊은 패들이 한목숨 내걸고 적진으로 쳐들어가는데 또 촉석루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며 깨끗한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산천초목도 이 참극에 목이 메는지 온종일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며 그칠줄을 몰랐다.

왜적들은 제 본성그대로 성안의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죽이였다. 그러고도 시원치 않아 고간에 가두어넣고 불태워 죽이였다.

진주성은 실로 피바다에 잠기였다.

론개도 촉석루로 치달아올랐다.

(왜적들아, 이 나라 천기들도 장한 뜻 지니였음을 네놈들은 보게 되리라!)

옥다문 입술을 열어 론개는 시 한수를 읊어나갔다.

구차하게 살자 하니
더러운 욕 어이하리
이미 죽을 작정이면
왜적칼에 왜 죽으리

그런데 앞에는 왜적이 막아서고있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낯짝이 시꺼멓고 수염이 한벌 덮인 왜적장수 한놈이 버티고 서있다.

론개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불행하게도 왜적의 손에 잡히고말았다.

그의 고운 얼굴이 흉물스런 놈의 욕심을 끌었는가싶다.

론개는 전라도 순창에서 태여나 진주의 량반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은 최하층신분이였다. 론개는 비록 천한 기생의 몸이였지만 고운 인물과 같이 마음씨 또한 이를데 없어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른것앞에서는 절대로 숙어들지 않았다.

론개는 자기에게 무엇이 좀 생기면 가난한이들과 함께 나누었으며 량반들의 억압에 맞서나선 마을사람들이 관청에서 당하는 고통도 제것으로 받아들이고 관리들을 꾀여내여 그 죄를 늦추게도 하였다. 하기에 진주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고 사랑해주었다.

그후 론개는 장수인 최경회의 소실로 들어가게 되였다. 최경

회는 진주성으로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론개를 떼여놓으려 하였지만 그는 끝내 따라나서고야말았다. 진주성싸움이 벌어지자 론개는 백성들과 함께 돌도 나르고 밥도 짓고 터져나간 옷들을 꿰매였으며 물을 끓여 적들의 머리우에 쏟아부었다.

《이놈들아, 천벌을 받아라!》

론개는 싸우는 군사들을 노래와 춤으로 일으켜세우기도 하였다.

싸움끝에 잠간 여가가 생기면 최경회는 론개를 진주성으로 데리고온 자신을 후회하군 하였다.

그때마다 론개는 미소를 지어 이렇게 그를 위로하였다.

《아이참, 그건 내가 원한것이예요.》

진주성이 함락되고 최경회가 남강에 몸을 던져 순직했다는것을 알게 된 론개는 그의 뒤를 따르려 했건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원쑤의 손에 잡힌 몸이 된것이다.

론개는 곳곳에서 절벽을 울리는 피타는 웨침소리를 들었고 창고들보에 목을 매여 자기들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참모습도 보면서 피눈물을 삼키였다. 그리고 자신도 한시바삐 그리운 랑군님곁으로 가고싶었다. 그러나 원쑤를 갚고싶은 마음도 함께 일었다.

《승리자》연 흔들대던 왜적들은 7월초 어느날 천하명승 남강기슭 촉석루에서 주연을 베풀고 풍청거렸다. 왜대장 게다니는 진주성을 략탈한것으로 한마당 잘 차리고 기생들까지 불러댔다.

칼의 휘두름에 끌려나온 아전들에게서 이고장 기생으로는 론개가 유명하다는 소리를 얻어들은 대장놈은 그를 당장에 끌어오라고 호통을 쳐댔다.

아전들은 론개의 도고한 성미를 아는지라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된다고 거절했지만 왜적대장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아전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론개는 원래 성품이 강직한데다가 이곳 의병들과 함께 지내던 녀인이올시다.》

이에 왜적대장은 너털웃음을 쳤다.

《하하하, 너는 기생이란게 뭔지 모르는구나. 내 가르쳐주지. 기생이란 언제나 강자를 따르는 법이야. 걱정말고 어서 가서 내가 부

른다고 해. 알겠느냐?》
게다니는 군사 수십명을 아전에게 달려보냈다.
왜적들은 론개를 마구 끌어내였다. 원쑤들에 대한 증오로 온몸을 떨고있던 론개는 놈들의 더러운 손을 힘있게 뿌리쳤다.
《놔라. 네놈들에게는 도덕도 없느냐? 내 차비를 할테니 나가서 기다려라.》
론개는 소복단장을 하고 머리를 곱게 틀어올려 비녀를 꽂았다. 그리고 손가락마다에는 금반지를 끼고나섰다.
이것을 바라보며 아전도 놀랐지만 함께 있던 한씨가 더욱 놀라며 눈물로 꾸짖었다.
《아니, 너 정신이 있느냐? 가긴 어데 간단 말이냐? 무슨 욕을 보자구. …》
하지만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되여있는 론개는 주저없이 나섰다. 그리고 조용히 한씨에게 말하였다.
《어머니, 왜장이 어떤 놈이기에 내가 오늘 안간다고 래일은 가만있겠으며 어머니가 막는다고 그놈들이 마음을 달리하겠어요. 어차피 가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길인데 제발로 떳떳하게 갈것이지 구차하게 끌리워가겠어요?》
론개는 한씨의 손을 잡아 안심시킨 다음 의젓하게 맞받아나갔다.
론개의 아릿다운 모습을 보자 왜장 게다니놈은 두눈알이 화등잔만 해지고 입이 헤벌어졌다.
과연 절색이였다. 또한 노래춤이 누구도 따르지 못한다니 소문에 듣던바 그대로였다.
분명 그 자태 하늘의 선녀였다.
《하늘이 내게로 보내주었구나.》
그놈은 련속 벙글거렸다.
론개는 단정히 앉아 달라는대로 술을 부었다.
취기가 오른 게다니놈은 제 흥에 겨워 소리를 쳐댔다.
《자, 봐라. 고운 조선기생 론개가 나하고 얼마나 재미나게 노는가를 말이다. 기생이란 어떤겐지 이제야 알겠지.》
그놈은 심부름을 들고있는 아전의 어깨를 툭 치면서 너털거렸다.

해가 지도록 술을 퍼먹인 론개는 저녁이 가까와오자 게다니놈에게 촉석루에 올라 같이 춤을 추자고 꼬여내였다. 첫 순간부터 론개의 미모에 침을 흘리던 게다니놈은 너무 좋아 선뜻 일어나 그가 이끄는대로 졸개들까지 오라고 손짓을 해대면서 따라나섰다.

게다니놈을 끌고 남강에 솟은 너럭바위인 촉석루에 오른 론개는 한동안 검푸른 강물을 굽어보았다. 순간 의병대의 용감한 최경회, 김천일, 고종후 등 의로운 용사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마음은 더욱 굳어졌다.

론개는 자신도 그들이 먼저 간 자랑스러운 길을 따르고싶었다.

(내 기어이 부모형제들의 원쑤를 갚고야말리라.)

론개는 그놈을 이끌어 벼랑끝으로 나섰다.

《여기 아름다운 경치를 보세요.》

론개는 가볍게 웃어보이기까지 하면서 그놈의 손목을 잡았다. 금실거리면서 흐르는 거세찬 물결을 내려다본 순간 론개는 게다니놈의 허리를 살며시 끌어안았다.

술에 잔뜩 취한데다가 녀인의 체취를 느낀 게다니는 론개에게 몸을 맡긴채 이제 있을 재미를 그려보며 두눈을 슬며시 감았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나를 똑바로 보아라. 조선기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마.》

순간 위험을 느낀 게다니는 몸을 가누려고 했으나 이미 자기 허리를 힘껏 부여안고 뒤로 떨어지는 론개를 물리칠수 없었다.

죽음을 각오한 론개의 그 힘을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였다.

론개는 왜장 게다니를 끌어안은채 남강의 드센 물결우에 떨어졌다.

놈은 고함을 질러대며 론개의 팔을 풀어보려고 태질해봤지만 금반지로 꽉 집힌 론개의 손아귀에서 도저히 빠져나올수 없었다.

드센 물결은 적장 게다니놈을 순간에 삼켜버리고말았다.

흰 옷자락도 가벼이 꽃처럼 떨어진 론개의 모습은 영원히 남강의 촉석루에 아로새겨졌다. 후세에 그 이름도 아름답게 남기고…

이때로부터 촉석루의 너럭바위를 의암(의로운 바위)이라 불러 론

개의 장한 의거를 칭송하게 되였다.

진주의 의로운 딸 론개는 이렇게 꽃나이청춘을 나라지키는 싸움에 바치였다.

해마다 봄이 오면 너럭바위에는 진달래꽃들이 곱게 피여나고 가을이면 들국화가 떨기떨기 흰빛을 지어 론개의 애국심을 전하고있다.

왜적들을 쳐몰아낸 후 진주사람들은 론개를 길이 잊지 않기 위해 사당을 지어 제를 지냈고 촉석루에 비도 세웠다. 그리고 그의 애국적소행을 찬양하여 노래도 지어불렀다.

순창기생 의암이는
우리 나라 건지려고
왜장 청정 목을 안고
진주 남강에 떨어졌네

론개가 실지 죽인자는 게다니이지만 민간에서는 가등청정(가또 기요마사)이라 전해지고있다.

론개의 이름은 금수강산 녀인들의 렬전에 남아있다.

한호의 글씨솜씨

키낮은 초가집마루에 선 어머니의 얼굴은 근엄하였다. 그리고 그 밑에 엎드린 어린 아들의 모습은 퍼그나 가냘펐다.

《어머니, 어머님옆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생각해주소이다.》

《아니다, 너는 10년을 기약하고 어미품을 떠났는데 그걸 못채우고 돌아왔으니 어찌 사나이 한번 먹은 마음이라 하겠느냐. 어서 떠나거라.》

《알겠소이다.》

소년은 일어나 절하고 다시 먼길에 올랐다. 몇걸음 옮기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뒤를 돌아보았으나 어머니는 변함없이 서서 어서 가라고 손을 내젓는다.

《아, 어머니, 내 기어이 성공하리다.》

이렇게 한석봉이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떨친 소년 한호는 굳은 맹세를 다지면서 걸음을 내짚었다.

한호는 1543년 송도(개성)의 가난한 집에서 태여났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읜 그는 홀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였다.

그가 9살에 접어들자 어머니의 생각은 깊어졌다. 아들을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떠나간 남편의 뜻을 지켜나가자면 남들처럼 슬하에 두고 응석이나 받아줄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보잘것 없는 가산을 전부 팔아 아들의 손에 쥐여주면서 10년을 기약하고 본가집편 친척벌되는 글방훈장의 집으로 떠나보내였던것이다.

물론 어린 한호를 품에서 내놓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후 어머니는 자신의 고생을 락으로 여기면서 떡장사를 하여 글

공부하는 아들의 뒤바라지를 정성껏 해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떡함지를 이고 떡을 팔았으며 힘이 진하고 손맥이 풀릴 때면 성공하고 돌아올 아들의 장한 모습을 그리면서 꿋꿋이 이겨나갔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아들이 10년을 못채우고 그만 7년만에 돌아온것이였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아들을 시험하기로 하였다.
《한호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글씨공부를 하였는지 어디 보자.》
어머니는 등잔불을 끈 후 아들은 어두운 속에서 붓글씨를 쓰게 하고 자신은 떡을 썰어보기로 하였다.
불이 꺼진 새까만 방안에서는 이윽토록 어머니의 떡을 써는 칼도마소리가 고르롭게 들리고 또한 아들의 손더듬소리도 섞이여 들렸다.
《어머니, 이젠 불을 켜주사이다.》
이윽고 어머니는 솔광가치에 불을 달아 등잔에 대였다.
밝아진 방안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글씨를, 아들은 어머니의 떡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어찌하랴. 수북이 쌓인 어머니의 떡개는 어느것이나 탓할것없이 하나같은데 한호의 글씨는 그렇지 못하다.
어머니의 떡개를 보며 한호는 저도모르게 탄성을 터뜨렸다.
《정말로 하나가 열, 백같소이다.》
《그런데 너의 글씨는 안되겠구나. 오늘 당장 떠나거라. 그리구 3년을 마저 채우고 돌아오너라.》
한호는 진정 어머니와 헤여지고싶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이제 어떻게 또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난단 말입니까.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글씨공부를 계속할터이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게 하여주십시오. 선생님도 그만하면 훌륭하다고 하시였소이다.》
《자식의 도리라는건 제 부모를 고생하지 않게 하는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것이다. 네 아버지가 너를 명필로 키우기

를 소원했는데 오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네가 나를 기쁘게 해줄수 있느냐? 그러니 너는 다시 돌아가야 하느니라.

어미생각은 아예 말고 10년을 채우기 전에는 내앞에 얼씬하지 말어라.》

이렇게 되여 한호는 다시 어머니곁을 떠나게 되였다.

사실 애어린 시기부터 그는 글씨공부를 열심히 해왔으나 집이 가난한탓에 종이와 붓이 없어 싸리꼬챙이로 사판(운두가 낮은 나무함에 모래를 담은것.)에 글을 썼고 돌다리에 석필로 글을 썼다.

그리하여 지금에 와서 그의 글씨는 누구나 칭찬하는것이였지만 어머니만은 이를 허락치 않았다. 한호는 어머니가 내여주는 명주필을 로자로 쓰면서 이번에는 서울로 올라갔다. 그는 당시 명필로 이름난 병조참의를 찾아갔다.

그로 말하면 리률곡과 뜻을 같이한 친구로서 매우 결백한것으로 알려져있었다.

한호에게 글을 씌워본 그는 못내 대견해하며 그를 자기 집 사랑채에 들게 하고는 제자로 정하고 열심히 글쓰는 법을 가르쳤다. 그렇게 하기를 3년이 되여오자 한호는 그 이름이 서울장안에 자자해졌다. 이때부터 그는 한석봉으로 불리웠다.

한석봉의 글씨는 필법이 힘있고 특출하여 한체를 이루었는데 공사의 비, 병풍, 족자 등의 글씨가 그의것이라면 모두가 귀중한 보물로 여기게 되였다.

당시 선조왕까지도 한호의 뛰여난 필적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자기가 거처하는 별실의 병풍과 장지(방을 장식하는데 쓰이는 큰 문짝같은 장식품.)에 석봉의 글씨를 붙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쓴 문서류들도 버릴세라 고이 간수하면서 《한석봉의 글씨는 오묘하고 장쾌하다.》고 칭찬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고금을 통하여 세상에 드물게 나온 뛰여난 예술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이런 뛰여난 인재를 낳았으니 중국의 명가라도 한호의 글씨를 보고서는 또한 경탄치 않을리 없을것이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석봉의 10년간의 글씨공부는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였다.

어머니의 지성과 아들의 노력이 맺은 열매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한석봉은 그후 25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가평군 군수로 임명되였으며 또다시 승무원의 사자관(외교관계의 문서를 맡아보는 벼슬)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선조왕까지도 그의 손을 보배로 여기면서 《신선의 조화》로까지 평하고 추천하여주었다고 한다.

벼슬에 오른 한석봉은 나라의 외교사업을 맡아보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명나라에 사신으로 오가게 되였으며 그때마다 그 명성은 더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중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의 글씨를 얻어보려고 문무백관들이 청원하였고 비문과 족자를 부탁해왔다. 뿐만아니라 중국에서 조선에 오는 사신들도 저들이 맡은 공무보다도 한석봉의 글씨를 얻어가지고가는데 더 윈심을 썼다.

명나라의 이름있는 재상이였던 왕세정은 그의 글씨를 평하여 《성난 고래가 바위를 떠받는듯, 목마른 룡마들이 샘터로 달리는듯 하다.》고 하였다. 더우기 당대 명나라의 이름난 서예가인 주지번까지도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명나라대신 주지번은 우리 나라에 사신으로 오게 되였는데 그는 서예에서는 자기를 당해낼자가 없다고 내심 확신을 가지고있었다.

외국사신이 도착하자 평양감사는 큰 잔치를 차리였다. 잔치가 거의 파해갈무렵 주지번은 언제 준비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커다란 두루마리를 옆에 앉아있는 접반사인 리정구에게 내놓으면서 이에 화답하는 시를 써서 래일아침에 달라는것이였다.

이를 펼쳐보니 《평양은 좋을시고》라는 제목의 장시였다. 얼핏 보기에도 한식경이 걸릴듯싶은 오언백운시(운자를 백개나 붙인 천자가 넘는 장편시)였다.

주지번은 래일아침 수원들중에 명나라로 들어가는 편이 있으니 주어보내도록 하여달라고 거듭 일렀다. 그들의 배심인즉 너희들이 오늘밤중으로 어떻게 그 장문의 시를 짓고 더우기 그 많은 글씨를 써내겠는가 하는 음흉한것이였다. 그러니 이것은 나라의 권

위와 관련되는 일이였다.

때는 봄철이라 밤은 짧은데 장문의 문장을 짓고 글을 쓰자니 그것을 받아든 접반사는 눈앞이 아뜩하였다.

그리하여 글 잘 쓰는 시군들과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느라 야단을 쳤다.

몇이 같이 지으면 빠르겠지만 글귀란 그렇게 하면 상이 흐트러진다고 한사람에게 맡기기로 작정이 되여 당시 이름난 문장가인 차천로에게 글을 짓게 하였다.

그런데 글을 짓는것도 문제이지만 글씨를 잘 쓰면서도 빨리 쓰는 인물이 필요하였다. 모두가 의견이 구구했지만 신통한 안이 없어 초조하기만 하였다.

이때 한 대신이 불쑥 나섰다.

《아, 있소이다, 있소이다. 한석봉이 요즘 평양에 비문 쓰러 와 있으니 차천로가 부르고 한쪽에서 그가 받아쓰면 능히 가능할것이외다.》

서로의 얼굴만 근심스레 쳐다보던 좌중은 금시 활기를 띠였다.

석봉은 달려오자 어서 부르는대로 쓸테니 걱정을 말라고 모두를 안심시켰다.

차천로가 내리부르고 그에 따라 한석봉이 붓에 먹을 듬뿍 묻혀 번개같이 써내려가는데 부르는 사람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지경의 속필이였다.

옥판선지에 쓰는 글이라면 누구나가 꺼리는 마음이 앞서는것이지만 한석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어 새벽이 가까와오니 차천로의 부름과 함께 한석봉의 필사도 끝이 났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접반사를 비롯한 대신들은 입을 딱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다음날 아침 주지번은 속으로 (너희들이 이제 아마…) 하며 깨고소해했지만 가져온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더우기 그 글씨란 난생처음 보는 희한한것이였다.

그는 단숨에 내리읽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왕우군이나 안진경(서예가로서 중국력사에 기록된 명필들)도 이에는 따르지 못합니다.》

이처럼 한석봉은 자기 글씨로써 나라의 권위를 지켜냈을뿐아니라 더욱 빛내였다.

한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다 한다.

한석봉이 사신으로서 연경에 갔을 때였다. 이 나라 조정의 이름있는 한 재상이 자기 집 대문장식에 쓰기 위하여 커다란 장지에 글을 쓰려고 사람을 구한다는것이였다.

한석봉은 자기가 써주겠다고 선뜻 나섰다.

그러자 구경군들은 모두 《일개 조선사람이 대국에 와서 자기 글씨를 뽐내자고 한다.》하는 식으로 쳐다보며 못마땅해하였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한석봉은 아무런 내색도 없이 큰 붓을 닁큼 들어서는 금가루먹을 흠뻑 찍었다.

그는 속으로 《여봐라, 길을 비켜라. 조선나라의 한석봉이 나간다!》하는 큰소리를 외우며 첫자를 힘있게 찍었다. 그런데 먹물을 너무 많이 찍어 물방울이 여러곳에 튀였다. 순간 재상은 성이 독같이 오르고 옆에 선 역관들은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한석봉은 한번 히쭉 웃고는 튀여난 먹물에는 아랑곳없이 단숨에 휘갈겨 내려갔다. 큰 힘을 준 후에 슬그머니 꼬리가 잇달리는가 하면 금가루먹물이 파묻혀 퍼져들면서 살아서 움직이는듯한 글발들이 우쭐우쭐 일어서는데 그 희한함이란 더 이를데가 없었다.

모두가 한결같이 《과시 명필이구려!》하는 경탄의 소리를 내뱉고는 다른 말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명나라땅에서만이 아니라 그는 동서고금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였다.

한석봉은 우리 나라에서 글씨로 이름있었던 안평대군이후 제 일인자로 되였다. 또한 그 인품이 근엄하고 어디에 가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것으로 하여 존대를 받았다.

한석봉은 1605년 62살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까지 그의 글씨는 개성의 선죽교비와 서경덕의 신도비, 고양의 행주산성승전비 등 많은 비문들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의 글씨본보기책으로는 《석봉서범》, 《석봉천자문》이 전해진다.

바다싸움의 명장 리순신

청군과 백군 두편으로 나뉘인 아이들의 군사놀이는 마지막고비에 이르고있었다.

청군대장인 허우대가 큰 소년이 기발을 흔들며 우렁찬 목소리로 돌격구령을 지른다.

이윽고 청군은 함성도 드높이 백군진영으로 몰려드는데 그 기세는 보기에도 무서운것이였다.

《아이참, 저 대장아이를 좀 봐요. 언제나 한모양새군요.》

《그러게요. 전번날 군사놀이에서도 청군이 이겼다우. 저애가 지휘를 해대더군.》

《앞으로 틀림없이 대장감이요. 나라에서는 저런 장수재목들을 뽑아써야 할텐데.》

《정말 장쾌한 싸움이요. 실전과 거의 같소그려.》

사람들은 한마디씩 모두가 뇌이며 혀를 찼다.

그리고는 어린 대장감이 기특하여 자리를 선뜻 뜨지 못한다.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끈 그 소년대장이 바로 후날 바다싸움의 명장으로 이름을 날린 리순신이였다.

리순신은 1545년 3월 서울의 가난한 선비인 리정의 셋째아들로 태여났다.

리순신의 우로는 희신, 요신 두 형이 있었고 아래로는 남동생 우신과 누이 하나가 있었다.

리순신은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하고 매사에 부지런하였으며 특히 글공부에서는 남다른 열성이 있었다.

그는 글읽기와 붓글씨에 뛰여났을뿐만아니라 11살에 벌써 《자치통감》과 《대학》, 《중용》등 4서 3경까지 완전히 떼고났다.

그의 형들은 리순신이 유학에 크게 성공할것을 바라면서 여기에 힘쓸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칼과 붓을 함께 들었다.
리순신은 옛장수들의 무훈담을 즐겨 탐독하였으며 더우기 《을지문덕장군전》같은것은 완전히 통달하였다.
리순신은 당시 나라에 조성된 환경과 그 운명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걱정하면서 무술을 익혔고 병법을 연구하는데 힘을 들였다. 그는 밤늦도록 병서를 탐독했으며 칼쓰기, 활쏘기, 말타기훈련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리순신은 27살이 되던 해에야 훈련원에서 과거를 본다는 방에 눈길을 돌렸다.
《반드시 장원으로 급제하여 나라지키는 방패가 되리라!》
그의 생각은 오직 이 하나였다.
과거시험이 시작되자 리순신은 여러 종목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여 마지막시험인 경마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어이하랴.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실수가 있을줄이야.
부상을 입은 리순신은 아쉽게도 이날 시험에 입선하지 못하고말았다.
그후 리순신은 31살이 되던 해인 1576년 다시 시험에 응시하여 무과에 붙었다.
그는 병법, 지리, 천문, 력사 그 어디에나 막힘이 없었다.
시험에서는 뛰여나게 성적이 높았지만 집안의 권세가 없고 돈도 없는지라 뒤받침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벼슬때문에 허리를 굽히거나 자기의 뜻을 달리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리하여 함경도국경지대인 동구비보에 발령을 받았다.
당시 병조판서로 있던 김귀엽이 리순신의 사람됨에 감동되여 자기 소실의 딸을 주려고 하였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였다.
《벼슬길에 들어서면서 권세있는 집안에 의탁부터 하겠는가?》하는 자존의식이 머리를 들었던것이다.
리순신은 집형편이 넉넉치 못하여 맏형의 처가가 있는 백암리로 이사하였다.

여기서 그는 병진이라는 사람과 사귀게 되였고 그의 외딸과 결혼하였다.

그는 언제나 청렴결백했으며 나라재산에 손을 대는 량반사대부들을 끝없이 증오하였다.

1580년 리순신이 발포만호로 있을 때의 일이다.

이때 그는 처음으로 바다와 인연을 맺게 되였다. 바다를 보니 가슴이 탁 트였다.

《조국의 저 푸른 바다를 지켜 내 한생을 바치리라.》

그가 바다에 이르니 장부에는 수천명의 인원이 적혀있고 무기도 함선도 약차한 수자였지만 실지로는 불과 몇십명의 로병들과 다 깨여진 배 몇척이 있을뿐이였다. 그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한숨이 새나왔다.

《우리 군대의 상태가 이 모양인가? 언제쯤이면 이 나라의 군대가 백성의 참다운 방패로 될것이냐?》

그날부터 리순신은 병사들을 모으고 군률을 세우는데 힘을 들였다.

그러던 어느날 수군절도사로 있던 성박이 객사 뜰앞에 있는 아름이 넘는 오동나무를 병사들을 시켜 찍게 하는것이다.

리순신은 대바람에 그들을 비켜세웠다.

《너희들은 어디에 함부로 뛰여들어 나무를 베려 하느냐?!》

《저희들은 좌수사님의 분부로 나무를 베려 하나이다.》

《그래, 좌수사님은 그 나무를 베여다 무기를 만드신다더냐?》

《거문고를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뭐라구? 고작 거문고나 만들어 퉁긴단 말이냐?!》

리순신은 더욱 노기가 올랐다.

《안된다, 절대로 다치지 못한다. 이 오동나무는 나의 진영안의 물건이고 나라재산이다.》

병사들은 좌수사님의 명을 어기면 혼이 난다고 울상이 되였지만 리순신은 추상같이 호령하였다.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내쫓아라!》

분노한 그의 눈에는 피발이 서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나라의 귀한 재산을 사사로운 일에 쓸수 없다고 단호히 막아버렸다.

수군절도사 성박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지만 리순신의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에는 어쩌는 수가 없었으며 오동나무도 끝내 베이지 못하였다.

리순신은 41살이 되던 1586년 조산포만호로서 록둔도 둔전관(군대들이 자체로 농사를 지어 군량을 해결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리)을 겸하게 되였다.

그가 이곳에 내려오니 군사의 수가 적은것이 제일 걸리는 문제였다.

그리하여 우선 인원을 보충해줄것을 상부에 제기했으나 병마절도사라는자는 이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날 밤 리순신은 자기의 애달픈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한산섬 달밝은 밤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끊어놓느냐

리순신의 애국충정을 짐작케 하는 글이다.

그는 자체로 병력을 꾸려나갔고 무기들을 제조해냈다.

이 시기 나라의 방비가 약한 틈을 타서 녀진족들이 조산포에 기여들었다.

그때 리순신은 앞장에서 기묘한 전술로 적의 두목을 꺼꾸러뜨리고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일망타진하였다.

이것은 장군이 이룩한 나라위한 싸움에서의 첫 승리였다.

그러나 이때 병마절도사는 리순신의 공로를 시기하여 그가 싸움에서 패했다고 조정에 거짓보고를 하였다. 구실을 만들어 장군을 없애버리고 자기의 죄과를 면하려 한것이다. 이로 하여 리순신은 죽음이나마 겨우 면하고 관직에서 떨어져 병졸이 되는 화를 당하였다.

하지만 그의 애국충정만은 누구도 허물수 없었다.

리순신은 그후 전라도 조방장을 거쳐 44살에 다시 정읍현감으로 올라갔고 그다음 진도군수로 되였다가 1591년 2월 46살때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되였다.

리순신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되자 사간원의 편협한자들이 이것을 반대해나섰다. 벼슬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것이다.

그러나 리순신의 사람됨을 잘 아는 우의정 류성룡이 인사문제를 보는 리조판서를 겸하고있었기에 이것은 눌리우고말았다.

이에 선조왕도 딱 잘라 거절했다.

《리순신의 사람됨을 뜯어고치라면 고칠수 있겠는지는 모르겠다만 좌수사에 임명한 벼슬만은 다시 고치지 못한다.》

리순신의 급제는 집안의 경사였다.

당시 그에 대한 평은 몸집이 크고 말이 없는 사나이로서 아첨기란 조금도 모르는것이 흠이라는것이였다.

리순신이 처음 임명되여갔을 때 수군의 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함선들은 깨여져 거의 쓸모가 없는것들이였고 그 수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규률도 문란하였다.

리순신은 바다로 기여드는 적은 바다에서 쳐야 한다는 주장밑에 일부 관료배들이 륙군만을 중시하던 견해를 바로잡고 수군강화에 낯을 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군의 규률을 강화하고 정연한 명령체계를 세웠으며 참모장격인 우후를 비롯한 지휘관들이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엄격히 통제해나갔다.

이와 함께 수군기지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들과 인민들을 동원하여 성을 쌓고 봉화대를 보수하고 항구를 정비하였으며 적의 배가 바다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쇠줄을 가로 매여 수중장애물을 만들었다.

그는 언제나 병사들과 자신을 따로 세워본적이 없었다. 하기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때고 내가 거처하고있는 좌수영에 와서 여러분의 눈으

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리밥에 나물국을 먹을 때 내가 쌀밥을 먹는다면 그것은 내가 곧 여러분을 배반했다는 증거로 될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명이불을 덮고 잘 때 나도 무명이불을 덮고 잘것이며 여러분이 적과 싸운다면 나는 안전한 곳에서 호령만 하고있지는 않을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생사를 같이한다는것, 이것이 곧 나의 신념입니다.》

이 말은 병사들의 가슴을 울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지로 그렇게 행동하였다.

언제나 수군병사들속에서 그들과 함께 무기를 만들었고 적을 치기 위한 전술을 의논하였다.

특히 리순신은 수군의 전투력강화에서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건조하였다.

그는 수공업자들과 수군병사들의 지혜와 기술을 모아 배우에는 송곳같은 큰 쇠못을 세운 철갑이 씌워져있고 수십문의 화포로 장비된 위력한 전함인 거북선건조에 성공한것이다.

거북선이 위력있는 싸움배였다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화약을 리용하는 여러가지 포들로 장비된 철갑선이라는것이다.

거북선은 우에 철갑을 덮고 또 그우에 열십자의 좁은 길을 내놓고는 전부 칼과 송곳을 꽂아 사방 발을 붙일수 없게 하였고 좌우 량쪽으로 각각 수많은 화구를 뚫어놓았다. 그리고 배안에서는 밖을 내다볼수 있도록 되였으나 밖에서는 전혀 안을 들여다볼수 없게 하였고 수백척의 적선이라도 뚫고들어가 화포를 쏘게 만들었다.

그 구조를 자세히 뜯어본다면 나무판 10쪽을 잇대여 만든 본판(밑판)의 길이는 64자 8치였고 좌우측 현판이 우로 올라가면서 점점 길어지고 일곱번째 판의 길이는 113자였으며 본판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7자 5치에 달했다.

판자들의 두께는 어느것이나 4치였고 배의 머리, 허리, 꼬리부분의 너비가 각각 12자, 14자 5치, 10자 6치이다.

배의 길이와 너비비률이 약 8 대 1이고 너비와 높이의 비률은 약 2 대 1이다.

그 모양은 포물선형태이며 앞뒤로 길죽하고 높이는 낮다.

노가 좌우에 각각 10개씩 달렸고 그 속도는 당시 배들의것으로 볼 때 가장 빠른것이였다.

그리고 운행중의 안정성을 위해 좌우쪽 2층판가운데 아래칸 방들에 무기와 철물 등 무게가 나가는 물건들을 쌓아두게 하였다.

또한 각종 화포들을 26개나 싣고 좌우와 앞뒤 할것없이 마음먹은대로 불벼락을 날릴수 있게 하였다.

이런 특이한 배이므로 일본군의 한 군사는 이것을 자기 눈으로 보자 금시 두눈을 크게 뜨며 이렇게 비명을 질렀다는것이다.

《온통 철로 장비한 배가 있어서 일본의 포로써는 깨뜨릴수가 없습니다.》

또한 명나라 군사기술책의 하나인 《해방의》에는 조선의 거북선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였다.

《조선의 거북선은 배돛을 세우고 뉘고 마음대로 하고 바람이 거슬러 불거나 밀물이 빠지거나를 막론하고 언제나 다닐수 있다.》

리순신은 이런 위력한 전함을 여러척 건조하였고 병사들의 훈련을 강화하여 전투조법과 사격에 익숙하도록 준비시켰다.

이러한 때인 1592년 4월 일본놈들은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총지휘하에 20만대군으로 우리 나라를 불의에 침공해왔다.

봉건정부에서는 그제야 수습대책을 세우느라고 소동을 피웠으나 적의 대군을 막아낼수가 없었다.

선봉장인 고니시 유끼나가(소서행장)가 거느린 일본침략군의 한 무리는 상륙한지 20일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평양을 강점했다.

그리고 가또 기요마사(가등청정)가 이끈 한 무리는 함경도에 침입하여 살인, 방화, 략탈을 악랄하게 감행했다.

그러나 왜놈들은 우리 군민의 가슴속에 활화산의 용암으로 간직돼있는 불타는 애국심을 보지 못하였다.

리순신은 왜적을 기어이 소탕하고야말리라는 자기의 열화같은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바다를 두고 충성 맹세하니
고기와 룡도 감동하고
산을 두고 큰뜻 다짐하니
풀과 나무도 이 마음 알리로다

리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이 거만한 놈들의 오산을 깨뜨리고 첫 승리의 개가를 올린것은 1592년 5월에 있은 옥포해전이였다.

왜구의 침공소식에 접한 리순신은 함선과 전투기재들을 정비하고 좌우영관하 수군들을 총동원했으며 바다가고을 장정들을 수군에 입대시켰다.

그리하여 4월 19일 하루사이 리순신부대에 입대한 병사만 해도 7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경상우도수군은 지휘관인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원균의 비겁성으로 하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움배와 전투기재들을 바다에 버린 후 모두 도망치려고 하였다.

리순신은 5월 4일 출전의 길에 올랐다.

그는 판옥선 24척과 협선 15척, 포각선 46척 등 모두 85척의 배를 이끌고 본영을 떠나 옥포(거제도)앞바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적의 배 50여척이 정박하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적은 륙지에 올라 략탈한 물건들을 배에 싣고있었다.

리순신은 맹렬한 공격으로 적선을 바다기슭으로 압축하면서 불화살을 쏘고 화포를 퍼부어 격침격파하였다.

옥포싸움에서 리순신의 수군은 26척의 적선을 격침하였고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련이어 18척을 불살라버림으로써 그날 싸움에서 44척의 적함을 바다에 처넣었다. 뿐만아니라 수많은 적을 살상하고 쌀 300여섬과 적지 않은 무기, 군수물자들을 로획하는 전과를 올리였다. 이것은 임진조국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거둔 첫 승리였다.

1차출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둔 리순신은 2차작전에서 더 큰 전과를 올리였다.

5월 29일 사천앞바다에 도달한 조선수군은 거북선을 적선사이로

돌진시키면서 총통으로 포탄을 퍼부었으며 거북선의 뒤를 따라 《학익진》(마치 학이 나래를 편것과 같은 전투서렬)을 펴가면서 적진을 향해 맹렬히 공격하였다.

결과 일거에 12척의 함선을 침몰시켰다.

당포와 당황포에서의 싸움에서도 74척을 격침시키고 적장 10여놈을 비롯하여 수천의 적을 소멸하였다.

리순신은 적선을 치는데 유리한 계선까지 적들을 유인한 다음 량쪽 측면으로 포위진을 치면서 거북선을 앞세워 공격해들어갔던것이다.

그리하여 적의 주력인 구루시마함대를 전멸시키고 침략자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

당시 적의 우두머리인 고니시 유끼나가는 조선수군의 활동을 저지시켜보려고 리순신에게 이런 글을 보내여왔다.

《일본의 장수들은 모두가 화친을 희망하여 무기를 걷어가지고 돌아가려 하니 당신들도 함선을 이끌고 속히 본거지로 돌아갈것이며 일본군사들의 군영에 접근하여 쓸데없는 싸움을 일으키지 말것이다.》

장군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왜적들이 있는 거제, 웅천, 김해, 동래 등은 모두가 우리 국토인데 우리에게 일본군영에 접근하지 말라는것은 무슨 리유이며 우리에게 본래 있던 지역에 즉시 돌아가라고 하니 돌아갈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기지에 돌아온 리순신은 적들의 새로운 작전을 격파하기 위한 3차출전을 단행하였다. 그는 7월 8일 조선함대를 이끌고 견내량으로 향하였다.

좁은 해협인 견내량에서는 거북선이 자유로이 활동할수 없으므로 한산섬 앞바다로 적들을 유인하였다.

거짓퇴각하는 조선수군의 유인술에 걸린 왜적들은 뜻밖에 덮쳐드는 드세찬 공격에 도주할 구멍만을 찾았다.

각종 포들이 세차게 불을 뿜었고 드넓은 한산앞바다는 련속 적선을 삼켜버렸다.

바다의 거물인 거북선에 올라 적진 깊이까지 들어가 맹활약하던 리순신의 명령이 거듭 떨어졌다.

《수급을 따는데 정신을 팔지 말고 오직 싸우는데만 힘쓰라!》

수군병사들은 적선에 뛰여올라 왜놈들의 목을 가차없이 베고 또 베였다.

한산도해전에서 리순신의 수군은 적선 73척가운데서 59척을 격침시키고 적병 9천여명을 소멸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 싸움을 력사에서는 한산대첩(한산에서의 큰 승리)이라고 한다.

조선수군은 이어 안갈포해전에서 40여척의 적함을 격침시키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8월말에 4번째로 출전하였으며 9월 1일에는 470여척의 적선이 집결되여있는 부산항으로 166척의 함선을 거느리고 대담하게 공격해들어갔다.

이 전투에 대하여 리순신은 정부에 올린 보고에서 이렇게 썼다.

《전후 네차례 전쟁에 참가하여 열번 접전에서 매번 승리하였다고는 해도 장병들의 공로로 말하자면 이번 부산앞바다싸움보다 더 큰것이 없습니다.

전번 바다싸움에서는 적선의 수효가 많아야 70여척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470여척의 적선이 늘어선 가운데로 위풍당당하게 뚫고들어가서 온종일 공격하여 적선 100척을 격침하여 적들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겁에 질려 목을 옹크리게 하였습니다.》

부산항전투에서 조선수군은 적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타격을 안겼다.

리순신의 지휘하에 이룩한 조선함대의 승리는 일본침략자들의 《수륙병진계획》을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평양과 함경도일대에 기여든 일본륙군이 더 견지할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리순신의 명망이 높아지자 이를 시기한 원균은 그를 모해하기 시작하였다.

원균으로 말하면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서 일본군의 침입시 겁에 질려 도주하였다가 리순신의 배에 붙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

한자였다.

원균은 리순신을 걸어 그는 해상에서는 안하무인의 왕이 되려 한다느니, 1차해전때에는 마지못해 움직였다느니 하는 등 터무니없는 죄를 들씌워 그를 3도수군통제사로부터 해임시키는 동시에 서울로 압송하려 하였다.

리순신이 죄인으로 몰려 한산도를 떠날 때 수군병사들은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흐느껴 울면서 놓지 않았고 인민들은 대성통곡을 하였다.

《절도사님, 우릴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린 누구와 싸운단 말입니까?》

그리고 조정의 많은 관리들도 이를 반대하였으며 함경도에서 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올라온 문인들과 무인들은 자기들은 벼슬자리를 하지 않고 병졸로 살겠으니 장군을 석방해달라고 상소하였다.

한편 리순신을 걸고 늘어져 3도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은 싸움마다에서 패하였다. 1597년 7월 원균은 칠천도앞바다에서 적들에게 크게 패하여 조선함대를 전멸상태에 몰아넣었을뿐아니라 자신도 죽었다.

적들은 다시금 3개 부대로 맹공격을 해왔다.

조정에서는 8월에 리순신을 3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리순신의 재임소식에 접한 장병들과 인민들은 려수로 가는 길가에 서서 그를 기다렸다.

그들중에는 철룡이라는 청년과 그의 아버지도 있었다.

그들부자는 모두 리순신에게 참전을 요구하였다.

《철룡은 수군에 참전하라. 하지만 아버님이야 그 나이에 군역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저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왔소이다. 그러니 이 난시에 수군에 나서기를 주저한다면 어찌 이 땅에 태를 묻은 인간이라 하겠소이까?》

《…그렇다면 부자간이 모두 참군하도록 하라.》

이렇게 철룡이의 부자는 참군이 허락되였다.

리순신은 이때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였지만 조금도 흔들림없이 국난을 먼저 생각하여 마음을 다잡고 수군영을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리순신이 당도하니 전함 12척과 120여명의 수군병사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리순신은 조금도 락심하지 않고 다시금 함대를 일떠세우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력하였다.

봉건정부에서는 수군의 형편을 걱정하여 당분간 륙지에 오를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리순신은 이런 편지를 왕에게 올렸다.

《임진년(1592년)으로부터 5～6년동안 적들이 감히 전라, 충청 두 도를 공격하지 못한것은 중요하게는 우리 수군이 그 길목을 막고있었기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전함이 오히려 12척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 막는다면 아직도 승리할수 있습니다.

이제 만일 수군을 전페하면 이는 적이 다행으로 여길바이며 그것은 장차 충청도를 거쳐 한강에 다달을것이니 이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전함이 비록 적으나 변변치 못한 제가 아직 죽지 않은 조건에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수이 여기지 못할것입니다.》

리순신은 수군대렬을 수습하는 한편 수군기지를 진도로 옮겼다. 따라서 수군대렬은 늘어나고 무기와 군량도 점차 확보되여갔다.

9월 14일 리순신은 수백척의 적선이 전라도로 향하고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리순신은 울돌목(명량해협:해남군과 진도사이의 바다)에서 적들을 칠 작전적구상을 무르익혀갔다. 그런데 이때 철룡이부자가 찾아왔다.

《수군통제사님, 바로 울돌목에서 적을 쳐야 한다고 생각하나이다.》

철룡이부자는 자기들의 계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신통히도 그것은 리순신의 작전적구상과 꼭 같았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있던중이요. 내 생각과 꼭 같구려.》

리순신은 철룡이부자의 두손을 굳게 잡아쥐였다. 자기를 찾아온

그들이 한없이 고마왔던것이다.

리순신은 울돌목에 쇠사슬을 늘이는 등 싸움준비와 함께 병사들을 결사전에로 불러일으켰다.

9월 16일 아침, 330척의 적함과의 대격전이 벌어졌다.

조선수군의 력량을 렴탐한 적들은 기세등등하여 달려들었으나 리순신은 거북선을 앞세워 일자형으로 대형을 짓게 하고 포화를 들씌웠다.

적장 구루시마가 탄 적지휘함을 일격에 격침시킨 리순신은 썰물때를 기다리면서 적함을 맹렬히 공격했다.

썰물이 시작되자 좁은 물목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적함들은 이미전에 걸어놓은 쇠사슬에 걸려 부딪치고 깨여지여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날의 울돌목해전에서 리순신은 10여척의 전함으로 30여척의 적선을 격침시키고 4 000여명의 왜적을 소멸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리순신은 1598년 2월 지휘처를 고금도로 옮기고 함대재건을 다그치면서 련속 적군을 들이쳐 승리를 안아왔다.

여기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밤 리순신은 운극당에서 지휘관들과 함께 함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을 의논하다가 늦게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휘영청 밝은 달밤, 순찰장교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밤은 우리 수군이 편히 보낼수 있겠네. 달이 이처럼 휘영청 밝으니 말일세.》

리순신은 급시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이런 밤이면 적들이 준동할수 있기때문이였다.

리순신은 순찰장교들을 불러 싸움준비를 하게 하며 구체적인 임무를 주었다.

《웬일이야, 이런 좋은 밤에?…》

병사들과 장교들은 리순신의 의도를 모르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때 척후에 나갔던 배들이 급히 달려와 적들의 기동에 대해 보고하는것이다.

리순신은 급시 전함들에 임무를 준 다음 때를 기다리게 하

였다.

야음을 리용하여 불의습격으로 조선수군을 요정내려던 적들은 거침없이 달려들었으나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던 우리 수군의 포화에 걸려 순식간에 모두 물귀신이 돼버렸다. 싸움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정말 우리 통제사어른은 귀신보다 더 신묘하단 말이야.》

《글쎄 적의 래습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가?》

병사들은 아무리 해도 리해가 닿지 않아 리순신에게 물어왔다.

《통제사님, 어쩌면 그렇게 귀신처럼 알아맞혔소이까?》

리순신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허, 그거야 지난 밤 자네가 순찰을 돌면서 나에게 귀띔해주지 않았나.》

《제가 말이오이까?》

《그렇네. 내가 귀신보다 더 신묘해서 싸움에서 이긴것이 아니라 자네들이 일깨워준 덕분에 지난 밤 해전에서 이긴것이지.》

1598년 8월 련전련패에 울화가 치밀어오른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죽어버리자 왜놈들은 500여척의 함선을 들이밀어 총퇴각을 기도하였다.

리순신은 한척의 적선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을 작정을 하였다.

빠져나갈 길을 찾던 선봉장 고니시는 몇척의 배에 뢰물을 실어 리순신에게 보내면서 귀로를 열어달라고 애걸하였다.

리순신은 이에 크게 분개하였다.

《임진년이래로 적을 무수히 잡아 이미 얻은 총검도 산같이 쌓였는데 또 원쑤의 물건을 무엇하랴?

우리 나라 사람은 왜놈의 대가리를 보물로 치는데 이따위 총검이 무슨 보물이냐?》

리순신은 적의 요구를 단호히 일축해버렸다.

11월 19일 아침 리순신은 500여척의 적선이 있는 로량(경상남도 남해군)으로 출격하였다. 리순신은 불붙는 배들을 적진에 돌입시켜 적선들이 화기를 피해 관음포로 몰려들게 하였다. 이리하여 적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였고 해전사에 없던 대격전이 시작

되였다.

조선수군은 적들에게 련속 무리죽음을 주었고 적선을 불태워 버렸다.

그러나 최후발악하는 적들도 만만치 않았다. 싸움은 처절하였다.

적들은 저들의 수적우세만을 믿고 덤벼들었다.

리순신은 거북선의 재빠른 기동과 위력한 포화력으로 적진을 혼란에 몰아넣었고 점차 포위망을 좁히면서 드센 공격을 들이대였다.

싸움은 바야흐로 조선수군의 승리로 끝날 림박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순간 왜구의 흉탄이 리순신의 옆구리를 꿰뚫었다.

리순신은 넘어지면서 곁에 있는 맏아들과 조카를 시켜 방패로 몸을 가리우게 하였다.

《지금 싸움이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것을 알리지 말라.》

리순신은 지휘기발을 조카인 리완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리순신의 나이는 53살 한창이였다.

이날 로량해전에서 조선함대는 무려 200여척의 적선과 근 2만여명의 적병을 바다물속에 처넣었다.

승리의 함성드높이 병사들은 리순신을 찾았다.

그러나 통제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같은 리완의 대답에 병사들은 너무도 억이 막혀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통제사님이 가시다니. 아, 철덩어리 같은 사람도 과연 간단 말인가.》

《우리를 두고 정녕 가셨단 말이오이까?》

병사들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눈물에 부어오른 두눈을 문지르며 리순신을 마구 흔들었다. 하지만 리순신은 눈을 뜰줄 몰랐다.

이렇게 7년간이나 계속되던 임진조국전쟁은 로량해전의 대승리로 막을 내렸다.

리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은 선조왕이하 모든 군민의 깊은 슬픔을 자아냈다.

《그대가 이 나라를 건졌도다! 하건만 이 땅에 이미 그대가 없으니 이 원통함을 어디에 하소한단 말인가!》

선조왕은 이렇게 통곡하며 리순신의 장례를 국장으로 하도록 지시하였다.

조국에 바친 명장 리순신의 애국지성은 력사에 길이 남아있다.

실학자 리수광은 《충무사》에서 리순신을 찬양하여 이렇게 노래하였다.

거룩하여라 이 나라 구원하신 장군이시여
백절불굴하여 우리 조선 살렸구나

1905년 로일전쟁당시 로씨야의 발뜨함대를 격파한 일본의 해군제독 도고 헤이하찌로는 전승기념연회에서 《당신이야말로 트라팔가해전에서 련합함대를 격파한 영국의 해군제독 넬슨을 릉가하는 군신》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알기에는 넬슨은 군신으로 될만한 가치가 없다. 진짜 군신이라고 말할만한 사람은 조선의 리순신장군이다. 나는 그에 비하면 그의 하사관에도 지나지 않을것이다.》

이처럼 리순신은 세상사람들을 크게 놀래운 바다싸움의 명장이였다.

리순신의 봉분은 그의 고향인 아산에 있다 한다.

그의 저서로서는 《충무공전서》(14권)가 전해지고있다.

(리순신의 자는 여해, 시호는 충무공이다.)

우국충신 조헌

충신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알아보는 법이다.

평시 봄이면 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태평하여 노래를 부르고 처자권속을 거느릴 때에는 충신의 얼굴이 그리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란이 일어나거나 나라앞에 한몸을 내댈 일이 생기면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줄을 긋듯이 명백해지는것이 바로 력사의 진리이다.

1592년 왜적들이 쳐들어오자 충청도일대에서 의병의 봉화를 올린 인물은 당시 유생이였던 조헌이였다.

관료배들이 모두가 살구멍을 찾아 허겁지겁할 때 조헌은 나라가 있고야 백성도 있다면서 4월 하순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격문을 발표하였다.

격문에서 조헌은 왜적의 야만적인 행위를 세세히 폭로하고 원쑤치는 싸움에 일떠설것을 격조높이 호소하였다.

《나라를 위하여 원쑤를 쳐부시는데 한결같이 일떠나서라!》

격문의 구절구절은 백성들을 나라 지키는 싸움에로 불렀다.

조헌은 중종 39년인 1544년 6월 김포군 서감정리에서 아버지 응기와 어머니 최씨에게서 태여났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례의도덕이 밝고 몸가짐이 의젓하였으며 또한 부모들에게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는 다른 애들이 모두 나가서 장난을 할 때에도 늘 부모들의 바쁜 일손을 도와나섰고 짬나는대로 공부에 열중하였다. 그가 얼마나 공부에 직심스럽고 대가 굳었는가는 다음의 일화가 잘 보여준다.

아지랑이 곱게 피여나는 어느 봄날이였다.

경기도 김포땅인 조헌의 고향마을 큰길 둔덕에는 커다란 정자나

무 한그루가 높이 솟아있는데 이날도 마을의 여러 아이들이 나무밑에 모여앉아 천자문을 읽고있었다. 이때 둔덕아래 큰길로 높은 관직의 량반행차가 어마어마한 차림새로 지나가고있었다.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 이런 행차는 흔히 있는것이 아니여서 마을아이들은 읽던 글을 줴버리고 량반행차구경에 나섰다.

그러나 량반의 행차가 옆을 다 지나가도록 한 아이만은 담담하게 그냥 앉아 그대로 글을 읽고있었다. 여기저기를 두루 살피면서 위세를 돋구던 량반대감은 하도 이상스럽고 한편 기특하기도 하여 행차를 멈추게 했다. 그리고는 가마에서 내려 그 어린아이에게로 다가갔다.

《얘야, 다른 애들은 모두 행차를 구경하는데 너만은 어찌 그냥 앉아있느냐?》

그러자 소년은 냉큼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여무지게 대답하였다.

《우리 아버님은 오직 글읽기에만 마음쓰라고 하셨습니다.》

소년의 대답에 관리는 더욱 마음이 동하여 집은 어데이고 누구의 자손인가를 캐여묻고는 아버지를 찾았다.

그리하여 인츰 아버지가 불리워왔다.

량반은 높은 관직에 있는 대가집자식들이 남의 집 일을 해주듯이 공부하는 꼴을 보아오다가 이렇게 착실히 학업에 열중하는 소년을 보게 되자 못내 감동되였던것이다.

《그대의 아들은 보통이 아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참다운 학자 한사람이 나오리라는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량반은 머리를 끄덕이며 의미있는 웃음을 짓고나서 다시 길을 떠났다. 이 소년이 바로 그때 5살에 났던 조헌이였다.

그는 10살때부터 김황이라는 선생에게서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밤이면 광솔불을 지펴놓고 그 불빛에 글을 익혔고 낮에 부모님들을 도와 밭일을 할 때면 밭두렁에 책받치개를 만들어 그우에 책을 올려놓고서 쉴참마다 읽었다.

그런데 조헌은 불행하게도 1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였다.

그는 매우 슬퍼하면서 어머니의 상여를 례절있게 따랐으며 그 나

이를 의심할 정도로 모든것에 어른같이 처신하였다. 때문에 조문을 왔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였고 아들만은 잘 두었다고 칭찬하였으며 함께 진심으로 슬퍼하고 위로하였다.

조헌은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봉상시 첨정벼슬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벼슬길은 그리 순탄치 못하였다.

그것은 그의 대바른 성미때문이였다.

조헌은 그 어떤것이건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였다. 그는 법을 지키는데서는 한치의 양보도 몰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았다.

그는 자기의 옳은 주장이면 임금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가 교서관 정자로 있을 때의 일이다.

조헌이 궁전수직을 서고있는데 대비께서 불공을 드리려 하니 급히 향을 바치라는 분부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 향은 나라제사에 쓰는것이지 대비께서 불공드리는데 쓰는것이 아니라고 두말없이 거절해버렸으며 이후 이런 일은 법에 어긋나는것이라고 임금에게 글까지 올리였다.

사실말이지 웬만한 관리면 향같은것이야 하고 닁큼 내였겠지만 조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공과 사를 엄밀히 따지였고 그 향은 나라의 공적인 행사에 쓰는것임을 어길수 없는 법으로 여기였던것이다.

성이 치받친 왕은 그를 벼슬에서 파면시켰으나 여러 대관들의 추천으로 다음해에 복직되였다. 하건만 조헌은 의연히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헌은 그후에도 향을 바치라는 대비의 분부를 거절해버렸다. 임금은 금시 펄쩍 뛰였으나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리여 겨우 진정되였다고 한다.

당시 나라형편은 매우 뒤숭숭해있었다. 인차 바다건너 왜적들이 쳐들어오리라는 소문이였다.

이것은 1591년 3월 황윤길과 김성일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온 후 더욱 심해졌다.

그 시기 정부안에는 서인파와 동인파가 생겨나 파벌싸움에 열을 올리고있었다. 누가 더 큰 권력을 쥐는가 하는 파벌싸움이였다.

이 권력쟁탈싸움으로 나라의 힘은 점차로 쇠진해갔고 백성들의 생활은 좀처럼 안착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일본에 갔다온 서인파에 속한 정사인 황윤길은 자기의 보고에서 가급한 시일내에 일본이 우리를 먹으려 들것이라고 하였고 부사이던 김성일은 서인파를 누르기 위해 이와는 반대로 고의적으로 사실을 외곡하여 일본은 절대로 침략해오지 않는다고 단언해나섰다.

백성들은 또한 일본이 우리의 기술을 배워 겨우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제 본성대로 우리를 깔보고 업신여기면서 은근히 때를 노리고있다는 반갑지 못한 소식들을 전해듣게 되였다. 여기에 온 나라가 격분했고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로 끓어번지였다.

언제나 대가 바르고 마음먹은 일이면 칼날이 앞을 막아도 해내고야마는 성미인 조헌은 참을수 없어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리였다.

조헌은 상소문에서 왜놈의 거만한 태도를 참을수 없는것으로 규탄하고 조정에서는 이번에 우리 나라에 온 일본인사신을 단호하게 목을 쳐서 대의명분을 하여야 할것이며 온 나라가 급히 달라붙어 싸움준비를 착실히 해야겠다는것을 제의하였다.

물론 조헌이 나라문제를 두고 어전에 간을 올리는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였다.

그는 비록 낮은 벼슬에 있었으나 누구보다도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였고 그때마다 자기의 소박한 생각을 성의껏 올렸던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임금은 그것을 본체도 하지 않았고 주제넘는 행동으로 치부하고말았다.

이번에도 조헌은 곧은 성미그대로 1586년에는 일본이 주제넘게도 조선국왕의 일본방문을 호출하는 식으로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또한 사신을 보내라는 오만무례한 요구조건을 하여온데 대해 분을 삭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조헌이 상소문을 올렸건만 임금은 대답대신 욕설과 합

께 그것을 불살라버리였다.
  조헌은 거듭 상소문을 낸 후 도끼를 들고 대궐앞에 멍석을 깔고 앉아 기다렸다. 그러나 이 일이 무사할리 없었다. 조헌은 함경도 길주로 귀양을 가게 되였다.
  하건만 조헌은 굽히지 않았다.
  귀양지에서도 조헌은 나라일을 근심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들리는 소문에 전번에 사신으로 갔던 주대없는 황윤길과 김성일을 다시 일본에 사신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혔다.
  그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더욱 강경하게 상소문을 올리였다. 그러나 이번의것은 그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되지 않는 리유로 조정에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도체찰사의 손에서 기각되고말았다. 그렇지만 조헌은 자기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상소문을 올렸다. 그것은 귀양지에서 금방 돌아온 때였다.
  상소문을 받아든 왕은 그것을 새겨볼 대신 이렇게 뇌이는것이였다.
  《이사람은 미치광이같은 상소를 올렸다. 귀양까지 갔다왔는데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광기를 부리고있으니 실로 부끄러움도 모르는자로다.》
  그리고는 또다시 상소문을 불태워버렸다.
  3일이 지난 후 대궐밖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헌은 너무도 분하여 대궐기둥주추돌에 머리를 짓쪼아 자결할 결심을 했다. 놀란 사람들이 달려들어 만류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임금을 바른 길로 돌려세우지 못한 신하로서 어찌 살기를 바랄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리에서는 선지피가 솟구쳤다.
  숱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리고 또 처치를 하여 겨우 목숨을 건질수 있었으나 의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이렇듯 의지가 강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 충정을 부패타락한자들이 알아줄리 없었다.
  조헌은 해가 흘러 임진년이 각일각 다가올수록 전쟁의 위험을 페부로 느끼였다.

어느날 그는 조상의 선산을 찾아 제사를 드리고 축을 고하였다.

《멀지 않아 란리가 일어나면 저는 목숨을 잃을것입니다. 다시는 찾아뵐 날이 없을것이오니 하직인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일부 친구들과 동네사람들은 그의 이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후 얼마 못가 그의 예언대로 일은 터지고야말았다. 왜적들이 바다를 건너 물밀듯이 쳐들어왔던것이다.

조헌은 이때 몸이 병고에 시달려 말이 아니였지만 일신을 돌봄이 없이 벽에 걸린 장검을 뽑아들고 원쑤격멸에 용약 나섰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호소에 호응하였다. 며칠사이에 조헌의 의병부대는 크게 늘어났고 싸움준비도 원만하게 갖추어졌다.

《그 어른은 한번 칼을 휘두르면 수백명씩 적을 쓸어눕힌다우.》

백성들은 모두 조헌을 이렇게 우러르며 사방에서 날마다 쌀과 병쟁기를 등에 지고 그의 부대로 찾아들었으며 이에 따라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기를 벼려쓰라고 농쟁기들을 아낌없이 보내여왔다.

그러나 평시에 조헌을 곱지 않게 보아왔고 그의 부대가 맥도 못추는 관군보다 늘어나는것을 시기질투하던 충청도순찰사는 그가 민간에서 함부로 작당하여 무기를 들고 횡행한다고 하면서 법도에 어긋난다고 걸고들었다.

그리하여 의병은 일시 흩어지게 되는 난관을 겪게 되였다.

조헌은 이에 접하여 원쑤를 눈앞에 두고 앉아서 노예가 되기를 기다릴터인가 하는 격노와 함께 또다시 격문을 발표하였다. 격문에서 그는 지방관리들의 반역적죄행을 규탄하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7월에는 애국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1 700여명이나 되는 강력한 부대를 다시 무을수 있었다.

이때 청주까지 먹어들어온 왜놈들은 부근고을들을 넘나들면서 략탈하였고 전라도에로의 침입을 획책하였다. 청주는 지리상 서울로 통하는 적의 바른쪽 길을 차단하고 전라도에로의 침입을 막는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였다.

8월 1일 조헌대장은 령규가 지휘한 다른 의병부대와 합동하여 청주탈환싸움을 벌리였다.

주공을 맡은 조헌부대는 서문을 쳐들어갔다.

의병들은 적들이 퍼붓는 총탄과 화살속을 뚫고들어가 서쪽문의 성벽을 파괴하고 성안으로 돌입하였다. 의병들의 용맹한 기세에 적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그날 소나기가 퍼붓고 일기가 매우 나빠 공격이 일시 중단되였다. 그러나 의병의 위력에 얼마나 혼이 났던지 적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더는 지탱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렸다.

이리하여 의병들은 8월 1일 청주성을 완전히 탈환하는 거대한 전과를 올리였다. 그리고 8월 27일에 와서는 금산에 있는 적의 주력인 고바야가와부대와 다찌바다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출전했다.

그 기간 조헌부대는 크고작은 전투를 벌리여 원쑤놈들을 죽음의 함정에 몰아넣었다.

그러므로 조헌의병부대라면 적들도 어지간히 떨고있는 형편이였다.

조헌은 금산싸움이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력량대비에서 미약하다고 보고 권률에게 협동작전을 벌릴것을 통지하였었다.

그런데 그쪽에서 긴급한 사정으로 단 며칠간 기일을 조금 뒤로 물리자는 회답이 적들과 접전을 앞둔 시각에야 와닿은것이다.

《안되지, 안돼. 이 철천지원쑤들을 물어뜯을것이요, 뜯어서 버릇을 가르쳐주어야 하겠소.》

조헌의 주위에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 700의 의병들이 서있었다.

그리하여 1만의 적들과 700의사들의 판가리격전이 벌어졌다.

적들은 의병들의 력량이 얼마 안되며 예비부대가 없다는것을 타산하고 3개 부대로 반격해왔다.

의병들은 맹렬한 공격으로 두차례의 적의 기도를 물리쳤지만 왜적들은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10배가 넘는 적들의 세번째 반격을 물리치고나니 화살이 떨어지고 많은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조헌대장은 싸움의 앞장에서 군사들을 이끌었고 그들과 한몸이 되여 돌을 굴리고 화살을 날렸다.

금산싸움은 그야말로 치렬하였다.

의병들은 대오의 앞장에 선 조헌의 용감한 모습에서 자기들을 되찾았고 용기백배하여 나섰다.

화살이 떨어지자 칼을 휘둘러댔고 칼이 부러지면 돌을 던지고 이발로 적을 물어뜯었다.

이때 한 부하가 조헌에게 싸움의 승산을 말하면서 일시 뒤로 물러나 준비를 하고 다시 접전하는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기했다. 그러자 조헌은 결기에 넘쳐 이렇게 대답하였다.

《장부가 국난을 당하여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이 땅이 바로 내가 죽을 곳이다.》

조헌은 의병들에게 마지막육박전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만 나갈 길만이 있을뿐이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죽으니 이 아니 떳떳하랴. 죽고살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에서 의병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조헌이 판가리결전에 나서자 의사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나섰다.

조헌은 량손에 두개의 장검을 거머쥐고 적진을 향해 달려나갔다.

적진에서는 급기야 혼란이 일어났다. 달려들던 놈들은 불사신같은 의병들의 기세에 눌려 황급히 도망쳐버렸다.

진지로 돌아온 조헌에게는 한팔만이 남아있었다.

상처에서는 붉은피가 흘러 옷자락을 적시였지만 그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얼마간 숨을 돌린 왜적들은 또다시 덤벼들었다.

조헌은 자신이 넘겨준 칼을 억척스럽게 틀어쥐고 적진을 노려보는 사랑하는 아들인 완기의 름름한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이놈들아, 이 칼을 받아라!》

조헌의 벼락같은 호령소리와 함께 의병들은 노도처럼 적진으로 달려나갔고 싸움은 바야흐로 최후의 순간으로 육박했다.

삽시에 적의 시체는 산을 이루었다. 의병들은 마지막순간까지 원쑤를 베고 치고 받고 쓰러뜨렸다.

그날 조헌과 의사들은 해가 지도록 결사의 싸움을 벌리였으며 모

두가 금산벌에서 순국하였다.

조헌대장은 마지막순간 왜적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릴것을 자기의 의병들에게 부탁하였고 군사들은 그 뜻을 받들어 의로운 최후를 마쳤던것이다.

금산싸움에서 왜적들은 만회할수 없는 손실을 당하였다. 적들은 제놈들의 시체만 해도 련 3일간을 실어날랐다고 한다. 그리고 금산에서 도망을 쳤고 무주와 옥천의 적들도 비명을 지르며 퇴각하고말았다.

이 시기 인민들로 무어진 의병들의 피어린 싸움은 자기들이 나서자란 향토를 지켜내려는 애국의 발현이였다.

이것으로 하여 적의 후방은 곧 전선으로 전환되였고 적들은 기본전선의 병력을 덜어내여 후방에 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또한 의병들의 싸움은 적들의 보급로를 차단하였으며 원쑤들로 하여금 공간적제한이 없는 포위속에 허덕이게 하였다. 여기서 조헌은 커다란 몫을 담당하였다.

당시 왜적들은 의병들의 기세에 혼쭐이 나서 본국으로 보낸 보고서에 이렇게 쓰기까지 하였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일본군을 왜구로 생각하고 산에 숨어서 적은 인원으로 만나기만 하면 활로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 지금의 인원으로는 이 나라를 점령하기 어렵다.》

5월 20일 적장 모리 데루모도가 보고서에 지적한 부분이다.

의병들의 맹렬한 항전은 한편 전방에서 침략군의 전진을 저지와해시키고 관군으로 하여금 공격준비를 갖추어 반격에로 넘어갈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헌은 충청도를 막아나섰던 의병대장으로서 이름이 높다.

조헌의 곧은 성격과 충절에 관하여서는 16세기 국문시가의 대표자인 송강 정철과의 일화가 전해진다.

조헌은 정철이 관찰사로 있을 때 전사도사를 지내였다.

직무에 있어서 그때 조헌은 정철의 하급이였지만 그의 지나친 술버릇에 대해서는 웃사람이라고 하여 절대로 묵인하지 않고 그자리

에서 충고를 주군 하였다. 정철은 술을 매우 좋아하였으므로 때로 처신을 바로하지 못하고 주정을 부리였던것이다.

어느날 조헌은 정철에게 따끔한 소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렇게 아픈 소리를 주저없이 하였다.

《고을의 원이 백성의 피기름을 짜내여 좋은 음식을 삼고 그것으로 웃사람에게 아첨을 하며 도의 감사된분이 백성들을 살리는데는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술마시는것만 일삼는다면 이 어찌 백성의 피를 마시는것과 다르겠습니까? 제발 술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정철은 속이 뜨끔하였으나 이제는 고질화된 그 버릇을 당장에 뚝 떼버리기 힘든 노릇이였다. 때문에 그후에도 정철은 술을 계속 마시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조헌의 충고를 생각하였다 한다.

후에 정철은 해남현의 아는 사람을 찾아 그와 또다시 한잔 들게 되였다. 주인이 놋바리에 꽃청주를 찰찰 넘치게 부어주어 정철이 그것을 받아놓고보니 마침 조헌의 충고가 생각키웠다. 그리하여 그는 그자리에서 조헌의 말을 고맙게 여기는 심정을 담아 유명한 시를 남기였다.

조헌이 세상을 떠난 다음 임금 선조는 그에게 가선대부 리조참판의 벼슬을 주었으며 선조 26년에는 왕세자가 그의 아들을 불러 쌀과 베를 내리여 아버지의 제사를 잘 지내도록 일렀다고 한다.

그리고 1603년에는 충청도, 전라도의 선비들이 조헌이 전사한 곳에 그를 잊지 않기 위해 비를 세웠다.

다음해에 봉건정부는 조헌과 그의 아버지에게 리조판서의 벼슬을 내리고 일등공신으로 봉하였다.

평양의 명기 계월향

1592년 4월 왜적들은 기고만장하여 명나라로 가는 길을 잠시 빌려달라는 얼빠진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700척의 병선에 20만 대군으로 부산진을 거쳐 동래성으로 달려들었다.

바빠맞은 선조왕은 군기고의 녹쓴 무기들을 떨리는 손으로 가리키며 왜적들을 막으라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서울을 버리고 평양으로 옮겨앉았다.

그리고는 또다시 평양사람들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의주로 들어가버리였다.

3도순변사로 파견된 신립이 군사들을 이끌어 충주까지 갔지만 그만 첫 싸움에서 쓰러졌다. 왕의 항복을 받으려고 이리떼마냥 달려들던 고니시 유끼나가(소서행장)는 림진강을 건너 평양으로 기여들었다.

하지만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자기들의 고향땅을 굳건히 지켜온 평양성백성들은 침략자를 용서하려 하지 않았으며 주먹을 부르쥐고 싸움에 떨쳐나섰다.

련광정에 자리를 잡은 좌의정 윤두수는 수성장(방어사령관)이 되여 부벽루부근과 대동문두리에서 싸움준비를 하며 을밀대주변 소나무들에는 수많은 허수아비들을 만들어 원쑤놈들에게 군사의 수가 많아보이도록 하였다.

한편 늙은이들과 녀인들은 우는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피난길에 올랐다.

나서자란 정든 고향을 두고가는 서러운 눈물이 그들의 볼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뒤를 돌아보고 돌아보아도 살판치는 왜놈종자들뿐이니 할수 없는 일이였다.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북으로 옮기는 피난민행렬속에는 평양성의 기생이였던 계월향이도 끼여있었다. 그 역시 어머니의 등을 밀며 보짐을 머리에 올려놓은채 힘없이 걷고있었다. 그의 고운 눈가에도 눈물이 가랑가랑 고여있다.

(과연 떠나야 한단 말인가. …)

평양의 손꼽히는 명기 계월향, 흰눈같이 희디흰 반달얼굴에 어여쁜 자태로 서울량반들까지도 입을 벌어지게 한다는 그였다. 하기에 귀빈들도 평양에 들어서면 의례히 그를 찾아 한밤을 즐기였고 그가 그린 매화, 란초, 국화, 대나무그림을 한장 얻기에 체면마저 잊었다.

그가 타는 은은한 가야금의 선률과 구슬같은 노래가락을 한번 얻어듣는것이 큰 락이였다.

그러나 계월향은 뜻이 높고 도고하였다. 함부로 다치지 못하는 가시돋힌 꽃이였다.

비록 량반들앞에서 마음에 없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야 하고 술상을 받쳐올려야 하는 눈물겨운 처지에 있는 천한 기생이였지만 권세에 아부할줄 몰랐고 돈에 녹아들지 않는 뜻높은 녀인이였다.

그러니 피난길에 오른 그의 가슴이 더더욱 편할리 없었다.

가랑가랑 눈물고인 시선으로 변함없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그자신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것이 한스러웠다.

어머니와 함께 장경문을 지나 만수대고개까지 오르니 벌써 왜적들이 왕성탄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칠성문루에 이른 계월향의 무거운 발걸음은 떼여질줄 몰랐다.

(나를 낳아 길러준 평양, 아름다운 평양을 내 떠나다니.)

소나무밑에 주저앉은 그는 하염없이 평양을 내려다보았다.

류경이라 버들가지 춤추고 깎아지른 청류벽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 곳곳에 둘러앉은 련못들, 장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대고구려의 궁성터가 아닌가.

아, 과연 왜적들에게 먹히우고만단 말인가!

그의 머리에 시 한수가 떠올랐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함은
천한 기생이라
다를바 있으랴!

문득 머리를 쳐드니 왜적들이 벌써 평양성에 들어서고 피난길은 막혀버리였다. 장사진을 이루었던 행렬은 끊기우고 흩어진 부마와 하늘소의 울음소리, 어린애들의 애절한 소리, 조총에 맞아 쓰러지는 늙은이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들로 평양성은 한순간에 벌컥 뒤집히였다. 왜적들은 사정을 두지 않고 달려드는것이다.

계월향은 이제 더 갈수 없게 되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리를 지나오면서 치를 떨었다. 왜적들은 벌써 수십명의 장정들을 성벽아래에 세워놓고 조총을 쏘아대는가 하면 칼로 마구 란도질했다. 평양을 수비하던 군사들과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굴함이 없었고 분노에 서린 눈들은 불타고있었다.

《평양성사람들이 기어이 이 원쑤를 갚아내고야말것이다!》

《천벌을 받을줄 알아라, 원쑤놈들아!》

그들의 피타는 절규는 계월향의 피를 끓게 하였다.

《아, 이 원쑤를 어찌하면 갚을수 있단 말인가!》

아닐세라 집에 들어서니 원쑤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름다운 용모의 계월향을 본 적들은 입이 헤벌어졌다. 그리고는 저들의 대장인 소서비에게로 끌어갔다. 고운 계집을 잡아다 바치고 상을 타보자는 수작이였다.

소서비는 그를 보자 너무 좋아 싱글벙글거리며 곧장 달려들었다.

그러나 월향의 눈길은 너무도 매섭고 차거웠다.

주춤한 소서비가 이번에는 그의 등을 쓸어만지며 얼리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도 했다.

순간 모진 마음을 사려먹은 계월향은 앞에 놓인 벼루의 붓을 들어 힘있게 써내려갔다.

《이 몸을 죽일수는 있어도 욕되게는 못하리!》

이것을 들여다본 소서비는 흉물스레 웃어대더니 칼을 뽑아 목을 치려는 시늉을 했다.

하지만 계월향은 요지부동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다음순간 계월향은 소서비의 칼을 다급히 나꿔채여 적장을 죽이고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하였다.

깜짝 놀란 소서비는 재빠르게 그의 몸을 밀어던져 위기를 면하였다.

계월향은 그날부터 절식과 한숨으로 날을 지냈다.

《얘, 월향아. 한술만 들어라. 너 하나를 믿고사는 이 에미 생각도 해주려무나. 네가 없으면 나도 죽는다.》

어머니의 애원은 딸의 가슴을 칼로 에이는듯 하였다.

남편없이 오직 딸 하나 데리고 천한 기생으로 한생을 웃음없이 지내온 귀중한 어머니였다.

아,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계월향은 마음을 굳게 사려먹고 일어나앉았다.

《내 기어이 원쑤를 갚으리라! 천한 기생이라고 네놈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리라. 나도 평양에 태를 묻은 이 땅의 녀인이 아닌가!》

작은 두주먹을 쥐고 일어선 계월향은 그날부터 소서비의 심부름을 들기 시작하였다.

소서비는 의아했지만 저녁이면 의례히 계월향을 찾는것이 그놈의 일이였다. 그 얼굴만 한번 보아도 마음이 기쁘고 후련해지는것이다.

《고것 참 고르긴 잘 골랐어.》

평생을 두고 놔주고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가 다급히 들어서면서 품속깊이 감추었던 쪽지를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어머니, 누가 주었어요?》

《그전에 익혀두었던 그 영명사 스님 있지 않느냐? 오늘아침 나에게 주고 가더구나.》

(아, 그분이 보냈구나.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쪽지는 김응서가 보내온것이였다.

그때 룡강의 무관인 김응서는 성밖 미산교근방에 지휘처를 정하고 1만명의 군사들과 의병들을 집결시켜 평양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있었다.

그런데 평양성안 적의 형편을 알수 없었다. 적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무장과 군량은 어떠한지, 요즈음은 무슨 꿍꿍이를 하고있는지, 이런것들을 알아야만 작전을 펼쳐나갈수 있었다.

장막안을 뚜벅뚜벅 걸으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던 김응서의 머리에 문득 계월향의 모습이 스치였다.

《옳지, 그를…》

전부터 계월향의 인간됨을 잘 알고있던 김응서는 그와의 련계를 가짐으로써 적정을 알아내기로 하였다. 하여 도승을 통해 김응서의 편지가 계월향에게 전해졌던것이다.

편지를 받아든 계월향은 뛸듯이 기뻤다. 오래간만에 두볼에는 웃음이 피여오르고 생기가 돌았다.

계월향은 자기와 친한 사이인 옥개와 마주앉아 의논했다. 그들 둘은 적정을 탐지하여 김응서에게 보내는것과 함께 소서비의 목을 따는것으로써 왜적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의병들의 싸움에 힘을 주고 보탬을 주자고 두손을 마주잡고 약속하였다.

그날부터 계월향은 적의 내부형편을 적어 적들이 곤드레만드레 취한 짬을 타서 약속대로 연에 달아 성밖으로 날려보내군 했다.

계월향은 왜적들이 많은 병력으로 장차 의주까지 진군할 계획이라는것을 알리고 내부동정과 군량에 대해서 밝혔으며 평양성으로 들어올수 있는 통로까지 적어 알렸다.

련락을 받은 김응서는 자신이 성안에 들어가 계월향을 만나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였다.

일부 지휘관들은 그에게 아무리 뜻이 높다해도 계월향은 역시 기생이니 그를 믿고 어이 찾아가겠느냐고 굳이 말리려들었다.

하지만 한번 결심한 김응서의 마음을 돌려세울수는 없었다.

《내 기어이 소서비놈의 목을 잘라오리다!》

김응서는 무명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이고 머슴군차림에 날랜 군

사 몇을 데리고 성안으로 향했다.

계월향은 김응서가 성문앞을 지나려는것을 알아보자 오빠라 부르면서 왜 자기를 찾지 않았는가고 울면서 다가갔다.

적은 계월향의 계책에 속아 그들을 성안에 들여놓았다.

계월향은 불시에 나타난 김응서의 모습에 눈물부터 앞섰다.

《아, 이 사지판에 어떻게…》

《얼마나 고생했나, 맘고생이 여간 아닐테지.》

쩍 벌어진 김응서의 름름한 품에 계월향은 그냥 안기고싶었다.

《벌써 없어졌어야 할 잔명이 아직 남아있으니…》

《아닐세, 자네가 우리를 크게 도왔네. 그만 그치게.》

계월향은 머리를 들어 김응서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옥체무강하신지요?》

《나는 이렇게 오륙이 성성하네.》

김응서는 너그럽게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알고싶은것들을 물었다. 또한 소서비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겠다는 자기의 결심도 내놓았다. 계월향도 그놈의 목을 칠것을 생각하고있었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소서비는 온몸에 쇠비늘이 덮여있는 갑옷을 입고있어 창과 칼이 큰 힘을 쓰지 못하며 또한 그놈은 매끼 한말의 밥과 열근의 고기, 서말의 술을 먹는다고들 하니 그 힘을 당할자 없는 장사라 한다. 그놈은 잠잘 때에도 머리말에 두자루의 칼을 세워놓고 갑옷은 입은채로 눕는다고 했다.

그러니 수월히 목을 뗄수 없는 일이였다.

김응서는 이놈의 목을 기어이 따냄으로써 적의 대렬을 혼란에 몰아넣고 그 진중을 흔들어놓을 심산이였다.

《나는 그놈의 목을 치고야말겠네.》

계월향과 김응서는 야삼경에 일을 해내기로 작정했다.

이날밤도 소서비는 계월향에게로 와서 술판을 벌리였다. 계월향은 소서비에게 김응서를 자기의 오라버니라고 소개하고 같이 심부름을 들게 해달라면서 인사를 시켰다. 그리고는 소서비에게 술을 퍼먹이기 시작하였다. 서너말의 술을 마신다는 소서비는 계

월향이 청하는대로 련속 들이켜댔다.

계월향은 살풋한 눈웃음을 짓고 그놈을 추켜올리면서 술을 부어댔다.

《아이구, 정말 장수이시네. …》

게슴츠레한 눈을 들어보니 오늘은 웬일인지 계월향이 분도 더 곱게 바르고 옷깃도 더 아름다왔다.

《나, 술 좀 더 달라.》

계월향은 잔이 찰찰 넘게 술을 부으며 웃음을 지었다.

소서비가 잔을 받아들고 월향을 끌어당기려는찰나 그는 슬쩍 술잔을 다쳐 쏟아지게 하였다. 그리고는 행주를 가지러 가는척 하면서 주방으로 나가보니 벌써 김응서는 파수병들을 모두 처치해버린 뒤였다.

방에 들어선 계월향은 징글스럽게 허리를 잡아 그러안으려는 소서비의 손을 탁 밀어제끼면서 치마폭에 감추었던 고추가루를 그놈의 얼굴에 탁 뿌렸다.

《으악!》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비명소리와 함께 소서비는 두손으로 낯짝을 거머쥐고 벌떡 일어나 계월향을 세차게 들이찼다.

계월향은 그자리에 푹 꼬꾸라졌다.

순간 김응서가 날쌔게 달려들어 칼로 그놈의 목을 쳤다. 복수의 칼은 소서비의 목을 단번에 잘라버리였다. 더러운 모가지는 피투성이가 되여 땅바닥에 털썩 떨어졌다.

바람이 우수수 창문을 흔들었다.

김응서는 계월향을 안아일으켰다.

《월향이, 월향이, 눈을 뜨게. 그놈의 목이 떨어졌네. 빨리 떠나세.》

하지만 계월향은 대답이 없었다.

김응서는 계월향을 등에 업고 소서비의 목을 쥔채 성밖으로 내달렸다.

얼마후 파수를 교대하러 왔던 병졸에 의하여 사실이 알려지자 왜적들의 진중은 벌컥 뒤집히였다.

머리없는 소서비의 시체?!…

계월향이 있던 방안에서는 어지러운 술상을 비치며 초불만이 조용히 타들어가고있었다. 왜적들은 김응서를 추격했다.

벌써 날이 훤히 밝아오고있었다. 이제 두사람이 같이 적의 경계를 뚫고 성을 넘어가기에는 어렵게 되였다.

그사이 정신을 차린 계월향은 자기를 희생하여 김응서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서 저를 내려놓고 빠지시와요.》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하고?》

《한시가 급하나이다. 어서 떠나시와요. 어서…》

계월향은 숨차오르는 가슴을 누르며 김응서를 떠밀었다. 추격해오는 적의 말발굽소리는 벌써 가까이에서 울려온다.

《월향이!…》

김응서는 복수를 맹세하며 발길을 뗴였다.

계월향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여올랐다.

《싸움은 이젠 이긴것이다.》

그날 김응서는 평양성을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계월향은 적에게 체포되여 애국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 싸우다가 무참히 살해되였다. 계월향의 의로운 죽음과 적장 소서비의 목이 달아난것으로 하여 적진은 소란해지고 크게 동요가 일었다.

며칠이 지난 뒤 평양성을 둘러싸고있던 우리 군사들과 의병들은 성안을 들이쳤다. 원쑤놈들은 이리뛰고 저리뛰고 갈팡질팡하다가 수많은 주검을 남긴채 남쪽으로 쫓기우고말았다.

평양성사람들은 한갖 기생의 몸이지만 한목숨 주저없이 나라에 바친 계월향의 장한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대동문가까이에 《의렬사》라는 사당을 짓고 비도 세웠다.

그리고 월향이 살던 곳을 《월향동》으로 이름달았다.

《임진록》에는 평양성을 빠져나간 김응서가 베여온 소서비의 목을 선조왕에게 바쳐 큰 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여기에는 바로 계월향의 공로도 깃들어있는것이다.

녀류시인 황진이

우리 나라 문학사에서 16세기는 이름있는 녀류시인들이 많이 나온 시기이다.

이 시기로 말하면 《남존녀비》의 봉건적구속에서 녀인들이 하고싶은 말도 마음대로 할수 없고 오직 울안에 갇혀 문밖출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던 때였다.

하지만 우리 녀성들은 이것을 박차며 뛰여난 예술적재능을 드러내였고 자기들의 가슴속후더움을 헤쳐보이기도 했다.

허란설헌과 신사임당, 리매창, 황진이들이 그러하다.

이 16세기 녀류시인들중에서도 황진이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봉건사회의 천한 기생이였으므로 가족주위환경에 대한 기록은 극히 일부가 전해지고있다.

황진이는 1516년 개성에서도 이름난 황진사의 첩이였던 진현금의 딸로 출생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매우 귀하게 여기였고 부러운것없이 키웠다.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딸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령리한 황진이는 8살에 벌써 4서3경을 다 떼였다.

그리고 시와 음악에도 남다른 재간을 가지고있었으며 나이가 들면서 용모 또한 뭇총각들의 시선을 끌만큼 이뻐졌다.

15살에 접어들면서 그의 아릿다운 자태에 반하여 한동네에서 살던 총각이 사랑을 고백하려 하였지만 처녀의 도고한 모습에 끝내 말을 떼지 못한채 자리를 펴고 앓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기이한것은 그의 상여가 황진이의 집가까이에 이르자 말뚝처럼 굳어져 움직이지 않았다는것이다.

이 사실을 안 황진이가 그를 동정하여 자기의 치마를 벗어 관을 덮어주었는데 그제야 상여가 움직이였다고 한다.

황진이는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만 앓은 그 총각이 하도 가엾어 자신은 이제 더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는것이다.

그후 황진이는 자기의 맹세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그토록 말리는데도 기생이 되고말았다.

그리하여 황진이는 류다른 인생체험을 간직하고 개성의 이름난 기생으로 되였던것이다.

기생이란 직분이 원래 노래와 춤을 기본으로 하기에 그들은 예술적소양이 높았으며 따라서 시도 많이 창작하게 되였다.

그때 기생의 시들을 보면 대체로 량반의 노리개로 되여야 하는 자기들의 기막힌 처지에 대한 한탄이였고 사랑을 빼앗기고 사랑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애달픈 감정이였다.

황진이의 용모와 시적재능이 얼마나 뛰여났던지 10년동안이나 천마산에 들어가 도를 닦으며 생불이라고 자처하던 지족선사도 그를 본 후에는 불교의 계률을 어기였다고 한다.

황진이는 비록 리조봉건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층에 속하는 기생이였지만 중세유물론철학자였던 서경덕의 고결한 인품에 공감하여 그를 스승으로 삼고 진심으로 존경하였다.

당시 박연폭포, 서경덕과 함께 《송도3절》(세가지 뛰여난것)로 이름이 높았던 황진이는 시조에서도 격식을 깨뜨리고 인간의 깊은 내면세계를 높은 시형상으로 노래한것으로 하여 시조분야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

그는 주로 남녀간의 애정을 짙은 서정으로 섬세하면서도 자유분방하게 노래한 시조작품들을 많이 남기였다.

청산은 내 뜻이요 록수는 님의 정이요
록수는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록수도 청산 못잊어 울어예여가는고

이 시조는 자신의 뜻을 확고부동한 청산에 비기고 님의 정은 흐르는 물에 비겨 비록 님의 정이 변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청산과 같이 드팀이 없으리라는것을 강조하였다.

그의 시들을 보면 부패타락한 량반통치배들이 심심풀이로 읊어대는 그런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대하여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 소리높이 자랑하였다.

그 대표작으로 《박연폭포》라는 시가 있다.

한줄기 긴 내물 구렁에 내리쏮혀
백길 룡소에서 물살이 솟구치네

하늘의 은하수가 거꾸로 쏟아진듯
흰 무지개가 비껴 드리운듯

물소리 골안에 우뢰를 일으키고
물방울 공중에 구슬을 흩뿌리네

려산이 좋다고만 말하지 마오
천마산의 이 폭포 누리에서 으뜸이요

(려산은 중국의 이름난 산인데 여기서는 려산의 폭포를 말한다.)

황진이는 성격이 매우 개방적이고 활달한것으로 하여 시에서도 주저가 없이 내리터치는 기질도 가지고있었다.

때문에 시 《박연폭포》에서 골짜기를 울리며 쏟아지는 폭포의 드세찬 물줄기와 소용돌이치는 룡소, 아름답고 웅장한 폭포의 경치를 비유와 과장의 수법으로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었다.

이것은 중국의 려산만 산이라고 하면서 우리의것은 안중에도 없는 량반들의 낡은 관점에 대한 은근한 타격이였으며 자신이 나서자란 고향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였다.

황진이의 시는 이처럼 자연을 그리는데서도 비판적기백이 강

하였다.

시조 《내 언제 신이 없어》는 남녀간의 애정문제에 대하여 노래한 또하나의 성과작으로 알려지고있다.

황진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재상의 아들이 기생의 노복으로 되였던 이야기도 있다.

황진이는 우리 나라의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여 많은 명승고적들을 유람하였다.

어느해 봄 황진이는 금강산이 천하에 다시 없는 명승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보려고 하였는데 함께 갈 사람이 없어 찾던중에 어느 재상의 아들인 리생원을 적임자로 찍어 그에게 청을 내였다.

《내가 들으니 중국사람들은 〈내가 고려에 태여나서 금강산을 한번 보았으면 한이 없겠다.〉는 시구까지 전하고있다는데 하물며 이 땅에 태여나 이날이때까지 자라면서 지척에 명산을 두고도 실경을 보지 못하였으니 될말입니까? 지금 내가 그대를 우연히 만났으니 같이 한번 명승을 찾는것이 즐겁지 않을가요?》

리생원이 그의 말에 쉽게 동의해나섰다.

그들은 기분좋게 송도를 떠나 걸어서 금강산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넘어 며칠이 지나자 식량이 떨어져 그들은 밥을 얻어먹게 되였다.

처음에는 그림같은 절경에 빠져 주림을 잊고 그런대로 지냈으나 또 며칠이 지나자 그들은 더 견디지 못하고 금강산의 한 정자앞에 주저앉아버렸다.

주위를 살피니 그들이 앉은 맞은편에서는 촌선비들이 모여앉아 술놀이를 한창 벌리고있었다.

황진이는 그들앞에 나서 인사를 하고는 권하는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희한하였던지 선비들은 술잔을 들고만 있었다.

술과 안주를 마음껏 대접받은 황진이는 그들에게 청을 하였다.

《저에게 한 노복이 있어 허기증에 걸렸으니 청컨대 남은 음식을 좀 가져갈수 없을가요?》

취기에 오른 선비들은 좋은 노래까지 들은지라 어서 그렇게 하

라고 손을 흔들었다.

그리하여 이름난 재상의 아들인 리생원은 한순간에 천한 기생의 노복이 되여 남들이 먹다남은것을 게걸스럽게 먹어대는 한심한 처지가 되여버렸다.

이 이야기만 놓고보더라도 황진이의 개방적인 성격이 안겨오며 또한 량반들을 큰 존재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데리고다니며 마음대로 주무르는 한갖 하인배로 여기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황진이는 대체로 자연을 통하여 자기의 감정을 노래하였는데 그의 시 《반달》이 유명한것으로 전해진다.

곤산옥 다듬어서
직녀빗 뉘 만들든고
견우와 리별후에
단장은 해 무엇하리

허공에 내던졌더니
반달인가 하노라…

그의 시와 관련하여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황진이가 송도의 옛날 활쏘던 장소의 집에서 자고있었는데 오가는 길손들도 많지 않은 고요한 밤에 백마에 올라앉은 어떤 위엄있는 무관이 여기에 발을 멈추더니 그 옛날 고려의 수도였던 송도땅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이렇게 읊었다는것이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어데 갔뇨
두어라 고국흥망을
물어서 무엇하리

시를 마친 무관은 비장한 눈물을 팔소매로 씻더니 금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후날 사람들은 이 시를 무관이 쓴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황진이작이라고 하고있다.

이것은 확증되지 않았으나 많은 측면에서 황진이가 썼다는 추측이 있다.

또한 황진이의 창작에서는 시로써 량반들을 조소하고 폭로한 흔적들을 다분히 찾아볼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청산리 벽계수》에 대한 시조가 전해지고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말아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리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여간들 어떠리

그 시조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푸른 산골안의 맑은 물아
거침없이 흐른다고 자랑을 말아
네 한번 푸른 바다에 이르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라
밝은 달빛이 저 산에 가득하였으니
쉬여감이 어떠리

당시 서울에는 벽계수라는 이름을 가진 임금의 친척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어찌나 교만한지 친구들도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거만한 태도에 대해 은근히 불만을 품고있던 친구들이 이자를 한번 골려주려고 마음먹었다.

그들은 어느날 이런저런 한담끝에 개성의 이름난 기생인 황진이를 화제에 올리였다.

황진이는 당시 기생의 신분이였지만 인물맵시 잘나고 노래 또한

명창이며 시재주가 좋아서 누구나 잘 알고있는터였다. 특히 그는 량반들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황진이가 입에 오르자 친구들은 그를 한갖 기생으로만 볼것이 아니라며 용모와 재능에 대하여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은근히 한번 만나서 즐겼으면 좋겠다는 의향들을 내비쳤다.

하지만 저만 저라고 뽐내며 우쭐렁거리는 교만한 벽계수는 코웃음을 치며 큰소리를 쳐댔다.

《아무리들 그래도 난 눈섭 한오리 움직이지 않을거네. 기생이 기생이지 선녀라도 되겠나.》

《아닐세. 자네 모르는 소리네. 직접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이름난 선비들도 저저마다 말했다니까.》

선비들은 벽계수에게 부추겨댔다. 그러자 원래 잘난체 하기를 좋아하는 벽계수는 그길로 하늘소에 올라 큰 기침을 톺으면서 개성으로 길을 떠났다.

하늘에는 별무리 총총히 흐르고 동산에 밝은 달이 떠올라 산천을 비치는데 벽계수는 흔들쩍대며 개성이 바라보이는 산굽이를 돌아가고있었다.

한데 이때 어디서인지 구슬같은 목소리로 한자한자 또랑또랑 시조를 읊조리는 녀인의 목소리가 그의 귀가에 울려왔다.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름다왔다.

그가 바로 다름아닌 황진이였다.

벽계수가 서울을 떠나 개성으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황진이는 그를 시험해볼 잡도리로 산모퉁이에서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벽계수도 많이 들었던터이므로 이 녀가 혹시 황진이가 아닐가 하는 생각을 제꺽 할수 있었다.

황진이 읊조리고있는 시조의 《청산리 벽계수》란 푸른 산골짜기의 맑은 물을 가리키는 동시에 벽계수란 인물을 가리키고있었고 《명월이 만공산하니》란 온 산을 덮은 밝은 달빛이라는 뜻과 함께 황진이자신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풀어 음미하면 이런것이였다.

《그대 벽계수여, 미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마시라. 한번 이 순간을 놓치고나면 다른 기회를 얻기 어려우리니 그대 여기 아름다운 곳에서 황진이를 만나봄이 어떠한가.》

벽계수가 봄바람마냥 마음속에 흘러드는 그의 시조를 거듭 굴리여 생각해본즉 역시 황진이는 기생으로만 볼 인물이 아니였다.

과연 굽인돌이를 돌아서니 달처럼 환하고 선녀처럼 아름다운 녀인이 조용히 서있는것이다.

어떤 미인도 자기 마음만은 흔들지 못한다고 우쭐대던 벽계수였지만 이 순간 그 허영심은 물먹은 솜뭉치마냥 후줄근해지고말았다.

이처럼 황진이는 자기의 시적재주로써 량반들을 골려댔다.

그와 관련하여서는 또 한가지 이야기가 있다.

황진이는 천한 기생이므로 어차피 량반놈들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몸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제일 싫었다.

어느날 황진이가 금성고을을 지나가게 되였는데 때마침 할일없는 고을원이 큰 잔치판을 벌려놓고 흥청거리고있었다.

잔치판을 둘러보니 보기에도 역겨웠다.

량반이라는것들은 없는 재간을 뽐내느라 야단들이고 기생들은 그 턱밑에서 아양을 떠느라 요사를 부리고있었다.

이것들을 어떻게 골려댈것인가에 대하여 잠시 생각하고난 황진이는 고을원이 앉은 앞자리로 한발 척 나서더니 노래 한곡조 부르겠다고 청했다.

옥계수가 구을듯 울리는 그의 가야금소리와 청고운 목소리에 량반들은 물론 그곳에 앉아있던 기생들까지도 아연해졌다.

그런데 한순간 황진이가 가야금을 뜯던것을 멈추고 손을 옷속에 훌쩍 넣어 아무렇게나 벅벅 긁어대더니 이인듯 한것을 끄집어내여 량반들앞으로 훌쩍 내던지는것이였다.

그의 이 행동에 그래도 《점잖다》고 하는 량반들은 깜짝 놀라 돌아앉았고 좌중의 흥은 완전히 글러지고말았다.

이것은 황진이가 그들을 골려주기 위해 일부러 꾸민 일이였다.

황진이는 량반들이 놀라건말건 또 녀인들이 눈살이 꼿꼿해서 외면하거나 일어서건말건 제멋에 겨워 다시금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윽고 사람들은 황진이의 안속을 알아차리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돌이켜보면서 주섬주섬 잔치집을 빠져나갔다.

이와 같이 황진이는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이였지만 자기의 뛰여난 시와 재능으로 량반관료들의 행위를 대담하게 조소한 참다운 예술가였다.

이 시기 녀류시인들이라면 대체로 량반계급출신들이였지만 황진이는 사정이 달랐다. 때문에 자기의 신분과 관련하여 애절한 감정이 많았고 량반들에 대한 조소와 야유가 기본으로 되였던것이다.

황진이는 또한 명필이였는데 박연폭포의 소옆에 있는 너럭바위에 새겨져있는 한자시 《비류직하삼천척 의시은하락구천》을 머리태를 잘라서 만든 달비로 쓴것이라고 전해오고있다. 글씨는 초서인데 매우 신묘한 경지에 이른 필적이라고 할만 하다.

림제와 《재판받는 쥐》

림제는 16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풍자소설가이다.

그는 남달리 풍자를 즐기였으며 해학으로써 후세에 많은 일화를 남기였다.

림제는 1549년 절도사 림진의 아들로 전라도 라주에서 태여나 봉건적인 유교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다. 그는 자를 자순이라고 했고 호는 백호로 알려져있다.

아버지 림진은 일찌기 외래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 나선 사람이였다.

림제는 성격이 호방하면서도 매우 강직한것이 특징이였다.

그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에는 이런것이 있다.

어느날 길가에서 성혼이라는 량반을 만나게 되였는데 그는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너는 어느 가문의 자제이냐?》

그러자 림제는 제꺽 대답하였다.

《저는 이 마을의 이름없는 평민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벌써 어린 그가 문벌제도를 증오하고 집권층에 대한 불만의 마음이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때문에 자기를 평민이라고 주저없이 대답했던것이다.

이러한 감정을 지니고있었기에 림제는 청년시절에 벌써 풍자와 우화적인 수법으로 모순에 찬 현실을 폭로하는 많은 글을 썼다.

림제는 28살 되던 해에 과거에 응시하여 생원진사과에 합격하였고 다음해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태조정랑이라는 벼슬을 받게 되였다.

그러나 그 시기는 권력을 쥐기 위한 집권층내부의 싸움이 극심하게 벌어지고있었는데 이것은 동인파, 서인파의 당파로까지 갈

라져 나라의 정사는 말이 아니였다.

그는 이 당쟁을 직접 체험하였고 그 과정에 벼슬을 버리고 생애의 전부를 문학창작에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림제는 젊은 나이에 속리산으로 들어가 학자 대곡 성대혼을 스승으로 받들면서 문학수업에 정열을 다하였다.

《연암집》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어느날 림제가 말을 타고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데 왼발에는 갖신을 신고 오른발에는 짚신을 신는것이였다.

시중을 들던 말몰이군이 너무도 의아하여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하였다.

《나리님, 술에 취하셨나 보나이다. 갖신과 짚신을 짝짝이로 신으셨소이다.》

그의 일깨움에 림제는 호탕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아, 그게 무슨 걱정이냐. 길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은 나더러 짚신을 신었다고 할것이요, 왼편으로 가는 사람은 나더러 갖신을 신었다고 할것이니 누가 제짝아닌 신을 신었다고 할것이냐.》

그는 태연히 말우에 올라앉더니 갈 길을 재촉했다는것이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고 제각기 편협한 제 주장만을 가지고 옳다고 싱갱이질을 일삼는 통치배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였다.

또한 《약파만록》에 의하면 어느해 봄날 서울 삼청동앞으로 그가 지나가고있었는데 이때 마침 여러명의 량반집소년들이 모여앉아 화전을 놀아대면서 운자를 내여 시짓기내기를 하고있었다.

그는 소년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놀이에 섞이게 청하면서도 자기는 시를 지을줄 모른다고 말했다.

《어쩐다, 나라는것은 한시를 지을줄 모르니 우리 말로 부르거든 그대들은 그것을 글구로 번역하여 한시로 적어주려무나.》

량반부스레기들이라 교만한 소년들은 그의 거동을 곱지 않게 살피면서 부르는대로 써놓았다.

그런데 써놓고보니 글자와 음률, 평측(높낮이)이 저절로 맞아서 저희들것과는 대비가 되지 않게 너무도 훌륭하였다.

소년들은 그제사 그가 이따금씩 불쑥 나타나기를 잘한다는 백호

림제이라는것을 알아차리였다.

《아아, 림백호선생이 아니십니까?》

죄스러워하는 소년들을 둘러보며 림제는 호탕하게 웃고 유쾌히 놀다가 헤여졌다고 한다.

그는 길지 않은 생애를 통하여 많은 시작품들과 의인화된 소설들을 남기였다.

문학사에서는 그를 풍자의 칼을 벼린 작가로 인정하고있다.

정의감이 강하고 결백하며 나라에 대한 사랑을 지니였던 림제는 시조와 한시들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서도 다양한 형식으로 현실을 재치있게 반영하였다.

림제는 여러 주제의 시들을 썼다.

먼저 그는 그 시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던 당파싸움에 대하여 비유적인 형상으로 신랄하게 야유하였다.

대표작으로 《마소노래》를 들수 있다.

세상에 정신잃은 사람도 있구나
소를 타고 말에게 짐을 싣다니
능력에 맞추어 부리지 않으면서
모진 채찍질만 사정이 없네

태행산, 청니관 험한 산길에
말은 넘어지고 소는 뒹구니 어찌할소냐

아 건장한 소와 말 한꺼번에 쓰러졌으니
무엇에 짐을 싣고 무엇에 태우려나

(태행산, 청니관은 중국의 험준한 산이름.)

힘이 센 소에게 짐을 실리우고 말은 의례히 사람이 타는 법이다.

그러나 당시 관료배들은 인재를 적소에 배치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당파에 유리하도록 선발배치하였다.

소를 타고 말에 짐을 싣는 식으로 거꾸로 쓰려드니 이처럼 풍유

의 필봉을 들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또한 림제는 자기의 시에서 나라방비를 위한 대책은 도저히 세우지 않고 자기들의 검은 리속만 채우려드는 위정자들에 대하여서도 폭로하였다.

시 《잠령민정》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동쪽바다에는 큰 고래가 날뛰고
서편국경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건만
북방성새엔 잔약한 군사만 울부짖고
바다 수자리에는 굳센 진터 없구나
조정이 하는 일 너무나 옳지 않구나
죽음을 겁냄이 어찌 사나이랴
한풍이 다시 살아오지 않아
좋은 말도 속절없이 늙고만 있네
초야에 깊이 묻힌 영웅의 마음이
날마다 천리를 달리는줄 그 누구라 짐작하리

(큰 고래와 사나운 짐승은 왜적과 녀진을 가리킨것이며 한풍은 옛날 중국의 말관상을 잘 보았다는 사람이며 좋은 말이란 유능한 인재를 가리킨것이다.)

시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함이 없이 나라 지키는 성전에 언제든지 나설 자기의 애국적기개도 열렬히 표현하였다.

또한 림제는 백성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시들도 많이 남겼다.

선경을 찾아가니
맑은 흥이 절로 난다
세상 티끌에 더럽힌 몸
씻어보려 하노니
솨솨 소나무끝에 부는 바람
물처럼 서늘코나
고마워라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림제는 하나의 자연풍경도 땀흘리는 백성들과 결부하여 노래하고있다.

림제는 우리 나라 문학사에서 의의있는 시들을 많이 내놓았으나 보다 중요하게는 소설문단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였다.

그의 소설로서는 《원생의 꿈이야기》(원생몽유록), 《꽃력사》(화사), 《시름의 성》(수성지), 《재판받는 쥐》(서옥설) 등이 있다.

소설 《원생의 꿈이야기》는 환상적인 수법으로 쓴 작품이며 나머지것은 모두 의인화의 수법으로 현실을 비판한것이다.

소설 《꽃력사》는 매화, 들매화, 모란, 련꽃 등 꽃들을 의인화하여 꽃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면서 간신들의 타락한 생활과 정사는 돌보려 하지 않고 부화방탕으로 세월을 덧없이 보내는 왕을 비판하였다.

소설 《시름의 성》에서는 봉건도덕규범인 인, 의, 례, 지와 인간의 감정을 표시하는 희, 노, 애, 락, 사람의 감각과 언어행동으로서의 시, 청, 언, 동 등을 의인화하여 천군의 나라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충신》, 《의사》들이 모여 《시름의 성》을 쌓는 이야기를 펼쳐보임으로써 당대 권력을 틀어쥐고 전횡을 일삼던 통치배들에 대한 울분의 감정을 표시하였다.

림제의 소설에서 대표작인 《재판받는 쥐》는 80여종의 동식물들의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나라재산을 솔금솔금 축내는 탐관오리들을 폭로비판하고있는것이다.

작품은 몸집이 크고 꾀가 약아빠진 큰쥐가 뭇쥐들을 거느리고 나라창고에 기여들어 10여년간 곡식을 훔쳐먹다가 창고신에게 들키여 취조를 받는것으로 시작된다.

창고신은 나라창고의 쌀을 엄청나게 축낸 큰쥐의 죄과를 론하면서 그의 공모자들과 사촉자들에 대하여 따지고든다.

간사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큰쥐놈은 자기의 죄과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털어놓는것이 아니라 이를 덜어보기 위해 갖은 교

활한 술책을 다한다.
  큰쥐는 자기가 창고벽을 뚫기 시작하였을 때 복숭아꽃은 생긋생긋 웃고 버들가지는 하늘하늘 춤을 추어 자기에게 힘을 북돋아주었다고 꾸며댄다.
  창고신은 복숭아꽃과 버드나무의 넋을 잡아가두고 다시 쥐를 심문한다.
  큰쥐는 이어서 고양이, 개, 족제비, 두더지, 여우와 삵, 고슴도치, 수달, 노루, 토끼, 사슴, 메돼지, 양, 염소, 원숭이, 코끼리, 곰, 하늘소, 소, 말, 기린, 사자, 범 등 자기가 알고있는 모든 동물들이 자기 일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창고신이 짐승들을 하나씩 잡아들여 심문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무죄를 증명하여나섰고 큰쥐의 말에 격분을 금치 못해하는것이다.
  창고신은 이들도 역시 옥에 가두어놓고는 다시 큰쥐를 위협하며 심문한다.
  큰쥐놈은 앞의 동물들의 죄를 다시금 늘어놓더니 이번에는 달팽이, 개미, 반디, 닭, 두견새, 앵무새, 꾀꼬리, 나비, 제비, 개구리, 박쥐, 참새, 까마귀, 까치, 수리개, 올빼미 등 지어 봉황새와 공작새까지 끌어들인다.
  그리고 또 대붕새와 고래에게 죄를 씌우고 지렁이, 거미, 범아재비, 하루살이까지 걸고 늘어진다.
  큰쥐의 약아빠진 잔꾀에 성이 치밀어오른 창고신은 드디여 큰쥐를 쇠줄로 결박하여 기둥에 거꾸로 매달은 다음 가혹한 형벌을 내리라고 명령한다.
  큰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한번 모든 새와 짐승들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놓았다고 고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구멍만을 찾는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자기 죄를 상제에게 넘겨씌운다.
  사실을 들은 상제는 이런 령을 내린다.
  《가두었던 뭇새와 뭇짐승들을 전부 내놓아주고 역적의 소굴과 그 족당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소탕하라.》

상제의 판결로 큰쥐는 창고앞에서 처단되고 애매하게 잡아들여왔던 뭇짐승들은 놓여나가게 된다.

이때로부터 다시는 나라창고의 곡식이 축나는 일이 없어진다.

소설은 이렇게 끝을 맺고있다.

《불은 당장에 꺼버리지 않으면 번지는 법이요. 옥사는 결단성없이 우유부단하면 번거로와지는 법이다. 만일 창고신이 늙은 쥐의 죄상을 밝게 조사하여 빨리 처단하였더라면 그 화는 반드시 그렇게 범람하여지지 않았을것이다. 아! 간사하고 흉악한 성질을 가진자는 어찌 창고를 뚫는 쥐뿐이랴! 참 두려운 일이다.》

소설에서 큰쥐는 약아빠진 술책으로 나라재산을 좀먹는 탐관오리의 형상으로, 창고신은 우유부단하고 무능력한 통치배의 형상으로 의인화되였다.

소설은 큰쥐가 나라재산을 탕진하고도 그 죄과를 남들에게 넘겨씌우려고 책동하는 가지가지의 요사스러운 장면을 통하여 통치배들의 교활성과 악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였다.

또한 죄를 지은 놈을 잡아다놓고도 그 속임수에 얼리워 죄없는 뭇짐승들을 함부로 잡아들이는 창고신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관료배들의 무능력을 조소하고 풍자하였다.

뿐만아니라 소설은 여러 동식물들의 문초장면을 통하여 당시 사회현실의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심각히 돌이켜보이고있는것이다.

공작과 봉황에 대한 고발을 통해서는 세상에 도학군자로 이름은 높아도 백성들과 나라에는 한푼어치의 혜택도 주지 못하는 허례허식을 폭로하고있으며 매, 소리개, 독수리의 형상을 통하여서는 봉건관리놈들의 악랄한 착취와 략탈을 드러내였다.

또한 불교의 허황성과 승려들의 위선에 대해서도 까밝히고있다.

소설 《재판받는 쥐》는 우화세계의 능란한 필치, 묘사의 생동성, 독특한 구성으로 하여 중세문학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소설은 관료배들의 부정적인 면을 폭로비판하는데 그쳤을뿐 이것을 낳는 사회적근원에 대하여 밝히지는 못하였다.

또한 상제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군주를 리상화하는 약점도 발로시켰다.

마치 상제의 공정한 판결에 의해 해결되는것으로 꾸민것이다.

하지만 림제는 16세기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림제는 1587년 3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림종의 순간 그는 아들딸들에게 자기가 죽은 후 절대로 곡을 하지 말라고 이르면서 제힘으로 제 나라를 구할 대신 큰 나라만 쳐다보는 봉건통치계급에 대하여 끝없이 한탄하였다고 한다.

림제는 비록 일찌기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소설들은 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대사 사명당

마을이 멀지 않은 산밑의 새로 생긴 봉분앞에서 한 소년이 눈물이 가랑가랑 고인 눈으로 할아버지를 부르며 서럽게 울고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젠 누가 나에게 글을 배워주나요?!…》

소년은 애절한 눈물을 삼키며 무덤옆에 돋아난 풀뿌리를 하나씩 쥐여뜯었다. 하늘을 쳐다보니 무심한 구름만 유유히 흐를뿐이다.

《아, 사람은 어째서 죽는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할아버지는 백골이 진토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흙이 되는가?》

하지만 누구도 대답해주는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때 그옆으로 나이 지숙한 중이 스적스적 걸어오더니 그의 등을 가벼이 쓸어주면서 의미있게 머리를 끄덕이는것이였다.

《참 기특한 애로구나. 이것을 받아 고이 간수하거라. 그러면 후날 나와 다시 만나게 될게다. 그때 그 표적을 맞추어보자꾸나.》

그리고 중은 멀리로 사라졌다.

소년은 중의 가사자락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년이 바로 후날 사명당으로 불리운 이름난 중이였다.

사명당은 1544년 경상도 밀양에서 괴나루마을 임처사의 작은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읜 후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그의 본래 이름은 임응규인데 불교에서 부르는 이름은 유정이며 법호(불교에서 부르는 별호)는 사명당 또는 송운이라고 하였다.

사명당은 할아버지봉분앞에서 이름 모를 스님을 만난 후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자기도 그처럼 중이 될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후 7일만에 머리를 깎고 13살에 중이 되였다.

사명당은 충청도 황간땅의 한 절간에서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

라, 나의 물건이 아니거든 가지지 말라, 남녀관계를 끊으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불교의 오계를 받았다.

그후 불교선종의 교리를 완전통달한 그는 18살에 불교과거시험에서 1등을 하여 온 나라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였다.

사명당은 불교와 유교를 련결시키는데서도 큰 역할을 하여 불교의 보배로까지 내세워졌다.

사명당은 자신의 수련을 위해 그 옛날 원효대사가 있었다는 반고사절터에까지 찾아가 돌을 깔고앉아서 도를 닦아나갔다. 오직 산나물을 뜯어서 원기를 회복하면서도 굴함이 없었다.

그렇게 하기를 10여년세월, 사명당은 묘향산의 서산대사가 인망도 높고 학식도 높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는 불교에서 자기를 당할 도승이 없다고 생각한 사명당은 그를 만나 한번 겨루어보려고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사명당은 묘향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사명당이 여러곳을 돌아 묘향산어구에 들어서는데 마침 어린 중이 그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대사님, 안녕하시옵니까?》

의아해난 사명당이 다우쳐물었다.

《너는 누구냐?》

《우리 스님이 대사님을 모셔오라기에 기다리던중이옵니다.》

《너희 스님이란 누구냐?》

《서산대사올시다. 오늘 금강산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니 나가서 정히 모셔오라 이르셨소이다.》

사명당은 서산대사가 벌써 자기의 행처를 알고있다니 잡도리를 잘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가 거처한다는 금강굴로 올라갔다.

《대사님, 금강산의 이름없는 사명당이 인사를 올립니다.》

《반갑소, 방은 루추하지만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사명당이 서산대사를 바라보니 듣던바 하고는 그 모습이 너무도 작고 볼품이 없었다. 그러나 눈에서는 광채가 도는것이 여간이 아니였다.

사명당이 먼저 말을 걸었다.

《대사님, 여기 산등성이로 오르다가 이름모를 새 한마리를 잡았는데 대사님께 올려야 하겠는지 놔줘야 하겠는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있소이다.》

사명당이 장삼자락속에서 새 한마리를 꺼내놓자 서산대사는 아무런 표정없이 새를 받으며 이렇게 대꾸했다.

《대사께서 소승을 만나려 먼길을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는데 제가 마중을 나가야 할지 안에서 맞아들여야 할지 망설이고있소이다.》

사명당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서산대사는 손에 쥐고있던 구슬을 굴리며 그를 안으로 청하였다.

순간 사명당은 옛날 할아버지봉분앞에서 어떤 스님이 자기에게 준 구슬과 신통히도 꼭같은 그 구슬에 눈길이 쏠렸다. 그리고 서산대사를 다시 보았다.

서산대사는 사명당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음짓고있었다.

(아, 그렇다면 그때의 그 스님이 바로 서산대사란 말인가?)

사명당은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대사님, 옛날 산밑에서 스님이 알아봐준 소년이 찾아왔소이다. 여기에 스님이 남긴 구슬이 있소이다.》

사명당은 땅에 푹 엎드려 절을 하였다.

《내 이런 날이 있으리라 믿었소. 신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도록 해주시였소.》

《대사님, 찾아뵙지 못한 죄 용서하시옵소서. 이놈이 눈이 어두워 대사님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천백번 죽어 마땅하오이다.》

서산대사는 기다린지 오랬다고 거듭 되뇌이였다.

대사도 어느덧 불교의 이름있는 중으로 된 사명당이 미덥기 그지없었던것이다.

서산대사는 사명당에게 당시 나라안팎의 긴장한 정세에 대하여 자세히 일러주면서 무술훈련을 잘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훈련을 지도하였다. 사명당은 여러명의 중들과 함께 서산대사에게서 칼쓰는 법을 익히고 활쏘는 법을 배

웠다.
서산대사의 활솜씨가 어찌도 신묘하던지 개미 한마리를 가는 실에 매여달고 활로 쏘아맞히는 정도였다.
사명당은 이를 따르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서산대사는 사명당을 앞세우고 산으로 올랐다. 그들이 산중턱으로 오르는데 사나운 승냥이가 새끼노루뒤를 쫓아 덤벼들고있었다.
순간 서산대사는 승냥이를 사로잡더니 다리를 못쓰게 만드는 것이였다. 노루는 대사앞에 엎드려 몇번이나 머리를 주억거리더니 산굽이를 돌아섰다.
서산대사는 사명당을 이끌고 석굴에까지 다달았다.
《여기가 바로 이 나라의 시조인 단군이 탄신하신 곳일세.》
《알겠소이다. 길이길이 받들어모시겠소이다.》
그날 서산대사는 단군의 석굴앞에서 사명당에게 앞으로 불교를 지키는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쳤다. 이렇게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충실한 제자가 되였다.
그후 사명당은 금강산 유점사로 자리를 옮겨잡았다. 그러면서 나라의 곳곳을 돌아보았고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제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임진년 왜적과의 싸움에서 발휘한 용맹과 지혜의 원천으로 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준비를 해오던 왜적들은 1592년 4월 20만의 병력으로 이 땅에 쳐들어왔다. 왜놈들은 금강산 유점사를 비롯한 절간들에까지 침입하여 방화, 략탈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분노한 사명당은 적진속에 주저없이 들어가 불교도의 립장에서 적장에게 함부로 인명피해를 내지 말데 대하여 준절히 요구했다.
왜놈들이 절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내놓으라 하자 사명당은 장삼자락을 걷어올리며 한걸음 나섰다.
《중이란 부처님을 모시고 나물밥에 베옷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보배를 절에 쌓아두겠느냐?
부처님과 천지신명은 그대들이 하고있는 불온한짓을 다 보고

계시나니 생각을 바로 가지고 썩 물러가거라.》
사명당의 위엄에 적들은 비실비실 뒤걸음질쳤다.
그후 사명당은 스승인 서산대사가 전국의 중들에게 나라 지키는 싸움에 일떠설것을 호소하자 제일선참으로 호응해나섰다. 사명당은 700여명의 중들로 의병부대를 무어가지고 고성읍에 들어가 군기고의 병쟁기를 꺼내여 무장시켰으며 칼, 활, 창 등 중들의 소질에 따라 밤낮으로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는 평안도 순안 법흥사로 달려가 그곳 의병에 합세하였다.
한편 기밀탐정법으로 8도적군의 움직임과 비밀을 탐지해냈다.
승병부대(중들로 조직된 부대)가 조직되자 사명당은 부총섭(부총대장)으로 임명되였으며 도총섭(총대장)이였던 늙은 서산대사를 대신하여 승병지휘를 맡아나섰다. 그는 다른 의병부대들과의 협동작전으로 왜적이 평양이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았다.
1593년 1월 평양성탈환전투가 벌어지자 사명당은 잘 훈련된 승병부대 4천으로 앞장에 서서 칠성문쪽으로 뚫고들어가 원쑤놈들을 무자비하게 족쳤다. 그리고 항상 적의 거동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원쑤들을 함정에 몰아넣을 묘안을 내놓았다. 하기에 사명당대사의 이름난 18가지 전략가운데서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가 있는듯이 보이는 전술,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전술, 적을 유인하여 꾀여들이는 전술, 갑자기 쳐들어가 적이 정신을 못차리게 만드는 전술이 가장 유명하다.
평양성을 되찾은 후 사명당은 도원수 권률의 부대에 배속되여 패주하는 적을 몰아 개성과 서울을 찾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경상도 의령일대에 주둔해있으면서 적장 가또 기요마사에게 말을 돌려 제 소굴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장 지옥으로 보낼테니 그리 알라고 호통쳤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남쪽끝에까지 쫓기여간 왜적들은 시간적여유를 얻기 위해 강화조약체결을 제기하였다. 이런때 누구를 사신으로 내세우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중히 론의되였다.
대신들은 능히 나라의 위엄을 떨치고 림기응변할 사람은 사명당

이라고 하나같이 그를 천거하였다.

그리하여 학식과 지략이 뛰여나고 또한 애국의 뜻이 높고 대담한 사명당은 1594년 봄부터 우리측 대변자로 화의교섭의 중책을 지니고 여러차례 적진속으로 들어가 활동하였다. 그는 부산에 있는 적군영에만도 세차례나 들어가 능숙한 외교활동으로 침략자들의 오만무례한 행위를 여지없이 분쇄하였으며 적장들사이 분렬을 리용하여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어느날 담판시 적장 가또 기요마사가 이렇게 물어왔다.

《너의 나라에서는 어떤 보물이 가장 귀중한가?》

사명당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물로 여기는것이 별로 없고 지금은 청정 기요마사 바로 네 머리를 가장 보물로 친다.》

순간 거만스럽게 굴던 가또 기요마사의 목이 움츠러졌다.

그후에도 그가 직접 통솔한 승의병대는 긴급하게 제기되는 룡기산성, 팔공산성, 금오산성 등의 축조와 군량미수집사업을 잘하여 전쟁승리에 이바지했다.

사명당은 1597년 적들이 재침한 다음에는 울산(경상도) 도산성전투와 순천(전라도) 왜다리에서의 마지막전투에도 참가하여 승병부대의 본때를 보이였다.

외교활동가로서의 사명당의 권위는 임진조국전쟁이 승리적으로 결속된 후 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서 잘 나타났다.

이때 사명당의 나이는 60살이였다.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부고를 받고 묘향산으로 가던 도중 조선전권사신으로 왕의 국서를 가지고 쯔시마를 거쳐 일본으로 가서 도꾸가와 이에야스와 강화담판을 할데 대한 어명을 받게 되였다.

전쟁후 정권을 잡은 도꾸가와막부는 조선을 침략한 저들의 죄를 빌고 평화적인 외교 및 무역관계를 다시 맺을것을 간청하여왔다.

사명당은 왕의 어지를 받자 《소승의 작은 힘이나마 나라를 위해 전력하오리다.》라는 말을 남기고 수행원 120명을 거느리고서 일본으로 떠나갔다.

임진록에는 일본으로 건너간 사명당이 여러가지로 그를 시험

하려드는 적들의 교활한 술책을 지혜와 담력으로 여지없이 파탄시키고 혁혁한 성과를 거둔 전설적인 사실들이 실려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날 심부름을 드는 아이가 사명당에게 목욕탕이 준비되였으니 어서 들어가라고 일렀다.

사명당이 목욕탕에 들어가니 목욕물통에는 수십마리의 구렝이가 혀바닥을 날름거리며 우로 솟구쳐오르고있었다. 대사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손에 쥐고있던 념주를 물속에 던졌다. 그러자 구렝이는 순식간에 목을 움츠러뜨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리였다. 사명당이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니 교활한 왜놈들은 그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목욕물통바닥을 유리로 만들고 그밑에 수십마리 구렝이를 놓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물속에서 그것들이 요동치는듯이 보이게 만들어놓았던것이다.

사명당은 얼마후 깨끗이 목욕을 하고 흰수염을 슬슬 내리쓸면서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왜놈들은 사물을 한순간에 꿰뚫어보는 그의 총명함에 놀라 이구동성으로 《과연 신승이다!》하면서 혀를 빼들었다 한다. 한번 혼을 내주려 하였지만 어림없는 일이였다.

어느 하루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사명당은 왜놈족속들이 안내하는 별실에 들게 되였다. 왜놈들은 잠시 기다리라 하고는 그만 사라졌다.

이번에는 또 무슨 괴변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자고 속으로 벼르면서 사명당이 잠시 앉아있으려니 방이 불처럼 달아올랐다.

바닥을 살펴보니 철판으로 되였는데 숯을 몇섬 잘 태우는 모양이였다.

사명당대사는 품에 넣고온 포척자(파일이름) 3개를 꺼내여 한개는 자리밑에 슬그머니 밀어넣고 다른 두개는 량손에 갈라쥐였다. 한참후 방은 그만 얼음과 눈으로 덮여버렸다.

얼마 지나서 이제는 틀림없이 불에 데여 정신이 없을게라고 좋아하면서 왜놈들이 문을 여니 이 아닌 벼락인가?!

대사는 긴 수염발에 고드름을 길게길게 드리우고 너무도 추워 벽

에 기대여 웅크리고있었다.

이윽고 사명당이 몸을 펴면서 꾸짖었다.

《너희들의 나라는 우리보다 남쪽이라 덥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대접이 어찌 그리 야박하냐?》

그러자 왜놈들은 할 말이 없었다.

다만 그를 살아계시는 부처님으로 우러를뿐이였다.

이밖에도 왜놈들은 여러차례 별의별 못된 수를 다 써가면서 사명당을 시험하려 들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명당은 일단 담판에 들어가자 왜놈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주동적으로 끌고나갔다. 그는 조선을 침입한 주모자의 머리를 베여 우리 나라에 보내며 왜놈칼날에 쓰러진 우리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배상하며 포로로 랍치해온 사람은 한명도 남김없이 찾아 돌려보내며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온 보물을 모조리 돌려주며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천황》의 친필로 써서 내놓으라는 등 다섯가지 조건을 당당히 내놓았다. (《천황》—일본반동통치계급의 최고우두머리. 7세기부터 이 명칭을 사용.)

사명당은 강화담판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후 전쟁기간 랍치당하여 억울하게 실려갔던 1 500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되찾아가지고 이듬해에 귀국하였다. 왜놈들은 그의 도고한 기상에 존경과 선망의 표시로 숱한 값진 선물을 주었으나 사명당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귀국의 배길에 올랐다.

당시 왕이였던 선조는 사명당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높은 벼슬과 큰 상을 내렸으나 그는 모든것을 사양하고 유점사로 돌아가 66살에 조용히 세상을 마치였다.

이와 같이 사명당은 비록 중의 몸이였지만 사랑하는 조국강토를 무참히 짓밟는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옳은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적들과 맞서 싸운 애국적승의병장이였으며 이름있는 외교활동가였다.

노비출신의 화가 리상좌

서울량반집 노복인 상좌는 나무를 하려고 산으로 올랐다.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종의 자식이라 어려서부터 그에게 맡겨진 일은 산에 가서 땔나무를 해가지고 오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무하려 산으로 올랐다.

그는 나무를 하다가 절벽에 올라 벼랑밑의 전경을 내려다보면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싫지를 않았다. 피로에 몰려 잠시 눈을 감아도 묘하게 생긴 바위들의 모습만은 뚜렷하게 안겨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조금만 그려보고 나무를 해도 한 지게는 채우겠지.》

상좌는 나무끄챙이로 오솔길이며 흐르는 개울이며 묘하게 생긴 너럭바위들을 정신없이 그려나갔다. 아무리 그려도 또 그리고만싶어졌다.

이렇게 아침에 산에 올라 조금 삭정이를 긁어놓고 나무끄챙이를 주어 그림을 그리느라면 해가 질 때까지 그릴 때도 있었다.

《아니, 벌써 저녁이 왔구나. 나무를 못했으니 이를 어쩐담.》

급해난 상좌는 하지 못한 나무를 보충하려고 허겁지겁 낫을 휘둘러대지만 한짐이 그리 쉬운것은 아니였다. 이런 날이면 보리밥 한덩이도 차례지지 않았다. 주인은 해종일 놀기만 했다느니, 낮잠만 잤다느니 하면서 눈알을 부라리며 욕설을 해댔다.

《이녀석아, 종아리가 부러져야 알겠느냐. 그래 네 입에 들어가는 밥덩어리가 공짠줄 아느냐. 정신을 차리겠니, 못차리겠니?》

귀를 잡아당기고 살점을 뜯어내는 곤욕이다.

그래도 산에만 가면 또 그리고싶은 그림이다.

《아, 나는 왜 마음대로 그림도 그릴수 없을가.》

상좌는 하늘을 우러러 한탄했지만 그 하늘은 너무도 무심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나무를 조금 해놓고 벼랑끝에 홀로 선 아름다운 소나무를 정신없이 그려나가는데 웬 어른이 불쑥 나타나더니 그가 그린 그림을 한참이나 주의깊게 바라보는것이였다.
《얘야, 너의 이름이 무어냐?》
당황해진 상좌는 그저 저 아래마을 생원댁종이라고만 대답했다.
《그래 이름이 생원댁 종이란 말이냐? 녀석두, 허허.》
어른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더니 이번에는 들고가던 통에서 참지를 꺼내여 네귀를 돌로 지질러놓는것이였다. 그리고 연적이 담긴 먹물을 그앞에 밀어놓으면서 그의 손을 잡아당기였다.
《이자 그리던 로송을 여기에 그려보아라.》
상좌는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래도 어른은 련속 재촉을 해대니 상좌는 붓을 집어 늙은 소나무를 재빨리 그려놓았다.
어린 나무군이 그린 늙은 소나무는 과연 신통했다. 뾰족뾰족한 잎새며 터실터실한 나무줄거리며 어느것이나 틀림이 없었다. 절벽의 소나무와 그림을 번갈아보던 량반은 그의 주소를 물어 목책에 적어넣더니 그날 하지 못한 나무값을 자기가 물어주는것이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주인이 불쑥 상좌를 방으로 불러들이였다.
《자, 내 화상을 그려보아라.》
상좌는 어리둥절했으나 며칠전 일도 있고 하여 군말없이 주인의 화상을 그려나갔다. 한참후 신통히도 주인과 꼭같은 그림이 그려졌다.
기분이 좋아진 주인은 손주며 아들들을 차례로 불러들이여 참지에 그들의 화상도 그리도록 하였다. 어느 하나도 탓할것이 없었다.
주인은 자기 집 머슴애가 이런 재간둥이인줄을 모르다가 며칠전 다른 사람의 귀띔으로 알게 된것이다.
그날 주인은 상좌에게 무명옷 한벌을 주고 푸짐한 밥상도 차려주었다. 이것은 그가 종노릇을 하면서 처음으로 받은 사람대접이였다. 아버지가 노비면 그 아들도 노비로 돼야 하는 세상이니

탓할것도 못되였다.

난생처음 인간대접을 받고 밥상까지 마주하고보니 그는 음식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집에서 앓고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먹을수가 없었다.

이 눈치를 알아챈 행랑어멈이 주인 몰래 제꺽 바가지에 음식을 담아주었다. 상좌가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집으로 달려오니 놀랍게도 이미 아버지는 숨을 거둔 뒤였다. 아버지를 부둥켜안고 몸부림쳤으나 싸늘하게 굳어진 시신은 그 곡성을 듣지 못하였다. 어쩌다 생긴 음식은 결국 제사상에 놓이고말았다.

그후 리상좌는 로송을 그리게 한 그 사람의 알선으로 종살이에서 벗어나 《도화서》의 화공이 되였다. 이때는 바로 리조초기였다.

리상좌는 《도화서》에서 수많은 인물화를 그리였다. 량반으로서 멋을 부리려는 인물들은 앞을 다투어 제 화상을 그려달라고 볶아댔다. 그리하여 상좌는 량반들의 화상을 도맡아 그렸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도화서》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는 화공이 되였다.

그가 더욱 이름을 떨치게 된것은 《맹호도》를 그려달라는 례조참판의 특별주문을 받고 이것을 성공시킨 때부터였다. 그는 례조참판으로부터 그림을 그려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나 좀처럼 호랑이의 상이 떠오르지 않아 붓을 들지 못하였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아버지의 제사날이 되여 어머니가 마련한 간소한 제상에 마주앉게 되였다. 소박한 제사상에 쭈그리고앉으니 평생 웃음 한번 시원히 지어보지 못하고 종으로 일생을 마친 아버지의 애절한 모습과 함께 이번에는 채찍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고 자기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구박하던 주인의 모습이 대조되여 떠올랐다. 순간 주인의 그 얼굴이 눈에 불꽃을 날리며 으르렁대는 무서운 호랑이의 형상이 되여 안겨왔다.

며칠간 모색하던 맹호의 모습이였다.

《아, 바로 이것이다!》

리상좌는 제사상을 물린 후 즉시 붓을 들었다.

죽죽 륜곽선이 그어지고 붓이 달리였다. 금시 살아서 꿈틀거리는 성난 호랑이의 형상이 나타났다.

번개가 번뜩이고 천둥이 울부짖는데 금시 달려나올듯 으르렁거리며 호랑이는 억센 발톱으로 땅을 꽉 눌러디디고 날카로운 이발을 번뜩인다. 뢰성벽력속에서 범은 입을 한껏 벌리고 요란한 소리를 내지르는듯싶다.

맹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것이다.

그림을 받은 례조참판도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림은 과연 성공적이였다. 하기에 그림은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못했다. 그를 《도화서》에 화공으로 추천한 량반까지도 찾아와서 《맹호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였다.

《과연 살아있는 범과 꼭같구려.》

《금시 앞발을 쳐들고 달려나올듯싶소이다.》

사람들의 칭찬은 그칠줄 몰랐다.

그후 리상좌는 인물화, 산수화 등 수많은 그림을 그리였다.

그는 선행시기 미술이 이룩한 우수한 전통을 살리면서 한평생 조선의 회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의 수많은 그림들중에서 오늘까지 전해지는것은 몇점 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작품들이 류실되고 더우기는 출신이 천한 노비라는데로부터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였다.

리상좌에 대한 기록은 오직 그가 전라도 전주태생이라는것이 남아있을뿐 어느해에 태여났고 어느때에 사망했는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다만 《패관잡기》에 이렇게 씌여있을뿐이다.

《그는 남의 집 종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 산수도와 인물화에 있어서 당시에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도 그림을 잘 그렸기때문에 노비출신임에도 〈도화서〉의 화공으로 선정되였고 원종공신의 칭호까지 받게 되였다.》

이 몇줄의 기록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리상좌가 당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노비출신이며 때문에 화가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기까

지에는 남달리 헤아릴수 없는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그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화가로서 그 이름이 전해지게 된것은 오로지 그의 피타는 노력과 분발의 산물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는것이다.

리상좌의 대표작은 크게 《송하보월도》(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이다.

이 그림의 창작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화가 있다.

어느날 그는 산수화의 구도를 잡기 위해 그 옛날 나무를 하던 절벽의 로송밑으로 갔다. 오래간만에 오니 종노릇하던 시절의 감회가 되살아났다.

《붓도 없어 손가락그림을 그리던 정든 곳이구나.》

그는 저도모르게 주저앉아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 손가락그림의 구도는 그가 의도하던바 그대로였다.

이 구도가 비단바탕에 옮겨진것이 바로 유명한 《송하보월도》인것이다.

그림을 보면 한편으로 석벽이 깎아지른듯 하고 그 석벽 높은 바위짬에 억센 뿌리를 깊숙이 박은 락락장송이 한그루 기세좋게 솟았는데 소나무아래로는 한 선비가 동자를 데리고 천천히 걷고있다. 소나무는 돌짬에도 뿌리를 박고 가로 뻗어나가면서 고개를 높이 치여들고 장하게 서있다.

사시장철 쏟아지는 비줄기에도 굴함없이, 엄혹한 산속의 겨울철도 끄떡없이 의기있게 견디여낸 소나무의 억센 기상.

여기서 화가는 소나무의 그 기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어두운 빛갈을 전혀 쓰지 않고 다만 달 하나만을 배치하여 밤이라는 단조로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흙 한줌 없는 각박한 바위틈에서도 든든히 뿌리내리고 모진 시련을 맞받아나가는 소나무의 형상을 통하여 화가는 불합리한 사회현실에 불만을 품은 자신의 감정과 그 현실을 굳세게 헤쳐나가려는 지향을 훌륭히 표현하고있는것이다.

풍파 많았던 그의 한생은 마치 여기 이 소나무의 형상과도 같았다.

그는 천대와 멸시를 박차고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으며 마침내 사실주의화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커다란 업적을 남기였다.
이 그림을 두고 유명한 시인이였던 송이는 이런 시조를 읊었다.

솔이 솔이라 하니
무삼 솔만 여기는가
천심절벽에
락락장송 내거로다
길아래 초동의 접낫이야
걸어볼줄 있으랴

리상좌의 그림으로서 현재까지 전해지고있는것은 《송하보월도》외에 《강변어선도》, 《관음도》, 《달마도강도》 등이 있다.
그는 당시 가장 뛰여난 초상화가로서 중종왕의 사망후 그 초상을 그렸으며 1546년에는 공신들의 초상을 그림으로써 원종공신으로까지 되였다.
그리고 《렬녀전》이라는 국문소설의 삽화도 담당하여 그렸다고 한다. 리상좌의 래력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는데 그들도 역시 이름난 화가들이였다고 한다.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화가 있다.
어떤 이름 높은 재상댁에서 그의 아들들인 리응호형제를 불러 그림을 청탁한 일이 있었는데 이들은 빈방에서 재상집솟을대문으로 뢰물바리를 실은 소 두마리를 끌고 들어오는 그림을 풍자적으로 그려놓고 슬그머니 나와버렸다는것이다.
대노한 재상이 그림을 그린 그들을 잡아들이려 하자 그들형제는 서울에서 평양으로 달아나버렸다고 한다.
이것은 부정적인것과 타협을 모르는 아버지 리상좌의 성격과 흡사하다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이 16세기 전반기 화단에 크게 이름을 남긴 노비출신의 화가 리상좌는 우리 나라 미술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였다.

《홍의장군》 곽재우

곽재우는 1592년 4월 간악한 왜적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덤벼들었을 때 제일선참으로 의병부대를 무어 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운 애국명장이다.

의병이란 국가의 상비무력인 관군과는 달리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스스로가 무장을 갖추고 일어나 침략자를 반대하여나선 의로운 무장대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의병이 제일먼저 일어난 곳은 왜적의 발길이 처음으로 미친 경상도였고 여기서도 가장 앞장선것은 곽재우가 이끈 경상도 의령의 의병대였다.

곽재우는 1552년 경상도 의령에서 태여났다.

곽재우의 아버지는 황해도 감사까지 지낸 세력있는 인물이였다.

곽재우는 태여나 다섯달만에 불행하게도 어머니를 여의였다. 그리하여 그는 외가에서 자라게 되였다. 외가도 의령에 있었다.

그는 그 시기 이름 높은 학자의 한사람으로 알려졌던 남명에게서 글을 배웠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글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더우기는 무술을 익히는데 주력하였다. 때가 되면 이 무예를 나라 위한 일에 쓰리라 마음다지기도 하였다.

아버지인 곽월이 의주목사로 부임하자 그곳에서 군사들과 어울려 무술을 닦고 힘을 키웠다.

곽재우는 별로 벼슬길에는 나서고싶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뜻을 어길수 없어 34살이 되는 해에 서울로 올라가 과거를 보게 되였다.

그의 시험제목은 《당태종이 대궐의 뜰에서 무술을 가르친 일을 론함》이라는것이였다.

당태종이 무력을 가지고 천하를 통일했으며 집권후에도 무술

에 그만큼 힘을 들이였다는 내용이였다.
곽재우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썼다.
《군주가 문약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문무를 겸해야 하는 법이니 당태종은 아주 잘했다. …》
그런데 당시 임금이였던 선조는 그의 시험지를 들여다보다가 《문약》이라는것은 시나 그림따위를 좋아하고 무는 돌보지 않은 자기를 빗대놓고 조롱한것이라고 하면서 곽재우를 당장 잡아들이라고 호령을 내리였다.
대신들이 설복하고 말리여 화는 겨우 면할수 있었으나 과거에서는 떨어졌다. 그때부터 곽재우는 벼슬에 뜻이 없었다.
특히 대바르고 정직했던 그는 관리들이 노는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곽재우는 락동강변에 조그만 집을 마련하고 《돈지》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여기서 한가로이 날을 보내였다. 이러한 때에 왜적들이 쳐들어왔다.
전쟁이 터지자 지방장관들은 제 목숨이 아까와 모두 보짐을 꾸려지고 피난해버리였다. 곽재우는 의분을 금할수 없었다.
《지방장관은 중대한 사명을 맡고있으면서도 제 한목숨만 건지려고 나라의 존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으니 이때 우리같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나라를 구원하는수밖에 없다.》
왜적들이 들어온지 10일이 되는 4월 22일 곽재우는 먼저 자기 집종 10여명으로 의병대를 무었으며 집재산을 털어내여 식량을 마련하고 무장을 갖추는 등 싸움준비를 서둘렀다.
그리고 피끓는 호소로 애국적인민을 궐기시켜 의병부대를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는 농민장정들과 일부 하급관리들까지 참가하여 그 대오는 삽시에 1 000여명으로 늘어났다.
곽재우는 의병들에 대한 무술훈련에 힘을 넣고 대오를 정비하는 등 빈틈없이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그는 의병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적수의 장기를 알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몸을 운신하는것이 씨름에서 이기는 길이 아니겠느냐? 엎어치기를 잘하는 사람

에게는 엎이우지 않도록 하며 다리를 잘 거는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도록 하는것이니 전쟁의 리치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미숙한 농민들에게 적들이 칼을 휘두를 때는 두팔밖에 미치지 않으므로 접전에서 그안으로만 붙어서지 않으면 칼에 맞을 념려가 없다는것, 왜놈들은 조총이 있다고 우쭐대지만 사격거리가 100보이므로 그 밖에 서면 총알도 능히 피할수 있다는것, 적이 칼과 창을 휘두를 때는 맞서지 말고 기회를 보아야 한다는것 등과 함께 숨는 훈련, 접전에서 요격을 치는 훈련, 활쏘기, 칼쓰기들을 세심히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일러주었다.

《장님과 멀쩡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물론 멀쩡한 사람이다. 그런즉 적이 보이면 무조건 숨어라. 숨었다가 가까이 오면 활을 쏘고 또 달려나가 요격해야 하느니라.》

군사들은 눈에 띄게 성장해갔다.

그런데 식량과 무기가 걸리였다. 곽재우는 지방관리들이 버리고 도망간 창고를 털어 의병들의 식량을 해결하였고 또 무장도 갖추었다.

그러나 살구멍을 찾아떠났던 경상감사가 이 소식을 듣고는 곽재우를 도적으로 몰아대며 잡아들이라고 야단하였다. 기가 막힌 일이였다.

《나라 위해 일어선 사람을 도적이라고 하다니. 믿을수 없는 세상이구나!》

곽재우는 결국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의병들이 그의 무죄를 증명해나섰고 초유사로 있던 김성일이 감사를 찾아가 그 일은 왜적을 무찌르자고 한 일임을 구구히 설명했건만 감사는 꿈쩍도 하지 않는것이다.

듣고보니 임금도 곽재우를 죄인이라 할수는 없는 일이였다.

그리하여 즉시 풀어줄데 대한 어명을 내리였다.

의령으로 돌아온 곽재우는 붉은 옷을 입고 백마에 올라앉아 의령의 왜적들을 쳐부시는 싸움을 시작하였다. 그는 삼가, 합천을 일거에 해방하고 이어 기강(락동강지류)으로 들어서는 30척의 적

의 배를 들부셨다.

그리고 교통의 교차점이며 요충지인 솥나루를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펴나갔다. 이때부터 곽재우는 《홍의장군》(붉은 천으로 옷을 만들어입고 싸웠다고 하여 홍의장군이라고 일렀다.)으로 이름이 났다.

전라도로 들어오려는 왜적들은 먼저 솥나루를 건느기 위해 지형을 정찰하고 습지대를 피하여 주력부대가 도하할수 있도록 말뚝을 박아 건늠길을 표시했다.

왜놈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알아차린 곽재우는 밤중에 눈썰미 있고 힘꼴이 센 군사들을 자기가 직접 솥나루에 데리고나가서 놈들이 박아놓은 말뚝들을 전부 뽑아 제일 깊고 진탕진 곳에 몰래 옮겨놓았다.

그리고 의병들을 그 주변에 매복시켰다.

날이 밝자 솥나루에 나타난 왜적들은 밤사이 의병들의 움직임은 모르고 표시해놓은 말뚝을 따라 유유히 강물에 들어섰다.

표적의 옮김으로 적들이 진탕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였다. 갑자기 큰 북소리와 함께 매복해있던 의병들이 쓸어나왔다.

곽재우의 공격명령이 내린것이였다.

《한놈도 남기지 말고 쳐죽여라!》

큰 칼을 잡고 백마에 올라앉은 《홍의장군》이 나타나 소리치자 매복했던 의병들은 성난 사자마냥 달려나가 왜적들을 베고 치고 물속에 처박았다. 뜻밖에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벼락에 바빠맞은 놈들이 황황히 돌아섰으나 거기에도 의병들이 배치되여 길을 막아섰다.

적들은 할수없이 무작정 강건너편을 바라보며 도강을 시도했지만 바닥이 진펄인데다가 물이 제일 깊은 곳이라 도저히 앞으로 나갈수도, 뒤로 물러설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였다. 그리하여 이날 솥나루에 기여들었던 왜적들은 전멸되고말았다.

통쾌한 싸움을 치른 의병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얼마후 또다시 적의 대부대가 솥나루도하를 기도한다는것을 알아챈 곽재우는 의병주력은 솥나루동쪽 강기슭에 매복시키고 그 맞

은편 서쪽언덕에는 허위진지를 여러개 만들어놓고 몇명의 군사만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기본력량은 가막산과 방어산에 은폐시켰다.

곽재우는 유리한 지대에 의병들을 매복시킨 후 붉은 옷을 입은 의병대장으로 가장한 여러명의 날랜 기병들로 몇개의 유인조를 조직하였다.

곽재우는 간격을 두고 한개 유인조씩 내보내여 적을 매복권안으로 끌어들이도록 명령하였다.

의병기마유인조가 솥나루에 나타나자 적장은 《홍의장군》의 력량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오산하였다.

《〈홍의장군〉을 사로잡으라!》

적장은 고함을 질러대며 군사들을 마구 내몰았다. 적들은 《홍의장군》을 잡으려고 10여리나 추격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골짜기에 들어서니 《홍의장군》은 간곳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나팔소리, 북소리, 의병들의 함성소리가 지동치고 숨어있던 군사들이 쏟아져나와 왜적들을 사정없이 족쳐댔다.

적장은 그래도 《홍의장군》을 잡아보려고 악을 썼지만 귀신의 조화처럼 여기저기서 불쑥 나타났다 사라지군 하는 《홍의장군》을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날도 적들은 솥나루를 건느려다 몰살되고말았다.

이렇게 왜놈들은 곽재우의 유인매복전술에 걸려 수많은 병력을 잃게 되였다. 하기에 적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천강(하늘에서 내린)홍의장군》이 온다고 벌벌 떨면서 맞설념을 못했다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곽재우는 의병들에게 바가지를 하나씩 차고다니게 하였는데 여기에 밥도 담아먹고 물도 퍼서 마시도록 하였다.

어느날 곽재우는 무쇠를 녹여 쇠바가지를 몇개 만들게 하였다.

그런데 그 바가지의 무게는 백근에 달하였다.

크기와 생김새가 의병들이 차고다니는 바가지와 꼭같은 그 바가지를 곽재우는 왜적들이 들어오는 길목에 슬그머니 놓아두게 하

였다.

의병들의 뒤를 악을 쓰며 따라오던 왜적들은 《홍의장군》의 의병들이 늘 차고다니는 바가지를 발견하고 두목에게 바치려고 들어보니 백근도 넘는것 같았다.

《아이쿠, 이렇게 무거운걸 허리에 차고 다니다니, 장수들이구나.》

왜적들은 그렇게 무거운 바가지를 차고도 가벼이 다니고 싸울 때에도 당할수 없이 날랜 의병들의 기상에 두눈이 뒤집혀졌다고 한다.

곽재우는 적들이 창녕으로 들어온다는 정보를 받자 현지에 나가 두루 살펴보고는 화왕산성에 진을 쳤다.

그리고는 의병들에게 령을 내렸다.

《급히 마을에 내려가 벌통을 있는대로 구해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판자들을 모아 궤짝들을 만들게 하였다.

궤짝이 다 되자 곽재우는 그속에 벌통을 하나씩 집어넣고 봉한 후 산기슭 여기저기 놓아두게 하였다.

앞장서 올라가던 왜적군졸들이 궤를 발견하고 이것을 저희 대장에게 바쳤다. 궤는 퍼그나 되였다. 또 어떤 궤들은 귀한 보물이 있을것 같아 저희들끼리 뜯기로 작정하였다.

《식량궤짝 같으니 뜯어서 밥이나 지어먹고 공격해보자!》

군졸들은 좋아서 사방에서 궤들을 뜯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궤를 여는 순간 그속에서 성난 벌떼들이 쏟아져나와 왜적들을 사정없이 쏘아댔다.

일시에 적의 대오는 혼잡속에 빠지였다.

이때 매복했던 의병들의 드세찬 공격이 시작되였다. 오합지졸이 된 적들은 손쓸새도 없이 두눈들을 싸쥐고 도망가기에 바빴다.

이날 적은 죽탕이 되고말았다.

그로부터 며칠후 곽재우는 의병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계획을 내놓았다.

《혼쌀이 난 왜적들은 더 많은 인원으로 공격해들어올것이다. 이번에는 벌통이 아니라 화약을 넣은 궤를 맵시있게 만들어라.》

얼마후 곽재우의 예견대로 적들은 조심조심 들어오다가 전번

처럼 궤짝을 발견하게 되였다.

《또 속을줄 알구. 모조리 불을 질러버려야지.》

적대장은 궤들에 손을 대지 말고 한곳에 몽땅 모은 후 불을 지르게 하였다. 그런데 얼마간 지나도 벌은 한마리도 나오지 않았다. 많은 적들이 불결에 모여들어서 벌들이 타죽는것을 보려고 기다렸다.

얼마쯤 지나 금시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궤들이 폭발하였다.

삽시에 놈들은 앉아죽고 서서죽고 궤속에 화약과 같이 들어있던 장작개비들에 맞아 아우성을 치며 무리로 쓰러졌다. 곽재우가 꾸민 계책그대로였다.

이찰나 의병부대의 날랜 기병들이 나타나더니 적들을 쥐잡듯 하였다.

이날도 왜놈들은 곽재우의병부대에 완전히 녹아버렸다. 겨우 몇놈만이 구사일생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곽재우는 이처럼 싸움마다에서 기묘한 전술로 언제나 승리를 거두었다.

대오를 더욱 확대하면서 승리를 공고히 한 곽재우는 락동강우안을 완전장악하였으며 7월부터는 현풍(창녕), 령산(양산)탈환싸움을 벌리였다.

당시 현풍성은 락동강좌안의 적의 전방기지로서 창녕에서 설산으로 가는 교통상 요충지였다.

은밀히 락동강을 건너간 의병부대는 현풍성에 접근하였다. 곽재우의병들은 적들을 성밖으로 끌어내여 섬멸하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왜적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매고 나오지조차 않았다.

곽재우는 의병의 한 부대를 맞은편 비파산에 올려보내여 북소리, 나팔소리, 함성을 울리고 밤에는 100리에 이르는 구간에 홰불을 일제히 올려 위세를 보이면서 적을 위압하게 하였다. 그러다 눈깜짝할 사이에 홰불을 끄고 현풍성뒤산에서 다시금 화광을 춤추듯 높이 올려 성안을 대낮같이 비치도록 하였다.

며칠째 잠을 못자고 극도로 피로해진 적들은 공포에 질려 마침내 야음을 타서 성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였다.

이것을 노린 곽재우는 일제히 의병들을 공격에로 불렀으며 가증스러운 원쑤놈들을 삼대베듯 해치웠다.

곽재우는 련이어 령산성의 적을 공격하였다.

령산성의 적장 하시바 히데노시는 의병들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대항하였으나 끝내는 참패를 당하고야말았다.

곽재우의병부대는 처음 은밀히 령산성에 접근하여 불의습격으로 해치우려 하였다.

그런데 의병들의 기도를 알아챈 왜적들이 성문을 열고 반격해나왔다.

곽재우는 기본력량은 산에 오르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장이 거느리는 날랜 기병들로 적을 혼란속에 몰아넣으면서 대담한 공격을 들이대였다.

이렇게 진행된 3일간의 격전에서 적은 수많은 주검을 내고 도망치고말았다.

곽재우의병부대의 현풍, 령산싸움에서의 승리는 왜적들의 중요전방기지들을 탈환하고 경상도에서 적의 서쪽퇴로를 끊어놓았다.

곽재우는 이 부근 각지에서 의병대에 들어온 애국적인민들 2 000여명을 무장시켜 대오를 더욱 튼튼히 하였고 락동강과 정진강사이에는 7개 진지를 설치하여 이곳 60여리를 지키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을 쓸어눕혔다. 그리고 적의 보급선을 차단해버리였다.

또한 마수원(락동강 서쪽포구)근처 강바닥에 말뚝을 꽂아놓아 적선이 걸려서 옴짝 못하게 해놓고는 복병으로 적을 요정내였다.

때문에 적들은 락동강을 마음대로 다닐수가 없었다.

곽재우의 전술에서 특징은 《성동격서》였다. 그는 호각을 부는 사람을 산중에 무수히 포치하여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밤에는 또 홰불로써 적들을 당황케 하였으며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유인하여서는 서쪽에서 치고 서쪽에서 소리를 내고는 동쪽으로 유인하여 들부셨다.

그런 령활한 전법이 있었기에 곽재우는 천만의 대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때문에 곽재우의병부대의 근처에는 적들이 감히 범

접을 못하였다.

곽재우의병부대의 맹활약으로 락동강우안 백성들은 전시이지만 농사를 지으며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었다.

그리고 전라도의 안전이 담보됨으로써 임진조국전쟁초기의 불리하던 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키는데서 관건적인 조건이 마련되게 되였다. 하기에 백성들은 《홍의장군》 곽재우의병부대가 마을을 지나가면 서로 앞을 다투어 밥을 지어 대접하고 술을 내놓아 군사들의 사기를 돋구어주었다.

곽재우는 싸움마다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서 성난 호랑이같이 용맹을 떨쳤으며 병사들을 싸움에로 불렀다.

또한 그는 자기 부하병사들을 허물없이 대하였고 간격이란 몰랐으며 귀하게 여기였다. 그는 자신의 의복을 벗어 해진 옷을 입고있는 부하의병들에게 입혔으며 처자의 의복을 덜어 그 가족들에게 입히였다.

솔나루싸움때 한 의병이 부상을 입고 왜적들의 포위속에 들자 곽재우는 주저없이 적진속을 헤치고 들어가 끝내 그를 업어내오고야 말았다.

하기에 의병들은 그를 무척 따르고 존경하였으며 싸움터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위하였다.

싸움이 끝난 저녁이면 의병들은 《홍의장군》 곽재우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아, 글쎄 오늘 싸움에서 장군이 우리를 이쪽으로 돌려세우지 않았으면 어찌될번 하였수? 저 별을 다 볼번 하였다우.》

《적이 그쪽으로 올걸 어떻게 미리 알았을가? 참, 천지신명이야.》

《전번 화약통 터뜨릴 때도 그렇지, 왜놈들이 꿈이나 꾸었겠소. 하하하.》

《인정은 또 얼마나 있다구. 우리 아들 웃저고리는 장군댁 아들게라우.》

저저마다 의병들은 곽재우에 대한 이야기로 날밝는줄 모른다.

군사들과 백성들을 혈육과 같이 사랑하는 곽재우였으나 매국

역적들은 추호도 용서하지 않았다.

령산의 공위겸이라는 관리가 제 한목숨을 위해 왜적앞에 무릎을 꿇고 길잡이가 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곽재우는 즉시 자리를 일어 그자를 붙잡아다 처형해버리고말았다.

경상감사 김수와 합천군수 전견룡이 곽재우의 공로를 시기하여 그가 《반역행위》를 한다는 허위보고를 정부에 올렸을 때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자들의 죄행을 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애국과 반역은 세상이 분간할것이고 옳고그른것은 공론이 판단할것이다.》

적들이 도처에서 얻어맞고 쫓겨나 남해안의 좁은 지역에 몰키게 되자 곽재우의병부대는 관군으로 개편되여 적들과 싸웠다.

1593년 곽재우는 성주목사, 경상우도 조방장이 되여 관군을 지휘하여 왜적을 격멸하였으며 다음해에는 진주목사로 되여 락동강우안지역을 굳게 지키였다.

1597년 쫓겨갔던 왜적들이 재침해오자 곽재우는 경상좌도 방어사로서 4개 고을군사들과 의병들을 거느리고 창녕 화왕산성으로 달려갔다. 이때 체찰사로 있던 리원익은 곽재우에게 고립무원한 화왕산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터이니 후퇴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곽재우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옛날 중국 제나라 성 70개가 다 적에게 함락되여도 즉묵성만이 혼자 남아있었고 당나라군사 100만을 안시성 하나가 버티고있었습니다. 다른 고을들이 차례로 쓰러진다 하더라도 이 성 하나라고 지키지 못할것은 없습니다.》

체찰사도 이에는 더 할 말이 없었다. 곽재우는 군민을 동원하여 끝내 마지막까지 이 성을 지켜냈고 왜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곽재우가 이처럼 뜨거운 애국의 열정을 간직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니게 된데는 그의 부인 리씨의 공이 컸다고 한다.

성격이 호걸스러운 곽재우에게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는 마흔이 되도록 친구들과 함께 술이나 마시고 시나 지어 읊으면서 한가하게 지내였다. 그런데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다섯해전 본처가

병으로 죽고 후실로 리씨를 들이였다.

리씨는 시집을 온 후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나흘째 되는 날부터는 집안일은 돌볼 생각이 없이 밤낮 잠자리에서 일어날줄을 몰랐다.

《저 녀자가 왜 저래. 좀 두고보자.》

곽재우는 속으로 벼르면서 가만두었는데 날이 가고 달이 바뀌여도 여전히 그 본새이다. 집안일도 밭일도 다 모른다는 식이다. 곽재우는 백날째 되는 날 리씨를 일으켜앉히고 와락 성을 냈다.

《젊은 녀인의 몸으로 이렇게 낮잠만 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남의 집안을 어떻게 만들어놓을 생각이요?》

그런데도 부인은 태연한 자세이다.

《사내도량으로 어찌 그렇게 좁은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루아침에 왜적이 들이닥치면 술상으로 막아내시겠나이까?》

곽재우는 그만 할 말이 없어 덤덤해있을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술추렴만 한것은 사실이니 말이다.

부인은 계속 자기 할 말을 이어나갔다.

《주부가 낮잠만 자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그르지 않소이다. 하지만 집안도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유지되는줄 아옵니다. 제비둥지가 깨여지면 둥지안의 제비알이 어찌 성하겠나이까? 지금 제비둥지와 같은 나라가 왜적의 침입으로 깨여질 형세인데 아무런 걱정없이 시나 읊고 술에 취해 나날을 보내고있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잘못이라 여기지 않는데 어찌 제비알 같은 집안 하나 망하게 된다고 꾸짖겠나이까?》

새삼스러운 눈으로 리씨를 다시 뜯어보던 곽재우는 생각이 깊어졌다.

《낮잠만 자는 녀인으로서 어찌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였소?》

리씨는 처음 시댁에 들어와 사흘을 지내면서 보아오니 우로 시부모가 계시지는 않지만 집안터세가 드세다는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어린 자기로서는 이런 댁의 주부로서 감당키 어려운데 더구나 남편의 일이 걱정이 되여 어찌할가 궁리를 하다가 이렇게 행동할 결심을 하였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제 생각엔 남편되는분이 보통 옹졸한 선비는 아니기에 언제든

지 이렇게 물어오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소이다.》

리씨는 그날 곽재우에게 지금 나라일이 안심치 않다는것과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라는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타고 무기를 다룰줄 아는것은 물론이요, 근방의 청년들도 모두 그렇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도 역시 남편의 일을 돕겠다고 하면서 녀인의 몸으로 군대뒤를 따라다니지는 못할망정 두손끝을 매고 앉아있을수야 없지 않는가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아무리 변변치 못해도 이 집안일은 자신이 다 맡겠으니 자기만을 믿고 남아대장부의 일을 마음놓고 하라고 간곡히 말하면서 자기도 몇가지 일을 해보겠다고 하였다.

곽재우는 리씨의 말을 듣고서야 무릎을 쳤다.

(주부가 낮잠을 자면 일개 집안이 망한다는것은 생각했지만 바깥주인인 내가 술이나 마시고 시나 읊으면서 허송세월하면 나라가 망한다는것을 왜 깨닫지 못했던가.)

그 이튿날부터 곽재우는 술마시기를 그만두고 무술훈련과 병서탐독에 열을 올렸고 동리청년들도 이렇게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는 낮에는 말을 달리고 활쏘는 법, 칼쓰는 법을 익히기에 여념이 없었고 밤에는 병서를 읽느라고 새벽이 된것도 모를 지경이였다.

리씨부인 역시 잠자리에서 털고일어나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일을 할뿐더러 하인들을 데리고 곡식과 남새를 심었고 밭머리마다에 호박을 심었다. 그런데 신묘하게도 부인이 심은 호박은 동이만 하게 컸다고 한다. 그리고 꿀벌도 많이 쳤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얼마전 왜적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들은 리씨는 어느날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짐승의 굴도 들어가는 구멍이 다르고 나가는 구멍이 다르답니다. 우리도 산속 으슥한 곳에 집이나 짓고 량식이나 갖추어 두는것이 좋겠나이다.》

곽재우는 아무말없이 부인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어느날 밤 리씨부인은 자그마한 보퉁이 하나를 남편앞에

내놓는것이였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싸움에서는 속임수를 쓰는것도 피하지 않는다고 하더이다. 이것은 붉은 철릭(장수들이 입는 옷—우는 도포같고 아래는 치마같이 된것)에 흰 거죽을 덧씌운것이옵니다.

거죽은 그때그때 얼른 벗을수도 있고 또 얼른 들쓸수도 있소이다. 이것이 우스운듯 해도 우리 편의 합심을 굳게 하거나 적의 마음을 혼돈시키는데 대단히 유리할것이옵니다.》

리씨부인의 말은 과연 훌륭하였다.

그리하여 유명한 《홍의장군》의 그 붉은 철릭이 세상에 나왔던것이다.

전쟁이 터진 후 부인은 곽재우와 의논하고 동리를 온통 비워놓는 전술을 썼으며 자신이 가꾸어온 박에 옻칠을 하고는 거기에 수많은 뱀과 벌떼들을 밀어넣어 황금에 눈이 어두운 적들이 마을을 뒤지며 돌아갈 때 놓아두게 하였다.

왜놈들이 그 박이 무슨 보물인가싶어 그것을 열어제끼니 꿀벌들이 더미로 터져나와 눈알을 파고 얼굴이며 손이며 온몸을 쏘아댔다. 이것은 어느 한 집이 아니라 집집마다에서 벌어진 일이였다.

다음날 적들이 어떤 집을 뒤지니 거기에도 전과 같이 큰 박이 문턱에 가로놓여있길래 조심히 치우고 돌아서려니 이번에는 거기에서 뱀의 떼가 쏟아져나와 왜적들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뱀과의 싸움에 얼떨떨해지고 심한 부상을 입은 적들은 더 어쩌지 못하고 달밤을 타서 달아나고말았다.

이때부터 적들은 우리 인민들의 재물을 훔치려다가도 이런 변이 날가봐 매우 조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곽재우가 맨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키고 기묘한 전법으로 왜적들을 무찔러 임진조국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한데는 리씨의 공로도 적지 않게 깃들어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599년에 경상우도 병마사로 있던 곽재우는 국방에 대한 건의서에 이렇게 지적하였다.

《안시성이 능히 적을 막아내였기때문에 고구려가 망하지 않았고 즉묵성이 홀로 남아있었기에 제나라가 다시 일어설수 있었는

데 지금 조정에서는 수군에만 력량을 기울이는데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곽재우는 수군과 륙군을 다같이 강화해야 한다는 자기의 정당한 주장을 건의서에 주저없이 밝히였던것이다.

1599년 곽재우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여 하루도 허실함이 없이 나라방비에 힘썼다. 성들을 복구하고 무기들을 만들었으며 군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관료배들은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었다.

곽재우는 이에 격분하여 국왕에게 상소문을 올리였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분발하여 착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간신들을 멀리 하여 나라의 부흥을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도 역시 한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대왕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정에서는 동, 서, 남, 북의 당파가 있어 벼슬하는 자들은 자기의 패거리들을 모으고 다른 패거리들을 배척하며 서로 다른 패거리들을 시비하는것으로 세월을 보내고있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존망과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당파싸움질에 전심하고있을뿐입니다. 짐작컨대 이자들은 나라를 망하게 한 후에야 당파싸움을 그칠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상소문에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

곽재우는 분연히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면서 지내였다고 한다. 그리고 말년에는 경상도 영양의 비파산에 들어가 솔잎을 씹으며 여생을 보내다가 65살에 생을 마치였다.

그의 저서로서는 《망우당집》(2권)이 전해진다.(곽재우의 자는 계수, 호는 망우당이다.)

그가 사망한 후 나라에서는 곽재우의 서원에 《예연서원》이라는 액자를 내려 그의 높은 뜻을 추모하였으며 1709년에는 병조판서의 벼슬과 충익이라는 시호를 내리였다.

이처럼 임진조국전쟁시기 바다싸움에서의 명장으로 리순신을 꼽는다면 의병장으로서는 응당 곽재우를 꼽을만큼 그는 유능한 무관이였다.

애국시인 박인로

한여름 글읽던 아이들은 조금뒤에 덥다고 모두 시내물에 뛰여들었다.

그들은 서로 물을 뿌려주고 또 물밑으로 들어갔다가는 다시 나오고 하는 장난에 글생각은 다 잊어버린듯싶었다. 그러나 한 아이만은 지꿎게 앉아 쓰고 지우고 또 쓴다. 그리고는 한번 읽어본다.

뻐꾹새야 울려무나 저기 서울
부자집 높은 집 처마에서
알려주려마 농사일을
권하는 새 여기 있다는것을…

그가 바로 중세문학사에서 손꼽히는 시인인 박인로이다.

박인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미가 직심스럽고 글재주가 뛰여나 동리어른들을 놀라게 하였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비롯한 무술닦기에도 힘썼다.

박인로는 1561년 경상북도 영천군 도천리에서 박서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때 박서는 승의부위라는 낮은 벼슬에 있었으므로 생활이 넉넉치 못하였다.

박인로는 호를 로계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시내가의 무성한 갈대라는 뜻이다.

이것은 그가 살아서 활동한 많은 시기를 농촌에서 지내면서 직접 자신이 씨를 뿌리고 낟알을 거두어들이였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농촌에 애착을 느끼고 주로 들에 살면서 들에 대한 시들을 썼다.

앞에 쓴 뻐꾹새에 대한 시도 역시 들에 대한 시인것이다.

박인로는 청년시기의 거의 전부를 농촌에서 보내였다. 그런데 그가 31살이 되던 해에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났다.

《나라가 이토록 위태로와졌는데 집에나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이 땅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 왜군을 하나라도 무찔러야 한다.》

박인로는 분연히 일어나 의병장 정세아를 찾아 별시위로서 그의 사업을 도와나섰고 그후에는 절도사 성윤문의 막하에서 그를 보좌하며 원쑤를 격멸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박인로는 그때를 회상하여 이렇게 썼다.

《공(박인로)이 적의 정형을 론의할 때마다 성윤문은 손바닥을 치면서 옳다고 감탄하여마지않았다.》

7년간의 전쟁은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박인로는 나라가 위험에 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켜내기 위한 마당에 한몸을 내대였으며 평화로운 시절에는 농사일에 정력을 쏟아부었다. 때문에 그의 시가들은 이 두가지 주제로 일관되여있는것이다.

박인로는 37살이 되는 해에 처음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 선전관과 같은 자그마한 벼슬을 지내였고 이후에는 거제도끝의 조라포 만호로도 있었다.

그리고 1605년 그가 44살이 되던 해에는 왜놈이 다시 우리를 먹어보려는 기미가 엿보이자 부산항의 통주사로 해상경계근무에 열중하였다.

박인로는 벼슬을 살면서도 매우 청렴결백하였다.

언제나 정의감에 불탔던 그는 《인조반정》으로 통치계급내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백성들이 도처에서 들고일어나자 단연 벼슬을 버리고 고향 영천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그는 생애의 마지막까지 오직 자연에 묻혀 글을 읽고 쓰는데 모든것을 바치였다.

그의 대표작은 임진조국전쟁시기 반침략투쟁을 반영한 가사 《태평사》와 그와 쌍벽을 이루는 《선상탄》을 들수 있다. 이로하여 문학사에서는 박인로를 애국시인으로 부르고있는것이다.

박인로의 성과작인 《태평사》와 《선상탄》은 반침략애국투쟁을 반영한 시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태평사》는 임진조국전쟁이 승리로 끝나 싸움에 나갔던 병사들이 개선가를 부르며 기쁨에 넘쳐 고향땅으로 돌아가고 어디에서나 승전의 춤판이 벌어지는 속에서 창작되였다.

작품은 군사들이 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웠음으로 하여 우리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이제부터는 평화로운 시기가 올것이라는 장시이다.

어느날 성윤문은 박인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박공은 시를 잘 짓지 않소. 이 기쁜 날에 어째서 전승의 기쁨안고 춤추는 저 모습들을 노래하지 아니하오?》

박인로는 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이하여 시가 없겠나이까. 이 좋은 날에 절도사께서 요청하신다면 여기서 읊으리다.》

가사 《태평사》는 이렇게 되여 창작되였다.

가사는 첫 부분에서 농쟁기를 칼과 활로 바꾸어메고 전장으로 달려나간 우리의 의로운 병사들이 산악이 떠나갈듯 왜적들을 들이족쳐대는 장한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하루아침에 덮쳐든 백만 왜적 맞받아
용감한 백성들은 칼을 메고 달려갈제
백골은 무참하게 벌판에 널려있고
서울이며 고을들은 승냥이굴이 되였어라

룡같은 장수들은 구름같이 내달았네
하늘덮은 기발들은 만리에 뻗고뻗어
충천하는 사기앞에 산악이 떠나갈듯
어영대장 앞장서 적진에 돌격하니
노한 비바람에 벼락이 지치는듯
…

《태평사》는 임진조국전쟁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함축하여 폭넓게 보여주면서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 대한 자랑과 싸움에서 이룩한 승리에 대하여 선명하게 그려나가고있다.

시의 뒤부분에서는 이렇게 쓰고있다.

병기를 걷어들고 병영으로 돌아올제
나팔이며 북이며 피리소리 높이 울려
바다속 룡궁에 어룡이 다 우는듯
찬란한 기발들 서풍에 흩날리여
한쪼각 오색구름 반공중에 떨어진듯
활과 화살 추켜들고 개가를 올리니
웨치는 환호소리 하늘에 사무친다
서리발같은 긴 칼을 흥겹게 둘러메고
얼굴을 번쩍 들어 춤을 추려 일어서니
눈부신 칼날이 하늘중천에 번쩍인다
너울너울 춤을 추니 즐거움이 절로 나고
환희에 찬 노래 그칠줄 몰라라
사람의 경사 이같은 일 또 있으랴

시인은 작품의 마지막부분에서 전쟁란리통에 헤여졌던 부모처자들이 그리운 제 집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봄바람을 타고 옛집으로 찾아드는 제비와 비유하면서 《밭갈고 우물 파서 평화롭게 살아가며 격양가 부르는》 평화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박한 념원으로 끝을 맺고있다.

이와 같이 《태평사》는 임진조국전쟁의 승리를 노래한 유일한 가사라는데로부터 문학사에서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또한 가사 《선상탄》은 왜놈들을 반드시 소멸해버리고야말겠다는 시인의 굳은 결의를 노래하고있다.

가사에서는 몸은 비록 늙고 병들었어도 일장검 비껴차고 병선에 올라 구시월 추풍에 락엽치듯 무지한 적들을 모조리 쳐없애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노래하고있다.

비분한 기상이사 늙을수록 더 하여도
병든 몸이라 분을 풀기 어려우리
그러나 옛 사람들 목숨이 다해서도
원쑤를 갚았다는 이야기 전해오네
이 몸은 손발 있고 목숨이 붙었거니
어찌 좀도적쯤 두려워할소냐
비선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구시월 삭풍에 락엽같이 헤치리라

이와 같이 《태평사》, 《선상탄》은 시인의 원쑤에 대한 치솟는 격분과 함께 나라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소리높이 구가한 작품으로서 그 의의가 큰것이다.

박인로는 고향 영천에서 농사와 창작활동을 벌리였는데 이때의 생활체험을 가사 《루항사》에 담았다.

소가 없어 논갈이를 못하니 소낙비 내려 논이 젖은 다음 소를 빌리려 저녁녘 이웃집에 갔건만 소주인은 장꿩을 구워놓고 좋은 술을 권하는 다른 집에다 소를 주겠다고 한다.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아가서
굳이 닫힌 문밖에 어둑이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함이를 량구토록 하은 후에
《어허 그 뉘신고.》
《렴치 없는 내옵노라.》
《초경도 지인데 그 어찌 와계신고.》
《년년이 이러하기 구차한줄 알건마난
소 없는 궁가에 해임 많아 왔었노라. …》

라고 하면서 그는 소를 빌리지 못하고 돌아오는 심정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였다.

헌먼데기 짚신으로 서럽게 돌아오니
볼꼴없는 뒤모양을 개마저 짖어대네
답답한 방구석에 잠이 와야 누워있지
부창에 기대여 새벽을 기다릴제
비둘기만 구구구 나의 시름 돋구누나
즐기던 농부가도 흥없이 들리고
한숨만 부질없이 흘러나와라
가시덤불 쑥밭도 쉽게 갈아제낄
아까운 저 쟁기 별도 못보고
헛간벽 허리에 걸려있구나

그러나 시인은 《있을제는 죽을 먹고 없을제는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것을 부러워 하지 않으리라.》라는 자기의 굽힘없는 신조로 시의 끝을 맺고있다. 박인로는 고령에 이르렀어도 나라 위한 애국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76살 되던 해에 녀진족이 쳐들어오자 싸움판에 나설수 없는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시 《느낌을 적는다》에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나라에 바치자던 숫저은 맹세
끝끝내 이루지 못하여
마음 설레는 긴긴 밤마다
외로운 잠자리에 시름깊더니

꿈에나마 적의 소굴
말을 타고 쳐들어가
놈들의 우두머리 쏘아눕히고
개선가 드높이 돌아왔노라

시인은 생애의 말년을 농촌에서 지내면서 구차한 농민들의 생활을 동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시들도 여러편 남기였다. 그는 농민들의 빈궁의 원인을 바로 량반관료계급들의 가혹한 착취에 있다고 보

았다.
그는 시 《밭갈이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산에 사는 뻐꾸기도
농사철을 잊지 않고
바삐 날아 오고가며
밭갈이를 전하는구나

사람이 사는 근본이
농사에 매였는데
그 누가 갈지 않고
놀고만 먹느냐

시인은 모두가 하나같이 밭갈이를 하고 또 병기를 갖추어 국방에 참가하며 교육을 내세우면서 편안하게 살기를 열렬히 희망하였으며 그것을 자기의 시에 담았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이룩될수 없는 한갖 념원에 지나지 않았다.
역시 박인로도 자기의 작품에서 그 원인과 해결방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박인로의 시에는 이외에도 아름다운 이 나라 강산에 대한 찬양과 도덕적교훈에 대하여 쓴 한시와 시조들도 있다.
이와 같이 박인로는 임진조국전쟁이라는 준엄한 시기에 활동한 시인으로서 중세문학사와 더불어 애국적시인의 자랑찬 모습을 남기였다.

재능있는 녀류시인 허란설헌

어느날 허엽은 세 아들의 공부를 검열하려고 불러앉히였다. 그들의 글재주를 보려는것이였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고 귀엽게만 길러온 딸이 아버지앞에 나서는것이였다.

《아버지, 저도 오빠들과 같이 글재주를 겨루겠어요.》

《아니, 네가 언제 글을 익혔다고 오빠들과 겨룬단 말이냐?》

아버지는 글도 배워주지 않은 딸애가 나서는것이 놀라왔다. 그 시기로 말하면 집안에나 있는 처녀애들에게는 글을 배워주지 않았다. 그것은 량반집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었다. 때문에 허엽도 딸애에게는 글 배워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오빠들의 뒤를 쫓아다니던 딸애가 자기도 해보겠다니 놀랍기만 하였다.

《하겠으면 해보려무나, 말리지는 않겠으니…》

그리하여 이들은 나란히 앉아 글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오빠들이 짓기도 전에 딸이 먼저 일어서는것이 아닌가.

《아버지, 전 다 지었어요.》

《그래?! 어디 보자.》

아버지는 서둘러 글을 읽어내려갔다. 그러던 그는 딸의 글솜씨에 두눈이 번쩍 뜨이였다.

《이런걸 언제 다 익혀두었느냐?》

아버지는 몹시 감동되여 글쓴 종이를 들고 보고 또 보며 오래도록 놓지를 못하였다.

이 처녀애가 바로 16세기 우리 나라의 재능있는 녀류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허란설헌이다. 그는 1563년 강원도 강릉에서 경상감사를 지낸 허엽의 딸로 태여났다.

그의 오빠들인 허성, 허봉과 남동생 허균 등은 모두 그 당시 이름난 문장가들이였고 학자들이였다. 이런 속에서 자라난 허란설헌은 선생을 붙여주지 않았지만 오빠들의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으며 조그마할 때부터 벌써 시를 짓고 그림도 잘 그려 마을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가 7살되던 때의 일이다. 마을사람들은 그의 글재간이 너무도 기특하므로 《광한전 백옥루》라는 다락에 대들보를 올린다는 내용의 글을 짓도록 하였다. 그는 냉큼 일어나 붓을 잡더니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사람들은 어린 그의 행동이 너무도 귀여워 볼을 쓰다듬어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였다.

이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어린 딸의 재능이 더없이 대견스럽기는 하였으나 한편 녀자를 천시하는 당시의 봉건적타성이 그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질 생각이 들어 서글픈 기색을 짓고말았다.

그후 아버지 허엽은 허균의 수업을 시키면서 딸애도 함께 배우도록 하였는데 스승은 시인이였던 손곡 리달이였다.

리달은 둘째오빠인 허봉과 친구관계에 있었다. 그는 서자출신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불우하게 지내였다. 때문에 그는 당시의 신분제도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울분을 품었으며 그로 하여 자기의 생활을 많은 시들에 옮겨놓았던것이다.

아버지와 오빠형제들의 좋은 영향과 훌륭한 선생의 교육은 허란설헌에게 녀성다운 섬세성을 가지고 문학적인 자질을 꽃피워나갈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때 그의 오빠들은 관료들사이의 권력다툼의 희생물이 되여 갑산과 남주로 귀양을 가게 되고 처형되는 비극을 겪게 되였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현실을 보다 예리한 눈으로 들여다보게 하였다.

허란설헌은 일찍 결혼하였는데 남편인 김성렵은 문과에 급제하여 일정한 벼슬도 지내였으나 재능보다도 조상의 뼈를 더 귀히 여기면서 그 덕을 보며 량반행세를 하려드는 볼품없는 위인이였다. 그의 남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술상을 펴놓았고 난봉을

부리며 주위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다.

그가 너무도 술에 미쳐서 돌아가 허란설헌은 술병에다 시 한수를 써서 내놓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때 술병에 썼던 시는 이런것이였다.

랑군님은 무심코 그러시련만
그 누가 이 마음에 쐐기를 치는건가

허란설헌에게 있어서 남편의 존재는 서글픈 추억만을 불러오는 가련한것이였다.

거기에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글귀나 붙들고있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걸핏하면 이마살을 찌프리였다.

그에게는 림종시 머리맡에 앉아줄 자식조차 붙어있지 않았다. 원래 아들과 딸이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어이된 일인지 일찍 어머니곁을 떠나간것이다.

그는 이 애달픈 심정을 《자식에게 곡하는 시》에서 이렇게 눈물로 읊었다.

지난해 잃은 딸과
올해에 여읜 아들
울며울며 묻는 흙이
두 무덤으로 마주섰네
백양숲엔 소슬바람
송추에는 도깨비불도 밝다
지전으로 네 혼 불러
무덤앞에 술붓는다
너희 남매 혼은 남아
밤이면 서로 따라 놀지
이 배속 어린 생명
또 낳아 잘 자랄가

어지러운 황태사
피울음에 목이 멘다

이렇게 그의 가정생활은 즐겁지 못하였다.

사회도 남편도 자식도 그에게 온기를 주지 못하였다.

이 모든 생활의 체험을 그는 시로 형상해냈다.

그는 뒤뜰에 초당을 하나 짓고 그속에 파묻혀 오직 글을 읽고 쓰는데만 정신을 쏟았다.

허란설헌은 가정생활에서나 창작에서나 조선녀성의 굳은 절개와 고결한 품성을 잘 보여준 현숙한 녀성이였으며 녀류시인이였다. 그는 부모들에게 효성이 지극하였고 형제들사이에도 우애가 깊었다. 그러나 허란설헌은 창작의 왕성기에 들어서고있던 1589년 봄 26살의 젊은 나이에 일생을 마치였다.

얼마 길지 않은 생애의 창작이였으나 그가 쓴 시의 원고는 한방에 가득찰만큼 많았다. 하지만 림종시에 이르러 본인자신이 그것을 모조리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다만 친정에 남아있던 얼마간의 유고를 남동생인 허균이 정리하고 편집하여 《허란설헌집》으로 전하였다고 한다.

이 시집에는 5언, 7언의 절구, 률시, 고시 등 210여수와 그가 15살때에 다시 지었다는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이 수록되여있다.

허란설헌의 시에서 중요한 주제로 된것은 자기의 파란많은 생활과도 직접 잇닿아있는 봉건적질곡에서의 천대받는 녀성들에 대한 심심한 동정이였다.

서정시 《가난한 집 처녀》는 그러한 작품들중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밤새워 짜낸 고운 천을 지주놈한테 몽땅 빼앗기여 제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해마다 주인집처녀의 시집갈 옷만 꾸며줘야 하는 나이든 로처녀의 한스러운 심정을 그는 이렇게 시에 담았다.

얼굴인들 이쁘지 않으랴

바느질도 길쌈도 잘한다네
너무도 가난한 집에
나서자란탓인지
중신아비 하나도 찾지 않누나

밤은 깊어가도 베틀은 쉬지 않네
짤깍짤깍 쓸쓸히 울리는 바디소리
말코에 감긴 한필의 이 비단
어느 뉘의 옷감이 되려나
가위든 열손가락
추위에 꽛꽛이 곧아드누나
남의 집 혼수를 지어만 줄뿐
해마다 해마다 외로이만 살다니…

이와 같이 가난한 녀성들의 고달픈 생활에 동정을 보내였고 천대받는 녀인들의 세계를 그려내였다.

서정시 《느낀바 있어서》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집의 차이를 대비의 수법으로 그려냄으로써 불공평한 봉건사회의 모순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동쪽 집엔 세도가 불길같애
높은 루에서 풍악울려 잔치하고
북쪽 집은 가난하고 헐벗어
거적문안에서 굶주리고 살았다네
하루아침 동쪽 집의 높은 루가 무너져
도리여 북쪽 집이 부럽게 되였으니
잘살고 못삶이 서로 엇바뀌는
이 또한 자연의 리치일리라

허란설헌은 또한 외래침략자들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나라의 운명에 우려를 표시한 진실한 인간이였다. 그는 변방방비를 수수

방관한 통치배들에 대한 우리 백성들의 원성과 분노의 감정을 시 《성쌓는 괴로움》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사람마다 흙공이 얼싸안고 달구질하니
땅속에 공이소리만 쿵쿵 울려퍼진다네
힘들여 굳은 성벽 쌓아올리건만
변방에 어진 장수 없고나

성을 쌓네 또다시 성을 쌓네
높이 쌓아야 외적을 막아낼걸세
외적들이 더욱더 많이 덤벼든다면
변방에 어진 장수 없으니
막아내지 못할가 걱정이로세

이 시는 임진조국전쟁전야의 현실을 반영하고있는데 나라의 평온을 바라는 그의 애국의 감정이 잘 반영되여있다고 볼수 있다. 비록 가정에 들어앉아 문밖출입조차 하지 않는 일개의 녀성이지만 언제나 나라의 운명이 걱정되고 고향과 부모형제들이 생각되여 이런 시를 썼던것이다.

그는 또한 자기 시에서 하늘을 날으는 새들도 온갖 꽃이 만발한 자연을 즐기고 꽃송이들도 산들바람에 가볍게 흩날리는 화창한 봄날에도 깊은 골방에 홀로 앉아 시름겹게 보내야 하는 외롭고 애달픈 녀인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제비는 쌍쌍이 처마 스쳐날고
지는 꽃 분분히 옷자락에 날리네
온 누리의 봄빛은 이 몸에도 완연한데
풀은 푸르렀건만 강남가신 님 소식도 없어라

그러나 허란설헌은 이러한 봉건적질곡을 대담하게 부시고 락천적인 생활에로 힘차게 지향하는 우리 녀성들의 내면세계도 다감

하게 노래하였다.

마을아가씨들
서로서로 다퉈가며
그네를 잘도 뛰네
띠 매고 수건 동이고서
공중에 펄펄 나네

바람을 헤친 채색줄
하늘높이 올라가고
옥파소리에
버들잎 속절없이 지네

이와 같이 서정시 《그네노래》에서는 명절날 그네를 뛰면서 마음껏 즐기며 희희락락하는 녀성들의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넓고 환희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그들의 념원을 진실하게 그려내였다.

허란설헌은 자기 시에서 사회현실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평가하였다. 그것은 그의 오빠들의 불우한 인생사와 관련하여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문제였다.

때문에 그는 시 《느낌을 말한다》에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오늘의 시편들을
내 두고 생각하노니
훌륭하기 그지없네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노래
아! 오늘 다시
온 세상에 울려퍼진다

허나 시지은 사람들은
말직에 주저앉고
두메산골 관원으로 쫓겨나누나
몸은 시들고 지위는 떨어지나니
과연 시가 사람을 궁하게 만드는건가!

허란설헌은 훌륭한 시편들이 관료사회의 버림을 받아 땅바닥에 떨어지고 또한 참된 시인들이 구속당하고 학대받는 현실을 예리한 필치로 지탄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갑산으로 귀양을 떠나는 둘째오빠 하곡(허봉의 호)의 가늠할수 없는 운명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차디찬 서리바람은
기러기떼를 불러보내나니
이리저리 나뉘여 날고
줄을 잇지 못하는
외기러기신세여라

허란설헌의 시문학은 시인자신이 녀성인것으로 하여 사회적 활동범위가 제한되여있고 내용에서도 녀인들의 생활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국한되여있지만 이 시기 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때문에 서포 김만중(1637～1692, 리조중기의 작가)은 정당하게도 허란설헌은 《조선녀성중에서 첫째가는 시인》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허란설헌은 처녀시절뿐아니라 출가후에도 수많은 시들을 썼다. 그러나 녀성들의 글공부를 장려하지 않은 봉건사회에서 녀성이 쓴 시를 출판해줄리가 없었다. 다행히도 남동생인 허균이 소설가였으므로 그의 시들이 일부 전해지게 되였다.

허균은 37살때인 1606년 중국에서 오는 주지번이라는 사신을 맞이하는 관리로 임명되였다.

그때 그는 서울의 벽제관에서 사신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글짓기를 하군 하였다. 사신은 허균의 글재주에 감탄하면서 돌아가는 기념으로 될 글 몇편을 달라고 하였다.

이때 허균은 자기에게는 변변한 글이 없으나 누이의 글이 있으니 한번 보라고 그앞에 펴놓았다.

그 시들을 본 주지번은 무릎을 내리치며 매우 감탄하는것이였다.

《더군다나 녀성이 쓴것이라니 더욱 귀중한 보물이요. 이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는 거듭 요청하였다.

자기 땅으로 돌아간 주지번은 그 시들을 묶어 《란설헌집》으로 찍어내였다.

이렇게 되여 《란설헌집》이 세상에 나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였고 그의 이름은 나라지경을 벗어나 멀리 외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였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조문기는 허란설헌의 시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을 보고는 감동되여 엄지손가락을 흔들었다고 한다.

《이 글을 읽으니 참으로 신선이 되여 백옥루에 올라가는것 같은감이 난다.》

그는 이렇게 찬사를 늘어놓았다는것이다.

허란설헌의 시와 관련하여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허란설헌의 시를 애독하던 사람들중에는 허경란이란 녀인이 있었다. 허경란은 선조왕시기 통역관으로 중국에 들어갔던 허지의 딸이였다.

그 역시 어린시절부터 총명하여 7～8살에 시를 지었다.

그러나 중국땅에서 그가 어렸을 때 량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으므로 고향으로 오지 못한채 친척집에서 살았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제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쳤다. 이러한 그에게 허란설헌의 시들은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면서 안겨들었다.

그것은 마치도 고향의 한줌흙과도 같이 귀중하게 여기여졌다.

더군다나 같은 녀성의 시라는데서 그 감흥이 더더욱 컸다.

경란은 허란설헌의 시의 운을 따서 자신이 지어보기도 하고 읽어도 보았다.

그후 허경란의 시들은 《해동란》이라는 시집에 묶이워져 출판되였다.

허경란은 허란설헌의 시에 얼마나 매혹되였던지 자신을 그의 환생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애호도 경란이라고 불렀다.

그는 허란설헌이 26살에 죽었으니 그의 환생인 자기도 분명 26살이 되면 죽을것이라고 하면서 친척들앞에서도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금년에 꼭 죽을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허경란은 그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죽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몹시 실망하였다는것이다.

《그럼 내가 허란설헌의 환생이 아니라 범상한 태생이였단 말인가?!》

이와 같이 허란설헌의 시는 많은 시인들과 녀성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널리 애독되였다.

1692년 동래에서 허란설헌의 시집이 다시 출판되여 일본인들을 경탄시켰으며 그후 여러번 재판되기까지 하였다.

중세문학의 시단을 알차게 장식한 녀류시인 허란설헌은 우리 녀성들과 인민들의 자랑이다.

한생을 외적과의 싸움에 바친 김응서

임진조국전쟁에서 왜적을 드세게 족쳐대여 우리 인민들의 기억속에 력력히 남아있는 김응서는 1564년 11월 평안도 룡강에서 태여났다. 아버지는 무관이였으며 어머니 역시 무관의 딸이였다. 그래서인지 김응서는 어렸을 때부터 군사놀이를 좋아했고 전쟁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었다.

어느날 책읽기에 열중하던 김응서가 느닷없이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서는것이였다.

《아, 이렇게 하면 이겼을것인데!》

그는 머리속의 계책을 중얼거리며 군사를 지휘하는 시늉을 하여 집안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김응서가 자라나던 시기로 보면 녀진족들이 자주 들이닥쳐 때로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군 하였다. 그러나 량반의 자식들은 목숨이 두려워 무과에는 응시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응서는 나라와 겨레의 안녕을 위해 이 땅을 지켜나갈 결심을 다지였고 결연히 20살에 무과에 합격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리진권관으로 임명되였다.

이때부터 김응서는 자기의 전생애를 외적과의 싸움에 바치는 국방초소에 서있었다.

그는 재능있는 군사지휘관으로서 엄격한 규률을 존중하였고 청렴한 품성을 지니고있었다.

그는 두번이나 량반들의 행동을 규찰하는 과업을 맡은 사헌부 감찰로 임명되였으나 문벌이 미천하고 당시는 평안도출신을 멸시하던 때였으므로 그 직책에서 해임되여 녀진방어에서 일선으로 되

는 벽동 아이만호로 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변방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관료배들이 궁궐에 앉아 그려낸 축성설계가 아니라 이곳의 자연지리적형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신의 새로운 설계에 의하여 성을 굳건히 쌓았고 군사들을 극성스럽게 훈련시켰다.

그후 그는 1590년 고산진 병마첨절제사로 등용되였다.

20대의 김응서에게는 평양에 9명의 의형제가 있었다. 이 의형제패가 그후 임진조국전쟁의 평양성싸움에서 한몫을 단단히 맡아한 평양의 10장사들이다.

어느날 김응서는 수려한 모란봉의 경치를 즐기려고 을밀대에 올랐다. 마침 그곳에서는 평양의 8장사로 소문이 짜한 의형제들이 봄놀이판을 펼치고 한창 흥에 겨워 희희락락하고있었다.

음식도 요란히 차리고 단소와 생황(금속제 혀가 붙은 참대관들로 된 민족악기)을 멋들어지게 받치며 거문고를 타는가 하면 묘한 입소리를 내면서 재주를 자랑하는 모양은 참으로 볼만 하였다. 마음이 부쩍 동한 23살의 김응서는 한몫 끼워달라고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러나 평민출신들인 이 8장사들은 김응서가 벼슬을 한다는 리유로 그의 청을 거절해버렸다.

김응서는 그길로 장마당에 내려가 커다란 돼지 9마리와 술 세 항아리를 사서 짐군들에게 지워가지고 다시 을밀대로 올라왔다.

김응서의 통에 탄복한 8장사의형제들은 그를 의형제의 막내인 9째로 정해주었다. 그후 림기동이 또 끼워 평양의 이름난 10장사로 된것이다.

평양지에 의하면 이날 9명의 의형제들은 돼지 한마리씩 차지하고 술을 마음껏 마시면서 하루를 즐기였다고 한다.

《우리 막내가 가져온 술을 량껏 마시세나.》

《그러세. 우리 막내가 통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야.》

그들은 해 저무는줄 모르고 김응서를 끼고 놀아댔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왜적들이 평양성을 일시 강점하였다.

김응서는 군민을 원쑤격멸에로 궐기시켰다. 조정에서는 국왕의 명으로 그에게 별장이라는 직책을 주었다.

김응서는 룡강, 강서, 삼화, 증산고을의 백성들을 불러일으켜 부대를 꾸리고 평양서쪽 20개소에 진을 쳤다.

그리고 식량과 재물을 노리고 성밖으로 기여나오는 왜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쳐버렸다.

평양성안의 왜적들은 이외에 북으로는 순안에 지휘부를 둔 체찰사 리원익이 지휘하는 관군주력에 의해 옴짝달싹 못하게 되였고 수군장 김억류가 통솔하는 수군에 의해 대동강을 건너다닐수조차 없게 되였다. 게다가 동으로는 조호익, 서산대사가 이끄는 부대들에 포위되였고 남쪽으로는 림중량의병부대에 의해 어찌할수 없게 되였다.

김응서가 별장으로 된것은 평양인민들의 사기를 부쩍 돋구었다. 유명한 김응서가 지휘하는 싸움이니 승리는 어김없다는것이다.

이 시기 김응서는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에 이어 사망하였다는 비보와 함께 련이어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났다는 기별을 받게 되였다.

정말 난처한 일이였다.

그는 잠시 고향쪽 하늘을 우러러 말없이 속죄의 눈길을 보냈을뿐 결연히 큰칼을 뽑아들고 격전의 길에 나섰다.

자신의 일신상 문제로 나라가 처한 위기를 외면할수 없었던것이다.

김응서의 이런 행동은 유교도덕이 지배하던 당시로서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일이였다. 그때는 부모가 사망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아들이 3년간을 집에 있으면서 치성을 드리며 묘를 돌보아야만 하였다. 이것이 바로 《효자》의 도리이며 이래야만 또한 충신으로 될수 있을뿐아니라 출세의 기본조건으로 되였다.

그러나 김응서는 이 모든 풍습과 도덕에 개의치 않고 오직 나라를 지켜내고 왜적을 치는데 심신을 몰두하였다.

김응서가 부고를 받은지 며칠이 지나도록 떠나지 않자 부하장수들은 모두 의아해하였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량반관리들은 김응서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나라에 대한 애국지성을 보려 한것이 아니라 불효막심하다느니, 평안도출신이니 이런 기

회에 벼슬에 올라가려 한다느니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다.

그러나 김응서는 이런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적을 칠 작전구상에만 사색을 집중하였다.

《효자라는것이 걸치레에 있는것이 아니라 부친의 뜻을 따르는데 있는것이요.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 싸우는것은 아버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이고 뜻이였소.》

그는 량반관료들에게 이렇게 강경히 잘라 말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더는 시비를 따지지 못하였고 부하장수들은 그 뜻에 감복하여 그를 더욱 존대하게 되였다. 임금까지도 이 사실을 듣고는 못내 감동되였다고 한다.

1592년 8월 1일 수군과 륙군의 승리로 정세가 유리해지자 평양성을 포위하고있던 아군부대들은 적에 대한 공격전을 시작하였다.

관군은 의병부대와 합동하여 3개 방향으로 평양성을 들이쳤다.

그러나 부대들사이의 협동이 잘되지 않았고 적의 반격도 강했으므로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김응서는 1만의 군사를 지휘하여 반격하는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줌으로써 명장으로서의 이름을 더욱 떨쳤다.

거듭 세운 전공으로 김응서는 방어사로 승진하였다.

방어사로서 김응서는 평양성탈환을 위한 작전을 구체화하였다.

그는 정찰병들을 성안에 보내여 인민들과의 련계밑에 적정을 탐지하였고 자신이 직접 함구문, 보통문부근에 나가서 적을 살피였다.

어느날 김응서가 성안에 들어가 적장 소서비의 목을 따올 목적으로 성문앞을 지나려는데 《오빠! 어디 있길래 나를 찾지 않았어요?》하는 녀인의 슬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평양의 이름있는 기생인 계월향의 목소리였다.

계월향은 적들이 평양성을 짓밟자 의분을 참지 못하여 반드시 적장놈을 죽이고 부모형제들의 피맺힌 원쑤를 갚고야말리라는 각오로 성안에 남게 되였다. 계월향은 어렵지 않게 적장과 만나게 되

고 그의 환심을 사는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놈을 죽이기가 조련치 않았다.
숱한 호위병들이 앞뒤로 막아서서 경계를 펴고있었던것이다.
계월향은 김응서가 성안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는지라 그가 성문을 지날 때 이렇게 불러 수월히 통과할수 있게 했던것이다. 마침 계월향을 만나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김응서는 그와 궁리를 합쳐 적장을 죽일 계교를 꾸미였다.
계월향의 오빠로 가장한 김응서는 적의 진중으로 무사히 접근할수 있었으며 계월향의 도움으로 간악한 적장 소서비놈을 처단하고 성밖으로 빠져나올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계월향은 적에게 체포되여 애국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다가 최후를 마치였다.
평양성인민들은 그의 애국적소행을 못잊어 그가 살던 고장을 《월향동》이라 불렀으며 성안에는 《의렬사》란 사당을 짓고 비를 세워 후세에 전하였다고 한다.
1592년말 조선군대가 반공격에로 넘어갈 유리한 국면이 다시 조성되였다.
당시 평양성에는 고니시 유끼나가를 우두머리로 하는 1만 5천이 넘는 왜적이 들어박혀있었다. 평양주변에도 역시 1만 5천의 관군과 수많은 의병이 포위진을 치고있었다.
평양성공격을 작전하고있다는것을 간파한 왜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현상태를 유지해보려고 방어를 더욱 강화하였다.
적들은 사슴뿔모양의 나무울타리를 만들어 설치하였고 을밀대로부터 만수대에 이르는 구간에는 흙으로 덧성을 쌓았으며 여러곳에 깊은 토굴까지 파놓았다.
아군은 이듬해 1월 6일 평양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첫날에는 승의병대장 서산대사가 지휘하는 의병부대가 퇴각하는 척 하면서 적들을 모란봉밑으로 유인하였다.
다음날에는 김응서가 지휘하는 관군이 서쪽과 남쪽에 대한 드세찬 공격을 들이대였다. 적들은 성안의 좁은 지역에 압축되였다. 적들은 성벽과 건축물들에 의지하여 발악적으로 저항해보았으나

무수한 시체와 무기, 말들을 내버린채 대동강의 얼음을 타고 황급히 도망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적들이 일시 강점했던 평양성은 김응서가 지휘한 관군과 의병들의 용감한 반격으로 탈환되였다.

이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김응서는 또다시 첨지중추사 겸 평안도방어사로 등용되였으며 그해 8월에는 가선대부의 품계에 승격되고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의 중임을 맡게 되였다.

이것은 평안도출신을 천시하던 당시의 형편에서 그 전례를 깨뜨린 일이였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싸움에 능숙했는가를 짐작하게 되는것이다.

하지만 김응서는 높은 직위에 오를수록 더욱 겸손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원쑤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서 쫓아낼것인가를 생각하였다.

그는 전쟁포로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으며 그들의 출신을 보아 잘 교양하여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탈출해오는 왜군도 적지 않았다. 이 시기 왜군의 한 장수로 있던자가 김응서에게 손을 들고 넘어와 자기 이름을 김충선으로 고치고 항복한 왜군들로 무은 부대를 지휘하여 용감히 싸운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김응서는 그들을 통하여 적의 약점과 전술을 알아내고 그에 맞는 옳은 전략을 세울수 있었다고 한다.

1597년 왜적들이 력량을 수습하여 재침을 기도했을 때에도 김응서는 이 싸움의 앞장에 서서 능란한 지휘와 용맹으로 우리 군대를 이끌어나갔다.

특히 1598년 8월에는 청도(경상북도 성주)에 침입한 왜군 1 000여명을 소멸하는 작전을 주동적으로 벌려 임진조국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임진조국전쟁이 빛나는 승리로 끝난 후 김응서는 포도대장으로 있다가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의 병마절도사를 력임하면서 나라방비에 전력을 다하였다.

봉건정부에서는 녀진족의 침략위협이 커지자 김응서에게 종1품벼슬인 숭정대부의 관직을 주고 그를 평안도 병마수군절도사 겸

녕변대도호부사로 임명하였다.

그러던중 김응서는 1619년 봉건정부의 조치로 명나라를 도와 녀진을 쳐부시는 심하전역에 참전하게 되였다. 명나라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원정군은 1만 3천명이였는데 강홍립이 도원수로 되고 김응서는 부원수로 되였다.

리조원정군은 1619년 2월 명나라를 향해 출발하였다. 명나라에서는 김응서가 파견되여오는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유능한 무관인 그에게 명나라에서는 기발과 보검을 특별히 선사하고 자기 나라의 원수칭호를 수여했다.

이에 질투심이 생긴 강홍립은 잠이 오지 않았다.

(김응서에게만 원수칭호에 보검까지 준단 말이지. …)

그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응서를 꺼꾸러뜨리고싶었다. 강홍립은 생각하던 끝에 김응서가 싸움에 나가자 후금(녀진)과 비밀리에 내통하여 응원부대의 비밀을 넘겨주는 인간이하의 반역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그렇게 되여 김응서는 매우 불리한 정황속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적이 바로 아군의 내막을 손금같이 쥐고있는 형편이니 싸움이 쉬울리 만무하였다.

역적 강홍립은 김응서가 패하기만을 바라면서 그가 매우 불리한 정황에 있었으나 예비군도 파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응서가 오히려 녀진족을 밀고나가자 이번에는 악독하게도 수십놈의 제 앞잡이들을 시켜 그를 불시에 결박지워가지고 적의 군영으로 넘어가는 천추에 용납못할 행위를 하였다.

적군은 김응서에게 순순히 자기편으로 넘어올것을 강박하였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단호하였다.

《나는 조선의 신하이다. 내 어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버리고 적군인 너희들에게 항복한단 말이냐!》

그 어떤 야수적인 고문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신성책이라는 옥에 갇힌 몸이 되였으나 날마다 자기의 생활에 대하여 일기를 썼고 자신이 잡히게 된 경위와 적의 내부형편을 자세히 적어

왕에게 보내였다.

김응서의 부탁을 받은 군사는 밤낮을 달려 그 서신을 임금에게 전하였으나 왕은 속수무책이였다.

김응서의 아들은 아버지의 비참한 소식을 듣자 분함을 참을길 없었다.

그러나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수 없어 생각을 굴리던중 옥졸들에게 뢰물을 먹여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하였다. 그는 먼저 이에 대한 의향을 아버지에게 문의했다.

하지만 김응서는 이것마저도 막아버리였다. 그는 구차스럽게 뢰물을 써서 돌아간다는것은 자신이 바라는바가 아니라는것이다.

《남아로 태여나 제 나라를 위해 한목숨 바치는것이 응당하거늘 어찌 적앞에 머리를 숙이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시를 보내여왔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님을 위해 죽으리라
님향한 일편단심은 갈수록 새로워라

김응서의 고결함에 적장마저도 감심되였고 그가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으리라는것을 믿었으므로 석방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이에 놀란것은 강홍립이였다.

김응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자신의 반역행위는 낱낱이 드러날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기 일가는 멸족당하게 될것이 아닌가.

강홍립은 적장을 구슬려 어떻게 하나 김응서의 목을 치려고 갖은 모략을 다하였다.

이렇게 되여 일생을 나라 지키는 싸움에 바친 무관 김응서는 이국의 감옥에서 불우한 생을 마치였다.

때는 1624년 4월 18일, 김응서의 나이 당년 60살이였다.

김응서는 비록 억울하게 세상을 하직하였으나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일생을 바친 그의 업적은 당대 사람들은 물론 오늘도 후대들을 감동시키고있다.

북관의 의병장 정문부

정문부는 산밑의 귀틀집에 들리여 경성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경성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들어서야 됩니까?》

《경성으로는 가지 마시오이다. 거기에는 역적놈들이 판을 치고 있소이다.》

주인은 날이 어두워졌는데 루추하지만 자기 집으로 들어와 묵어가라면서 길손을 청해들이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손님은 자기가 이전 군역을 할 때의 북평사가 아닌가.

《아니, 북평사나으리께서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소이까.》

주인은 더없이 반기며 그의 손을 잡아 방안으로 이끌었다.

정문부도 다시 보니 퍼그나 낯이 익었다. 이전에 자기가 무술을 가르쳐준적이 있는 늙은 병사가 틀림없었다.

《이게 자네의 집이란 말이지.》

정문부도 한숨이 나갔다. 부상을 당한 몸이라 어디에든지 의지해야만 하였다.

주인은 그가 부상당한것을 알자 필시 역적놈들의짓이라고 분개해마지않았다.

《그놈들의짓이겠지. 생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것이 그것들의 일이지.》

늙은 농부는 북평사께서는 자기를 잘 모를수 있으나 자기는 그를 잘 안다고 거듭 말하면서 극진히 간호해주었다.

정문부는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이 생각뿐이였다.

정문부는 1565년 해주부사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높은 량반가문의 출신으로 문관의 벼슬자리에 있었지만 언제나 결백하고 절제가 있는 사람이였다.

그는 1588년에 과거를 보아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부의 참군이 되였다.

정문부는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전해인 1591년 함경도 북평사로 오게 되여 6진의 하나인 경성에 있었다.

1년어간에 벌써 백성들속에서 인망이 높았고 소탈한것으로 하여 존경을 받았다.

전쟁이 터지자 조정에서는 《비변사회의》를 열고 군사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 부분적인 방어대책을 취하였다.

선조왕은 서울을 떠나 평양으로 자리를 옮겼고 두 왕자는 함경도지방으로 피신시켰다.

1592년 9월 왜적의 괴수인 가또 기요마사가 2만여대군을 몰고 마천령을 넘어섰다.

이때 회령과 경성에서는 국경인, 국세필 등 반역자들이 나타나 회령에 피난간 두 왕자를 붙잡아 적장에게 바치고 벼슬자리들을 얻었다.

가또 기요마사는 나라와 민족을 반역한 국경인에게는 회령의 판형사라는 벼슬을 주고 그의 삼촌인 국세필에게는 경성의 체백이라는 자리를 주었다.

가또 기요마사는 관북일대를 돌아보고 길주에 병력 1 500명을, 해정창벌판에서는 《령동책》이라는 요새를 쌓고 왜병 800여명을 주둔시켰으며 제놈은 안변에 틀고앉아 략탈과 파괴, 살인만행을 야수적으로 감행하였다.

1592년 7월 18일 함경도에 기여든 왜적과의 첫 싸움에서 관군이 패하자 정문부는 겨우 목숨을 건지고 피신하는 신세가 된것이다.

그때 그는 27살의 피끓는 청년이였다. 그는 이 수치를 천백배로 씻기 위해 경성의 본영을 찾아 떠난중이였다.

그런데 농부의 말이 그곳에서는 역적이 득세한다하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농부는 정문부의 일을 도와 그가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음직한 곳도 대주었고 형편도 낱낱이 이야기해주었다.

정문부가 평시에 검소하고 청렴했으므로 그의 군사들은 북평

사를 존경했고 이처럼 바쁜 모퉁이에서는 적극 도와나서는것이였다.

그는 집주인의 도움으로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 최배천, 지달원을 만나게 되였다.

세사람이 길을 떠날 때 집주인은 정성담아 싼 점심밥과 길량식을 내놓으면서 섭섭한 마음을 터놓았다.

《나는 늙어서 나으리들을 따라가지 못하오마는 이 나라 백성된 마음이야 다르겠소이까? 나라를 걱정하는 늙은이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오.》

늙은이는 이들이 산모퉁이를 돌아설 때까지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었다.

그후 정문부는 리봉수, 리희당을 만났고 정현룡이와도 손을 잡았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들인 정문부는 관북각지에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치러 나서면서 함경도 각 고을의 지방장관들과 선비들, 백성들에게 호소한다.》라는 격문을 내였다.

격문에서는 이렇게 호소하였다.

《…나는 군사, 백성 및 늙으신분네에게 말을 이른다. 조상들이 물려준 이 나라를 기어코 지키리라 결심하고 단 한번 들이쳐서 적을 섬멸코자 일떠섰다. 자기 나라에 대한 충의가 없을수 있는가!…

저 무도한 왜적이 문명한 이 나라에 쳐들어왔으니 그 형세로 말하면 저희놈들이 아무래도 불리한것이요 또 그 립장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정당하다. 비록 독사와 같은 독을 퍼뜨리고있으나 필경 개죽음을 당하게 될것이다.…

아, 우리 동포형제들이여! 나라가 망하는 판에 개인의 집안만이 어떻게 성하며 아버지가 있는터에 아들이 어느 딴길로 나가랴?…

아, 정의와 목숨의 경중을 따져서 정의냐 목숨이냐, 그 어느 한쪽을 골라잡아야 한다. 어쨌거나 안해와 아이들에게까지 루를 끼치게 하지 말고 자손만대에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격문은 나라를 걱정하던 사람들의 가슴들에 애국의 불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단 며칠사이에 정문부를 찾아온 사람들의 수는 천명을 헤아렸다.

그는 경성 해촌에서 의병대오를 무었다. 지방관리들밑에 있던 일부 사람들도 이에 합세하였다.

이들속에는 6진의 방어에서 용맹을 떨친 군사들도 적지 않았다.

창의회에서는 정문부를 의병대장으로 선출하였고 종성부사로 있던 정현룡을 차장으로, 리봉수를 별장으로, 강문우를 척후장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정문부는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성의있는 지원밑에 창과 칼, 활 등의 무기들을 자체로 만들어 무장하고 훈련에 큰 힘을 넣었다.

그들의 계획은 먼저 경성을 들이쳐서 왜적들과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이곳을 탈환한 다음 길주, 단천방향으로 나가자는것이였다.

정문부는 의병대오를 이끌고 경성부근의 산밀에 매복하고있다가 9월 16일에는 남문에 이르러 국세필을 비롯한 반역자들을 잡아들여 징계하고 성으로 들어갔다.

치렬한 격전끝에 성은 탈환되였다. 의병들의 사기는 부쩍 높아졌다.

9월 18일 왜군순찰대는 성이 이미 의병들의 손안에 들어간것도 모르고 찾아들었다. 정문부는 국세필을 시켜 적 1대장을 성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즉시 그의 목을 베여버리였다.

그리고는 《왜적과 싸울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웨치면서 큰칼을 뽑아들고 앞장에서 달려나가 적을 모조리 족쳐버렸다.

그날 의병들은 영강역까지 따라가 마지막놈까지 꺼꾸러뜨리고야 말았다.

그리고 국세필과 그 앞잡이 13놈을 백성들앞에서 처단하였고 구황, 강문우에게 군사를 주어 명천의 반역자 정밀수의 목을 치게 하였다.

한편 정문부의병대의 소식에 접한 회령의 오윤직은 반역자 국경인을 처단하고 군사들과 함께 경성으로 달려와 그의 수하에 합세하였다.

정문부는 의병 1 000명을 거느리고 명천방면으로 진출하면서 먼저 길주의 적을 치기로 하였다.

그는 길주성주변을 살펴보기 위해 말을 달려 며칠동안 직접 성주변의 산과 골짜기, 들과 강 그리고 길들을 돌아보았다.

정문부는 적을 치기에 유리한 지점들에 복병들을 깔아놓고 성안의 적을 유인하여 칠 작전을 세웠다.

10월 그믐날, 로략질에 나갔던 왜적 1 000여명이 매복진안으로 몰려들었다. 적의 꼬리가 골안에까지 들어서자 정문부는 공격명령을 내렸다.

《둥 둥…》

요란한 북소리가 의병들을 싸움에로 불렀다.

좌우산속에서 화살이 우박치듯 왜적의 무리속으로 날아갔고 돌사태가 쏟아져 골짜기를 메웠다.

삽시에 왜적들의 주검이 산을 덮었다.

질겁한 왜적들은 앞을 다투어 도망치려 했지만 앞에서도 뒤에서도 벼락치듯 하는 의병들의 드세찬 공격을 피할수 없었다.

정문부는 혼란에 빠진 왜놈대렬을 한토막씩 끊어서 소멸하도록 하였다.

살아남은 놈들이 장평돌고개에서 허우적거릴 때 정문부는 총공격을 명령했다. 지축을 흔드는 함성과 함께 굴러내리는 바위의 굉장한 소리가 또한 산을 울렸다.

이날 정문부의병대는 적장 5명과 800여명의 왜적들을 소탕해버렸으며 많은 군수물자들과 놈들이 략탈해가던 물품들을 모두 빼앗아냈다.

이 싸움을 관북의병의 《장평대첩》이라 한다.

싸움이 끝난 저녁 의병대오는 그야말로 기쁨의 바다였다. 저저마다 오늘의 싸움에서 있었던 통쾌한 장면을 그려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 글쎄 그놈이 쩔쩔매던 꼴을 자네가 좀 보았더라면…》

《아니야. 그보다도 십여놈을 한꺼번에 자빠뜨린건 어떻거구.》

사방에서 우등불이 기세좋게 타오르는데 의병의 진막들에서는 이

구동성으로 야단법석이다. 밤이 퍼그나 깊어도 도저히 잠들줄을 모른다.

《우리를 먹어보겠다구.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그들은 저저마다 주먹을 내흔든다.

정문부는 미더운 눈길로 의병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진막들을 한바퀴 돌았다. 그러느라면 그는 힘이 솟았고 무서운것이 없어졌다.

(이번에는 더 크게 이기리라. 왜놈들을 몽땅 쓸어버릴테다!)

어느새 생각은 래일의 격전장으로 달렸다.

정문부는 계속하여 명천 《령동책》의 왜놈들을 치기로 하였다. 적병들이 마을에 내려와 략탈한다는 정보를 받은것이다.

복병장 김국신이 400이 넘는 왜군들이 림명에서 온갖 못된짓을 다한다는것을 알려왔다.

정문부는 이곳 지형을 잘 아는 의병들과 의논한 후 적들이 드나드는 길목인 돌고개에 복병진을 치고 기다렸다.

술에 취한 놈들이 저녁추위에 떨면서 무질서하게 오고있었다.

적의 선두가 돌고개에 이르자 정문부는 공격신호를 하였다.

북소리, 함성이 일시에 우뢰와 같이 일어나는데 화살이 적의 무리속으로 수없이 날아가고 돌사태가 내려 원쑤들을 덮쳤다.

넋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놈들을 정문부는 백병전으로 소멸해치울것을 명령했다.

이날 싸움에서 적들은 조총 한방 제대로 쏘아보지 못한채 무수한 시체만을 남기고 도망쳐버리였다.

그나마도 의병들의 추격전에 덜미가 잡혀 겨우 20명밖에 살아가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문부의 두번째 큰 전과인 《림명대첩》이다. 이로써 의병대는 북관의 적을 완전봉쇄해버리는 성과를 올리였다.

정문부는 부대를 두개로 나누어 한 부대는 정현룡에게 맡기여 《령동책》의 적을 계속 견제하도록 하고 한 부대는 자신이 인솔하여 길주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때 정문부의 공적과 신망을 시기한 함경감사 윤탁연이 그가 조정을 반대하는 마음을 품고있다고 왕에게 거짓보고를 올리

였다.

윤탁연으로 말하면 조정으로부터 림해군과 순화군 두 왕자를 호송할데 대한 중임을 맡았으나 왜적들이 철령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것을 다 집어던진채 제 한몸을 구하자고 북청땅에 숨어버린자였다.

윤탁연의 간계에 의하여 결국 정문부는 의병장에서 파면당하고 그의 아래에 있던 정현룡이 이를 차지하였다.

윤탁연은 정문부에게 북평사로서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6진을 순찰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정문부는 이 일도 역시 백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누구든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두말없이 국경지방으로 떠났다.

이곳에서도 정문부의 활약으로 녀진족들의 준동이 진압되고 반역자들도 처단되였다.

그리하여 6진은 다시금 안정되였으나 한편 의병대오안에서는 정문부의 철직으로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규률적면모도 대폭 저하되였다.

새로 의병장이 되였다는 정현룡은 별치 않은 일로도 마구 호통질을 했으며 신중한 고려도 없이 형벌을 가하려 하였다.

결과 군률은 문란해지고 대오를 리탈하는 병사들까지 생겨났다.

급해맞은 윤탁연이 오응태를 다시 의병장자리에 올려놓았으나 형세는 역시 매일반이였다.

의병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문부를 자기들의 대장으로 보내줄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하는수없이 윤탁연은 정문부를 다시 의병장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음해 1월 정문부는 의병장의 직책을 다시 맡고 그사이 빈약해진 싸움준비를 완비하는 일을 다그쳐나갔다.

그는 다시금 의병장일을 맡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의병에 투신한것은 한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함이다. 이제 한날 사사로운 생각으로 나라의 위급함을 모른다 하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그는 자신의 명예나 영달은 안중에 없었다. 오직 나라를 구하려는 한가지 마음뿐이였다.

정문부는 언제나 옷차림이 수수하였고 의병들이 뙤약볕아래에서 훈련을 할 때면 내내 함께 서있으면서 부채질도 하지 않았다.

비가 올 때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의병들과 함께 비를 맞았고 의병들이 밥을 먹기 전에는 먼저 수저를 드는 법을 몰랐다.

때문에 의병들은 언제나 정문부를 자기들과 생사운명을 같이 할 지휘관으로 진심으로 따랐다고 한다.

정문부의 재임소식에 청장년들이 다시금 의병부대로 찾아들어 그 대오는 또다시 3 000을 넘어섰다.

정문부는 마천령을 넘어 단천으로 진군해나갔다. 그는 산세를 살핀 후 복병이 유리한 곳에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말 잘 타는 군사 30명을 뽑아 적에게 맞서는척 하면서 왜적들을 성밖으로 끌어내였다. 유인대는 계획대로 적을 매복권내로 끌어들이였다.

의병들을 기를 쓰고 쫓아오던 적들이 산굽이를 돌아서보니 사람은 간 곳없고 깎아지른듯한 벼랑이 앞을 막아나서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위험을 느낄 사이도 없이 벼랑우에서 화살이 쏟아지고 돌벼락이 퍼부어졌다.

삽시에 적장들이 꺼꾸러지고 수많은 졸병들이 찍소리 한번 쳐보지 못한채 너부러졌다.

이어 날랜 기병들이 나타나 얼이 나가 허둥대는 적들을 삼대 베듯 쓸어눕혔다.

이날 싸움에서도 정문부의병대는 적병 200여명을 소멸하고 수많은 놈들에게 부상을 입히였다.

이때 정문부는 가또 기요마사가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마천령을 넘어 관북땅으로 들어온다는 새로운 정보를 받았다.

이리하여 3천의 정문부의병대는 2만의 적대군과 맞서 혈전을 벌리게 되였다.

정문부는 력량상 우세한 적을 소멸하기 위해서 정면충돌을 피하고 골짜기마다 복병을 깔아 적의 대부대를 토막토막 끊어서 각개격파하는 전술로 나갔다.

싸움은 1월 28일 아침부터 시작되였다.

의병주력은 길주의 백탑에서 적을 족치며 나갔다.

정문부는 날랜 기병들과 썰매 잘 타는 의병 60여명을 뽑아 림명벌(김책시)주변 산밀에 매복시키고 1 000여명의 군사는 여러패로 나누어 길주주변 유리한 곳들에 배치하였다.

정문부는 적의 선두가 벌을 지나 산모퉁이를 돌아가고 기본대렬의 거의 전부가 벌판에 이르자 공격명령을 내렸다.

날랜 기병들과 썰매를 탄 의병들이 창을 비껴들고 비호같이 적진에 달려들어 종횡무진하면서 화살과 창끝을 무자비하게 안겼다.

가또 기요마사가 부대를 돌려세우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헤일수 없는 왜병들이 시체로 되였고 군량과 무기를 실은 수레는 불에 타고있었다.

왜적들은 하는수없이 길주성을 향해 행군을 계속했다.

그러나 요소마다에서 의병들의 기습으로 뒤꼬리를 끊기웠다.

의병들은 익숙한 지형을 리용하여 충천하는 기세로 적을 량쪽에서 몰아 답새기였다. 정문부는 의병들의 앞장에서 칼을 휘둘러 싸움을 지휘하였다.

적들의 주의가 정문부에게로 쏠리자 리희당이 먼저 말을 달려 대장의 앞을 막아나섰고 가또 기요마사가 나타나자 주저없이 그에게로 돌진하였다.

이때 리봉수도 대장인 정문부를 노리고 쏜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정문부는 자기를 위해 쓰러진 리희당, 리봉수의 시체를 그러안고 놓지 못하였다.

《마지막까지 함께 싸우자고 하더니 이렇게 간단 말이요!》

정문부의 목소리는 비분에 떨리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불이 일었다.

그는 장검을 높이 들어 적들을 사정없이 족쳐댔다.

싸움은 해질녘까지 계속되였다.

한길도 넘는 눈덮인 벌판과 길가는 간악한 원쑤들의 주검으로 덮

였다.

가또 기요마사는 길주성에 불을 지르고 제편 병자와 부상자들을 태워죽인 후 밤을 타서 도망쳐버리였다.

이리하여 관북땅은 완전히 회복되였다.

정문부는 이처럼 임진조국전쟁시기 관북의 의병장으로서 왜적을 소멸하는데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였다.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후 정문부는 영흥(금야)부사, 온성부사, 길주목사 등을 지냈다.

그러나 당파싸움에 눈이 어두운자들은 그의 곧은 성미를 두려워하던 나머지 1624년 10월 그가 지은 시에 국왕을 반대하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헐뜯어 정문부를 잡아 고문하던 끝에 무참히 죽여버리였다.

하지만 북관의 의병장으로서 그가 이룩한 혁혁한 공적만은 지울수 없었다. 그것은 백성들이 알고 산천이 기억하고있는것이기에 함부로 거세할수 없는것이였다.

정문부가 죽은 후인 1700년 인민들은 그를 비롯한 의병들의 위훈을 두고두고 기념하기 위하여 《창렬사》를 세웠다.

그의 저서로서는 문집인 《농포집》이 있는데 이것은 임진조국전쟁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되고있다.

행주산성싸움과 권률

어느날 령의정 권철의 집에 가까운 친구 한사람이 찾아들었다.

손님은 장난에 팔려 여념이 없는 어린 권률을 보더니만 끌어다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음, 그놈 참 잘 생겼구만. 자네 막내놈을 아주 잘 두었네그려. 아버지를 닮아 공부도 잘하겠지. 어디 한번 좀 볼가.》

손님은 권률에게 경서에 나오는 글귀 하나를 물었다. 순간 어린 권률은 얼굴이 금시 벌개졌다. 놀음에 팔려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해도 책 한권 읽지 않았으니 무엇을 어떻게 대답한단 말인가. 그날 그는 종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한채 방에서 허둥지둥 나왔다. 그리고 난생처음 수치감이라는것을 느끼였다.

다음날부터 권률의 행동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새벽마다 일어나 책을 펴들었고 또한 활과 칼, 말타기훈련에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 권률은 45살되던 1582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다.

그는 처음 승문원의 정자, 전라도의 도사를 거쳐 1591년에는 의주목사로 되였다.

권률이 의주목사로 있을 때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났다.

동래성을 타고앉은 왜적들이 서울을 향해 밀려오자 조정에서는 권률을 광주목사로 옮겨놓고 장차로 3도체찰사, 전라도 순찰사의 벼슬을 겸하게 하였다.

《의주목사 권률이 인재다. 그에게 령남, 호남지방의 요충지들을 맡겨 왜적을 막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일치하게 제기된것이였다.

발령을 받은 권률은 집에도 들리지 않고 부임지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집에 들려 처자권속이라도 만나고 가야 하지 않겠소이까?》

량반관리들이 권률에게 권고하였지만 그는 굳이 사양하였다.

《나라의 사정이 급한 이때에 죽음을 각오한 신하로서 어찌 사사로이 집에 들리겠는가.》

권률은 말을 몰아 광주로 향하였다.

목적지에 이른 권률은 곧 각 고을에 격문을 띄워 의병부터 모집하고 그중에서도 끌끌한 청장년 500여명을 뽑아 훈련을 주는 한편 그 대렬을 급속히 늘여나가도록 하였다.

각곳에서 원쑤에 대한 의분을 안고 모여온 청장년들은 나서자란 고향산천을 왜적의 더러운 발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밤낮으로 훈련하였다.

《모두들 장하다. 나라 지키는 위업이 얼마나 장한것이냐!》

권률은 청년들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 일이 얼마나 보람차고 성스러운가를 일깨워주고 더욱 분발시켰다.

이렇게 의병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한 권률은 부대를 지휘하여 서울로 통하는 길목인 니치라고 부르는 고개에 진을 치고 매복하였다.

왜적들은 권률이 거느린 의병대가 매복한줄도 모르고 마음을 놓고 고개로 올랐다. 해이된 적들이 고개마루에 거의 올라 헐떡일 때 권률은 의병대에 공격명령을 내렸다.

애국에 불타고 왜적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듯 하였던 의병들은 용맹하게 달려나가 왜적들을 무자비하게 쳐갈겨댔다. 의병들의 기세를 감당해낼수 없었던 왜적들은 도망을 치려고 버둥거렸다. 그러나 큰칼을 높이 뽑아들고 격전의 앞장에서 적장놈의 머리를 통쾌하게 베여버린 권률의 모습에 무한히 격앙된 의병들의 서리발창검을 피할수 없었다.

이 싸움에서 권률의 의병대는 고바야까와의 부대를 완전소멸하는 전과를 올리였다.

권률은 수원산성에 의거하여 성을 튼튼히 지키는 한편 밤마다 오산에 진을 치고있는 우끼다부대를 기습하였다. 그는 날랜 기습조를 파견하여 적들을 혼란에 몰아넣고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함

으로써 극도로 피로케 하였으며 수많은 적의 목을 쳐버렸다.
권률은 새로이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서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자신은 2 300명의 의병을 이끌고 행주산성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의병들은 양천강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행주산성에 들어가기 위해 권률의 의병대가 양천강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장검을 치켜들고 대군이 진군하는데 그앞으로 절룩거리는 하늘소를 탄 한 선비가 나타났다. 그의 형색은 초라하였다.
군사들이 길을 비키라고 엄하게 일렀지만 선비는 조금도 두려움없이 태연하게 하늘소를 몰아대는것이였다.
괘씸하게 여긴 군사들이 이 사실을 권률에게 알리였다. 권률은 곧 그를 불러오게 하였다.
권률앞에 이른 선비는 매우 만족한 기색이다.
《내가 바로 바라던바이요.》
그는 초라한 형색과는 달리 도담한 기상이였다.
선비는 인천에서 산다고 자신을 소개하더니 대장을 도와 왜적을 칠 생각으로 굳이 뵙자 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대장이 대군을 거느리고 강을 건느는것은 서울안의 왜적을 치려는 생각이 아니겠소이까. 왜적의 란리에 나라가 위태로와진 때라 저도 놈들이 미운 마음에서 그놈들을 칠 계책을 두루 생각해보았소이다. 지금 서울안의 왜적을 치려거든 양덕산의 행주산성을 차지하는것이 제일 좋을것이오이다.》
권률은 선비의 뜻이 정말로 기특할뿐더러 자기 생각과도 꼭같은것이 기뻤다.
《고맙소, 이렇게 생각을 합쳐주어서…》
권률은 우선 선비와 대오를 이끌고 양덕산의 행주산성으로 올라 진을 쳤다.
이때 경기지방의 관군과 의병들은 북쪽으로 나오는 우리 군사와 합세하여 서울의 적을 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그때 봉건정부가 군민의 높은 항쟁기세를 바로 보고 그에 의

거하여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였더라면 능히 서울을 탈환할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큰 나라만 쳐다보며 원병만을 바란 비굴한 이들은 공격을 늦춤으로써 적에게 력량을 수습할수 있는 틈을 주었다.

적은 조선군대의 공세가 일시 완화된 기회에 행주산성에 집결한 의병들을 먼저 격파함으로써 저들의 패배를 만회하며 서울을 계속 견지해보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권률의 의병부대는 력사에 이름난 행주산성방어전투를 벌리게 되였던것이다.

행주산성은 서울에서 서쪽으로 약 40리정도 떨어져있는 한강 오른쪽의 그리 높지 않은 성이다. 그러나 양천강을 끼고앉은 산경사면은 절벽을 이루고있었고 동, 서, 북 세 면은 산세가 험하여 적이 기여오르기 힘들었다. 또한 서울이 눈앞에 있으므로 지휘에도 유리할뿐더러 산에는 돌이 많아 그것으로 성을 쌓거나 적에게 돌벼락을 안기기에도 유리하였다.

서울의 적을 치기 위해 행주산성에 진을 친 권률은 적이 쳐올것을 예견하여 방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갔다.

그런데 한가지만은 약하였다. 그것은 성새가 허줄한것이였다.

오랜 산성은 비바람에 무너져 몸을 의지할 곳이 못되였다.

권률은 선비와 이것을 의논하였다.

《많지도 못한 우리 군대가 외로운 산우에서 적의 대군과 맞서있는데 성새조차 변변한것이 없으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가?》

선비는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저도 그것이 걱정되여 조금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제 큰 돌로 성을 쌓을수는 없으니 나무를 찍어다가 목책을 세우는것이 어떠하올지.》

권률이 체찰사의 부름을 받고 양주에 갔다오니 선비는 군사들과 함께 산밑의 무성한 나무를 찍어 목책을 만들 준비를 다 해놓았고 또한 강물을 끌어다놓아 언제든지 쓸수 있게 하였다.

권률은 인민들과 합세하여 먼저 나무를 깎아 사슴뿔모양으로 목책을 만들어세우고 중요한 요소마다에는 흙과 돌로 성을 쌓아

나갔다.

또한 부대배치도 이에 맞게 하였고 300대의 화차와 함께 포, 총통, 비격진천뢰, 활 등 무기들을 적재적소에 놓게 하였다.

이때 행주산성에서 쓴 화차는 변이중이 직접 만들어준것이였는데 15세기에 발명하여 만들어진 화약무기로서 장갑차와 같이 철판으로 둘러싸여있고 수십개의 화살을 련이어 쏠수 있게 장치가 되여있는 위력한것이였다.

왜적들은 행주산성의 의병들이 기본부대와 떨어져있기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것을 타산하고 수많은 병력을 단번에 들이밀어 일격에 요정내려 덤벼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적들의 오산이였다.

1593년 2월 12일 우끼다는 3만의 침략군을 행주산성공격에 내몰았다. 그러니 적의 병력은 권률의 부대에 비해 10배나 되였다. 하지만 행주산성방어자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권률은 싸움에 앞서 의병들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한마음으로 뭉쳐 싸우며 전투지휘에 철저히 복종할것을 지시하였다.

싸움이 시작되자 행주산성의 의병들은 활과 함께 조총 등 여러가지 화약무기를 사용하여 많은 적을 일격에 소멸해버렸다.

첫 싸움에서 패한 적은 기여들기 유리한 서북쪽에 3개 부대로 나뉘여서 공격을 다시 하였다. 그러나 행주산성방위자들은 조금도 굴함없이 적을 쳐물리쳤다.

성안 부녀자들도 모두 싸움에 떨쳐나서 앞치마폭에 돌을 담아다줌으로써 싸우는 군사들을 적극 도와주고 크게 고무하였다. 그리하여 《행주치마》라고 부르는 녀성들의 앞치마의 이름도 이 행주산성싸움에서 생겨났다.

적장 우끼다는 여러차례 공격에서 거듭 패하자 약이 오를대로 올랐다.

적장은 앞뒤를 가림이 없이 졸개들을 산성으로 내몰았다. 적들은 긴 나무로 루대를 만들고 그우에 수십명의 조총수들이 기여올라 성안에 대고 집중사격을 해댔다.

이에 권률은 즉시 령을 내려 포사격으로 그것을 없애버리게 했다.

악에 받친 적들은 이번에는 마른 갈대를 내다가 목책을 불살라버릴 화공전술로 나왔다. 이것을 미리 예견했던 우리 군사들은 강을 막아 이미 잡아놓았던 물로 그 불을 손쉽게 꺼버렸다.

적들은 어떻게 해서나 우리의 진지를 허물어보려고 다시금 두꺼운 판자로 사방을 막은 다락을 만들고 그를 리용하여 불을 지르려 꾀하는 등 갖은 시도를 다하였으나 그때마다 의병들의 령활무쌍한 반격을 받아 실패를 거듭하였다.

적들은 아침부터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하루에 무려 9차례나 공격해왔지만 수많은 주검만을 덧쌓을뿐이였다.

오랜 기간 거듭된 싸움으로 성안에는 화살이 떨어지게 되였다. 이무렵 마침 경기수사 리빈이 큰 배에 수만대의 화살을 실어왔다. 그리고 서울부근의 부대들에서도 증원부대를 보내여왔다. 이것은 성안의 의병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싸움이 계속되던 어느날 행주산성을 감돌아 유유히 흐르는 강가에 물을 길러 나갔던 의병들이 잘 포장되고 울긋불긋하게 장식된 두개의 커다란 궤짝이 떠내려오는것을 보게 되였다. 군사들은 그것을 건져내여 권률에게 가져갔다.

궤짝을 이리저리 주의깊게 살피던 권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것을 열어보도록 하였다.

그속에는 좋은 비단과 희귀한 물건들이 가득 차있었다.

권률은 그것들을 의병들에게 나누어주고나서 엄하게 명하였다.

《이후 다시 이런 궤가 나타나면 즉시 나에게 바칠것이며 이 령을 어기고 자의대로 그것을 처리하거나 여는자가 있으면 군령을 내려 엄히 처형할것이다. 알았느냐?》

그런데 다음날 해질무렵 강가에 물을 길러 나갔던 의병들이 또 한개의 큰 궤가 떠내려오는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건져 권률에게 바쳤다. 의병들은 처음과 같이 궤속에 또다시 희귀한 보물이 있을것으로 짐작하면서 대장의 진막으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권률은 자기의 처소에서 내다보지도 않은채 뜨락에 장작을 가득 쌓아놓게 하였다. 그리고 큰소리로 명하였다.

《이 궤를 그 장작더미우에 올려놓고 즉시 불을 지르라.》

의병들은 한편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시키는대로 하였다.
마른 장작은 삽시에 삼단같은 불길을 피워올렸다. 궤에 불이 당기자 그안에서 짐승의 울부짖음같은 처참한 소리가 새여나왔다.
궤짝이 다 타버리고 불길도 사그라졌을 때 권률이 군막밖으로 나와 불무지를 헤치라고 하니 그속에서는 2개의 해골과 두자루의 긴 칼이 나왔다.
일인즉 의병부대에 의하여 거듭 참패를 당한 적장 우끼다가 재물계(재물로 사람의 마음을 끈 다음 목적했던바를 실현하는 계책)를 써서 권률을 없애버리려고 한것이였다.
그제야 의병들은 대장이 이미전에 적의 흉계를 꿰뚫어보고 취한 조치였다는것을 알고 감탄해마지않았다.
권률은 적에 대한 면밀한 방어준비를 다시금 갖춘데 이어 의병들을 원쑤격멸에로 불러일으켰다. 붉은 갑옷을 입고 긴 칼을 휘두르며 의병대의 일선에서 적을 치는 권률의 용맹한 모습에 고무된 의병들은 왜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쳐댔다.
의병들의 칼과 창은 원쑤를 무찔러 번쩍이며 춤을 추었고 왜적들의 목은 수없이 달아났다. 게다가 증원부대가 당도하여 뒤로부터 적을 쳐들어왔다.
《힘을 내여 싸우라!》, 《칼로 적을 쳐라!》
권률의 잦은 웨침이 의병부대에 퍼져갔다.
《도망가는 적을 한놈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베여라!》
뒤미처 권률의 드센 령이 또다시 울렸다.
화살과 돌이 비오듯 산아래로 쏟아지고 의병들이 창과 칼을 들고 자리를 박차며 달려나갔다. 이렇게 하루종일 싸움이 계속되였다.
행주산성싸움에서 왜적들은 2만 4천명의 엄청난 죽음을 남긴채 어둠을 타서 도망치고말았다.
의병부대와 증원부대의 기병들은 서로 합세하여 적을 맹렬히 추격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행주산성싸움에서 의병들과 인민들이 거둔 빛나는 승리는 서울을 계속 강점하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려던 적의 망상을 깨뜨리고

놈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전쟁의 형세를 아군에게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켰다.

임진조국전쟁시기 권률의 지휘하에 이룩한 행주산성싸움에서의 대승리를 《행주대첩》(행주에서의 큰 승리)으로 력사는 기록하고있다.

행주산성싸움이 승리로 끝난 뒤 권률은 도원수로 승진되였다.

그는 임진조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왜적을 치는 싸움마다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가져왔다. 이것은 권률이 애국의 뜻과 지조가 높은데도 있지만 그와 함께 무술과 지리에 밝았던것과도 관련된다.

권률이 지리에 능통한데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선조가 왕위에 오른지 3년이 되는 어느날이였다.

선조왕은 군대의 사열을 통해 자기의 위세를 돋구어보려고 교열대장 리후백에게 어명을 내려 그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리후백은 권률, 정언선, 류성룡 등을 불러들여 종사관들이 사열식을 위한 군사들의 훈련을 맡아할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세명의 종사관들은 시답지 않게 생각하면서 태공하였다.

약이 오른 리후백이 래일 자신이 지기(사무실에 앉는것)하기전에 먼저 대령하여 준비를 갖출데 대하여 지시했으나 이들은 그것도 시답지 않게 여기는것이였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리후백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받쳐 세 종사관을 옥에 가두고 형벌을 가하던 끝에 사형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문무백관들모두가 이를 완강히 반대하여 나서므로 종사관들을 사형에 처하지 못한 그는 《경국대전》(봉건법전)을 닷새안으로 외우라고 하면서 만일 외우지 못하면 사형하겠다고 을러댔다. 그 닷새가 지났으나 《경국대전》을 외운 사람이 없었다. 리후백은 다시 《동국여지승람》(조선의 지리를 기록한 책)을 외우라는 령을 내리였다.

세사람은 이번에까지 외우지 않으면 필경 목을 잃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고생스럽게 신고하여 《동국여지승람》을 외웠다.

그때 익힌 지리에 대한 지식이 권률로 하여금 지형지물을 능

숙히 리용하여 싸움을 지휘할수 있게 하였으며 승리의 기초로 되였다고 전해진다.

권률은 그 전공으로 하여 왕의 신임을 얻게 되였으며 벼슬도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권률의 성품과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어느해 무더운 여름날 대궐에서 권률을 불렀다.

그날따라 몹시 더웠으므로 권률은 집에서 입고있던 옷우에 대궐에 들어갈 때만 입는 덧옷인 조복을 걸치고 대왕앞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당시 병조판서로 있던 권률의 사위인 리항복과 여러 대신들이 둘러앉아 무엇인가 의논하고있었다. 날이 더웠으므로 누구나가 다 조복을 벗었으면 하는 심정이였다.

이때 리항복이 대왕에게 청을 드리였다.

《전하, 날이 몹시 더우니 조복을 벗고 편히 앉는것이 어떠하겠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오. 기본문제토론은 이미 끝났으니.》

그런데 권률에게는 큰일이 났다. 속에는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이니 말이다.

임금은 권률더러 빨리 벗으라고 독촉이다. 안벗을수도 없는 난처한 일이였다. 권률은 할수없이 조복을 벗었다. 그러니 팔이 다 드러나는 낡은 등거리에 잠뱅이(가랭이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만든 재래식의 짧은 홑바지)차림이 되였다.

임금은 그 모습을 보고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그자리에서 권률에게 베 10필을 내리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권률은 소탈한 성품을 지니고있었다. 그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았고 오직 맡겨진 일을 잘하는데만 열정을 쏟았던것이다.

그후 권률은 62살에 이른 1599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도 행주산성싸움에 대하여 말하면 권률을 먼저 생각하게 되며 앞치마에 돌을 날라다 적들을 통쾌하게 쳐물리친 행주산성 녀성들과 방위자들의 용감한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는것이다.

실학의 선구자 리수광

17세기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학문체계로서 실학이 발생하였다. 실학은 당시까지 이룩된 성과들에 토대하여 16세기말부터 17세기에 걸치는 기간에 형성되였다.

실학의 바탕을 마련하고 첫 선구자로 활동한 리수광은 초시기 실학의 대표자이다.

리수광은 병조판서를 지내고있던 리희검의 아들로 1563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윤경, 호는 지봉이라고 일렀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서당에서도 인재라고 하였다. 더우기 그는 한번 주장한것은 굽히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의 활동시기를 보면 봉건적모순이 날로 심화되고 이에 따라 민생고는 극도에 이르고있었다. 여기에 녀진족의 침입이 거듭되였으나 우리의 국력은 매우 약하였다. 통치배들은 날마다 정권쟁탈에 눈이 어두워 돌아가고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어 사람들은 독경주의에 빠져있었다.

리수광은 서당공부를 마치고 19살에 벌써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22살때에는 문과시험에 통과되여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그는 춘추관의 사관을 거쳐 리조좌랑으로 있었다. 그의 벼슬길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그러나 리수광이 29살에 이르던 1592년 간악무도한 왜적들의 침입으로 우리 인민은 대전란을 겪게 되였다. 이때 그는 싸움판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종사관으로서 령남지방으로 진출하였다.

전쟁의 준엄한 시련은 고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곱게 자라난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전쟁을 통하여 리수광은 나라지키는 의로운 싸움길로 스스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 백성들의 장한 모습에 크게 감동되였다.

이와 반면에 제 한목숨이 아까와 원쑤놈들에게 투항하여 앞잡이로 굴러떨어지는 량반관료들의 더러운 몰골을 보면서 커다란 격분을 가지였다.

특히 그는 역노인 년풍이라는 소년이 전쟁기간 자기를 따라나서서 모진 곤난을 군말없이 이겨내며 원쑤놈들의 한복판에 주저없이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고무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리수광은 전쟁이 승리하자 그 요인을 철저히 우리의 순박한 백성들과 의병들의 영용한 싸움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전쟁이후 리수광은 도승지, 례조참판, 리조판서, 대사헌의 관직들을 감당하면서 량반들의 더러운 파벌싸움을 직접 목격하였고 높은 벼슬자리를 위해 서로 물고뜯고 죽이는 비인간적현상들을 체험하였다. 그리하여 리수광은 심리적방황끝에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와 오로지 학문에만 정력을 기울였다.

그는 학문이란 목적을 바로세우고 방향을 옳게 잡아야만 실지로 써먹을수 있는것으로 될수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건져내는 《경국제민》의 공간으로 될 때야만 학문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그의 학문연구는 철두철미 《실사구시》, 《실용지학》으로 관통되였으며 그것은 실학의 리론적기초를 이루게 되였다.

리수광은 현실과 결부된 학문연구를 내세우고 348종의 책들에서 찾아낸 과학기술적, 문화도덕적지식을 문집 《지봉류설》(전20권)에 25개의 부류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지봉류설》은 그의 대표적저작으로서 1614년 7월에 편찬되였다.

리수광은 《지봉류설》의 집필에서 25개의 부류로 나눈것을 다시 182개의 작은 항목으로 나누었고 이것을 또다시 3 400개의 보다 작은 제목으로 정리하여 개개에 자기 견해를 붙였다.

책제목을 류설이라 한것도 일정한 체계에 따라 나눠졌기때문이라 한다.

중요하게 《지봉류설》에는 고조선시기 료동의 위치와 고구려 안시성의 위치에 대한 문제 등 력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서술

되였다.

또한 여기에는 나라방위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장 급한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것이며 무엇보다도 군사를 중시하고 이들의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진적인 견해를 반영하였다.

특히 리수광은 국왕이 살고있는 궁궐은 궁전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해하는 《편혈지》라고 박아썼고 량반관료들이 공부한다는 독서당에 대하여 《독사당》이라고 칭하면서 통치배들의 비인간적행위를 여실히 폭로하였다.

뿐만아니라 《지봉류설》에서는 인재등용에 관한 자신의 견해, 우리 나라의 문학예술연구에 절실히 필요되는 자료, 중국과 일본 등 린접나라들의 사정에 대한 자료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된것으로 하여 의의가 크다.

그러나 《지봉류설》은 저자자신이 량반관료인것으로 하여 그 계급적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였다. 적지 않게 남의 나라를 쳐다보면서 미신적인 음양오행설을 신비화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백성의 눈으로 분석판단한것이 아니라 관료배들의 리익을 대변하여 처리한 본질적인 결함을 내재하고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천문, 력학, 지리, 력사, 제도, 풍속, 종교, 문학 등 각 분야에 걸치는 그자신의 견문과 주견을 내놓았으며 그때까지의 각 부문학자들의 저서와 견해를 인용하기 위하여 소개한 인물만 하여도 2천 265명에 달하고있다.

리수광은 먼저 실사구시적인 립장에서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하늘에 대한 자기의 견해에서 이는 실지 형태가 없고 지구우의 빈 곳이 곧 하늘이라고 하였으며 이로부터 그것(하늘)이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만물을 지배하고있다는 관념론적견해와 종교적환상을 극력 배격하였다.

그는 나라의 지리연구에서도 고구려 안시성의 위치에 대해 국내의 사대주의자들이 이 성을 압록강동쪽에서 찾으려는 견해를 부정하면서 《〈한서〉지리지에 〈안시성은 료동의 속현〉이라고 씌여있고 동사(우리 나라 력사)에도 〈안시성은 료동의 북쪽에 있다.〉

고 씌여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것을 압록강동쪽에서 찾아야 한다고 억지로 주장하는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랭혹히 비판정정해나섰다. 이것은 그자신이 모든것을 실사구시의 립장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밝혀보려 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는《지봉류설》의 지리부문에서 당시까지 알려져있지 않던 동남아시아와 유럽과 여러 나라들의 크기와 우리 나라와의 관계, 지리, 풍속, 그 발전정도를 소개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세계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데도 기여하였다.

그는 개별적지방들에 대하여 쓴 지리책들도 많이 편찬하였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것은 전라남도 순천지방에 대하여 서술한 《승평지》(1618년), 《강동지》(1626년), 전라북도 고부지방을 소개한 《영주지》(1638년), 개성지방을 소개한 《송경지》(1648년) 등을 들수 있다.

리수광은 또한 사회에 대한 견해들을 내놓았다.

그는 여기에서 봉건통치를 유지하려면 인민의 환심을 사야 하며 그러한 정치를 펴야만 나라의 부강발전도 이룩할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백성이란 그들이 어리석다하여 속일수 없는것이며 천하다고 하여 업수이 여길수 없는것이다. 인군이 이를 얻으면 즉 천자가 되며 잃으면 즉 필부(변변치 못한 사나이)가 되는 법이다. 그런즉 백성이란 곧 인군의 하늘인것이다.》

리수광은 바로 여기에서 백성들이 어리석다고 깔보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지 못하면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도 없고 폭력으로써는 결코 나라를 잘 다스려나갈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리수광은 토지문제에 대해서도 《균전제》를 주장하면서 농사짓는 땅이 대토지소유자들에게 집중되고있는 페단을 없애고 나라의 수입을 늘일데 대한 안을 제기해나섰다.

그는 문란해질대로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고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체로 나라에 6년분의 저축이 없으면 옛 사람들은 오히려 급하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1년분의 식량도 없으니 무엇이라고 하

겠는가! 그러므로 균전제를 실시하고 경비를 절약하는것은 곧 수입을 늘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리수광의 경제연구에서 혁신적인것은 상업에서 화폐류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라를 부유케 하는 방법은 화폐에 있다고 한것이다. 그는 화폐를 쓰게 되면 국가재정이 풀리게 된다고 하였다.

리수광은 나라방위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당시 나라의 병력은 18만을 넘었던것이 임진조국전쟁이후 점차로 줄어들어 그때에 와서는 겨우 6만밖에 되지 않는 한심한 형편에 처해있었다.

그는 이런 조건에서 나라방위를 위한 《호패법》을 들고나왔다. 그는 이를 정확히 실시하여 군역복무대상자들을 정확히 장악하며 우리의 고유한 무기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것은 더욱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군사장비에서 화포를 도입해야 한다는것을 중요하게 내세웠다. 뿐만아니라 수군에서는 리순신이 만들어낸 《거북선》으로 장비하여야 한다는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리수광은 당시 더욱 문란해진 과거제도를 신랄히 비판하였으며 근세에 이르러 인재를 뽑는데는 그의 재주로써 하지 않고 오직 뢰물과 협잡으로 하고있다고 비웃으면서 당시 류행하던 시 한수를 개작하여 인용하였다.

젊어서 늬라서 힘써 배울건가
문장으로 출세하기 아예 틀린것을
조정에 가득찬
청색, 자색 례복 차린 귀한 자들
이들은 곧 읽은자 아니거늘

리수광은 또한 금속활자는 중국의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것이라고 자랑하면서 허무주의적인 량반관료들을 비판해나섰고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도덕품성과 재능, 무사들의 애국적기개와 훌륭한 무예, 용감성을 긍지높이 노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특산인 종이, 붓, 인삼, 돗자리들은 다른 나라에는 결코 없는 고급한것이라고 자부심에 넘쳐 자기의 글들에 실었다.

또한 리수광은 앞선 시기 서경덕이나 리이의 진보적인 철학사상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공로가 있다. 그는 자연에 대한 견해에서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인 《기》라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천지산천은 다만 음양인 기이다. 음양이 사귀여 만물이 생기고 추운것과 더운것이 사귀여 만물이 자란다. 사람은 천지의 기를 받아서 생긴다.》

그는 천도(하늘의 묘리)는 영원불변이라는 형이상학적견해를 부정하고 모든것은 변화발전한다는 리론을 내놓았다. 그는 천도는 변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기때문에 더운것과 추운것이 있으며 낮과 밤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대립물의 진화학설을 인정하였으며 《정은 동에로 또한 동은 정에로 전화할수 있으며 무는 유에로, 유는 또한 무에로 전화할수 있는바 이것은 모두 음양의 법칙이다.》고 하였다.

그는 사물현상들의 변화발전과 그 원인에 대하여 밝히면서 사람은 이 법칙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게 되고 성하는데는 반드시 쇠퇴가 있으며 얻는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것이 있게 된다. 이것은 필연적인 영원한 법칙이다. 누구나 이 법칙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리수광은 자연계의 법칙의 객관성과 필연성에 대하여 론하면서 인간은 그 객관적법칙을 피하려 해도 안되며 또 법칙을 제 마음대로 만들어낼수도, 없애버릴수도 없다는것을 인정하였다.

리수광은 또한 당시 명문가였으며 이름있는 평론가이기도 하였다. 물론 그는 전문작가나 시인은 아니였지만 그의 시들은 국내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멀리 중국에까지 널리 퍼지였었다.

그는 말하기를 명문이란 그 분량이 많고 적은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 뜻을 다하는데 있을뿐이라고 하면서 요새 사람들은 어

려운 글을 써서 재주를 부리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꾸짖었다. 그는 특히 신분적으로 천한 노비들의 글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높은 기량을 널리 소개하였다. 그는 다만 신분이 노비였던것으로 하여 좋은 글임에도 세상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파묻혀있던 어무적의 산문글과 백대봉, 류희경, 강형수 등의 시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빛을 보도록 하였고 높이 평가하였다.

리수광의 글이 어찌도 명문이였던지 한번은 우리 사신이 중국 교지에 가게 되였는데 그곳 량반들이 그의 시를 내놓으면서 리지봉이라는분을 아는가고 묻기까지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그의 글이 그 뜻만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째이고 나무랄데가 없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이와 같이 리수광은 후세실학자들이 나아갈수 있는 터전을 닦아놓은 선구자라고 할수 있다.

그의 저서로서는 《지봉류설》외에 시문 32권, 《채신잡록》, 《독서전해》, 《경어잡편》, 《병촉잡기》, 《승평지》, 《찬록군서》 등 많은것들을 들수 있다.

자기 생애에 이처럼 많은 저작을 남긴 리수광은 1628년 12월 65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리수광은 우리 나라 실학의 선구자로서 당시 모순과 부패로 가득찬 봉건사회의 부정적리면들을 일부 폭로하고 진보적인 제안들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역시 자신이 량반이였던 제한성으로 하여 유교의 리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며 봉건적인 명분과 의리를 지킬것을 강조하고 그 도덕과 질서를 보존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연과 사회에 대한 해석에서, 또한 봉건제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서 비교적 진보적인 견해들을 내놓았다.

청석골대장 림꺽정

림꺽정은 양주의 백정으로서 머리가 좋고 용감하며 힘이 센것으로 이름이 났었다. 당시 백정이라면 가장 천한 신분으로서 버들고리를 엮어서 팔며 소, 돼지 등 집짐승을 잡거나 혹은 그 가죽을 이겨서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였는데 노비는 아니라고 하지만 《더럽》다고 하여 노비보다도 더 하대하는 계층이였다.

림꺽정은 이런 백정으로 있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태여났는가 하는 기록조차 전혀 남은것이 없다.

그는 아무리 살려고 버둥거려도 살수 없고 또한 죽으려 해도 죽을 처지가 못되였던 당대의 암담한 현실에 참다못해 항거하여나선 인물이였다.

당시 거의 10여년이나 흉년이 계속되였는데도 이에는 아랑곳없이 통치배들의 세금과 수탈은 날을 따라 늘어나 농민들은 할수없이 피와 땀이 스민 제고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앉게 되였다.

황해감사로 있던 신희봉이 정부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고을들은 쓸쓸하고 골목들은 비여있었으며 전야는 묵어버리고 제대로 먹고 입으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 안되는 형편이였다.》

1553년 3월 옹진현 하나만 보더라도 한달사이에 763호의 농민들이 제 땅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들은 림꺽정이네가 사는 청석골에도 몰려들었다.

참을래야 더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른 농민들은 싸움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림꺽정은 이들의 대장이 되였다.

그는 자기와 같이 천대받는 처지의 용감한 사나이들로 의형제를 뭇는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그들 의형제들은 목숨이 지는 순간까지 형제의 의리를 지킬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림꺽정은 천하장사였다. 그는 수백년래의 장사로서 많은 일화들을 전하고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싸움을 준비하던 어느날 십여명의 의형제들중 한 동생이 안성옥에 갇히게 되였다. 이 소식을 전갈받은 림꺽정은 가슴에 뜨거운것이 불끈 솟아올랐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동생을 구해내기로 마음을 다잡은 그는 생각끝에 물고기장사로 변장하고 십여개의 짐짝들을 꾸리였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병쟁기들을 넣고 우에 마른 물고기들을 덮어 위장을 하였다.

한시바삐 동생을 구원할 생각으로 발걸음을 다그치는데 난데없이 불쑥 흰 수건을 질끈 동인 수십명의 도적들이 쓸어나오더니 당장 짐짝들을 저들에게 바치고 물러가라는것이였다.

림꺽정은 일행에게 눈짓을 하여 짐을 벗어놓게 하였다. 도적떼는 그들이 순순히 짐을 벗어놓는것을 보고는 만족하여 야단들이다.

《그렇게 고분고분하는게 량자간에 다 좋은 일이지 하하…》

잠시 도적들을 살피던 림꺽정은 큰 짐짝들을 두묶으로 묶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짐들을 게까지 옮겨다 드릴랍쇼.》

그는 도적들을 야유하면서 여유있게 짐들을 꾸리는것이였다.

《아니 아니, 그냥 놓아두고 다들 돌아가라.》

대장인듯한 놈이 머리를 흔들며 가라고 한다.

그러나 림꺽정은 열사람이 지고가던것을 두개로 만든 큰 짐짝을 한손에 하나씩 가볍게 들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이것을 지켜보던 도적들은 입을 딱 벌리고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주먹이나 칼 같은것은 그에게 닿지도 못하리라는것을 생각하고 그자리에 엎드렸다.

《장사를 몰라뵈였소이다. 죽여주십쇼.》

《하하하, 모르고 한 일이니 일어들 나시오.》

림꺽정은 호탕하게 웃어넘기더니 그들의 손을 잡아일으켜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들모두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모두 자기 대렬에 넣어주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센 인물이였는가에 대해서는 싸움을 앞두고 서울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갔던 때의 일이 또한 잘 말해준다.

림꺽정이 서울장안에서 친구인 한구라는 사람의 집에 류숙하고있는데 집주인은 그의 힘을 아는지라 통사정을 하는것이였다.

어느날 한구가 서울기생 소향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량배들과 맞다들게 되였다. 그런데 그놈들은 생트집을 걸어 거기에 앉아있던 한구를 사정없이 두들겨팼다. 애매한 매를 맞았으니 한구는 이번통에 그 화풀이를 좀 해달라고 간청했다.

림꺽정은 크게 웃더니 이번길에 서울기생방 구경까지 하게 되였다며 제편에서 오히려 흐뭇해하는 양을 보이는것이였다.

어느날 저녁 볼 일을 다 본 림꺽정이 한구의 집에 앉아 속궁냥을 하고있는데 그가 뛰여들어오더니 그 패당들이 지금 기생의 집에 와있으니 어서 가자고 손을 잡아끌었다. 림꺽정이 한구에게 이끌려 따라나서니 그 패들은 기생집 아래웃방에 가득차있었다.

림꺽정은 아무 말없이 한구와 함께 웃방웃목에 가앉았다.

그때 아래목에 앉았던 패당중의 한놈이 청동화로를 한손으로 번쩍 들어 웃방으로 옮겨놓으면서 떠벌이였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추울테니 불이나 쬐이소.》

이것을 보던 방안사람들이 그의 힘쓰는 거동을 모두 부러운듯 쳐다보는데 한구만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 손 풋힘이나 좀 쓰는군.》

그러자 그녀석은 눈을 부라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짜고짜로 한구에게 덤벼들었다.

그래도 림꺽정은 말 한마디없이 청동화로에 놓인 부저가락으로 숯불만 뒤적이고있을뿐이다.

아무말 없던 그는 별안간 청동화로를 슬며시 끌어당겨 두손으로 그것의 량쪽모서리로부터 오그러들게 하더니 나중에는 그 육중한것을 금시 쪽바가지같이 빠지직빠지직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다.

순간 방안은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자기들과 림꺽정을 대비해본 패당들은 서둘러 밖으로 하나씩, 둘씩 달아나려 하며 움씰댔다.

이때 림꺽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불호령을 내렸다.

《가만, 들어올 때는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맘대로 못나갈테니 그리 알라!》

약이 오른 패당중의 한 성급한자가 림꺽정의 눈통을 묘준하여 벼락같이 내쳤다. 보통사람이 그것을 맞았다면 금시 두쪼박이 날것이였으나 그는 어느새 들어오는 주먹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손으로는 그의 팔을 쭉 올리훑었다.

순간 째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그의 팔에서는 선지피가 줄줄이 흘러내리였다. 팔은 한번밖에 훑지 않았지만 껍데기가 몽땅 벗겨져 류혈이 랑자했다.

그날밤 림꺽정과 한구는 한양불한당패들에게서 두손이 닳아빠질 항복을 받아내였다.

이렇게 림꺽정은 그 누구나가 감히 맞서 겨룰수 없는 힘장사였고 소문난 싸움군이였다.

림꺽정은 자기들의 행처나 종적에 대하여 관청에 고발하는 유다같은자들은 그가 어디에 있건 끝까지 따라가서 목을 따고야말았다고 한다.

림꺽정은 의형제들과 의논하여 먼저 그 시기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던 농민들의 폭동에 호응해나서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중 능력자들을 모아 지휘부를 꾸려나갔다. 그리고 지휘부의 참모장으로는 우연히 맞다들게 된 아전출신의 서림이를 지목하였다.

그래도 서림이가 자기들중에서는 그중 식자가 있었던것이다.

림꺽정은 활동기지를 마련하는데서도 황해도일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평안도와 강원도의 넓은 지역에 거점을 두고 그 지방사람들을 많이 인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때문에 싸움에서도 기동성을 보장하며 관군의 추격을 피하고 재빨리 움직이면서 유인매복의 전법을 많이 쓸수 있었다.

림꺽정폭동군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것은 1559년 3월부터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싸움을 벌려왔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관군과의 큰 싸움이 벌어졌던것이다. 이 싸움에서 관군은 커다란 손실을 당했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전의 싸움은 주로 대낮에 관청을 포위공격하고 악질고을원들과 라졸들의 목을 매여닮으로써 백성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는것이였다. 또한 감옥을 까부시고 갇혀있는 동료들을 구출하거나 관리들을 제압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폭동대오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무장을 가지고 곳곳에서 관군과 맞서 정면으로 싸움을 벌렸으며 로획식량과 물품들을 가난한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들은 때로 급이 높은 량반으로 가장하고 대담하게 정찰을 벌리거나 유인조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때문에 변장한 《량반》의 내막을 알아보지 못한 고을원은 그들을 높은 급으로 접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떤 때는 높은 량반의 가족으로 가장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서울거리로 드나들며 관군의 중요움직임까지 낱낱이 알아내기도 하였다.

림꺽정폭동군의 주요활동거점은 구월산, 서흥, 신계 등 험한 산간지대였다.

그러나 급한 정황이 생기면 관군을 보기 좋게 쳐부시고 평안도 성천, 양덕, 맹산이나 강원도 이천지방으로 종적없이 사라져버리는것이였다.

림꺽정폭동군이 관군의 진출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급히 취해 관군을 타승할수 있은것은 어디까지나 인민들과의 깊은 련계를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이들무장대는 곳곳에 자기의 심복들을 가지고있었으며 지어 서울장안에까지 선을 늘이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있다.

《경기도로부터 황해도에 이르는 지역의 아전들과 백성들이 이와 더불어 비밀히 결탁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관가에서 그들을 잡으

려 해도 인차 먼저 비밀이 루설되므로 그들이 꺼리낌없이 마음대로 돌아쳐도 관가에서는 이를 단속할수 없다.》

수많은 관가의 아전들과 백성들이 림꺽정폭동군의 성과를 제일처럼 기뻐하였으며 적극 도와나섰다.

당황한 관료배들은 《포도절목》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이들을 눌러보려 하였지만 뜻대로 되는것이 아니였다.

《포도절목》에는 무장대를 잡거나 이에 협력하는자들에 대하여서는 그가 량반인 경우에는 높은 벼슬을 주며 노비인 경우에는 《천인》신분을 벗겨주며 고을원인 경우에는 벼슬등급을 올려준다는 등의 내용까지 포함되여있었다.

봉건통치배들의 발악이 심해질수록 농민무장대의 활동은 더욱 치렬한 양상을 띠고 벌어졌다.

농민무장대는 신계고을에 진출하여 수탈자들을 징벌하였으며 일부 성원들은 개성에 머물러있으면서 활동을 벌려나갔다.

신계를 징벌하고 개성부근에 돌아온 림꺽정무장대는 포도관 리억근이 거느린 정부군의 포위공격을 받았으나 드센 반타격으로 적의 포위를 뚫고 《토벌》군을 전멸시켰으며 이때 리억근은 7개의 화살에 맞아죽고말았다.

이 싸움후 관군의 발악에 의하여 림꺽정을 비롯한 일부 무장대성원들의 가족들이 연금되였다.

이에 격분한 무장대는 개성과 황해도 서흥의 관청을 들이치고 옥에 갇힌 가족들을 구출하였다.

농민무장대는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평안도 등 여러 지역으로 민활하게 기동하면서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림꺽정농민무장대가 투쟁을 맹렬히 벌리던 1560년 11월 참모의 역할을 하던 서림이가 관군에 잡혔다.

서림은 봉건정부에 투항변절하여 무장대의 내부형편은 물론 그들이 체포된 림꺽정의 안해를 구원할 계획을 한다는것과 11월 26일 황해도 평산 마산리에 사는 리춘동의 집에 모여 봉산군수 리흠례를 처단할 계획을 세우고있다는것을 고발하였다.

봉건정부는 서림의 진술에 근거하여 선손을 쓰기 위해 정수익을

황해도 선전관으로 내려보내였으며 500명이 넘는 관군을 토벌에 진입시켰다.

그리하여 마산리에서 폭동군과 관군이 접전하게 되였다.

서림의 변절로 머리끝까지 분이 치밀어오른 림꺽정은 폭동자들앞에 나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놈들을 꺼꾸러뜨려 우리의 본때를 보여야 한다. 아우들, 형제들, 큰 맘 먹고 나를 따라나서라.》

림꺽정이 앞장서 달려나가고 대오가 떨쳐나서자 주변의 관군은 무리로 쓰러졌다.

폭동군의 드세찬 기세에 관군은 무장으로나 수적으로 월등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고 벌벌 떨었으며 마지막에는 유인전술에 걸리여 멸살당하고말았다. 선전관인 정수익자신은 폭동군의 기묘한 전법에 자기의 아까운 생명을 잃을가봐 슬그머니 꽁무니를 사리고말았다.

이날의 패전을 보고받은 국왕은 이튿날 높은 급의 관리들에게 비밀편지를 내리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다.

《전에도 무장대가 서울에서 일어나 관군이 패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였는데 이제 또 이런 패전을 하니 나라의 위신을 훼손시키고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한심한 일이로다.》

왕의 탄식에 관료배들도 한숨만 내쉬였다.

이와 같이 평산 마산리에서의 싸움은 서림의 변절도, 봉건정부의 그 어떤 탄압도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백성들의 기개를 결코 꺾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봉건정부는 이번에는 황해도와 강원도에 더 많은 관군을 내모는것과 함께 순경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폭동군은 싸우다 죽을지언정 손을 들수는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계속 굳세게 맞서나갔다.

여기에서 나타난 희극은 가짜 림꺽정을 만들어낸것이다.

놈들은 1561년 정월 폭동군의 한 사람을 잡게 되자 그가 림꺽정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국왕에게 알리였다.

서림이와 대면시켜보니 그가 림꺽정의 의형제중의 한명이라는것이 즉석에서 알려져 웃음거리를 만들어냈다. 이런 일은 그후에

도 여러번 있었으나 림꺽정은 여전히 폭동군을 이끌어 봉건관료배들에게 가차없는 죽음을 안겼다.

이것은 림꺽정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공포의 대상으로 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통치배들은 이렇게 비명을 질렀다.

《무장대의 형세가 더욱 치렬하여져서 원쑤들의 나라와 같이 되였으니 이제 만약 엄격히 다스리는데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 도의 백성들도 모조리 무장대에 내맡기게 될것이며 후환은 이루 말할수 없을것이다.》

혼란과 수세에 빠진 국왕은 황해도감사를 새로 파견하면서 관리들의 비겁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무장대가 두려운줄만 알게 하고 나라가 있는줄은 모르게 하였다.》고 아우성을 쳤다.

무장대의 기묘한 기동전술에 넋을 잃은 봉건정부는 서림을 무장대《토벌》에 끌어냈다. 림꺽정무장대는 봉건통치배들의 책동이 강화될수록 더욱 세찬 투쟁을 벌렸다.

1561년 10월 무장대는 황해도 평산에서 봉건지주들을 습격처단하는 한편 일부 부대는 서울까지 진출하여 투쟁을 벌렸다.

이 정보에 접한 서울의 봉건통치배들은 질겁하여 성문들을 굳게 닫아매고 군사를 풀어 온종일 장안을 수색하는 소동을 벌렸다.

1561년 10월 봉건정부는 결정적인 조치로서 남치근을 토포사로, 백유검을 순검사로 임명하여 황해도와 강원도에 파견하고 대규모적인 《토벌》군을 무장대진압에 내몰았다. 그들은 서울에 무장대의 끄나불들이 있다고 하면서 서울장안을 모조리 수색하는 소동을 벌리였으며 장군들이 장을 보는 일마저 못하게 하고 경비진을 배로 늘이였다.

《토벌》에 나선 관군은 황해도일대를 완전봉쇄하였다. 그리하여 이 일대는 인적이 끊어지고 온 도가 텅 비다싶이 되였다. 이렇게 되자 관군의 포위속에 든 폭동군도 곤난에 처하게 되였다.

준비되지 못한 일부 농민군들은 신심을 잃고 대오를 떠나 마을로 내려가게 되였고 대오는 점차 줄어들게 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곤난한것은 식량부족이였다.

림꺽정은 이런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없이 부대를 이끌고 구월산의 험준한 골짜기로 들어갔다. 하지만 관군은 계속 검질기게 포위망을 좁혔다.

림꺽정은 여러차례 관군의 기습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기묘하게 부대를 구원하였다.

토포사 남치근은 재령에 근거지를 두고 서림을 앞세운 《토벌》군을 내몰아 포위공격해왔다.

어느날 싸움을 벌리던중 림꺽정은 신변에 위험이 닥치자 강을 건너 어느 한 농촌집에 몸을 숨기였다. 그러나 다시금 적의 포위속에 들게 되자 그는 대담하게 활과 칼을 빼여들고 자신을 《토벌군》으로 가장하여 변복하고 그놈들의 대렬에 끼워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빠질 틈을 노리던 그는 그만 서림의 눈에 걸려들었다. 최후의 순간 림꺽정은 모든 힘을 다하여 관군을 쓸어눕혔다.

《이놈들, 나와 맞설자는 나서라!》

추상같은 호령이 하늘땅을 울리였다. 죽음을 각오한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였고 그가 휘두르는 칼날에서는 번개가 번쩍이였다. 사방으로 적군의 머리가 날아오르고 장사의 주먹이 닿는 곳에서는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그러나 그는 수없이 달려드는 관군에 의해 부상을 입고 잡힌 몸이 되였다. 그리하여 1562년 1월 끝내 싸움의 끝을 보지 못하고 최후를 마치게 되였다.

지휘자를 잃은 폭동대오는 점차 흩어지게 되였고 그처럼 황해도 일대를 들었다놓으며 통치배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농민폭동군의 투쟁은 서서히 막을 내리였다. 그러나 폭동군은 3～4년이라는 기간을 자체의 힘으로 무장을 갖추어 대렬을 꾸리고 민활한 싸움을 벌림으로써 봉건관료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폭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규모에서나, 기묘한 전술에서나, 그 조직체계에서나, 견결성과 완강성에 있어서나 이전의 폭동에 비할수가 없는것이였다.

하기에 16세기 농민들의 폭동을 대표하는 이들의 싸움은 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전진시키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허균과 《홍길동전》

《균아, 너도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글을 배워야 하겠다. 너 둘째형의 친구인 리달선생에게서 배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네 누이 란설헌도 글에 밝고 글을 배우고싶어하니 같이 다니도록 하여라.》

허균은 너무 좋아 대답도 제대로 못하였다. 특히는 누이와 함께 다니라는것이 더욱 기뻤다.

《누이, 우리 함께 공부하자, 좋지.》

그는 누이의 팔을 잡아끌면서 싱글벙글 했다.

그리하여 그들 오누이는 어깨도 나란히 당시 이름난 시인인 리달에게서 배우기 시작했다.

허균은 1569년 허엽의 막내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일가친척들은 대부분이 문장가로 이름들이 났었다.

그의 아버지 허엽은 당시 철학가였던 서경덕의 제자였으며 두 형들인 허성과 허봉도 이름난 문장가들이였고 누이 허란설헌은 외국에까지 알려진 시인이였다.

하지만 허균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은 그의 스승인 리달이였다.

리달은 당시 시인으로 이름있던 인물이였으나 일생을 불우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서자라는 죄아닌 죄로 하여 재간이 있어도 하층천민으로 지내게 되였다. 서자를 관리로 등용할수 없다는 봉건법의 구속으로 하여 어찌할수 없는 일이였다. 때문에 그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누구보다도 컸다.

허균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리달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으므로 일찍부터 지배층에 대한 불만의 감정이 강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비들도 시를 읊으면서 으시대는데 우리 선

생님은 뛰여난 재주를 지니였음에도 서자라는 리유로 집안에서 썩고있다. 정말 고르지 못한 일이로구나. 이다음 내가 크게 되면 이런 법은 모조리 뜯어고쳐놓고야말테다.》

선생을 대할 때면 그는 이런 생각이 저도모르게 불쑥 치밀어올랐다. 아무튼 일은 잘되여있는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형편에서는 어찌할수 없으니 가슴만 답답해났다.

허균은 25살이 되던 해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결코 순탄치 못하였다.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였으니 임금의 팔에 매달려 살아가는 관료나부랭이들이 허균을 좋아할리 없었다.

《허균은 천지간의 괴물이다. 도덕에 어긋나는 어지러운 행동은 비인간적이다.

요사스러운짓을 하며 참언(거짓을 꾸미여 남을 헐뜯는 말)을 만들어내는것이 그의 장기이다.》라고 헐뜯었다.

하기에 그는 관직을 버리고 은퇴하려고 몇번이나 마음먹었다.

그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세상의 속된것을 씻어버리고 더러운것을 깨끗이 하는데 족하다.

…산에 좋은것은 없다. 다만 청산을 대하는것이 속된자들을 대하는것보다 나을뿐이다.》

이렇게 그는 현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있었고 그에 항거해나섰다.

허균은 시 《첫 여름》에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전원이 거칠었다
언제나 돌아갈것인가
희여진 머리에도
벼슬생각 아예 없네

적막한 숲속에
봄은 저물었는데

성근 비마저 내려
장미꽃이 젖어드네

장미꽃이란 바로 허균자신이였다.

임진조국전쟁후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지 못하여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곳곳에서 들고일어났다. 이때 서자들이였던 박응서, 서양갑, 심우영 등은 자기들의 처지를 개탄하여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였다. 그러나 굳어질대로 굳어진 악법의 개조가 왕의 귀에 바로들어갈리 없었다.

격분한 그들은 거사를 결심하고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을 규합하였다. 허균은 이들과 손을 잡고 나섰다.

《사내자식들로서 잘못된것을 어찌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이들은 낮에는 병서를 탐독하였고 밤이면 산에 올라 무술훈련에 힘썼다. 그리고 소양강반에 땅굴을 파고는 식량을 저축하였고 해주에서 소금장사를 하여 거사자금을 마련하였다. 또 다른편으로는 량반고관들을 뢰물로 매수하기도 하였고 부정한자들의 죄상을 폭로하여 여기저기에 격문도 내다붙이였다.

허균은 《수호전》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으로 동료들의 별호를 붙이면서 이 패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처음 중국사신을 영접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거사를 계획하였으나 뜻밖에 그 호위가 어찌나 엄하던지 손을 쓸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할수없이 다음기회를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들패중의 한 사람인 박응서가 거사금을 마련하다가 포졸들에게 걸리는바람에 잡히였다. 그는 포도청의 매질에 견디여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계획을 털어놓는 잘못을 범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일부는 몸을 피하고 몇몇은 붙들리게 되였다.

허균은 급히 몸을 숨기였다.

그후 얼마간 시간이 경과하자 허균은 다시 서울에 나타나 일을 시작하였다.

당시 권력을 쥐고있던 리이첨은 허균의 친구였으므로 그가 알선해주는 벼슬에서 일을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항시 마음은 거사

에 가있었다.

그러던중 1618년 8월 10일 남대문에 붙인 벽서가 단서로 되여 허균은 잡힌 몸이 되였으며 역적의 루명을 쓰고 10월 24일에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채 형장에서 목숨을 잃고말았다.

허균은 이처럼 통치배들에 대한 불만으로 하여 그들을 뒤집어엎으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적서차별을 비롯한 일부 악법들을 반대배격하였을뿐 봉건제도 그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역시 허균자신이 봉건량반이였으므로 그 울타리를 크게 뛰여넘을수는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허균이 력사에 남긴 공로는 그의 거사에 있는것이 아니라 소설을 연구하고 《홍길동전》을 비롯한 소설을 남겼다는데 있다.

그는 길지 않은 생애에 많은 작품들을 썼다고 하는데 그자신이 역적의 루명을 쓰고 처단되였기에 오늘에까지 전하여지지 못하고있다.

다만 그의 문집인 《성소부부고》(26권)에 각종 형식의 산문들과 운문작품들이 들어있는데 그중 《성옹지소록》은 우리 나라 명인들에 대한 일화와 전설들이 기본으로 되여있다.

그 한가지 실례로 황형에 대한 일화는 이렇게 되여있다.

《황형은 …강화연미정에 있으면서 일찍 수천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공은 이미 늙었는데 나무는 많이 심어서 무얼합니까?〉라고 물었다.

공은 〈후날이 되면 스스로 알게 될것이네.〉하고 대답하였다.

임진년에 창의사 김천일, 전라병사 최원이 강화도에 들어와 지키면서 의자, 배, 노, 병영, 방패 등을 모두 이 나무로 만들었다.》

이것은 황형이 예견성있는 생각으로 심었던 소나무가 후날 침략자들을 격퇴하는데서 크게 이바지되였다는 이야기로서 백성들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양하는 좋은 자료로 되였다.

허균은 또한 《양잠》, 《양수》, 《양계》, 《양어》 등 여러 부문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자기의 문집에 서술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소설 《홍길동전》의 작가라는데 있다.

그는 소설문학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고 평론도 하였다. 그는 력대 중국의 소설들에 대해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소설가들의 작품 수십편을 얻어보았는데 세 나라, 수나라, 당나라의것을 제외하면 량한의것은 착오가 많고 제나라와 위나라의것은 졸렬하고 …수호지는 재치있고 허구가 있으며 그 구성이 공교롭다.》

소설 《홍길동전》은 실재하였던 력사적사실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우리 나라의 최초의 장편소설이라는데 그 문학사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1500년을 전후로 하여 서울부근에서 홍길동무장대가 활동하였다고 한다. 홍길동은 량반관리로 차리고나서 자기를 《첨지》로 불렀고 무장대를 이끌어 고을관청들을 습격하여 악질관료배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함으로써 통치배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였다고 한다.

력사적기록에는 《강도 홍길동을 잡았으므로 기쁨을 이길수 없다.》는 대목이 있다. 이것은 홍길동이 실재한 력사적인물이며 당시 통치배들을 타파하기 위하여 들고일어난 무장대의 대장이였다는것을 알게 한다.

《홍길동전》은 상, 하편으로 되여있는데 사건발단은 홍재상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소설은 적서차별을 없애야 한다는것을 기본문제로 제기하였다.

홍재상은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으나 자기 집 몸종인 춘성을 얼려서 롱락하며 거기에서 서자인 홍길동이 출생한다. 홍길동은 재간이 있었으나 단지 서자라는것으로 하여 《십세넘도록 감히 부형을 부르지 못하고 비복 등의 천대》를 받는다.

홍재상의 첩인 곡산모는 상속권을 차지해보려고 뛰여난 재주를 지닌 홍길동을 시기하던 나머지 나중에는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민다.

여기에는 홍재상의 본처까지도 끼여든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길동은 선손을 써서 자기를 죽이려 하던 득

재, 관상녀들을 죽여버린 후 집을 뛰쳐나온다.

산속에서 헤매이다가 《도적》의 무리를 만난 홍길동은 뛰여난 재간으로 하여 그들의 대장으로 되며 《활빈당》이라는 무장대를 꾸리여 악질적인 봉건관료배들을 여지없이 족쳐댄다.

홍길동은 합천 해연사를 들이치고 또 함흥감영을 점거하며 도술의 힘을 리용하여서는 나라의 팔도에 동시에 나타나서 창고들을 털어내고 종적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에 당황망조한 왕은 홍길동을 즉시 잡아들이라고 포도대장 리흡을 파견하나 이도 실패를 면치 못한다.

왕은 홍길동이 홍재상의 서자라는것을 알아내가지고 그의 아들 인형에게 경상감사의 벼슬을 주어 그를 잡도록 한다.

그러나 도술을 쓰는 홍길동이 팔도에 각각 나타나니 누가 진짜인지 가늠하지 못하게 된다.

더는 하는수 없게 된 왕은 홍길동에게 병조판서의 벼슬을 준다고 선포한다.

그때에야 왕앞에 나타난 홍길동은 서자들의 불우한 처지에 대하여 일일이 고한다.

《신은 일찌기 전하를 받들어모시는것이 소원이였습니다. 그러나 천한 서자의 신분이므로 높은 벼슬을 할수 없어 전하를 모실수 없었습니다. 신이 사방에 돌아다니며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정에 죄를 지은것은 전하로 하여금 이것을 알아달라는것이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전하께서 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니 실로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홍길동은 서해바다의 섬인 률도에 가서 《리상적인 왕국인 률도국》을 세운 후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다.

소설은 봉건사회의 적서차별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축첩제도의 추악성을 신랄히 비판하고있다.

《홍길동전》은 주인공의 형상과 《활빈당》의 여러가지 활동을 통하여 당시 농민봉기군들에 대하여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고있으며 왕을 비롯한 통치배들의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내였다.

《활빈당》을 뭇고 싸움에 나서는 홍길동의 형상에는 보다 살기

좋은 리상적인 나라를 지향하는 백성들의 소박한 념원이 반영되여 있는것이다.

소설에서 농민봉기군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묘사한것은 우리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형상이다.

물론 농민봉기군의 형상에서 자기들의 빈궁의 원인을 봉건적 사회제도자체에서가 아니라 지방관료들의 악정으로 잘못 리해한것으로 하여 봉건국가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은 부족점이 있으나 농민군의 형상을 창조하였다는것은 성과로 된다.

그러나 소설은 봉건적인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혁할데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홍길동이 률도국왕이 된 다음 백씨와 조씨 두 녀자를 안해로 맞아들이는데서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소설에 묘사된 리상국의 본질은 《어진 임금을 모시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는것이다. 여기에 소설의 제한성이 있다.

하지만 소설 《홍길동전》은 통치배들에게 맞서나선 인간형상을 창조하고 농민봉기군을 등장시켰으며 적서차별과 같은 봉건사회의 악법을 폭로비판한것으로 하여 중세소설의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시인의 지조를 굽히지 않은 권필

권력앞에 시인의 지조를 굽히지 않은 권필은 성격이 매우 강직하고 주장이 있는 작가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치였으나 언제나 자기 작품에 진실을 담았고 권세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권필은 1569년 권벽의 다섯째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호를 석주라고 하였다.

그의 가문은 모두 글에 밝았는데 온 가정이 당대의 시인으로 명성이 있었다.

아버지인 권벽은 강원도 관찰사라는 벼슬에 있었으나 재능있는 시인으로 알려져있었고 그의 형들도 모두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였다.

하기에 권필은 어린시절부터 집안의 영향을 받아 많은 글을 읽었으며 일찌기 창작적기질을 드러내게 되였다.

그는 벌써 아이적에 《달구지군》이라는 시를 내놓았다.

삼사십이 되여도 아직도 총각이라오
농막살이도 못하는 신세라
해마다 산에서 산다오
나무를 찍으며 산에서 산다오

찍은 나무는 어디에 쓰는가
서울거리에 높이 솟을
량반님네 루각감이 된다오

온종일 짐 날라도 열댓걸음

소는 풀이 없어 굶주리고
사람 또한 먹지 못하누나

이렇듯 십여년에
달구지군 자식 없고
소마저 새끼 없으니
일소에 소죽고 사람마저 죽으면

관가에선 어딜 대고
사나운 채찍 휘두를텐가
진정으로 나라에 호소하거니
하루바삐 이런 고역 없애치우라

그는 봉건사회에서 모든것을 깡그리 유린당하는 달구지군의 신세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누구때문인가를 힘주어 폭로하였다.

권필은 성장하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립장이 더욱 강해졌다.

과거시험에 응시하여보고 과거란 인격과 학문을 위한것이 아니라 당파와 세도를 위한 권력의 수단이라고 락인하고 동몽교관이라는 낮은 자리에서 교육에 얼마간 종사하고는 아예 벼슬과 인연을 끊어버리였다.

그는 유교도덕을 반대하였고 형식만을 추구하는것을 증오하였다.

권필은 자기의 글인 《종정도이야기》에서 《귀하게 된자가 반드시 어리석은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1592년 임진조국전쟁이 개시되자 권필은 이름없는 서생에 불과했지만 선참으로 싸움판에 달려나가 자기의 힘을 나라에 바쳐 원쑤들을 징벌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많은 시들을 지었다.

권필이 활동하던 시기는 리조봉건국가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당쟁으로 서로 물고뜯는 한심한 처지에 있었으며 전쟁으로 하여 백성들의 생활은 말할수없이 령락되여있었다.

그러나 관료배들이란자들은 이것을 바로잡을 대신 오직 착취

와 략탈만을 일삼았다.

권필은 바로 이러한 시기 백성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진면모를 실지로 체험하면서 많은 시작품들을 써나갔던것이다.

당시 잘 알려진 인물이였던 장유는 권필의 글에 대하여 《백년래의 처음으로 되는 글》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권필의 시에서 중요한 주제의 하나는 외래침략자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나라를 지켜싸우려는 애국적지향이다.

시 《말우에서 읊노라》, 《적이 물러간 후 서울에 들어가면》은 그 대표작이다.

나라는 간고한 때를 당했건만
조정엔 로숙한 대신 없구나

령남에선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관북땅엔 풍진이 가시지 않았거니
애달픈 이 생각 참지 못하여
머나먼 길을 달려가노라
소리를 높여 출사표 읊으니
뜨거운 눈물이 옷자락을 적시네

말을 타고 싸움판으로 달리면서 소리높이 읊은 이 시에서 보여준것과 같이 그는 나라에 닥쳐온 재난을 근심만 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기 위해 침략자와 맞서나선것이다.

권필은 의병장 고경명의 죽음을 추모하여 지은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외로운 군사로 적을 침이
어려운줄 뉘 모르리
나라 위해 한번 죽음
임의 기개 장하여라

이것은 고경명에 대한 찬가인 동시에 자기 심정의 반영이다.

이러한 시들에서는 이 땅에 대한 사랑과 함께 통치배들에 대한 비판이 결부된것이 특징적이라고 볼수 있다.

권필의 시문학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관료배들의 가혹한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생활을 반영한것이다.

대표작으로 《흑흑 느껴운다》, 《얼마나 안타까와》등을 들수 있다.

시 《흑흑 느껴운다》에서는 부역에 끌려나간 남편이 3년이 지나도록 소식 한장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잠재울길 없어 흑흑 느껴우는 농사집아낙네의 사연을 듣는 형식으로 되여있다.

이내 오마 하고 부역에 나간 남편
3년이 지나도록 소식조차 알길 없고
철 모르는 어린 딸은 젖달라 울부짖는데
몇끼를 굶고나니 움직일 힘조차 없다오

늙으신 부모님
끼니는 또 어이하리
이삭을 줏자고 밭에 나갔으나
겨울에 홑옷을 견디기 어려워라

찬바람 아랑곳없이 불어오고
저녁날씨는 스산도 하이
하는수없이 집으로 돌아오니
설음과 원한에 가슴이 터지듯 하다오

또한 시 《가물을 근심하여》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봄파종 언제 하리 비는 오잖아
논마저 타고나서 먼지가 이는구나
할아범 새벽부터 집을 나서니

샘 찾노라 낮 되도록 오지를 않네

시인은 농민을 대신하여 그들의 안타까움을 읊은것이다.

시 《밤에 잠 못 이루어 류연지에게 써준다》에서는 해종일 피땀흘려도 식구들의 배조차 채울길 없는 농민들의 애달픈 처지를 동정의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제손으로 농사해도
굶주려 살수 없고
선비의 도리로는
살아갈수 없어라

가을철 당해보니
가물도 심했구나
농민들은 끝끝내
고생하기마련일세

그는 이밖에도 《세상살이 어려워라》, 《사금언》, 《까마귀》 등의 시들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노래하였고 동정하였다.

또한 권필의 시에서는 백성들의 고달픔은 아랑곳없이 부화방탕한 생활에 빠져 덧없는 세월을 보내는 통치배들에 대하여 날카롭게 폭로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뜻을 말한다》, 《충주돌》, 《싸우는 개》, 《궁중의 버들》 등의 작품들을 들수 있다.

시 《충주돌》은 할 일없는 통치배들이 자기들의 공적을 후세에 남긴다고 하면서 이른바 《신도비》라는것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속이려드는데 대하여 조소를 보내고있다.

공연히 애꿎은 충주돌만이
날마다 녹아지고 달마다 없어진다네
하늘아, 저 돌을 만들 때

입을 안냈기 다행이지
만일 그 돌에 입이 있다면
응당 할 말이 있을것이네

시 《싸우는 개》에서는 뼈다귀를 먼저 먹겠다고 으르렁대는 개들의 싸움에 관료배들의 당파싸움을 비유하여 폭로하고있다.

그 누가 개에게
뼈다귀를 주었는고
뭇개들이 모여들어
으르렁 싸움판이 벌어졌네
작은 놈은 죽었구나
큰것도 상했거니
이 틈을 노리여
도적이 집안을 엿보누나
주인은 기가 막혀
한밤중에 우는데
비바람에 담장마저 무너졌으니
근심에 근심이 겹치더라

시에서는 왕과 그 처가일속들의 짐승보다 못한 행위를 풍자하면서 그놈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였다.

이와 같이 권필은 시에서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당당한 필치로써 봉건관료배들을 내려찍는 글들을 써내였다.

그러니 이것이 집권층의 눈에 무사할리 없었다.

권필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권필이 볼일이 있어 어느 정도 급이 높은 관리로 있는 친척집에 찾아갔는데 대접을 받아 거나한김에 잠간 사랑방에 드러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술렁대며 주인이 급히 들어오더니 빨리 일어나라는것이였다.

그것은 당시 왕이였던 광해군의 처남인 류희분의 행차가 여기로

오기때문이라고 한다.

류희분으로 말하면 왕의 처남이라는것을 코에 걸고 못하는 짓이 없는자였다.

권필은 이런 놈이 나타난것이 화가 치밀었다.

그는 거듭 일어나라는 권고에도 끄떡없이 두눈을 감고있었다.

얼마후 수많은 사람들의 호위속에 류희분의 행차가 마당에 들어서고 사랑방으로 향했는데도 권필은 네활개를 펴고 방안에 그대로 누워 들어오는 그를 쏘아보기만 하였다. 그러고는 그의 입에서 불쑥 불호령이 터졌다.

《네가 류희분이냐?! 너는 부귀를 누리며 나라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나라가 망하면 네 집도 망할것이다. 네 목이 성할줄 아느냐.》

이 소리에 류희분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였다.

지은 죄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심사는 곱지 않았고 속으로는 크게 벼르고있었다.

권필은 류씨네 어중이떠중이들이 으시대며 거들먹대는 꼴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는 이것을 자기의 시에 담았다.

궁중의 풀은 파릇파릇
꾀꼬리 어지러이 날아예고
온 장안 행세군들
봄볕에 아양 떤다
조정은 너나없이
태평가만 부를적에
뉘라서 뜻했으리
서생이 따끔히 할 말을

원래 시는 첫줄에 《궁중의 풀》이 아니라 《궁중의 버들》이였다고 한다.

류희분패들의 성이 버들 류이므로 《궁중의 버들》인것이였다. 그리고 서생이란 권필자신이다.

권필은 조금도 기가 눌리지 않고 도도하게 맞섰다. 그는 형벌이 두려워 자기의 시를 수정할 사람이 아니였다.

《궁중의 버들》은 궁궐담을 넘어 멀리멀리 자꾸만 퍼져갔다. 이에 당황한 일부 사람들은 권필의 신변을 근심하였다.

류희분일당은 여기에 광해군을 끌어들이고 권필을 죽이려들었다.

그들은 권필에게 반역죄를 지었다느니, 대역부도죄를 지었다느니 하면서 온갖 박해를 다했지만 그는 두려움을 몰랐다.

그는 죽음의 마지막순간까지 고상한 시인의 량심을 빛나게 지키였고 당당히 맞서나갔다.

그때 왕의 외가친척중의 한사람이였던 조국필이 달려와 임금앞에 잘못했다는 글을 올리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수 있다고, 빨리 그렇게 하라고 거듭 권하였지만 그는 태연히 웃음을 지으며 힘있게 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그렇게 할수 없어.》

이렇게 권필은 《궁중의 버들》이라는 시 한수로 인하여 4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시인이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공사견목록》에는 이렇게 지적되여있다.

《석주는 나라의 정세에 분개하여 시를 지어 풍자하였고 또 능히 권세있는 가문과 세도쓰는 집안사람들의 면전에서 욕을 보았다. 광포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기개는 대개 이러하였다. 그의 기골과 결의가 족히 새 임금이 사는 대궐에 항쟁하여 임금의 눈앞에 있는 퇴돌에 머리를 바스면서 바른 말을 할수 있는 정도건만 그는 도리여 방안의 사소한 일로 화를 입어 죽음으로 마땅한 자리를 얻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아까운가.》

권필은 산문도 일부 남기였다. 대표작으로는 《주생전》을 들수 있다.

이 소설은 그가 25살이 되던 해에 쓴것인데 당시 명나라군대로서 임진조국전쟁때 우리 나라에 와있던 주생을 만나 그로부터 얻은 하나의 실화에 근거하여 창작된것이다.

이것은 17세기 우리 나라 소설문학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한 의의있는 작품의 하나이다.

그러나 권필은 자기 글에 당시 세차게 타번지고있던 농민들의 의로운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봉건제도 그자체를 반대하여나서지는 못하였다.

다만 그것을 폭로하고 비판하는데 그쳤을뿐이고 《어진 왕》의 《어진 정치》를 바랐던것이다.

이것이 그의 창작에서 주되는 부족점이다.

그도 역시 량반이였기에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권필은 많은 시와 산문들을 썼으나 그의 강직한 성격과 불우한 생애로 하여 적지 않은것들이 없어져 현재 5백여수의 시와 《주생전》이 남아있다. 하지만 권필은 17세기 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시인이였다.

국문시조의 경지를 개척한 윤 선 도

《자, 이자 배운것을 한번 읽어보아라.》

엄격한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윤선도는 방금 배운것을 거침없이 내리외웠다.

《잘했다. 오늘은 그만하도록 하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들은 일어서지를 않았다.

《아버지, 그런데 왜 우리 사람들은 한문으로 시를 썼을가요? 더 힘들고 재미도 없게요.》

《그것은 말이다, 세종대왕이 우리 글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우리 글이 없었기때문이다. 그러니 중국의 한자를 얻어쓸수밖에. 그런데 그것이 습관으로 돼버렸거든.》

《그런가요? 지금은 우리 글이 생겼는데 이젠 우리 글로 써야지요 뭐.

그걸 좀 배워주세요. 난 우리 글로 된것이 더 좋아요.》

아들은 끈질기게 졸라대였다. 그리하여 그들부자는 다음날부터 우리 말 시조를 배우기로 약속하였다.

다음날 아버지와 아들은 언약대로 우리 시조를 배웠다. 윤선도는 들을수록 우리 말이 좋았다.

《나도 훌륭한 시조를 지어볼테야. 얼마나 좋아!》

그는 옛날 왕방연의 시조를 읽으면서 이런 결심을 다지였다.

윤선도는 한마디로 시조분야를 우리 말로 새롭게 끌어올린 인물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량반사대부들이 큰 나라에 대한 숭배에 빠져 신성한 우리 글을 천한것으로 여기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있던

시기에 우리 글의 우수성을 더욱 살리여 눈에 보이듯 그림처럼 그리면서 시조를 창작하였다는데 공로가 있는것이다.

윤선도는 1587년 6월 서울에서 태여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살던 량반집안이였으며 재산도 대대로 내려오면서 물려받아 매우 부유했다. 그의 조상들중에는 글재주에 뛰여난 사람들도 많았다. 증조할아버지인 윤구만 들어보아도 글을 잘 지어 멀리 중국에까지 소문이 났었다. 아버지인 윤유심도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인물로서 글귀에 매우 밝았다. 어린시절 부유한 생활속에서 근심걱정이란 모르고 자랐지만 그의 전생애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의 성장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은 임진조국전쟁이였다.

그가 5살 나던 해에 전쟁이 터진것이다.

전쟁이 일어나 열흘쯤 지난 어느날 그는 왜군을 피해 평양으로 피난길에 오른 임금의 행차를 보게 되였다. 임금은 가마에 올라있는데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어있는 모습이 말할수없이 처량하였다. 물론 호위군사들과 궁녀들이 그뒤를 따르고있어 웅대하기는 하였지만 역시 서글픈 행렬이였다. 지금까지 그의 어린 생각으로써는 임금이라면 오직 존엄있는, 누가 감히 다치지 못하는 인물로만 상상해왔었다. 그런데 보니 그런것만도 아니였다.

전쟁통에 어린 윤선도는 몇차례나 피난을 다니였다. 이 과정에 그는 왕의 행차와는 반대로 하나같이 일떠서 왜놈들과 싸우는 백성들의 장한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어린 가슴속에 애국의 뜻을 키워나가게 되였다.

아버지는 가끔 아들을 불러 이런 훈계를 하였다.

《선도야, 너도 이제는 10살이 넘었으니 세상일을 바로 보고 판단할줄도 알아야 하느니라. 이번 우리가 왜놈들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것은 첫째로 나라의 대신들이 일을 쓰게 하지 못했기때문이다. 대신들이 자기 욕심만 차리다나니 그릇된 일인줄 알면서도 넘기고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때문이다.

너는 아직 어리지만 이번 전쟁을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야 하

느니라. 네가 벼슬에 나서면 언제나 의로움을 지키도록 노력해라.》
그리하여 윤선도는 자신이 벼슬길에 나서서 나라일을 보게 되면 이런 불행한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할것을 결심하였다.
이런 결심을 하였기에 그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나갔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저런 일을 다 잘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선도는 아버지를 스승으로 모시였으며 유교경전뿐아니라 의학과 지리, 음향학에 대해서까지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하여 1612년 25살에는 진사시험에 합격하였다. 벼슬의 첫문을 통과한것이다.
그러나 임진조국전쟁후 더욱 격렬해진 당파싸움으로 조정은 소란하였다. 윤선도는 집권파들에게 몰리여 처음 함경도 경원(당시)으로 류배를 가게 되였다. 그 리유는 례조판서를 지내던 리이첨의 부정행위에 격분하여 이를 상소한것이 왕에게 채 닿기 전에 이들에게 발견되여 모해에 걸린것이였다. 새파랗게 젊은 진사가 건방지다는것이다. 당시 윤선도는 성균관에 들어가서 학문을 닦고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의 부정적현상을 목격하게 되였던것이다. 이로부터 시작된 그의 류배살이는 무려 3차에 걸치는 17년긴 세월이였다.
류배살이기간 그는 오직 독서에만 파묻혀 시조들을 써나갔다.
이 시기 그는 자기의 글들에서 부모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북쪽 국경에서 류배살이를 하면서》, 《우휴요》 등 여러편을 창작하였다.
8년간에 걸치는 경원에서의 류배살이가 끝나자 고향에서 책을 읽으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허무한것이였다. 윤선도는 앞으로의 일들을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사내대장부로 집에만 눌러앉아있을수는 없는 일이였다. 때문에 그는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42살이라는 나이에 과거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가 낸 시험지가 잘 쓴것으로 평가되여 윤선도는 왕자들의 교육을 맡아보게 되였다.
그후 윤선도는 성주현감도 지내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현상들이 판을 치는 정계에서는 결코 자기의 청렴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가서 농사나 지으려고 하였다.

조상들의 고향인 해남에서 지내던 윤선도는 1636년 12월 녀진족이 침입해오자 나라 지키는 싸움에 나섰다.

그는 고향의 청년들을 불러일으켜 배를 타고 강화도로 향하였다.

하지만 가던 도중 통치배들이 적과 화평을 맺었다는 참을수 없는 소식에 접하자 분격하여 배길을 제주도로 돌리였다.

제주도로 가던 배는 중도에 보길도라는 풍치좋은 섬을 만나게 되였다.

섬은 과연 아름다왔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옛날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있는듯싶었다. 섬을 내려다보는 윤선도는 완전히 그 경치에 매혹되였다.

그는 자기의 머슴을 불렀다.

《덕쇠야, 탐라(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없어. 여기가 더 좋은걸.》

마침내 그는 여기에 눌러앉기로 결심하였다.

윤선도는 여기에 짐을 풀고 집들을 지었으며 격자봉이라는 산아래에 《락서재》로 부르는 서재를 꾸리였다.

이 시기 그는 오직 학문연구와 창작활동에만 전념하였다.

하지만 1638년 간신들의 부추김을 받은 왕 인조는 싸움이 끝났는데도 윤선도가 자기를 찾아서 인사를 올리지 않았다는 죄 아닌 죄목으로 그를 또다시 경상도 영덕땅으로 정배를 보내였다.

이듬해에 풀리여 고향으로 돌아온 윤선도는 은거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조들과 장시들을 썼다.

두차례의 귀양살이에서 그는 세상의 복잡다단한 일들이 모두 싫어져 오직 시에만 정을 쏟아부었다.

이 시기 대표작으로는 《산중신곡》, 《산중속신곡》, 《어부사시사》들을 들수 있다.

그는 류배살이과정과 고향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평민들과 많이 접촉하게 되면서 그들의 고달픈 생활형편도 알게 되였고 따

라서 농촌생활을 그린 시조들도 많이 쓰게 되였다.

비 오는데 들에 가랴 사립닫고 소 먹여라
마이 매양이랴 장기 연장 다스려라
쉬다가 개는 날 보아 사래긴 밭 갈리라

시조묶음으로 되여있는 《산중신곡》에서는 산중생활의 감정을 노래하면서 산수속에 묻혀 정갈하게 살아가는 기쁨이 좋다는것을 노래하였다.

내 성이 게으르드니 하늘이 아로실사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게
다만당 다틀이 없은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환자 타슨다 하고 그른사 그르다 하니
이제의 높은 줄을 이렁구렁 알관지고
어즈버사람이야 외랴 해운의 탓이로다

번거로운 세상을 떠나 한적한 자연속에 묻혀 조용히 살아가는 즐거움을 그는 우리 말로써 엮어나가고있는것이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 슳도록 노니노라
그밖의 다른 일이야 부러울게 있으랴

그야말로 보리밥 풋나물의 맛이 풍기는듯싶다.

《산중신곡》에 들어가는 련시조 《다섯 벗의 노래》에서는 물, 돌, 솔, 대, 달 등 다섯 벗을 통하여 시인자신의 신념과 생활에 대한 립장을 밝히고있다.

그 다섯 벗이야말로 변함이 없고 뜻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시적대상들이였다.

시에 노래된 물, 돌, 솔, 대, 달은 모두 인격화되여있어 서정적 주인공의 깨끗한 지조를 반영하고있다.

(물)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적이 하도 많다
좋고도 그칠새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돌)
꽃은 무슨 일로 피여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난닷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소나무)
더우면 꽃피고 치우면 잎지거늘
솔아 너는 어이 눈서리도 모르난다
구천에 뿌리 곧은줄은 글로 하여 알리라

(대나무)
나무도 아닌것이 풀도 아닌것이
곧기는 뉘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난다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달)
작은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한이 또 있나야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시인은 흐르는 물처럼 깨끗하게, 바위처럼 변함없이 꿋꿋하게, 언제나와 같이 한모습그대로인 소나무와 대처럼 곧바르게 살아가려는 자신의 립장과 자세를 그리고있다.

윤선도의 대표작인 《어부사시사》는 먼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어부사》에 기초하여 련시조형태로 창작된 장시이다.

시는 고기잡이의 즐거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네 계절에 따라 각 계절마다 10권씩 하여 모두 40권으로 된 방대한 작품이다.

시는 온갖 꽃이 피여나 물가의 흥취를 돋구는 봄으로부터 시작하여 록음 짙은 산천에 꾀꼴새 우는 여름을 거쳐 비단같은 단풍이 산야를 덮는 가을을 지나 눈꽃 피여나는 겨울에 이르기까지 제나라 산천에 대한 사랑과 애착의 정을 노래하였다.

봄에 대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것이 잘 안겨온다.

(봄)
앞개에 안개 걷고 뒤뫼희 해 비친다
배 떠라 배 떠라
밤물은 거의 듸고 낮물이 밀어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강촌 온갖 곶이 먼빛이 더욱 좋다

날이 덥도다 물우희 고기떴다
닻들어라 닻들어라
갈매기 둘씩셋씩 오락가락 하나고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낚시대는 쥐여있다 탁주병 실었느냐

윤선도는 조선어시조의 경지를 개척한 시인으로서 조선어의 풍부성과 그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었다.

우는것이 뻐꾸긴가 푸른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집이 내속에 나락드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말가한 깊은 소에 온갖 고기 뛰노나니

(여름)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마라
닻들어라 닻들어라
대삿갓 썩노라 도롱이 가져오너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날 따르는가 절 따르는가

(가을)
옷위에 서리 내리나 추운줄 모르노라
닻내려라 닻내려라
고기배 좁다 하니 뜬 세상은 어떠한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래일도 이러하고 모레도 이러하리

(겨울)
얕은 내 고기들이 먼 강에 갔나니
돛달아라 돛달아라
잠시나마 날 좋은 때 바다에 나가보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미끼가 좋으면 큰 고기 문다 하니

그러나 시에서는 주인공인 고기잡이하는 할아버지가 근로하는 백성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노래한것이 아니라 다만 소란한 사회, 정계를 멀리 떠나 경치나 즐기고 고기잡이나 하는것으로써 세월을 보내려는 시인의 기분을 그리였다는데 그 약점이 있다.

정서가 깊었던 윤선도는 가야금도 즐기였다. 벼슬길에 나서기 전에는 날마다 가야금을 탔다. 그리고 당쟁으로 쫓기워 고향에 와서도 가야금을 탔던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가야금의 명수로 이름이 났던 권해와도 매우 다정한 사이로 있었다.

가야금과 관련하여 지은 윤선도의 《고금령》이란 시조도 있다.

버렸던 가야금을 줄없어 타보니
청아한 옛소리 반가이 나는구나
이 곡조 알리 없으니 적어놓아두어라

윤선도는 생애의 말년에도 편안치 못하였다. 자기가 가르치던 효종이 왕이 된 후 서울에 올라가 옛날과 다름없이 동부승지로 있었지만 반대파들의 질투는 날을 따라 더해만 갔다. 그러던중 1659년 효종이 죽게 되자 상복을 얼마동안 입겠는가 하는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윤선도는 집권파들의 비위를 거슬려 세번째로 삼수에 류배를 갔다가 81살이 되여서야 풀려났다.

이때 윤선도는 당쟁의 피해에 대하여 상소하였는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반드시 망할것이다.》고 하면서 당쟁을 없앨데 대하여 건의하였다.

윤선도는 1671년 6월 락서재에서 8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전란이 두차례씩이나 겹치는 시기에 살면서 나라의 어지러움을 바로잡아보려고 애썼지만 지배계급출신의 계급적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었으므로 일생을 통하여 백성의 큰 힘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의 창작에 그대로 반영되였다.

하지만 윤선도는 우리 글로 된 수많은 시조와 장시들을 남긴것으로 하여 우리 문학사에서 지울수 없는 존재로 된다.